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2014.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2014.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4. 04

제 출 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04월 30일

○ 주관 기관: ㈜문화기획학교
○ 책임 연구원: 김 승 민
○ 부책임연구원: 황 상 훈
○ 공동 연구원: 오 양 열
윤 성 진
이 흥 재
정 정 숙

목 차

제1장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개요 1

제1절 : 평가 연구 개요 2

제2절 :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3

제3절 : 평가체계 8

제2장 평가 종합 17

제1절 : 평가 종합 18

제2절 : 사업별 평가 종합 26

제3장 공통 평가 항목 및 사업별 평가 53

제1절 : 공통 평가 항목 54

제2절 :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96

제3절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14

제4절 : 시 · 도기획지원사업 129

제5절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135

제6절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44

제7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64

제4장 지역별 평가 187

제1절 : 서울 188

제2절 : 부산 199

제3절 : 대구 214

제4절 : 인천 228

제5절 : 광주 241

제6절 : 대전 254

제7절 : 울산 268

제8절 : 경기 280

제9절 : 강원 293

제10절 : 충북 307
제11절 : 충남 321
제12절 : 전북 334
제13절 : 전남 349
제14절 : 경북 362
제15절 : 경남 375
제16절 : 제주 388

제5장 지역협력형사업 개선 과제와 방향 401
제1절 : 총평 402
제2절 : 공통 평가 항목 404
제3절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406
제4절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407
제5절 : 시 · 도기획지원사업 409
제6절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411
제7절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413
제8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414
제9절 : 예술인 및 예술단체 설문 종합의견 413

제6장 평가 분석과 시사점 431
제1절 : 2012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 432
제2절 : 2009~2013년도 5년 간 평가 결과 비교 438

제7장 부록 451
제1절 : 지역협력형사업 관객 만족조 조사 표준 모델 452
제2절 :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지표 463

표 목 차

[표 1]	평가위원 명단	8
[표 2]	2013년 현장평가 진행 경과	11
[표 3]	2013년 현장평가 진행 일정	12
[표 4]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사업 체계 변경	14
[표 5]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점수 체계의 변경	14
[표 6]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가중치의 변경	15
[표 7]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추진일정 및 계획	16
[표 8]	2013년 지역별 종합 평가 등급	18
[표 9]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등급 구분 기준	18
[표 10]	2012년~2013년 종합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3
[표 11]	2012년~2013년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3
[표 12]	2012년~2013년 육성지원사업 부문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4
[표 13]	2012년~2013년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4
[표 14]	2012년~2013년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5
[표 15]	2012년~2013년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25
[표 16]	공통평가 항목 지역별 등급	26
[표 17]	특성화지원사업 종합결과 지역별 등급	30
[표 18]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	34
[표 19]	육성지원사업 지역별 등급	35
[표 20]	시 · 도기획사업 지역별 등급	39
[표 21]	레지던스지원사업 지역별 등급	42
[표 22]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역별 등급	45
[표 23]	공연장상주사업 지역별 등급	48
[표 24]	인천 지역의 한지협 개최 회의 및 워크숍 참여 현황	58
[표 25]	부산문화재단 직원들의 2013년 독서토론 도서 및 주제	63
[표 26]	대구지역 최근 5년간 육성지원사업 신청대비 선정률 비교	65
[표 27]	대구 지역 육성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70
[표 28]	경기 지역 심의위원 개선안	73
[표 29]	경기 지역 사업별 전문가 평가방식	74

표 목 차

[표 30]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절차	75
[표 31]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전문가 현장평가서	76
[표 32]	서울문화재단 평가 환류 방침	78
[표 33]	대구문화재단 dgtickets의 실적 및 역할	82
[표 34]	부산 문화정보 어플리케이션 화면 소개	83
[표 35]	광주문화재단과 제주문화재단 간 레지던스프로그램 교류사업	86
[표 36]	대구지역 2012년~2013년 상주단체 작품제작현황 비교	89
[표 37]	대구지역 상주단체 관람객수 2012년~2013년 비교	90
[표 38]	서울문화재단 비계량적 사업성과 - 예술창작 현장 활성화 성과	91
[표 39]	서울문화재단 비계량적 사업성과 - 지역문화 예술생태계 구축사례 '사이사이'	91
[표 40]	대구 지역 공연장상주단체 창작 작품의 축제초청 사례	93
[표 41]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육성 성과 사례	93
[표 42]	경기문화재단 비계량적 성과 – 지원사업 수상(인증)실적 사례	94
[표 43]	대구문화재단 지원 신청 자격	99
[표 44]	인천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지원 자격 변경	100
[표 45]	인천문화재단 지원자격 – 인천 연고의 기준 사항	101
[표 46]	대구문화재단 Dream Stage 구축 개요	103
[표 47]	대구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집행 비율 추이	106
[표 48]	2013년도 강원지역 사업별 기금매칭률 비교	107
[표 49]	대구문화재단 만족도 조사 실행구조도	109
[표 5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111
[표 51]	경기문화재단 특성화지원사업 설계 자문회의	111
[표 52]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별 운영위원회	112
[표 53]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 정기 포럼 개최	113
[표 54]	부산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116
[표 55]	대구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117
[표 56]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118
[표 57]	경기문화재단 단계별 지원 방식	125
[표 58]	대구문화재단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육성지원사업의 사업별 목표	126

표 목 차

[표 59]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소재 작품 지원 현황 126
[표 60] 강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린 지원사업 사례 127
[표 61]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지원신청 및 심사 기준 166
[표 62] 대구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매칭 비율 169
[표 63] 울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집행 내역 169
[표 64] 부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실적 173
[표 65] 대전문화재단 기부금 조성 현황 176
[표 66]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현황 182
[표 67]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단체별 교류 사업 183
[표 68] 전남문화예술재단 공연장상주단체 요구 수용 여부 184
[표 6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190
[표 70] 서울문화재단 2013 정책토론회 현장 이미지 190
[표 71] 서울문화재단 복수지원 발생시 처리 기준 192
[표 72] 인천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예산 및 집행률 232
[표 73]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243
[표 74] 경기문화재단 평가 및 환류 체계 282
[표 75] 강원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성과 비교 295
[표 76] 강원문화재단 레지던스지원사업 성과 298
[표 77] 강원문화재단 만족도 조사 결과 298
[표 78] 충북문화재단 지역예술계 소통 노력 311
[표 79] 충남 지역 전수평가 및 조건부 선택평가 대상 사업개수 323
[표 80] 충남 지역 계량적 사업 성과 323
[표 81] 전북 지역 자체평가 평가배점 참고자료 336
[표 82] 전북 지역 계량 성과 337
[표 83] 전북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규 사업 선정현황 339
[표 84] 전북 지역 매칭 현황 339
[표 85] 제주문화예술재단 선정 단체 수 391
[표 86]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예술인(단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417
[표 87] 종합 평가 2012~2013년 등급 비교 432

표 목 차

[표 88]	공통 평가 항목 평가 2012~2013년 등급 비교	433
[표 89]	육성지원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434
[표 90]	시 · 도기획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435
[표 91]	레지던스지원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436
[표 92]	공연장상주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437
[표 93]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기금 규모 추이(2009~2013)(1)	440
[표 94]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기금 규모 추이(2009~2013)(2)	441
[표 95]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매칭 추이(2009~2013)(1)	443
[표 96]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매칭 추이(2009~2013)(2)	444
[표 97]	광역자치단체별 종합 평가 등급 비교(2010~2013년)(1)	449
[표 98]	광역자치단체별 종합 평가 등급 비교(2010~2013년)(2)	450

그 림 목 차

[그림 1]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범위	5
[그림 2]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단계별 평가 추진절차	9
[그림 3]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19
[그림 4]	종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20
[그림 5]	공통평가 항목 지표별 평균 점수	27
[그림 6]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28
[그림 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지표별 평균	31
[그림 8]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사업별 합산	32
[그림 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33
[그림 10]	육성지원사업 지표별 평균	36
[그림 11]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38
[그림 12]	시 · 도기획사업 지표별 평균	40
[그림 13]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41
[그림 14]	레지던스지원사업 지표별 평점	43
[그림 15]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44
[그림 16]	우리가락우리마당 지표별 평점	45
[그림 17]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7
[그림 18]	공연장상주사업 지표별 평점	49
[그림 19]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50
[그림 20]	공통평가 항목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 결과	54
[그림 21]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비전 반영도 평가 결과	55
[그림 22]	대구지역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체계도	56
[그림 23]	부산 문화재단 2020 비전과 3대가치 개념도	57
[그림 24]	공통평가 항목 – 지원사업 연계활동 평가 결과	58
[그림 25]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재단 설립여부 평가 결과	60
[그림 26]	광주문화재단 기구표 (2013년 2월 기준)	61
[그림 27]	공통평가 항목 - 사업추진역량 보유 여부 평가 결과	62
[그림 28]	공통평가 항목 - 성과 목표 유무 및 적합성 평가 결과	64
[그림 29]	대구지역 최근 5년간 지원신청률 및 지원선정건수 추이	65
[그림 30]	대전 지역의 지원사업별 성과 목표 기술 및 관리	66

그 림 목 차

[그림 31] 공통평가 항목 -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평가 결과 67
[그림 32] 공통평가 항목 - 지원체계의 적절성 68
[그림 33] 대전 지역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추진일정 69
[그림 34] 공통평가 항목 - 심의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71
[그림 35] 대전문화재단의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제도 단계별 심의안건 72
[그림 36]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제도를 적용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단계별 추진일정 72
[그림 37] 공통평가 항목 - 평가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74
[그림 38] 광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추진체계도 77
[그림 39] 공통평가 항목 - 평가내용의 환류 평가 결과 78
[그림 40]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수요자와 소통 노력 평가 결과 81
[그림 41]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공감 그리고』 82
[그림 42] 공통평가 항목 - 지역 간 ·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 여부 84
[그림 43] 대전문화재단의 교류 · 협력 사업 내용 85
[그림 44] 공통평가 항목 - 사업성과 평가 결과 88
[그림 45] 공통평가 항목 - 계량적 사업성과 평가 결과 88
[그림 46] 공통평가 항목 - 비계량적 사업성과 평가 결과 90
[그림 47]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추진 역량 평가 결과 97
[그림 48]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 98
[그림 49] 특성화지원통합 - 예술인(단체)간의 교류 협력 수준 평가 결과 101
[그림 50] 대구문화재단 'Dream Stage' 온라인 안내 페이지 102
[그림 51]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평가 결과 104
[그림 52] 특성화지원통합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105
[그림 53] 특성화지원통합 -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 평가 결과 107
[그림 54]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평가 결과 108
[그림 55] 대전문화재단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9
[그림 56] 특성화지원통합 -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110
[그림 57] 육성지원사업 -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 수준 평가 결과 114
[그림 58] 육성지원사업 - 사업수혜단체 적절성 114
[그림 59] 육성지원사업 - 참여예술단체(예술인) 선정의 적절성 119
[그림 60] 육성지원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121

그 림 목 차

[그림 61] 서울문화재단 연극 지원정책 방향 123
[그림 62] 서울시 연극분야 발전 비전 및 추진체계 123
[그림 63] 시 · 도기획사업 – 사업 추진 역량 129
[그림 64] 시 · 도기획사업 –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평가 결과 130
[그림 65] 시 · 도기획사업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131
[그림 66] 시 · 도기획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133
[그림 67] 레지던스지원사업 – 사업 추진 역량 135
[그림 68] 레지던스지원사업 –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평가 결과 136
[그림 69] 레지던스지원사업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평가 결과 137
[그림 70] 레지던스지원사업 –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평가 결과 139
[그림 71] 레지던스지원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140
[그림 72] 레지던스지원사업 –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평가 결과 142
[그림 73] 우리가락우리마당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144
[그림 74]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일정 및 공연 횟수 준수 여부 평가 결과 145
[그림 75] 우리가락우리마당 – 계획된 행사장소 사용 여부 146
[그림 76]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공연시간 준수 여부 평가 결과 146
[그림 77] 우리가락우리마당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행사 구성 평가 결과 147
[그림 78]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객참여도 및 집객 수준 평가 결과 148
[그림 79] 우리가락우리마당 – 결과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평가 결과 149
[그림 80] 우리가락우리마당 –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평가 결과 150
[그림 81]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관단체 출연 회차 관련 평가 결과 151
[그림 82] 우리가락우리마당 – 신생단체 출연 관련 평가 결과 151
[그림 83] 우리가락우리마당 – 출연진 수준 및 전문 국악예술단체 출연 여부 평가 결과 152
[그림 84]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구성 및 연출 평가 결과 153
[그림 85]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평가 결과 154
[그림 86]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관람 및 무대 시설 확보 여부 평가 결과 155
[그림 87]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보 및 운영 여부 평가 결과 155
[그림 88] 우리가락우리마당 – 국내외 관람객 관람 편의를 위한 해설 및 안내 평가 결과 156
[그림 89]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 성과 평가 결과 158
[그림 90]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채널 활용 여부 평가 결과 158

그 림 목 차

[그림 91] 우리가락우리마당 - 상시공연홍보 채널 운영 여부 평가 결과 159
[그림 92]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 보도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창출 여부 평가 결과 160
[그림 93]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161
[그림 94]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평가 결과 162
[그림 95]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자 만족도 수준 162
[그림 96]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의 연계 평가 결과 163
[그림 97]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 결과 164
[그림 98] 공연장상주사업 - 선정된 단체의 역량 평가 결과 165
[그림 99] 공연장상주사업 -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평가 결과 168
[그림 100]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평가 결과 171
[그림 101] 공연장상주사업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172
[그림 102] 공연장상주사업 -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 평가 결과 176
[그림 103]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지원 금액 177
[그림 104]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 수혜 대상의 만족도 평가 결과 178
[그림 105] 대전문화재단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179
[그림 106]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평가 결과 180
[그림 107] 공연장상주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181
[그림 108] 강원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교류 현황 182
[그림 109] 공연장상주사업 - 지역문화수요의 반영도 평가 결과 183
[그림 110] 공연장상주사업 - 모니터링 결과 186
[그림 111] 서울 지역 종합 평가 결과 188
[그림 112] 서울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89
[그림 113]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191
[그림 114]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193
[그림 115]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194
[그림 116] 서울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197
[그림 117] 부산 지역 종합 평가 결과 199
[그림 118] 부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00
[그림 119] 부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03
[그림 120] 부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05

그 림 목 차

[그림 121] 부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06
[그림 122] 부산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09
[그림 123] 부산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10
[그림 124] 부산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211
[그림 125]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12
[그림 126] 대구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14
[그림 127] 대구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15
[그림 128] 대구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17
[그림 129] 대구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18
[그림 130] 대구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20
[그림 131] 대구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23
[그림 132] 대구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24
[그림 133] 대구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225
[그림 134] 대구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26
[그림 135] 인천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28
[그림 136] 인천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29
[그림 137] 인천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31
[그림 138] 인천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32
[그림 139] 인천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34
[그림 140] 인천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37
[그림 141] 인천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38
[그림 142] 인천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39
[그림 143] 광주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41
[그림 144] 광주 지역 공통 평가 결과 242
[그림 145] 광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44
[그림 146] 광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45
[그림 147] 광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46
[그림 148] 광주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49
[그림 149] 광주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50
[그림 150] 광주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251

그 림 목 차

[그림 151] 광주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52
[그림 152] 대전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54
[그림 153] 대전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55
[그림 154] 대전문화재단 정.현원표 256
[그림 155] 대전문화재단 연도별 정원증가 및 부서증설 추이 256
[그림 156] 대전문화재단 사업 추진 일정 257
[그림 157] 대전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58
[그림 158] 대전문화재단 2013년도 막월문화포럼 개최내역 259
[그림 159] 대전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59
[그림 160] 대전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60
[그림 161] 대전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63
[그림 162] 대전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64
[그림 163] 대전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265
[그림 164] 대전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66
[그림 165] 울산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68
[그림 166] 울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69
[그림 167] 울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71
[그림 168] 울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72
[그림 169] 울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73
[그림 170] 울산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276
[그림 171] 울산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277
[그림 172] 울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78
[그림 173] 경기 기역 종합 평가 결과 280
[그림 174] 경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81
[그림 175] 경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84
[그림 176] 경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85
[그림 177] 경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286
[그림 178] 경기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289
[그림 179] 경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290
[그림 180] 강원 지역 종합 평가 결과 293

그 림 목 차

[그림 181] 강원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294
[그림 182] 강원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성과 비교 295
[그림 183] 강원문화재단 '감자콘서트' 296
[그림 184] 강원문화재단 원주전통시장 - 예술로 연주하는 시장 296
[그림 185] 강원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297
[그림 186] 강원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299
[그림 187] 강원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00
[그림 188] 강원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03
[그림 189] 강원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04
[그림 190] 강원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05
[그림 191] 충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07
[그림 192] 충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08
[그림 193] 충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10
[그림 194] 충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11
[그림 195] 충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13
[그림 196] 충북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16
[그림 197] 충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17
[그림 198] 충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318
[그림 199] 충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19
[그림 200] 충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21
[그림 201] 충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22
[그림 202] 충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24
[그림 203] 충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25
[그림 204] 충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26
[그림 205] 충남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29
[그림 206] 충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30
[그림 207] 충남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331
[그림 208] 충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32
[그림 209] 전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34
[그림 210] 전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35

그 림 목 차

[그림 211] 전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38
[그림 212] 전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40
[그림 213] 전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41
[그림 214] 전북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44
[그림 215] 전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45
[그림 216] 전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346
[그림 217] 전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47
[그림 218] 전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49
[그림 219] 전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50
[그림 220]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목표 및 6대전략 351
[그림 221] 전남문화예술재단 조직 소개 351
[그림 222] 전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353
[그림 223] 전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54
[그림 224] 전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55
[그림 225] 전남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58
[그림 226] 전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59
[그림 227] 전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60
[그림 228] 경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62
[그림 229] 경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63
[그림 230] 경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65
[그림 231] 경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66
[그림 232] 경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67
[그림 233] 경북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70
[그림 234] 경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71
[그림 235] 경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372
[그림 236] 경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73
[그림 237] 경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75
[그림 238] 경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76
[그림 23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 개요 377
[그림 240] 경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79

그 림 목 차

[그림 241] 경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80
[그림 242] 경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81
[그림 243] 경남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84
[그림 244] 경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85
[그림 245] 경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86
[그림 246] 제주 지역 종합 평가 결과 388
[그림 247] 제주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389
[그림 248] 제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391
[그림 249] 제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392
[그림 250] 제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93
[그림 251] 제주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396
[그림 252] 제주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397
[그림 253] 제주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398
[그림 254]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방법 416
[그림 255]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설계 416
[그림 256] 예술인(단체) 응답자 장르 418
[그림 257] 예술인(단체) 응답자 선정 지원사업 418
[그림 258] 예술인(단체) 응답자 수혜 횟수 419
[그림 259] 예술인(단체) 응답자 직책 419
[그림 260] 예술인(단체) 대상 - 재단 설립 유무 420
[그림 261] 예술인(단체) 대상 – 재단설립의 필요성 420
[그림 262] 예술인(단체) 대상 – 공모 및 심사 절차 적절성 421
[그림 263] 예술인(단체) 대상 – 사업 운영의 적절성 421
[그림 264] 예술인(단체) 대상 – 평가 및 환류 절차의 적절성 422
[그림 265] 예술인(단체) 대상 –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의 필요성 422
[그림 266]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예술인과의 소통 여부 422
[그림 267] 예술인(단체) 대상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423
[그림 268] 예술인(단체) 대상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만족 여부 423
[그림 269] 예술인(단체) 대상 –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견 424
[그림 270]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의 문화예술 보유 잠재력 여부 424

그 림 목 차

[그림 271]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활동 활발 여부 425
[그림 272] 예술인(단체) 대상 - 광역자지단체(문화재단)의 역할 425
[그림 273]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전반적 만족도 426
[그림 274]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내년도 지원 의향 427
[그림 275]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타인 추천 의향 427
[그림 276] 예술인(단체) 대상 - 만족도 점수 428
[그림 277]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기금규모 추이 - 전체 438
[그림 278]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매칭 추이 - 전체 443
[그림 279]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매칭 현황 445
[그림 280] 2010~2013년 종합 평가 결과 등급 비교 447

제1장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개요

제1절 : 평가 연구 개요

제2절 :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1. 평가 배경
2. 평가 목표
3. 평가 방향
4. 평가 범위
5. 기대 효과

제3절 : 평가 체계

1. 평가위원 구성
2. 평가 내용
3. 추진 일정

제1절 평가 연구개요

□ 연 구 명 :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4년 4월 30일

□ 위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발주기관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연구기관 : ㈜문화기획학교

□ 연 구 진

- 책임 연구원 : 김 승 민 ((주)문화기획학교 대표)
- 부책임연구원 : 황 상 훈 (기분좋은QX 대표)
- 공동 연구원 : 오 양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윤 성 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 흥 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 보조원 : 이 은 주 (기분좋은QX 연구원)
- 총 괄 : 고 준 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
  이 숙 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간사)

제2절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1. 평가 배경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하 지역협력형사업) 시행

□ 2009년부터 지역문예진흥사업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지원금 배분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에 대한 체계적 · 객관적 · 현장중심의 평가 필요

□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 · 환류하고, 지역의 성과 관리 능력 및 인식 및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별 문예진흥사업의 효율화 달성

2. 평가 목표

□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

-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 · 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1)]

□ 문예진흥기금 사용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관리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사업의 설계(기본계획), 수행과정,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 · 객관적 · 현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 관리에 대한 능력 및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금 차등화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관련 정부부처에 대하여 기금사용의 적절성, 투명성 및 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3. 평가 방향

□ 평가체계의 안정화 및 고도화

- 본 연구진이 수행한 예년도 평가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평가 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소 등을 발전적으로 수렴 반영함.

1) 이하 특성화지원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시 · 도기획사업, 육성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공연장상주사업이라고 표기함.

– 다년간의 본 사업 평가 수행경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2010년도: 2009년부터 시작된 평가방법의 연속성 및 환류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 · 사업별 · 지표별 평가체계 구축함
- 2011년도: 지역방문을 통한 다면적 현장평가 시스템 구축(서류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지원 단체 인터뷰, 현장실사 등), 권역별 지역문화협력관 참여 및 협조 시스템 구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모델 개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례 제시 등
- 2012년도: 평가단 운영 및 현장평가 운영 기본 매뉴얼 구축,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예술(인)단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수요, 만족도, 개선사항 등)
- 2013년도: 사업별 만족도조사 표준안 개발 및 제공,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계속,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시스템의 우수사례화

–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함.

- 평가지표, 안내, 면접, 심사, 환류 등 각 평가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설계
- 지역별 · 사업별 · 지표별 분석
-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수행 등 다면적, 다층적, 복합적 비교 및 분석을 통한 평가 실시
- 심층 인터뷰를 동반한 현장평가와 종합 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뿐만 아니라 컨설팅 효과 및 지역 문화역량 강화를 유도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협력형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및 발전전략을 제안

4. 평가 범위

□ 기존 지역협력형 평가 체계 · 지표 · 방법의 재검토 및 신규 설정

– 『2008년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참고

– 『2009년 지역협력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0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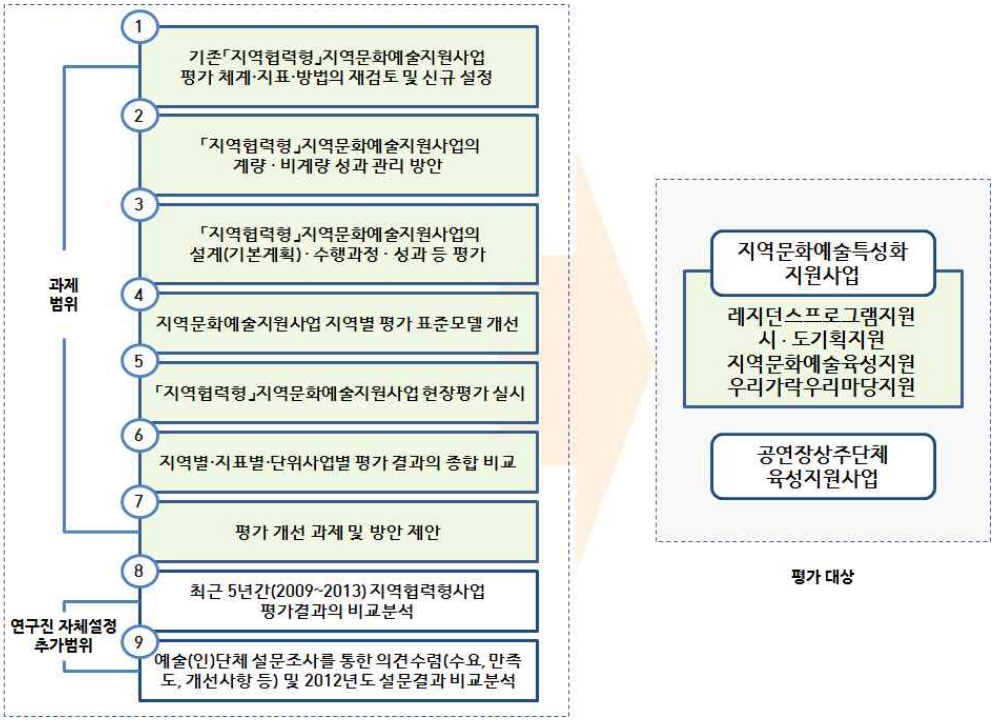
–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평가 작업 개시 전에 평가 체계 · 지표 · 방법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예술위원회와 협의

□ 지역협력형의 계량 · 비계량 성과 관리 방안

– 평가를 통한 사업의 계량 · 비계량(우수사례 등) 성과 관리 및 확보방안 강구



[그림 1]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범위

□ 지역협력형사업의 설계(기본계획) · 수행과정 · 성과 등 평가

- 사업 설계(기본계획)의 타당성, 수행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성과의 정도와 파급효과 등 측정
- 각종 관련 서면 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 현장평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지역협력형사업의 지역별 평가 표준모델 개선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표준모델'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피드백 제시

□ 지역협력형사업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수월성 항목보다는 업무 관계자 인터뷰, 현장 진행사항, 현장과 관련 서류와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예술행정 및 경영적 측면의 항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 지역별 · 지표별 ·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의 종합 비교

- 비교를 위한 객관적 ·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 제시
- 우수 사례, 미흡 사례 등 제시

□ 평가 개선과제 및 방안 제안

□ 최근 5년간(2009~2013)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결과의 비교 · 분석

□ 예술인(단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수요, 만족도, 개선사항 등)

5. 기대 효과

□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권위 있는 평가 결과 도출

- 연구진, 전문가 자문 등 대내외 검증을 통해 내용적 적합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함.
- 지표체계, 심사체계, 면접체계, 환류체계 등을 입체적 ·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평가의 내실과 권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함.
- 평가개선 요소 파악 및 상위 정책과 사업 환경의 변화 흐름 진단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차기년도 평가 개선방안 도출함.

□ 광역단위 지원주체의 지역협력형사업 지원 역량 향상

- 평가 중에 진행되는 담당자 참여 워크숍, 현장평가 등의 과정 수행을 통해 관점과 역량의 상승을 조력하고 견인함.
- 지역별 문화 환경과 역량에 맞는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별 지원 사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 자체 평가체계 표준모델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함.
- 각 사업별 만족도조사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의 만족도조사 활성화 및 만족도조사 평가지표의 이행실적을 높임.

□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개선방안 도출 및 평가 결과 환류

- 지원 수혜단체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촉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견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심층면접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다면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함.
-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 , 분석내용 및 발전전략이 이하 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 각 시 · 도별 담당부서, 사업추진단체 등 관련주체와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환류 되도록 적극 추진함.

- 과업 후반부의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종합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에 따른 각 주체의 자기변화와 역량 성장을 촉진함.

□ 관련 정부부처의 경영평가, 기금평가 자료로 연계 활용

-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 문화관광부 주관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에 연계 활용되는 보고 자료를 생산함.

제3절 평가체계

1. 평가위원 구성

평가 사업 분야	주 평가연구위원	자체평가보고서 전문평가위원
공통 부문	윤성진	황상훈
특성화 통합 부문	김승민	윤성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오양열	황상훈
시 · 도기획지원	이흥재	조정국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정정숙	이광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김승민	윤성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황상훈	이희진

[표 1] 평가위원 명단

2. 평가 내용

가.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의 주안점 및 대상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의 주안점

- 2012년 평가체계의 지속적 안정화 및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개선 추진
- 지역별 단회 통합 현장평가의 발전적 보완을 통한 현장평가 강화 지속
- 현장평가 시 예술인(단체) 대상 심층면접 강화 및 설문 수렴 지속
- 지역문화협력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현장평가, 서면평가 전문성 제고 등 평가시스템 체계화 지속 추진
- 평가를 통한 지역의 문예지원 역량 강화 및 지역협력형사업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함.

□ 평가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 5년(2009~2013)간 지속적인 평가참여 연구진을 통해 지역별, 사업별, 연차별 비교분석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

- 2012년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현장평가 및 컨설팅 형태의 평가 진행
-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및 종합 평가 워크숍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의 발전을 꾀함

□ 평가 대상 사업

- 2013년 특성화지원사업(레지던스지원사업, 시·도기획사업, 육성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공연장상주사업임.

나. 기존 평가체계·지표 개선 및 개발



[그림 2]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단계별 평가 추진절차

□ 선행평가 분석 및 평가지표 조정

- '2008년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 운영방안 연구'와 '2009년 지역협력사업 평가보고서', '2010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표를 조정함.
- 선행평가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평가지표를 작성함.
- 평가지표 자문위원들이 1차 평가지표를 검토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2차 평가지표를 작성함.

- 예술위원회 및 한지협에서 2차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지표로 확정함.
-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별 평가지표의 가중치, 각 사업의 공통 평가 항목 비중을 재검토함.

□ 평가체계 개발 방향

-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 관리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역량 제고를 실현함.
- 지역별 평가, 사업별 평가, 지표별 평가를 추진하여 입체적, 유기적,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함.
- 지역별 평가는 평가 결과를 점수 배점하여 계량화함으로써 지역 간 우열을 파악하여 우수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역량을 강화함.
- 사업별 평가는 실무자 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별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의 문화(지원)역량과 각 사업을 연계하여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업별 지역 안착을 지지 · 지원하는 정책판단정보를 제공함.
- 지표별 평가는 지원사업 각각의 공통 요소와 개별 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상세한 세부 평가가 가능함.
- 자체 평가체계 표준모델을 수정 보완하며, 각 사업별 만족도 조사 표준모델을 제시함.

□ 지역문화협력관 역할 강화

-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지역문화협력관들의 현장평가 참여를 통한 지역정보 접근성을 확대함.
-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숙지하여야 할 지역문화예술 이슈 사항과 핵심 정보들에 대하여 지역문화협력관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정보 제공함.
- 지역문화협력관의 평가회 참여를 통해 기금수혜 예술단체에게 지역문예진흥 지원 사업 대한 각종 정보를 소개하고, 참고할 만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등 밀착적 고객지원활동 가능함.
- 자체평가보고서 취합 이후 평가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 주요 평가사항들에 대해 지역문화협력관이 자문, 조정, 우수사례 추천 등의 역할을 담당함.

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사업의 설계(기본계획) · 수행과정 · 성과 등 평가

□ 현장평가 준비

- 각 평가대상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른 진행여부와 적절성을 관찰함.

– 현장평가를 위한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 요약 서면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여 수합함.

□ 현장평가 진행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및 현장평가를 진행함.

– 지역별로 10명 내외의 대표 예술인(단체)에 대한 FGI 성격의 집단 인터뷰를 16개 광역자치단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지역예술계의 현황과 지역 문예지원 현황에 대한 1차 수혜자들의 자체평가 의견들을 확인하고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함.

– 1일 1지역을 대상으로 각 사업을 모두 평가하고 이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함(총 16회 현장방문 진행).

	일정	요일	지역	전문가 (가나다순)			지역문화협력관
1	9월 24일	화	울산	김승민	배윤수	황상훈	이창윤
2	9월 25일	수	충북	박재길	이흥재	황상훈	이성겸
3	9월 26일	목	경기	김승민	배윤수	황상훈	–
4	10월 16일	수	경남	김승민	황상훈	–	이창윤
5	10월 18일	금	부산	배윤수	윤성진	이흥재	이창윤
6	10월 24일	목	대전	김승민	이희진	황상훈	이성겸
7	10월 25일	금	강원	김승민	배윤수	오양열	이성겸
8	10월 30일	수	전북	김승민	오양열	황상훈	황치준
9	10월 31일	목	광주	김승민	오양열	정정숙	황치준
10	11월 13일	수	충남	이희진	조정국	황상훈	이성겸
11	11월 15일	금	전남	윤성진	이희진	황상훈	황치준
12	11월 20일	수	대구	박재길	윤성진	–	이창윤
13	11월 22일	금	인천	김승민	오양열	이흥재	–
14	11월 25일	월	경북	김승민	박재길	배윤수	이창윤
15	11월 26일	화	제주	조정국	황상훈	–	황치준
16	11월 29일	금	서울	김승민	오양열	윤성진	–

[표 2] 2013년 현장평가 진행 경과

시간	계획 내용	참가자 및 비고 사항
9:30~11:00	관련자료 열람	
11:00~12:00	질의응답 및 관계자 간담회	사업 담당자 및 총괄팀장
13:30~15:30	예술가 만남	사업별 1~2팀 (10명 이내), 설문조사 실시
16:00~18:00	현장 방문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현장 방문

[표 3] 2013년 현장평가 진행 일정

□ 심층면접

- 사업과 관련된 각 주체(예술위원회, 각 광역자치단체별 사업담당자 및 수혜단체 등)별 심층면접을 실시함.
-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 주체별 입장과 역할,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기록함.
- 정리된 심층면접 내용의 요약본을 연구진 전체가 공유함.

□ 계량 · 비계량 성과 제출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량 · 비계량 성과를 제출함.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통계자료를 취합함.

□ 자체평가

- 지역별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자기검증 및 문화행정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가이드를 제공함.
- 2012년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결과물을 참고로 하여 우수사례 등을 제시하고 항목을 재정비하는 등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구체화, 정교화 하여 작성자가 수월하면서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원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평가 세부지표' 설명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공유하고 질의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각 지자체별 담당자가 직접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역별 행정역량이 상이하여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서류심사의 근거가 되는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요령이 부족하여 저평가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공평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서면평가 및 심사

- 연구진이 수합한 각 광역자치단체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함.
- 주 평가연구위원과 함께 자체평가보고서 전문 평가위원을 편성하여 현장평가, 심층면접 등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평가배점표를 작성함.
- 심사 전후 지역문화협력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별, 권역별 지역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 확인 및 조정을 통해 평가신뢰도를 제고하고 심사 부작용을 최소화함.

□ 종합 평가

- 다면평가 내용(현장평가, 자체평가, 심층면접, 서면평가 · 심사)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2012년과의 사업 결과,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함.
- 지역협력형사업 및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함.
- 도출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워크숍을 실시함.
-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 및 분석과정을 거쳐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보고서를 보완함.
- 평가의 정확도를 꾀하기 위하여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토론회 겸 워크숍에 지역문화협력관이 함께 참여함.
-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략체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타 지역의 지원활동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예술위원회, 한지협, 각 지자체별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평가 결과 를 공유하는 종합워크숍을 개최함.
- 종합워크숍을 통하여 각 지역별 개선과제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지원역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

라. 주요 단계별 워크숍

□ 단계별 특성에 따라 평가 가이드 제공, 소통 및 학습효과 거양, 발전방안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워크숍

- 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 내용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공 및 의견 수렴

□ 지역협력형사업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 대상 : 예술위원회, 한지협 등
- 내용 :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및 평가 개선방안 토의

□ 전체 관계자 참여 종합 평가 워크숍

- 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예술위원회 등
- 내용 : 종합 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사례 발표, 개선방안 토의

마.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사업 체계의 변경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우리다락우리마당지원사업

⇒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표 4]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사업 체계 변경

□ 점수 체계의 변경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공통 평가 항목 - 50점			
육성	기획	상주	레지
60점	60점	60점	60점

⇒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통 평가 항목 – 40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항목 - 35점				공연장 상주
육성	기획	레지	우리 가락	
25점	25점	25점	25점	60점

[표 5]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점수 체계의 변경

□ 종합 평가 가중치의 변경

- 평가 체계의 변화에 따라 각 사업들에 대한 가중치도 다음과 같이 변경됨.

2012년	
사업 구분	가중치
육성지원사업	35%
시 · 도기획지원사업	20%
레지던스지원사업	15%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장상주사업	30%

⇒

2013년		
사업 구분	가중치	전년대비
육성지원사업	25%	▼10%
시 · 도기획지원사업	20%	–
레지던스지원사업	15%	–
우리가락우리마당	5%	▲5%
공연장상주사업	35%	▲5%

[표 6]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가중치의 변경

바.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체계 신규 반영 사항

□ 정량적 평가지표 반영

– 2013년부터는 공통 평가 항목의 '사업성과' 항목을 신규로 추가

– 이 항목에서는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계량적인 실적과 비계량적인 실적을 확인하는 지표로 계량지표에 6점, 비계량 지표에 6점을 반영함.

□ 계랑/비계량 성과지표 사전취합

– 신규로 반영한 '사업성과 항목(계량/비계량 성과지표)'을 2014년 1월 15일(수)까지 제출하여 예술위원회 각종 평가(문화부 평가, 경영평가 등)에 활용 (※ 별도 성과 관리 양식에 작성)

□ 개선도 평가(개선 향상도) 제시

– 2013년부터는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의 종합 평가 결과(순위) 뿐 아니라 전년도 평가 결과와 종합 평가 점수를 비교한 개선도 평가에 대한 순위를 별도로 제시함.

□ 지역별 사업담당자 추가 인터뷰 진행

–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시 평가 자료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이 지역별 지역협력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선 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함.

– 서면 평가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일정

구 분		2013년							201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가지표 개선 및 공유		▶	▶	▶	▶								
현장평가	1차				▶	▶							
	2차					▶	▶						
심층면접	1차				▶	▶							
	2차					▶	▶						
계량/비계량 성과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심사											▶		
종합 평가												▶	
워크숍 일정		▶							▶				▶

[표 7]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추진일정 및 계획

제2장

평가 종합

제1절 : 평가 종합
1. 종합 평가 결과
2. 개선도 순위

제2절 : 사업별 평가 종합
1. 공통 항목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4. 시 · 도기획지원사업
5.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6.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1절 평가 종합

1. 종합 평가 결과

□ 제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3년에 진행되었던 사업별 현장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 가 도출되었음.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의 평가는 지역별, 사업별, 지표별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별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별 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지역별 종합 평가 결과 를 5개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등급	지역
가	대구, 서울
나	경기, 대전, 부산
다	강원, 경남, 광주, 인천, 전남
라	울산, 전북, 제주, 충북
마	경북, 충남

[표 8] 2013년 지역별 종합 평가 등급

□ 공연장상주사업은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이외에 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연장상주사업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배점에 포함함.

□ 종합 평가 및 각 사업별 등급 구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 구분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환류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등급별 포함지역의 수를 설정하였음.

등급	비율	개수
가	15%	2~3개
나	20%	3~4개
다	35%	5개
라	20%	3개
마	10%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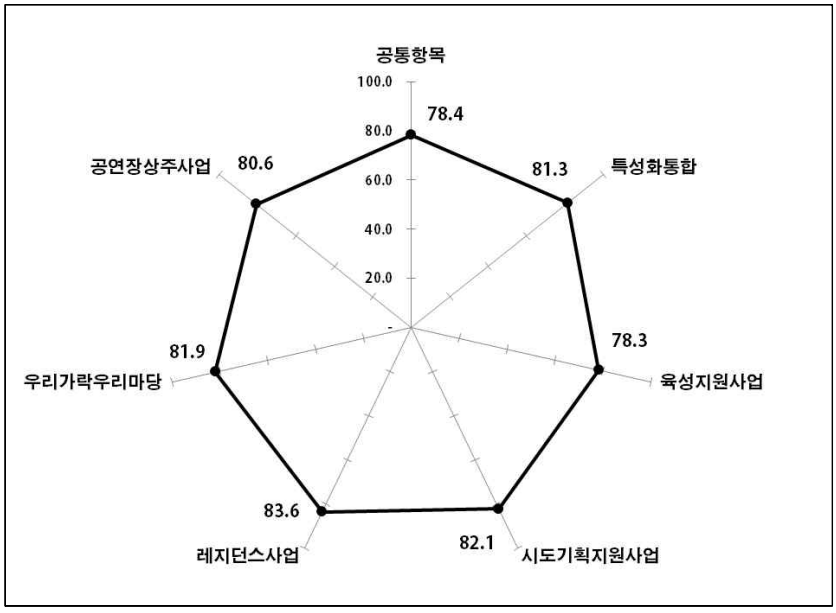
[표 9]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등급 구분 기준

□ 종합 평가는 가등급에 2개 지역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별 등급에서는 3위

지역의 평점이 4위 지역 평점과의 편차보다 2위 지역 평점과의 편차가 적을 경우 '가' 등급에 포함시켜 최대 3개 지역까지를 '가' 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3년은 지난해와 달리 특성화지원사업 중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있더라도 감점처리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진사업의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결과 산출에 반영하였음.

□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난해와 달리 사업별 평균점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특히, 시도기획지원사업의 평점이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공통평가 항목은 78.4점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은 81.3점, 육성지원사업은 78.4점, 시 · 도기획사업은 82.1점, 레지던스지원사업은 83.6점, 우리가락우리마당은 81.9점, 공연장상주사업은 80.6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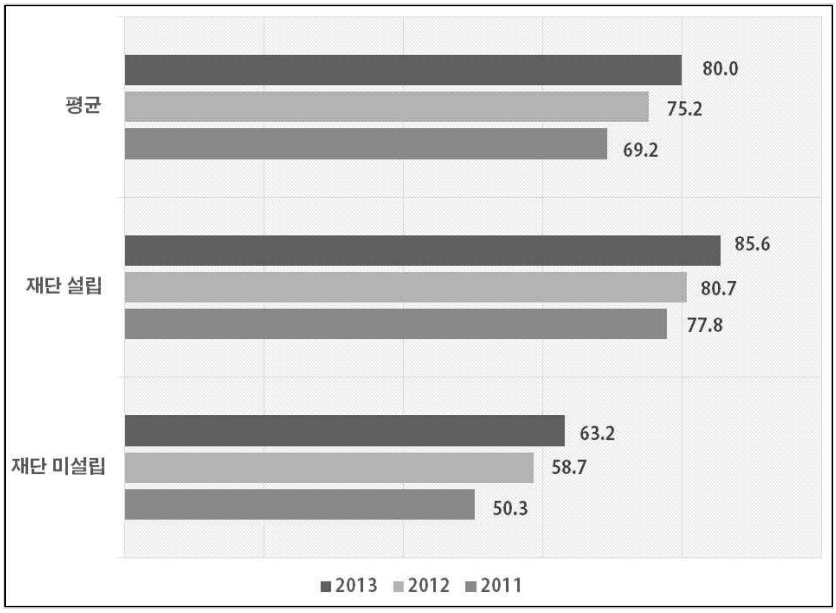
[그림 3]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 각 평가 결과의 평균은 80.9점으로 공통평가 항목과 육성지원사업의 결과가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공통평가 항목과 각 사업별 가중치와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의 평가 결과를 합산한 16개 지역의 종합 평가 평균점은 80.0점으로 2012년 75.2점보다 약 4.8점 높게 나타났으며,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 85.6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 63.2점으로 각각 2012년보다 높은 결과를 보임.

□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단 미설립 지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곳(경북, 울산, 전북, 충남)으로

충남은 2014년 1월 재단이 설립되어 2013년 평가에는 재단 미설립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 2013년에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킨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난해에 비교해서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수준과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



[그림 4] 종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대상인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측면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년도까지는 평가 항목에 없었던 성과평가 항목이 높은 배점으로 들어가면서 '성과평가'를 정리해내야 하는 과업이 생겨서 지역별로 평가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지역별로 드러내고 싶은 우수사례 등을 통해 지역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성화지원사업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묶어서 평가하기 시작한 첫해로, 지역별로 특성화지원사업의 설계와 추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한 해였음. 준비가 되어있는 지역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특성화지원사업 설계를 통해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시작함.
- 이를 통해 기존에 미추진 사업에 부과하던 패널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추진 사업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반면, 재단의 사업설계 권한이 커진 만큼 재단의 책임도 커져서 지원사업의 설계를 위한 기획력 확보와 인적역량 개발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함.
- 전년도에 비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시점이 전반적으로 빨라져서, 제출마감 시한에 거의 맞춰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지연된 지역도 제출 시기가 많이 늦춰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대응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판단됨.
- 공통 평가 항목 평가 부문에서 성과평가 부문을 제외한 공통 평가 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지고, 지역간 편차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됨. 차기년도에는 공통 평가 항목 평가 부문의 일부 평가 항목과 지표 일몰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설립 초년도와 설립 연한이 오랜 지역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에 대한 역량편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짐. 지역의 지원사업 과정관리 역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원사업 설계 기획력,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교류협력수준, 통합 홍보지원시스템 확충, 인적 역량개발 등 과정관리가 아닌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함.
- 대구 지역의 경우 자체적인 티켓박스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직접적인 티켓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는 홍보마케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홍보마케팅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지원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위원단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전년도에 비해 평가항목별 배점에 큰 변동이 생기고, 가산점 항목이 사라지고 성과평가 항목이 큰 배점으로 추가되어 추가된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른 평가요소 적용과 배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전년도와의 종합평가 점수 비교를 통한 개선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단 설립 초기 지역 및 재단 미설립 지역의 개선노력에 대한 주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09년 시범평가 이후 연속 4년간 유지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비교 분석을 제시하여 지역별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전년도까지는 1~2명의 평가위원이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를 모두 현장평가차 방문하여 지역간 비교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적었는데, 2013년에는 전 지역을 현장평가 방문한 평가위원이 없는데서 오는 비교평가의 한계가 있었음.

2. 개선도 순위

□ 개선도 순위에 대한 평가는 2013년에 평가위원단의 제안을 기초로 처음 시도되는 시범적 평가로 전년도와의 종합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임. 개선도 평가를 순위로 제시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에서 사업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수한 개선도를 보인 지역을 제시하여 개선활동에 주목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시범적 평가임.

□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문화재단이나 광역도 지역에서 사업추진역량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최상위등급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사업부문의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를 비교하여 개선도 순위를 제시함.

□ 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여부는 본 평가 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개선도 평가 결과를 통한 우수 지역만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

□ 개선도 순위 제시를 통해 추진역량이 안정화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중위권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사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에서도 그 노력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선도 평가는 전년도 종합 평가 점수와 올해 점수를 비교하여 평점 향상 순위대로 상위 50%지역(8개 지역) 중 작년 이상의 등급으로 평가된 지역만을 개선도 평가 상위지역으로 제시함. 평점이 하락되거나 등급이 저하된 지역,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개선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순위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제외하였음.

□ 또한, 전년도에 지원사업 중 추진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 해당사업에 대한 배점에서 타 지역 평균점, 또는 타 지역 최하점으로 평가된 지역(서울, 울산)은 종합 평가에서 추진사업 이외의 변수로 감점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종합 평가 개선도 순위 지역에서 제외하였음.

□ 참고자료로 추진사업별 개선도 순위도 제시하였으며, 전년도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도 개별사업별 개선도 순위에 들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고 제시하였음.

가. 종합 평가 개선도 순위

□ 종합 평가 개선도 순위에서 상위 50% 해당하는 지역 중 '서울'과 '울산'은 전년도에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제외하였으며, '충남' 도 종합 평가 평점은 개선되었지만 올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으로 평가되어 제외함.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 개선도 상위 지역인 '충북',

‘전남’, ‘부산’, ‘대전’, ‘광주’ 가 종합 평가 개선도 상위 5개 지역으로 평가되었음.

순위	지역
1	충북
2	전남
3	부산
4	대전
5	광주

[표 10] 2012년~2013년 종합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나. 공통평가 항목 평가 개선도 순위

□ 종합 평가 개선도 순위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개별 사업의 개선도 추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각 공통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별 개선도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개선도 순위를 제시함.

□ 공통 평가 항목 부문 개선도 평가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지역 중 등급이 낮아지거나,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을 제외하고 ‘충북’, ‘서울’, ‘전남’, ‘부산’, ‘대전’, ‘광주’ 가 상위 6개 지역으로 평가됨.

순위	지역
1	충북
2	서울
3	전남
4	부산
5	대전
6	광주

[표 11] 2012년~2013년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다. 육성지원사업 평가 개선도 순위

□ 육성지원사업 개선도 평가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8개 지역 모두가 전년도의 평가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부산', '전남', '광주', '대전', '서울', '인천', '경기', '제주'가 개선도 상위 8개 지역으로 평가됨.

순위	지역
1	부산
2	전남
3	광주
4	대전
5	서울
6	인천
7	경기
8	제주

[표 12] 2012년~2013년 육성지원사업 부문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라. 시·도기획사업 평가 개선도 순위

□ 시·도기획사업 개선도 평가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8개 지역 중 '충남' 지역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으로 평가되어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지역 모두가 전년도의 평가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전남', '전북', '충북', '대구', '광주', '경남', '부산'이 개선도 상위 7개 지역으로 평가됨.

순위	지역
1	**전남**
2	**전북**
3	**충북**
4	**대구**
5	**광주**
6	**경남**
7	**부산**

[표 13] 2012년~2013년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마.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개선도 순위

□ 레지던스지원사업 개선도 평가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8개 지역 모두가 전년도의 평가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광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전남', '강원', '전북' 이 개선도 상위 8개 지역으로 평가됨.

순위	지역
1	광주
2	부산
3	인천
4	대구
5	울산
6	전남
7	강원
8	전북

[표 14] 2012년~2013년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바.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개선도 순위

□ 공연장상주사업 부문 개선도 평가에서는 상위 50%에 해당하는 8개 지역 중 '마' 등급에 해당하는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년도의 평가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전남', '제주', '전북', '대전', '울산', '충북', '광주' 가 개선도 상위 7개 지역으로 평가됨.

순위	지역
1	전남
2	제주
3	전북
4	대전
5	울산
6	충북
7	광주

[표 15] 2012년~2013년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차이 비교 순위표

제2절 사업별 평가 종합

1. 공통평가 항목

□ 공통평가 항목은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분야로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수준, 사업성과에 대한 6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최종 평가 결과를 5개의 평가등급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등급	지역
가	경기, 대구, 서울
나	대전, 부산
다	강원, 경남, 광주, 인천
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마	경북, 울산,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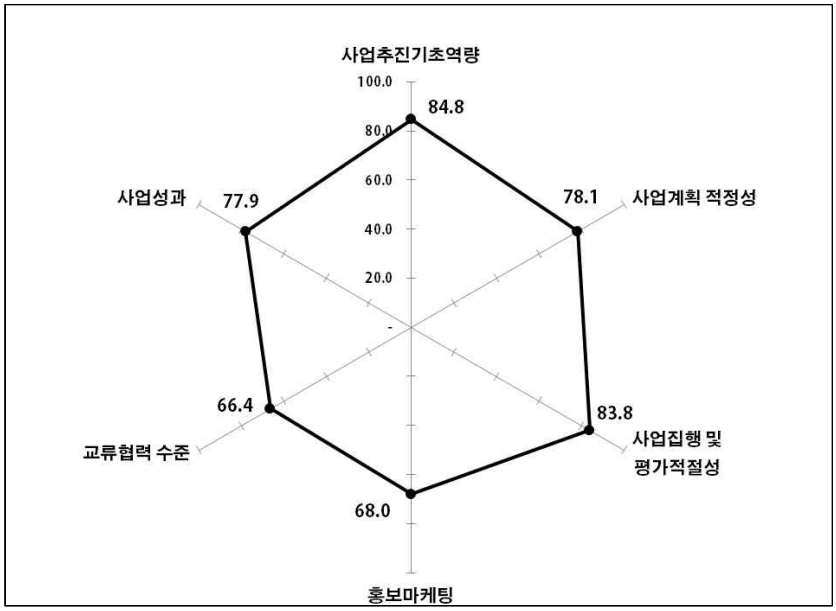
[표 16] 공통평가 항목 지역별 등급

□ 지난해까지 공통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가산점 항목이 삭제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큰 배점(12점)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음. 공통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는 사업추진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6개의 항목임.

□ 공통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지역과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지역의 점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97.5점과 37.5점으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2012년과 비교하여 평가 항목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산점 항목이 삭제되고, 사업성과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 배점에 변화가 있었음.

□ 사업성과를 묻는 평가 항목은 40점 중 12점의 배점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함. 올해 처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지역별 편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계량적 사업성과(8점)와 비계량적 사업성과(4점)로 나뉘어져 평가가 진행됨. 계량적 사업성과 항목에서는 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계량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가를 평가하였으며, 비계량적 사업성과에서는 비계량적 성과제시 여부와, 우수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여 우수사례의 차별적 성과를 평가하였음.



[그림 5] 공통평가 항목 지표별 평균 점수

□ 지역문화비전 반영도와 지원사업 연계활동, 지역문화재단 설립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추진기초역량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84.8점)를 받았으며, 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하는 교류협력수준이 66.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에서 지역문화비전 반영도는 '지역의 중장기 문화발전 정책이나, 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지역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원사업 연계활동 지표는 예술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음.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2014년 1월 설립한 충남을 제외한 12개 지역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원사업을 담당하여 미설립 지역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음.

□ **사업추진역량보유 여부**는 예고했던 대로 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 담당자들의 근속연한과 문화예술분야 이력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가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만, 재단 설립 지역 간에는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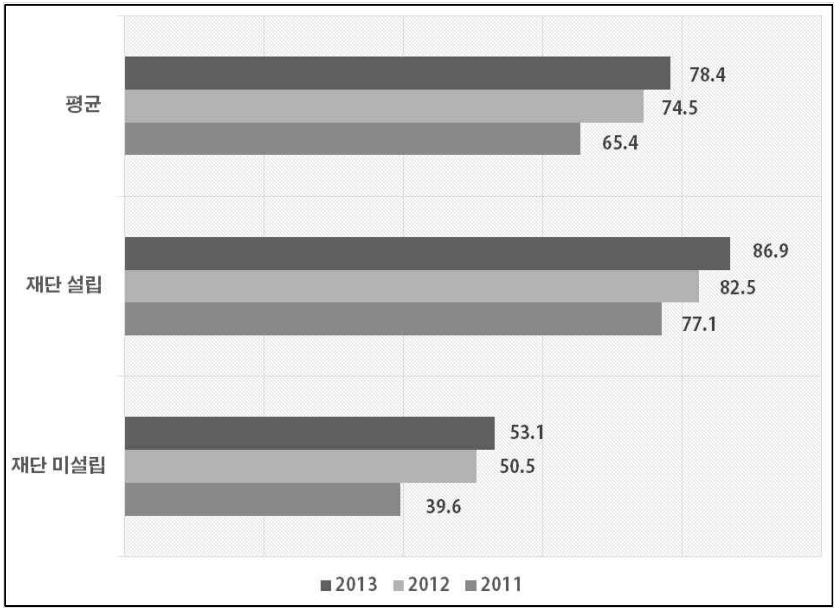
□ **사업계획 적정성 항목**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에 따라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임. 대부분의 지역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연간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와 사업별 성과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항목**은 지원사업의 프로세스 관리 및 단계별 추진 요건들과 기준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지원-심의-평가-평가환류의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의체계 적절성과 평가체계의 적절성에 좀 더 높은 배점을 부과하여 평가하였음. 특히, 심의체계에 있어서 심의단계와 심의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의 비율, 평가체계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위원의 참여여부, 시민모니터링단에 대한 사전교육, 평가 후 사후종합 평가 회의 개최여부, 신뢰성있는 관객만족도 조사 추진여부 등을 특별히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였음.

□ **홍보마케팅 수준**은 매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다른 항목들의 평점과 비교할 때 낮은 평가를 받음. 지역문화수요자들에게 지원사업을 잘 알려주기 위한 통합홍보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이 실질적인 홍보매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수혜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의 실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였음. 몇몇 지역에서 타 지역의 모델이 될 만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타 지역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교류협력수준**은 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인 교류를 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공연장상주사업이나, 레지던스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지역 간 교류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6]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계량적 사업성과는 공연장상주사업과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비교는 용이하지만, 아직까지 연차별 변화를 비교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였으며, 사업성과 기술에 있어서의 체계성, 객관성을 판단하고, 객석점유율, 퍼블릭 프로그램의 참여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비계량 사업성과는 각 지역에서 최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하여 제시한 우수사업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역별 평점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지역들의 기초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관리역량으로 평가해서는 더 이상 광역자치단체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노력과 교류협력 수준 등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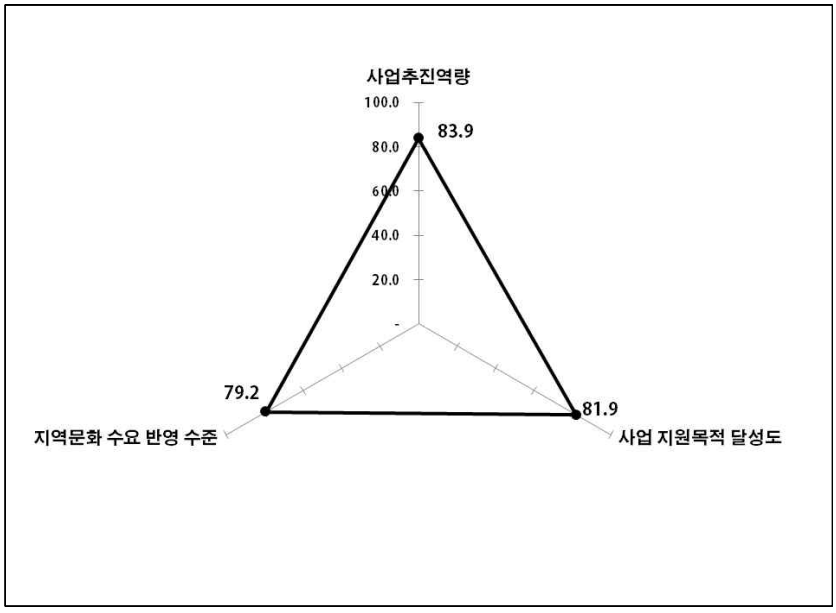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은 2013년 추가된 평가 항목으로 기존의 개별사업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되어 신설된 평가 항목임.
- 특성화지원사업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하되, 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시 · 도기획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등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부분적으로 구별하여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통합 평가점수를 산출하였음.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기술하되, 통합 항목 하나에 대한 등급 구분은 의미가 없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된 사업별 평가 결과 와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를 합산하여 공통평가 항목과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특성화지원사업 전체의 수행역량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함.
- 종합 평가 결과가 공통평가 항목 및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개별사업, 공연장상주사업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라고 한다면, 아래 제시된 결과는 특성화지원사업 전반의 수행역량과 성과만을 판단하기 위해 시도한 평가 결과로. 종합 평가에서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와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를 제외한 평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등급	지역
가	부산, 서울
나	경기, 광주, 대구, 인천
다	강원, 경남, 대전, 전남, 제주
라	울산, 전북, 충북
마	경북, 충남

[표 17] 특성화지원사업 종합결과 지역별 등급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는 2013년 달라진 지원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추진여부와 추진규모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설계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로 넘김에 따라 지역의 4개 지역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과 준비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됨.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분야에서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추진기초역량(10점)과 사업지원목표 달성도(20점),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5점)으로 총 35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지원목표 달성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함.



[그림 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지표별 평균

□ 각 평가 분야와 평가 항목별로 어떤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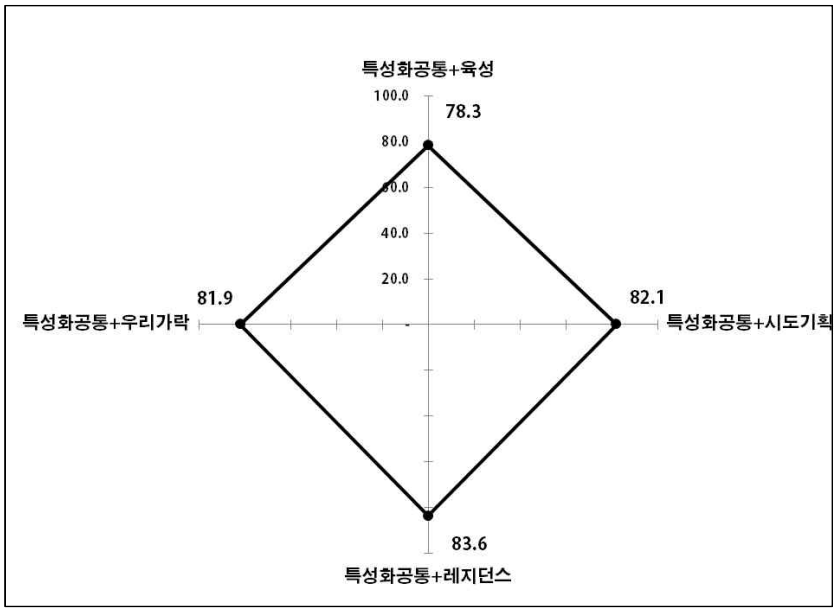
□ **사업추진 기초역량 분야**는 사업참여예술인의 참여기준과 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업별 신규단체 참여유도를 위한 노력과 신규수혜단체 비율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음.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분야**는 계획대비 집행실적 항목, 매칭펀드 조성노력 항목과 가장 배점이 큰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10점)를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실적과 집행률, 매칭률 초과달성여부, 시민모니터링 추진과 관객만족도 조사 추진여부 및 결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음. 지역별 편차가 주로 나타나는 지점은 수혜 대상의 만족도 항목으로 시민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 추진방식의 적절성과 만족도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한 지역의 매칭비율에서도 약간씩의 편차가 발생함.

□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 분야**에서는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항목에서 특성화지원사업의 설계를 위해 지역문화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됨. 이 항목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워크숍, 사전설문 조사 등의 의견수렴 활동의 추진여부와 상시적인 채널 가동을 권고하고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 공통평가 항목이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추진역량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은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각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업 실무역량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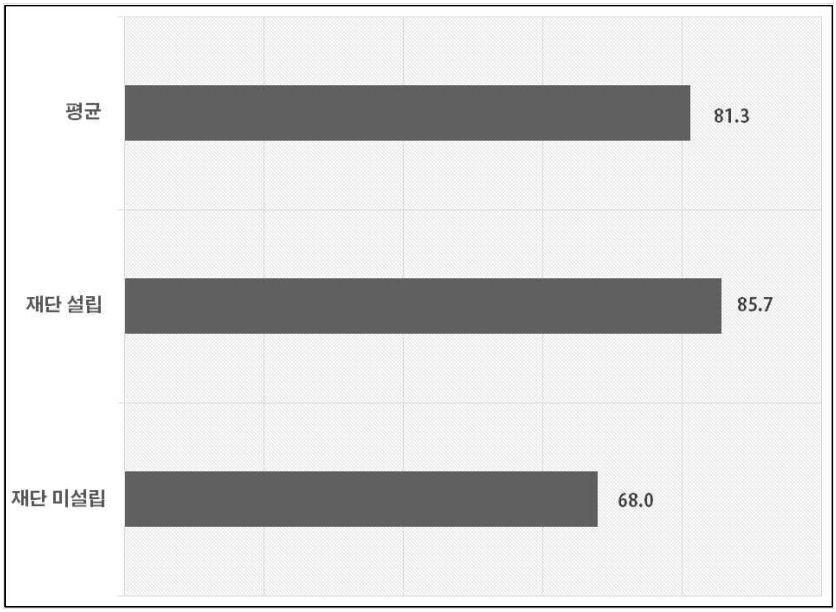
□ 재단 설립 지역 간의 편차는 크지 않으며,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수준이 취약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 8]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사업별 합산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에 대한 평가와 개별 사업별 평가를 합산한 사업별 평균을 보면 레지던스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육성지원사업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4개 사업 중 일부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한 사업의 가중치대로 합산한 결과를 다시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음.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는 비교적 큰 편임.



[그림 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육성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권을 신장함' 에 있음. 육성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참여활동 진흥보다는 지역 전문예술단체(인)의 창조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보다 큰 비중과 목표를 두고 있음.

□ 육성지원사업은 지역협력형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본사업에 해당함. 각 지역에서 공모 심의를 통해 해당지역 문화예술 전 분야의 창작 · 매개 · 향유 활동을 지원하며, 개인 및 단체, 창작 및 레퍼토리, 번역 · 번안 · 재구성 작품, 비평 및 보존 조사연구, 컨설팅 사업 등 지역협력형사업 중 지원범위가 가장 광범위함.

□ 2013년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공통평가 항목 40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35점, 육성지원사업 개별 평가 항목 25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종합 평가에서의 가중치는 25%로 전년 대비 10%가 하락하였음. 육성지원사업 고유의 개별 평가 항목 25점은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수준 1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1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음.

항 목	지 표	세부 지표	배점	측정 지표
1.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수준 (15)	1.1. 사업수혜단체 (인) 적절성	1.1.1.신규단체 비율이 적절한가?	10	당해 연도 신규 지원 단체 비율 등
		1.1.2.기관, 단체, 협회 참여 정도가 적절한가?		기관협회 선정비율 등
		1.1.3.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 선정비율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별도 사업 영역 구분, 배분선정기준 등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 등
	1.2. 참여예술단체 (인) 선정의 적절성	1.2.1.사업 지원 단체들에 대한 사업 선정률이 적절한가?	5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등
				평균 지원 금액 정도 등
				전년도 대비 선정률 유자개선 정도 등
2.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10)	2.1. 지역의 독창성	2.1.1.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10	육성지원사업의 전략적 설계, 심의 선정기준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의 반영 여부 등
		2.1.2.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잘 드러낸 지원사업 사례 제시 여부 등

[표 18]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

□ 육성지원사업의 평가는 다른 사업 평가와 동일하게 현장 평가 시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특성을 청취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모두 지역 예술단체 대표자 및 기획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또한 지역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심의 관련 자료, 교부 결정 및 집행 관련 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였고, 한정된 현장 평가 시간 안에 모두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 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를 취합하여 인터뷰 전에 검토한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평가는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근거자료, 현장 평가와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했으며,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사업건별 내용에 대한 검토는 최소화하였음.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합의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등급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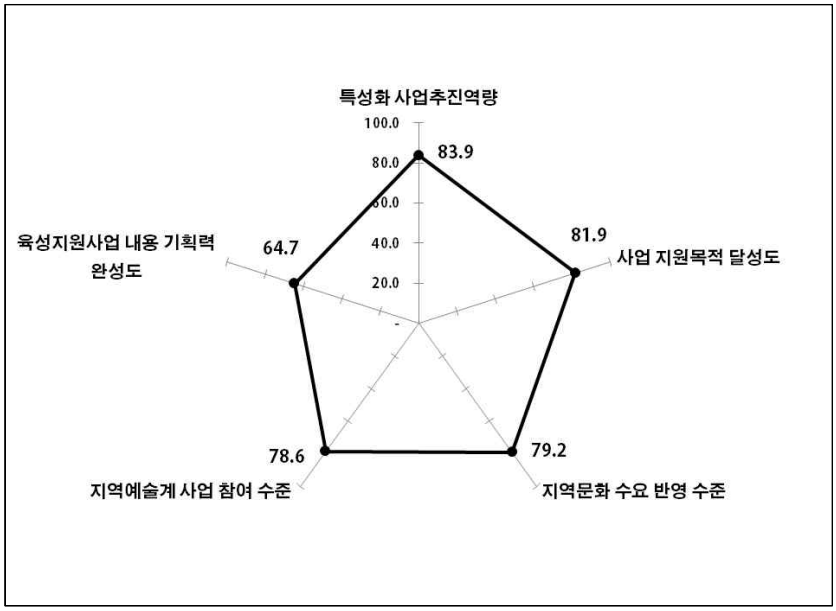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등급	지역
가	대구, 부산, 서울
나	강원, 광주, 경기, 대전, 인천
다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라	울산, 충북
마	경북, 충남

[표 19] 육성지원사업 지역별 등급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전체 평균은 25점 만점에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9점)이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20.2점(80.8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9.6점(78.4점), 재단 미설립 지역은 12.3점(49.0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고점 지역과 최하점 지역의 평점은 24.5점(98.0점)과 8점(32.0점)으로 16.5점(66.0점)의 편차가 발생함.

□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만점 25점)의 경우 모든 지표항목에서 재단 설립 지역이 재단 미설립 지역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높은 평점을 얻고 있어, 이를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음.



[그림 10] 육성지원사업 지표별 평균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항목은 심의 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백분위 환산 시 84.4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9.0점(90.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8점(67.5점)으로 나타남.

□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관, 단체, 협회 지회·지부의 선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그만큼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은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며,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거두어야 할 것임.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서 '사업 지원 단체들에 대한 사업 선정률이 적절한가'를 묻고 있음.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백분위 환산 시 66.3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76.7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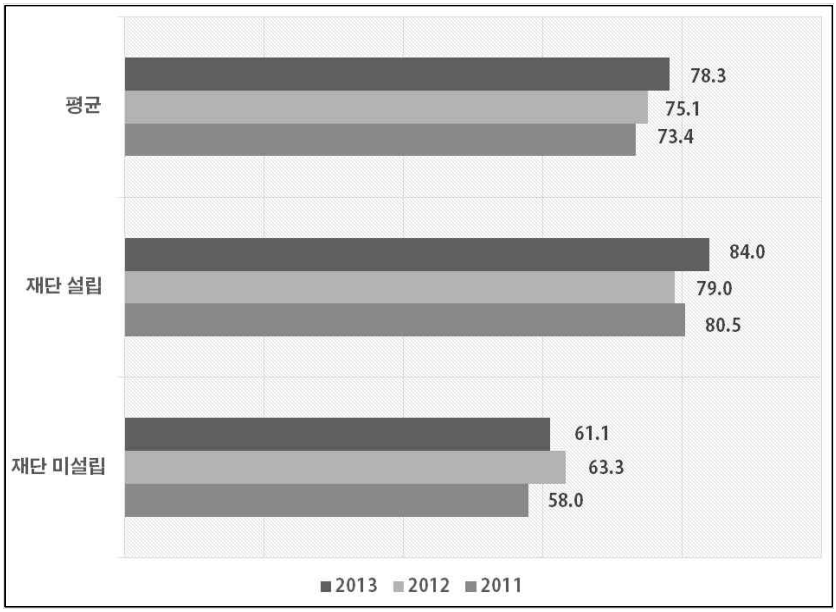
평균점은 1.8점(35.0점)으로 나타남.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의 경우 전국 평균은 50.9%(수도권 30.9%, 비수도권 55.5%),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은 46.6%,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은 51.8%, 재단 미설립 지역은 63.8%로 나타남.
- 평균 지원 금액의 경우 전국 단순 평균 지원액은 521.4만원,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 556.8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432.4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이 415.3만원임.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울산(856만원)을 제외할 경우 충남(286만원), 전북(326만원), 경북(193만원)의 평균 지원 금액은 286.3만원에 불과함.
- 전년도 대비 선정률 유지·개선 정도의 경우 선정률이 전년도 60% 이하 및 금년도 50% 이하를 동시 만족시킨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 전년도 60% 이하만 만족시킨 지역은 울산,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 양 항목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나 전년 대비 선정률이 낮아진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임.

□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경북의 평균 지원 금액 193만원(선정률 75.1%), 전남 266만원(51.7%), 충남 286만원(65.1%)에 불과하여 소액다건 주의 방식의 폐해가 우려됨. 다만 모든 지역이 2012년도 60% 이하 혹은 2013년도 50% 이하이거나 선정률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항목은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백분위 환산 시 64.7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4점(73.8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37.5점)으로 나타나,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와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은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이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설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안내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육성지원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1]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4. 시 · 도기획지원사업

□ 시 · 도기획사업은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주관하여 자체 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주로 지역의 역사, 인물, 환경, 스토리, 문화자원 등 지역의 특성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데 목적을 둠. 이 과정에서 독창적인 사업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역의 문화수요를 반영하는 사업임.

□ 시 · 도기획사업의 평가절차도 다른 사업 평가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음. 즉, 현장평가에서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파악하며, 지역의 특성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쳤음. 아울러 자치단체(문화재단)에 참여하는 지역예술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음.

□ 내부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지역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자료, 교부결정과 집행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음. 그 밖에 관련 근거자료, 현장 평가와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했음. 평가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복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주요 항목에 대한 토의와 배점과정을 거쳐 평균값으로 최종점수를 부여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별지표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등급은 다음과 같음. 가 등급은 대구와 부산임. 나 등급은 경기, 광주, 대전, 인천으로 나타남. 다 등급은 강원, 경남, 전남, 제주로 선정되었음. 라 등급은 전북, 충북임. 마 등급은 경북, 충남임. 그 밖에 서울, 울산은 시 · 도기획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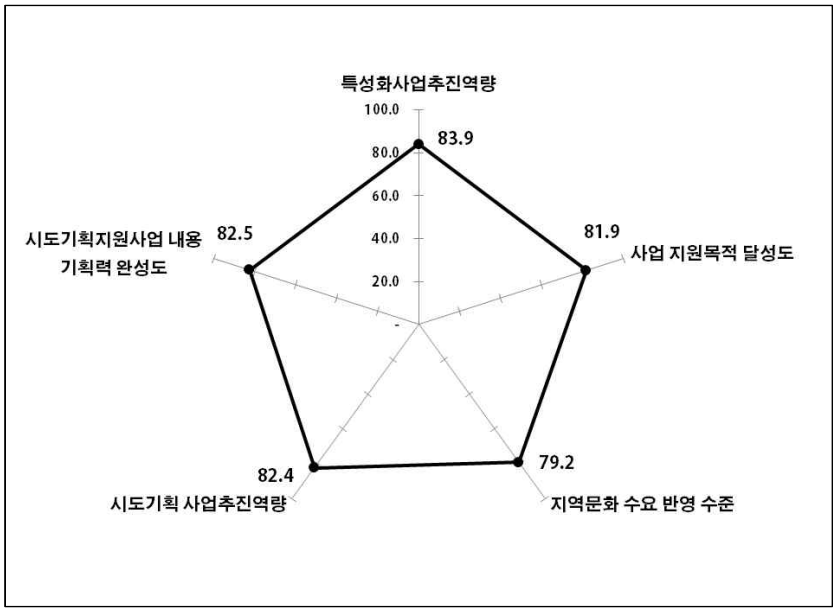
등급	지역
가	대구, 부산
나	경기, 광주, 대전, 인천
다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라	전북, 충북
마	경북, 충남
미추진	서울, 울산

[표 20] 시 · 도기획사업 지역별 등급

□ 평가 결과 시 · 도기획사업의 서업추진역량과 기획력 완성도만을 평가한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이 82.4점임. 이를 지역 재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와 재단 없이 추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재단중심 활동 지역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85.3을 확보했음. 그러나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는 71.3점으로서 전국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으로 점수를 받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과거 3년간 추이에서도 명확히 들어나고 있음

□ 결국,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역기획 거버넌스의 구축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역할을 하는 재단의 존재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거버넌스의 중심축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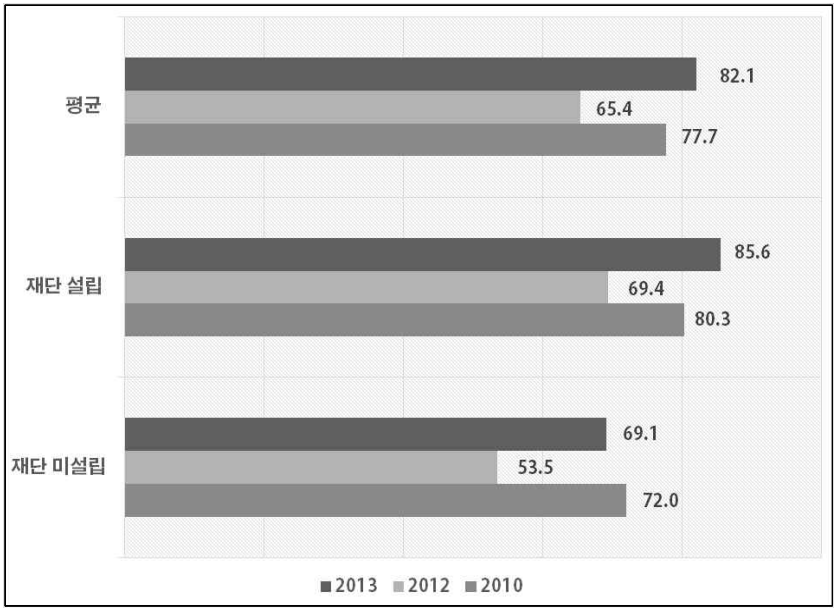
[그림 12] 시 · 도기획사업 지표별 평균

□ 시 · 도기획사업의 추진성과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추진역량은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음.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82.4점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역량 있는 단체(개인)를 선정하는데 노력했고 적정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음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사업집행에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여기에서 재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은 평균 85.2점인데 비해 재단 없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72.0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지역의 독창성을 얼마나 살려 기획에 반영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음. 그 결과 82.5점을 획득했는데 그 동안 기획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지역 담당자들이 공감해왔으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학습효과에 의해 지역 고유콘텐츠를 발굴하여 기획하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 여기에서 사업추진 주체

로서 재단이 있는 지역은 85.5점인데 비해 재단아닌 주체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71.3으로 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3]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5.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작가에게 단순히 공간을 제공' 하는 차원을 벗어나 큐레이터 등 기획자, 입주 작가 교류 및 커뮤니티 연계 등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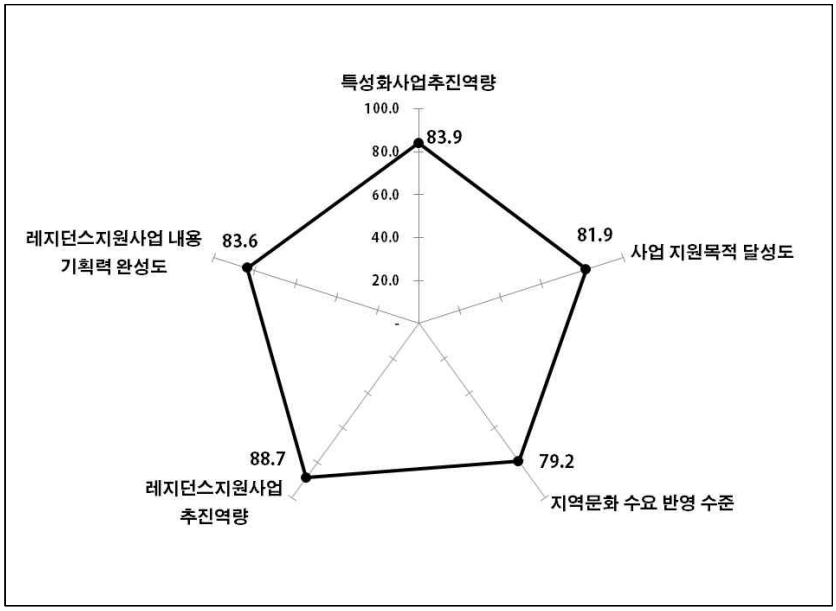
등급	지역
가	광주, 부산, 인천
나	강원, 대구, 전남, 제주
다	경남, 대전, 전북, 충북
라	울산, 충남
마	경북
미추진	경기, 서울

[표 21] 레지던스지원사업 지역별 등급

□ 2012년 개선방안에서 '작가에게 집중적 몰입이 가능할 수 있는 창작전용 공간 제공' 이라는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창작 몰입형' 과 큐레이터 등 기획자, 입주 작가 교류 및 커뮤니티 연계 등 지역 융합형 혹은 장르 융합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여 작가 자신과 다른 작가 및 주민들 간에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주민연계형' 의 이원구조(Two Track)의 적절한 배분을 제안했으며, 그러한 제안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서울과 경기지역과 같이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을 제외하고 14개 지역에서 수행되었음.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는 83.6점으로 시·도기획사업(82.1점)이나 공연장상주사업(80.6점) 등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레지던스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여주면서 안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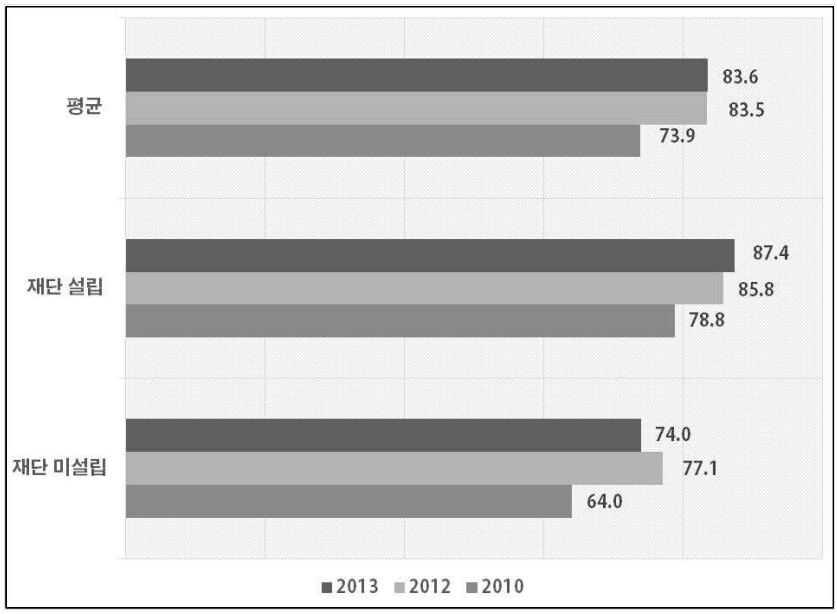
□ '가' 등급 순위에 광주, 부산, 인천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울산, 충남, 경북이 '라' 와 '마' 등급에 위치해 있어, 울산, 충남, 경북 지역의 레지던스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4] 레지던스지원사업 지표별 평점

-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11년에는 평균 73.9점이었으나 2012년에는 83.5점으로 약 10점 상승하였고, 2013년에는 83.6점으로 2012년과 유사한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2011년에는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이 없지만, 2012년에는 한 개의 지역이 91.7점을 받았고, 2013년에는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이 3개의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90점 이상을 받은 '가' 등급의 권역은 60-70점대의 하위 등급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한 교류 사업을 강화할 것이 권유됨. 이러한 교류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의 격려와 지원이 요망됨.
- 2013년에 '가' 등급을 받은 광주, 부산, 인천 지역 중 부산은 2010년 '라' 등급에서 2012년 '가' 등급으로 상승한 뒤 지속적으로 최고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도 2010년에는 '라' 등급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나' 등급으로 상승한 후, 2013년 금년에 '가' 등급을 받게 된 점진적 발전형임.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2010년 이래로 계속 '나' 등급을 유지해오다가 금년에 '가'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룸.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주로 하위 등급에 속해 있어서 타 지역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과 같은 학습 뿐 아니라 재단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통한 사업효과의 상승을 위한 구조적 변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음.
- 5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방사선형 평가지도는 안정적인 오각형으로 균형을 찾고 있어, 특정 항목

의 결핍이나 과잉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특히 레지던스지원사업 추진역량 점수가 88.7점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레지던스지원사업 주체로 선정된 단체들의 예술창작의 역량과 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한편 4개 항목에서 80점 이상의 평균점을 얻은 것에 비해 지역문화수요 반영 수준이 79.2점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우수 모델 사례의 제시와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15]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 재단 설립 여부와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연동시켜볼 때, 재단 설립 지역의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성과가 높고 점진적인 발전 경향(‘11년, 78.8점->’12년, 85.8점->‘13년 87.4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발전과 퇴보((‘11년, 64.0점->’12년, 77.1점->‘13년 74.0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사업 수행의 성과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측이 불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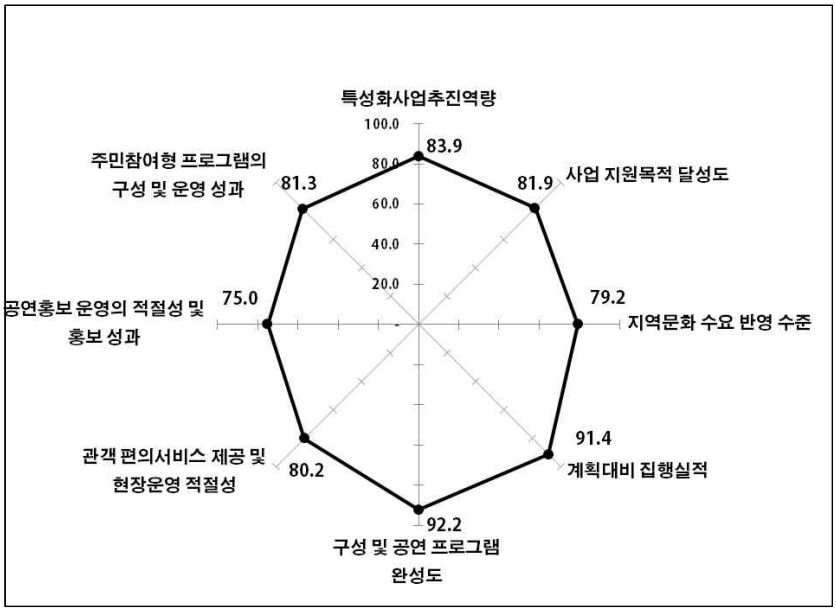
6.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전통예술, 전통국악 공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고정 관람객과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고 생활문화속의 공연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장르의 다양화와 신진예술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전통국악의 보존과 현대적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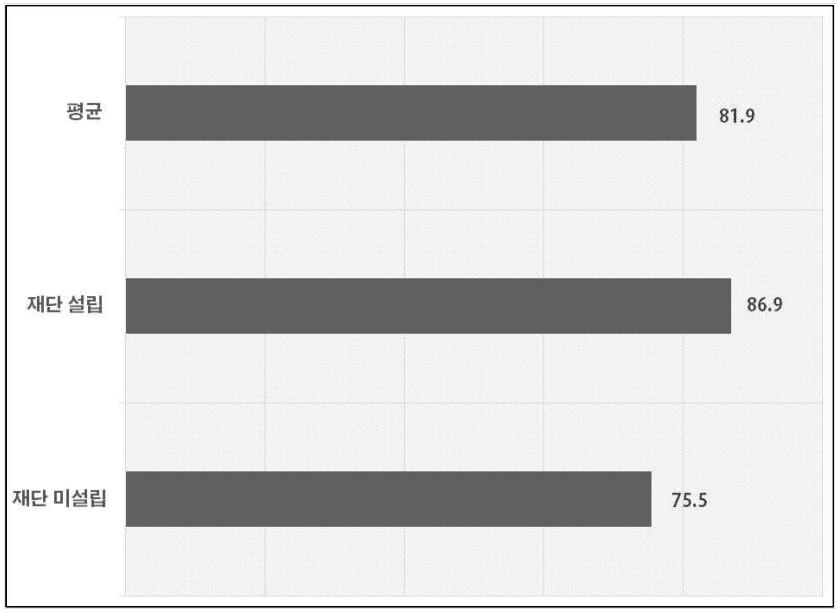
등급	지역
가	대구, 부산
나	광주, 대전, 전북
다	울산, 충북
라	경북, 충남
마	–
미추진	강원, 경기, 경남, 서울, 인천, 전남, 제주

[표 22]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역별 등급



[그림 16] 우리가락우리마당 지표별 평점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 보임.
- 야외 공연장 또는 야외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무료상설공연으로 15회~20회까지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야외 공연장의 전통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천 시 대비책 미비, 시설의 열악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의 개최시기는 대개 4월~10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주 1~2회 주말 저녁 시간을 주로 이용함. 공연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됨. 공연행사 이전에 시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의 전통국악 공연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고, 사업예산대비 공연 횟수, 관람객 증가추세를 볼 때 높은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의 지표별 평점은 구성 및 공연 프로그램 완성도와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 운영 적절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평가 항목에서는 각각 92.2점, 80.2점, 81.3점으로 80점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으나,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 성과 항목은 75.0점으로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취도를 보임.
- 6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통국악공연의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
- 고정 관람객과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고 생활문화속의 공연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장르의 다양화와 신진예술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전통국악의 보존과 현대적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야외공연장 또는 야외특설무대를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악공연의 장소성과 전통문화예술의 향유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공연장의 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문화선호도가 높고 전통예술자원 기반이 많은 지역에서는 마니아층의 형성되고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을 넘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예술의 현대화와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 다수의 지역에서 신진예술가, 신진단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고, 특정단체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을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평가는 서면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현장평가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제한적 평가로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그림 17]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장상주사업은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상주단체 간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형사업으로서 공연예술단체에게 상주단체로서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공연장에는 우수한 레퍼토리의 공연 ·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우수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등급에 따른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등급 내 순서는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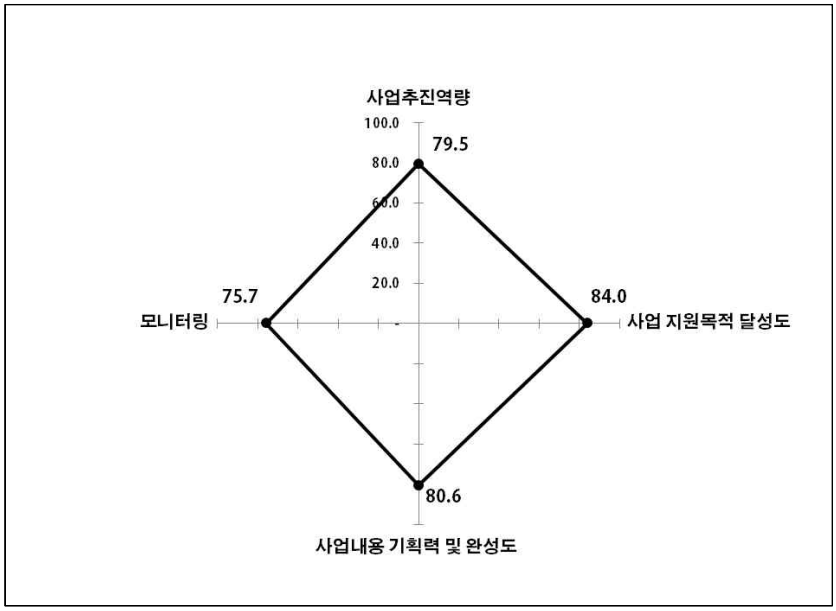
등급	지역
가	경남, 대구, 서울
나	대전, 울산, 전남
다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전북
라	인천, 제주, 충북
마	경북, 충남

[표 23] 공연장상주사업 지역별 등급

□ 공연장상주사업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상된 평가를 받음. 평가결과 사업별 평균에서 80.6점으로 지난해 79.9점보다 향상되었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과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각각 93.4점과 61.4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32.0점이 발생하였음. 이는 지난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40.7점 보다 편차가 7.3점 줄어들며 점차 수준이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줌

□ 평가 항목 중 '계획대비 집행실적', '매칭펀드 조성노력정도' 항목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지역문화수요의 반영도' 항목은 낮은 평가를 받음.

□ 2013년도 모니터링 평균점은 75.7점으로서 타 지표군보다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81.3점보다 5.6점 낮은 평가를 받음. 2012년부터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예술위원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연단체 및 공연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0점을 배점하여 타 지표와 합산함으로써 공연장상주사업의 종합 결과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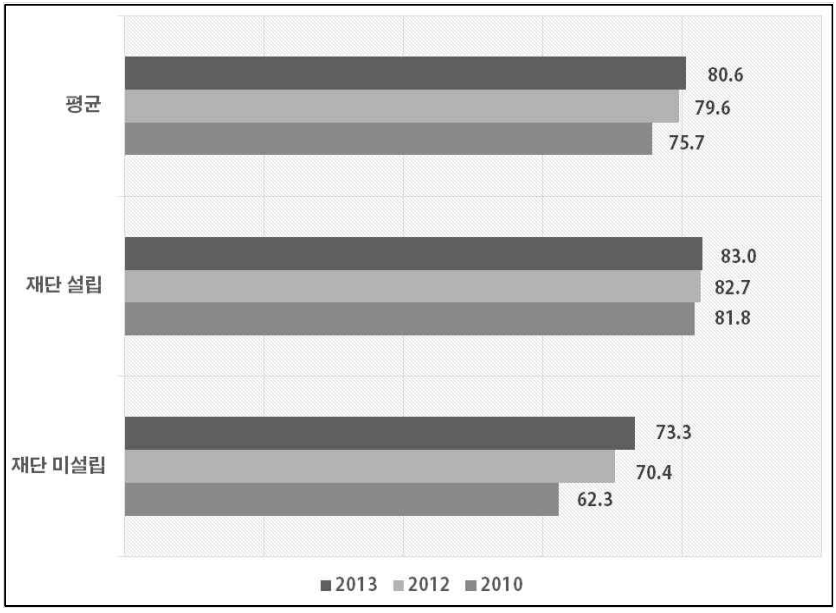
[그림 18] 공연장상주사업 지표별 평점

- 2013년 공연장상주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조 하에 퍼블릭 프로그램 중에 교육이외에도 문화 나눔 또는 지역특성 프로그램 선택 가능, 1개 공연장에 2개 이상의 공연단체가 상주할 경우 공연장에 대한 지급 비율 조정, 3년 이상 연속지원 여부 등의 결정을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주단체와 비상주단체 모두 지원하되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및 지역 간 예술단체 상호교류 프로그램, 단원 역량과 운영 역량을 배양하는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음.
- 상주단체 통합 페스티벌, 상주단체 담당자 정례모임, 상주 단체 간 교환 공연, 공연장–상주 단체 간 다자 교환 공연 등 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류의 방식도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임.
- 올해는 대표적인 교류활동인 상주단체페스티벌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남. '광주14색페스티벌', '인천의 IPRT(Incheon Performance Residence Team)—13 공연예술 페스티벌', '부산 상주단체페스티벌 한여름 밤의 꿈', 대전의 '예술로 나누는 공감(共感)', 경남 상주단체페스티벌 '굿드림', 충북의 '뻔뻔(fun fun)한 공연예술 페스티벌' 등으로서 네이밍 수준이 맹아적인 단계에 불과하나 향후 상주단체페스티벌의 지역공연예술축제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브랜드 구축에 시사 하는 바가 있음.

□ 상주단체의 창작 작품에 대한 공연활동 및 교류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흐름이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전국적으로 상주단체들의 성과를 집약하여 아트마켓화 하는 등 중앙차원에서의 유통· 판로 개척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관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대구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작품을 제작하거나, 일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의 자부담액을 전액 부담하기도 함. 충북 충주문화회관, 경남 합천문화예술회관 등에서는 새 단장을 통해 상주단체의 활동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공연장의 협력이 돋보임.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역량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 워크숍, 포럼, 보고회 등의 개최와 성과보고서, 사례집 등의 발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림 19]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재단 설립 여부 및 연차별 비교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공연장상주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80.6점이고, 재단 설립 지역은 83.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은 73.3점으로 9.7점의 편차를 보임. 지난해에 나타난 12.3점의 편차에 비해 그 편차가 감소함.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연차별로 점진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

-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내부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써 공연장 상주사업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빈칸을 두거나 해당 없음 · 미수용 등의 표현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이해하여 전혀 무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었으며, 전년도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한 곳도 있었음.
- 전반적으로 상주 단체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체역량과 사업 수행실적이 향상되고 있음. 다만, 여전히 외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수준은 대상과 활동 모두 구체성이 부족한 실정임. 사업추진역량에서 선정된 단체의 역량은 광역시도, 재단설립여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제3장

공통평가 항목 및 사업별 평가

제1절: 공통평가 항목
1. 사업추진 기초역량
2. 사업계획 적정성
3.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4. 홍보마케팅
5. 교류·협력 수준
6. 사업성과

제2절: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1. 사업 추진 역량
2.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3. 지역문화수요 반영 수준

제3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 수준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제4절: 시·도기획지원사업
1. 사업 추진 역량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제5절: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1. 사업 추진 역량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제6절: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 계획대비 집행실적
2.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3.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4.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 성과
5.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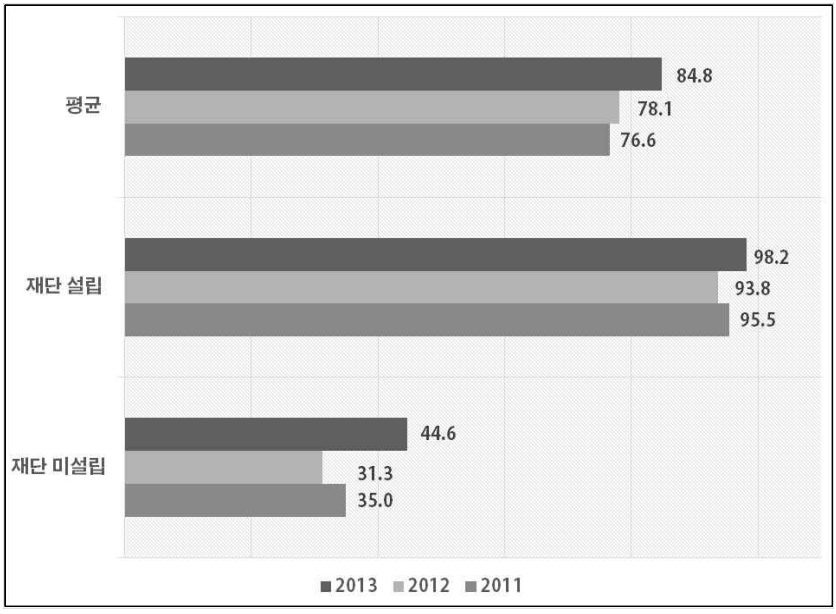
제7절: 공연상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사업추진 기초역량
2.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3.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모니터링

제1절 공통평가 항목

1. 사업추진 기초역량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지역협력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역문화비전 반영도, 지원사업 연계활동 여부, 지역문화재단 설립 여부, 사업추진역량 보유 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임.

□ 지난해까지는 40점 중 8점이 배점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7점으로 배점이 변경되었으며 3개 평가 항목에서 4개의 평가 항목으로 '사업추진역량 보유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음.



[그림 20] 공통평가 항목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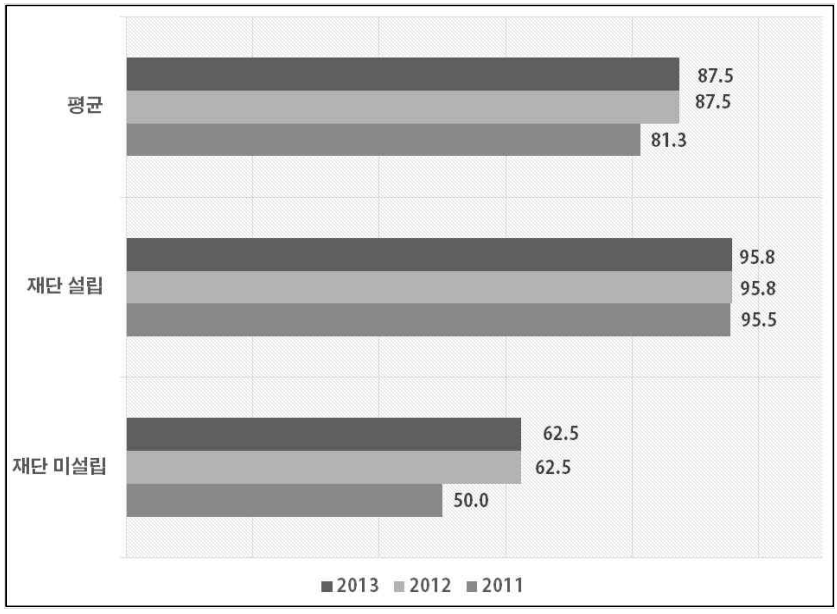
□ 평가 결과 매년 지원역량과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지원사업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됨. 재단 설립 여부 항목은 재단 미설립 지역의 재단 설립을 권고하고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평가 항목으로 앞으로 2014년 1월 충남문화재단 설립에 이어 '경북', '울산', '전북' 만 미설립 지역으로 남아 수년 내에 전체 광역시도의 광역재단 설립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통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기초역량 평가는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점 편차가 가장 큰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가. 지역문화비전 반영도

□ 이 평가 항목은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지역의 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지역의 문화비전과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 목표가 부합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협력형사업에 지역의 중장기 문화정책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이 항목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문화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지역의 중장기 정책 수립여부, 지역 중장기 문화정책과 지역사업 추진의 연관성 기술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몇몇 지역은 재단 자체적으로 또 몇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수립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역 문화비전과 문화정책이 지역 문화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았음.



[그림 21]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비전 반영도 평가 결과

□ 지역문화진흥법 발효 후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만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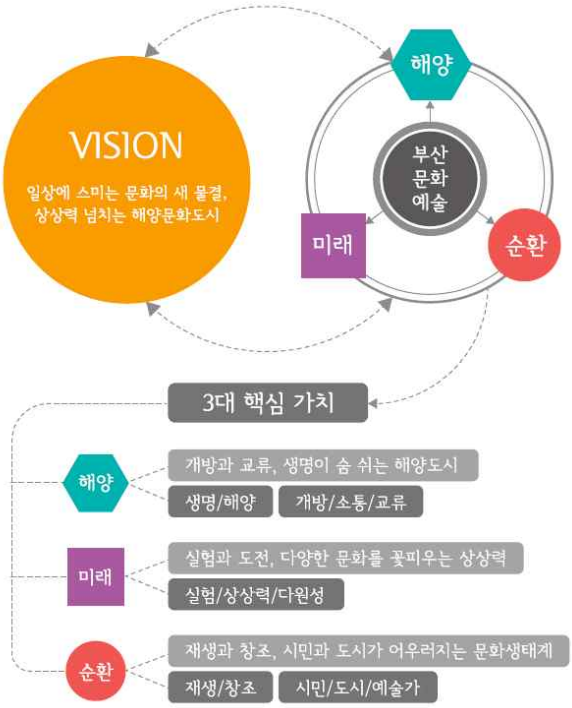
– 대구의 경우 대구의 중심문화정책인 '대구공연문화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중장기계획(2010년~2019년)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한 대표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 체계도를 설정하여 예술단체(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하여 예술지원을 통한 단계별 육성 전략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체계'를 수립하여 우수기획 / 집중기획지원사업을 통한 단체의 레퍼토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예술단체들의 창작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림 22] 대구지역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체계도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부산은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해양', '미래', '순환'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따라 '부산문화재단 2020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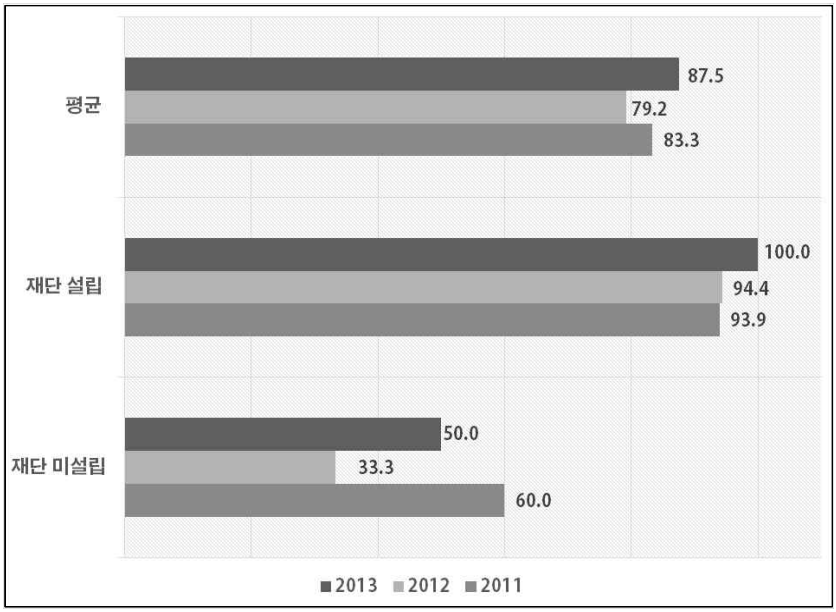


[그림 23] 부산 문화재단 2020 비전과 3대가치 개념도

나. 지원사업 연계활동

□ 이 항목은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한지협[2]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한지협에서 개최하는 전체회의, 교육, 워크숍 등 한지협 공식행사에의 참석여부에 따라 평가함.

2)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2007년 10월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여 발족한 법정협의체



[그림 24] 공통평가 항목 – 지원사업 연계활동 평가 결과

□ 지역문화지원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지협이 향후 위상강화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문화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인적자원 육성 등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중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때, 한지협 사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도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는 50점으로 재단 미설립 지역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 인천 지역**

– 인천에서는 한지협 개최 회의 및 워크숍에 재단 담당자나 팀장이 참여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재단 설립 지역에서는 한지협 개최 모임에 대한 참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소통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정/장소	행사명	참석자
2013-02-01(금)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지역협력형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워크숍	예술지원팀 임원시

2013-03-14(목)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	인천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간담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예술지원팀장 이정원
2013-03-25(월) 광주문화재단 회의실	국제교류 업무 협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남협력관 광주문화재단 국제교류담당자 예술지원팀장 이정원
2013-07-04(목)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종합워크숍	예술지원팀 임원시
2013-06-05(수) 예술위원회 본관 3층 세미나실	한지협 해외연수 사전워크숍	예술지원팀 최선미
2013-06-19~26 체코, 독일	한지협 해외연수	예술지원팀 최선미
2013-08-12 호텔아카데미하우스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의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
2013-10-21(월)~22(화) 전북 전주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차 워크숍	예술지원팀 임원시
2013년 중 대전유성리베라호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국 워크숍	예술지원팀장 이정원
2013-11.18(월)~22(금)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추진실태 조사 협조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고준환 예술지원팀장 이정원
2013-11-22(금) 인천문화재단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현장평가 수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관련자 예술지원팀장 이정원 예술지원팀 최선미
2013-12-06(금)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지역협력형사업 우수성과 행정인 추천	기획사업팀 주현수
2013-12-18(수) 대전 레전드호텔	2013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기총회	문화사업본부장 허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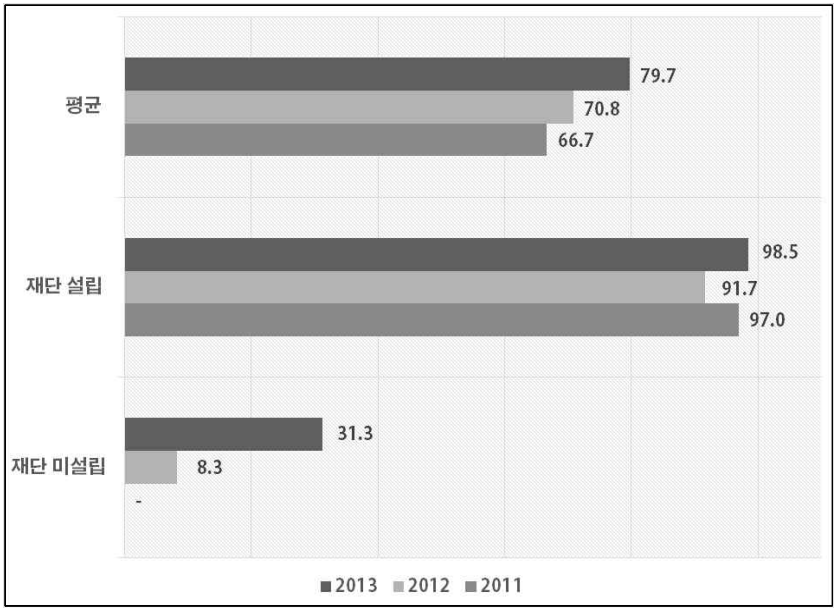
[표 24] 인천 지역의 한지협 개최 회의 및 워크숍 참여 현황

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여부

□ 이 항목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지와,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3년도 사업 평가 시에는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12개 시·도(경기, 강원, 제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남, 대전, 광주, 경남, 충북)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

며, 2013년 말 기준으로 경북, 울산, 전북, 충남 4개 지역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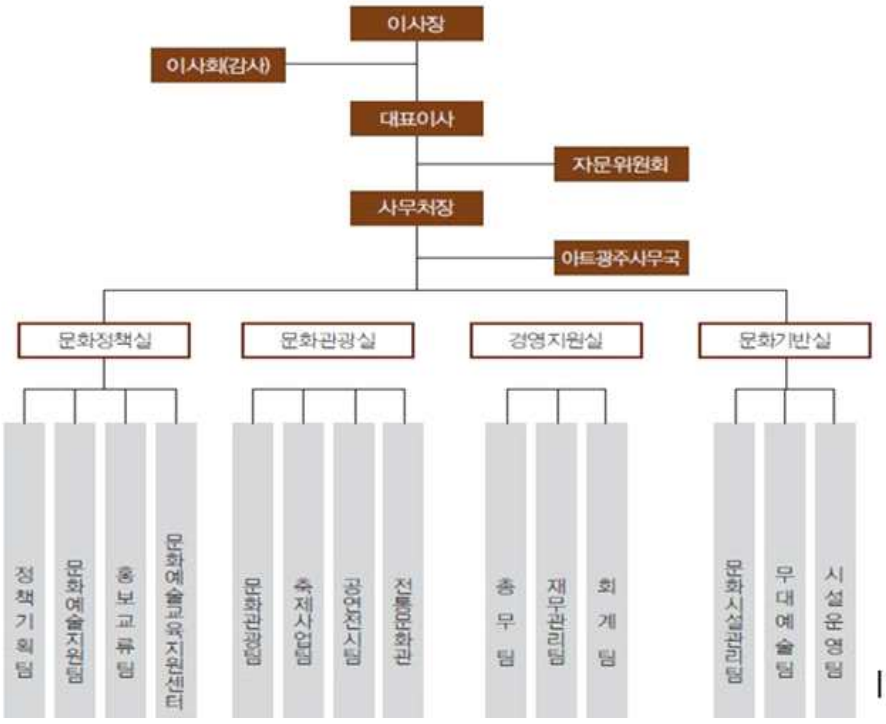


[그림 25]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재단 설립여부 평가 결과

-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는 재단의 설립취지, 조직구성, 업무문장, 활동연혁, 활동성과 등이 기술된 보고서와 관련 자료 재단에서 발행한 소개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본 평가 항목에는 총 2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1.6점(백분위 환산 79.7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98.5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1.3점으로 나타남.
- 재단이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출범 준비가 완료된 지역의 경우 다른 미설립 지역과는 배점에 차이를 두었으며, 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설립초기 재단으로 재단의 실질적인 기능이 미비하거나, 파견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실질적인 역할 담당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음. 또한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워크숍, 정기교육 등 직원들의 지원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직원들 간의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시 · 도의 경우에도 지원사업 담당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재단에 버금가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은 평점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가점을 부여하였음.

□ **우수사례 : 광주 지역**

–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2012년 문화바우처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2년 연속 전국 1위,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설립초기부터 활발한 사업추진역량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왔으며, 2013년에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3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특히 시민예술가 15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나무예술단' 과 도시축제 통합브랜드인 '페스티벌 오! 광주'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선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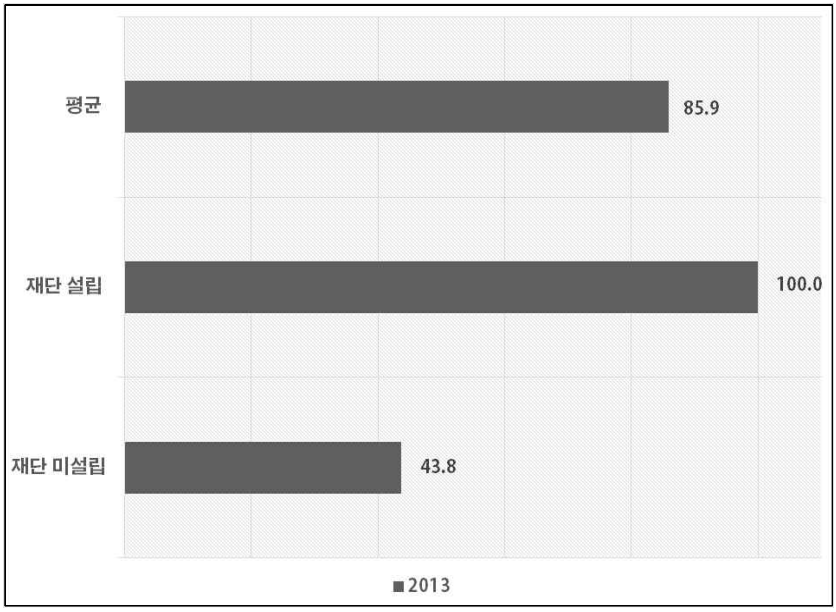
[그림 26] 광주문화재단 기구표 (2013년 2월 기준)

라. 사업추진 역량 보유 여부

□ 이 항목은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원사업 담당자의 근속연한, 해당업무 담당기간,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나 이력 등을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장을 포함한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 대부분 지역의 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었으나, 담당자들의 해당업무 담당기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짧거나 근속연한이 부족한 신규직원들 위주로 담당자를 배치한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담당인력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를 하였음. 주로 재단 미설립 지역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였음.

□ 재단 미설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인원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일정기간 이상 해당 업무를 맡아서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는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거나, 전문계약직 인력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 지역은 높은 평가를 받음. 이 평가 항목은 지난해까지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여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던 항목으로, 지역에서 지원사업의 가치와 업무내용의 전문성, 업무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판단하여 2013년부터는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분리함.



[그림 27] 공통평가 항목 - 사업추진역량 보유 여부 평가 결과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부산은 직원 1인당 매월 1회 최대 6시간의 '문화충천의 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예술 현장 및 기관탐방,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심의 독서토론회를 매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재단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인원 36명의 직원이 118회의 교육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역

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구분	회차	도서명	발표자
1월	1회	사진이란 무엇인가(최민식 지음)	서환규 (콘텐츠팀)
2월	2회	「대마도에서 만난 우리 역사」 (문사철 지음) 등	양주원 (국제교류팀)
3월	3회	「무한 상상력을 위한 크로스」(정재승+진중권 지음)	윤지예 (교육센터)
4월	4회	철학이 필요한 시간(강신주 지음)	정민정 (기획홍보팀)
5월	5회	음식에 담긴 문화 요리에 담긴 역사 (린다 사비텔로 지음)	최지형 (국제교류팀)
6월	6회	언론이란 무엇인가 (피터스티븐 지음)	강민규 (창작공간팀)
7월	7회	「생활 속의 음악이야기」 (김원명 외 지음)	조경은 (교육센터)
8월	8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무하마드 유누스 지음)	권지원 (문화복지팀)
9월	9회	나를 디자인하라(카림 라시드 지음)	박성관 (문예진흥팀)
10월	10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2,3 + @	박승환 (국제교류팀)
11월	11회	안토니오 그람시와 문화정치의 지형학 (이성철 지음)	김현명 (교육센터)
12월	12회	습관의 힘(찰스 두히그 지음)	권영훈 (콘텐츠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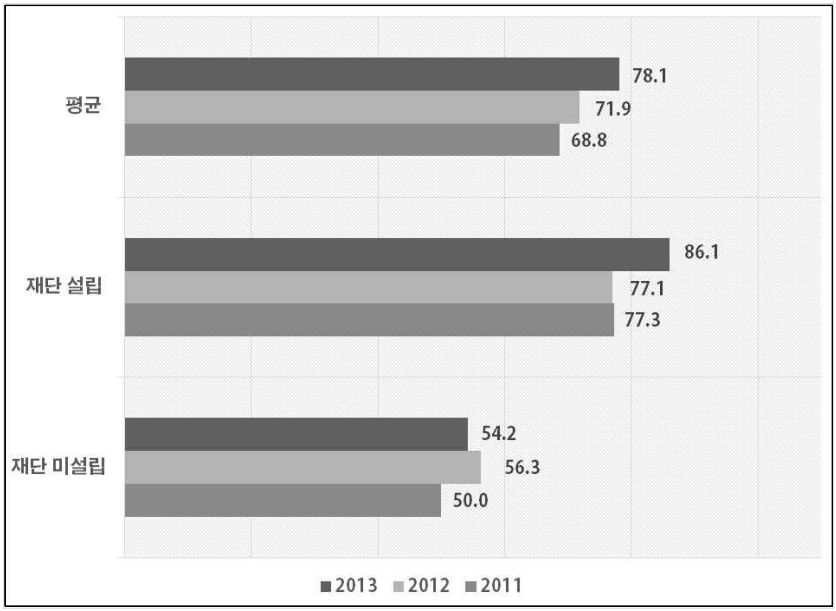
[표 25] 부산문화재단 직원들의 2013년 독서토론 도서 및 주제

2. 사업계획 적정성

가. 성과 목표 유무 및 적합성

□ 이 평가 항목은 성과 목표 유무 및 적합성 지표를 통해 각 사업의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평가를 통해 지역에 지원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해마다 성과 목표를 재설정하며,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를 선정된 단체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만들어진 평가 항목임.

□ 이 평가 항목은 지역 스스로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성과 목표 수립과 자체평가, 평가환류를 통한 지원사업의 지역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임. 이 평가 항목에는 3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은 2.3점(백분위 점수 78.1점)으로 평가됨.



[그림 28] 공통평가 항목 - 성과 목표 유무 및 적합성 평가 결과

□ 정량적 성과 목표 를 기술하여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몇 안 되며, 대부분 지역이 사업별로 정성적 성과 목표나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아직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이해나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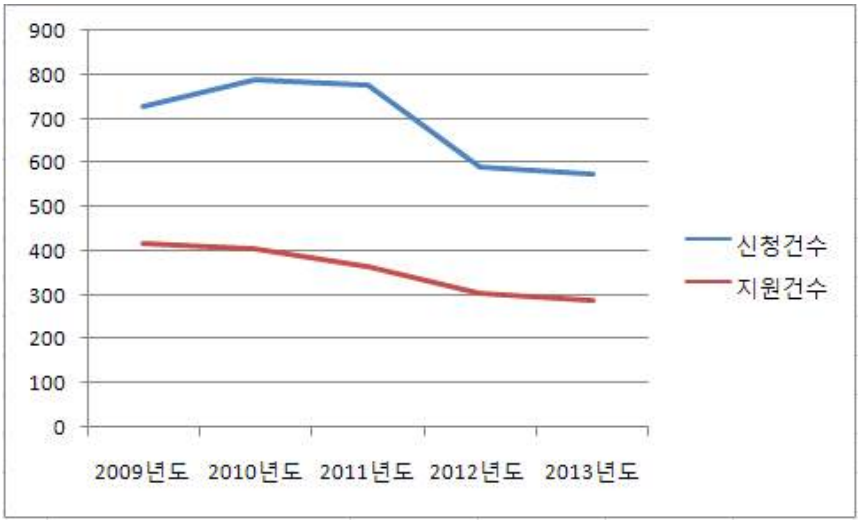
판단됨.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의 과정 관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평가 방향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과정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성과 관리 및 성과 평가로 평가방향이 새롭게 옮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점점 지역별로 자체적인 정량적, 정성적 성과 목표 관리가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의 경우 2011년부터 집중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육성지원사업 선정비율은 2010년 55.4%에서 2011년 50.3%, 2012년 52.2%, 2013년 50.3%로 50%대를 유지하면서도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체계가 점차 안정화되며,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구 분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금액	평균 선정금액	선정비율
2009년도	729건	418건	-	2,076백만 원	57.3%
2010년도	671건	372건	1,719,000,000원	4,621백만 원	55.4%
2011년도	664건	334건	1,682,000,000원	5,036백만 원	50.3%
2012년도	598건	312건	1,642,000,000원	5,263백만 원	52.2%
2013년도	574건	289건	1,589,000,000원	5,498백만 원	50.3%

[표 26] 대구지역 최근 5년간 육성지원사업 신청대비 선정률 비교



[그림 29] 대구지역 최근 5년간 지원신청률 및 지원선정건수 추이

□ 우수사례 : 대전 지역

– 대전은 지원사업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값을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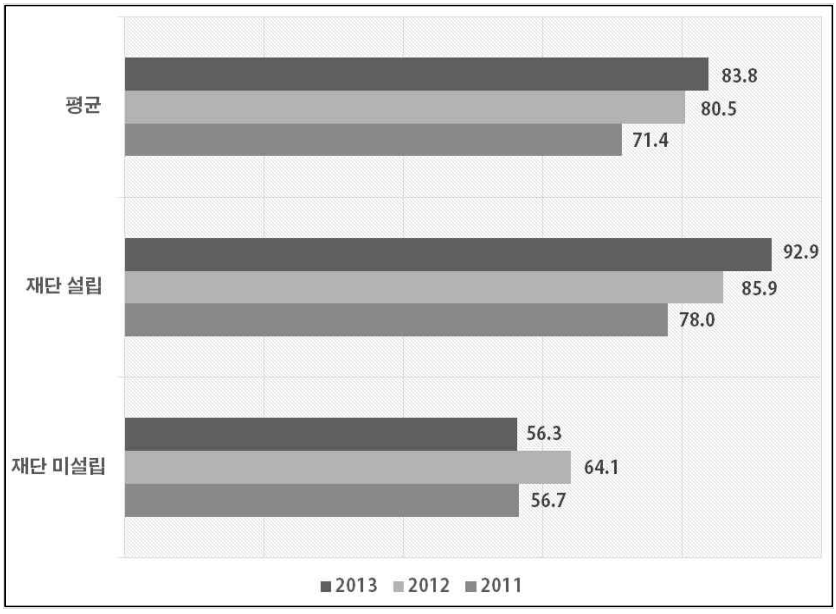
사업명	성과 목표	핵심성과지표 (KPI)	목표값 설정		관리 및 측정방법
			13년 목표	근거	
예술창작지원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	예술창작활성화	지역예술단체 (개인) 만족도	· 만족도 70% · 지원사업 체계의 전략화 (신진 · 국제 · 조사연구 사업 신설 · 분리 등)	· 만족도 60% 저조 · 만족도 70% 보통 · 만족도 80% 양호 · 만족도 90% 우수	·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멘토링제 도입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조성 및 공연장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 만족도 70%	· 만족도 60% 저조 · 만족도 70% 보통 · 만족도 80% 양호 · 만족도 90% 우수	· 단체와 공연장 협력체계 구축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창작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체계의 전략화	· 단체 특성별 사업유형 차별화	–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수행조건 차별화 요구 · 사업수행단체 문화 사랑방 ('13. 3. 13)	· 연중평가위원회 운영 · 만족도 조사
아티언스 프로젝트 (시 · 도기획지원)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문화 브랜드 창출	과학분야 연구원과의 MOU체결 건수	· MOU체결 2건	– '12년 협력기관과의 MOU 0건 기준	· MOU체결 후 후속 프로그램 가동 · 만족도 조사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	참여 관람객 수	· 관람객 10% 확대	– '12년 평균 관람객 250명	· 주민센터 이용 대민 홍보 · 시민 만족도 조사

[그림 30] 대전 지역의 지원사업별 성과 목표 기술 및 관리

3.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 이 항목은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추진체계의 안정적 구축 여부와 운영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2012년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평가 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추진체계 및 지원과정 관리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배점 비중을 크게 낮춰 평가가 진행되었음.

□ 이 평가 항목에서는 지원사업의 네 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지원체계의 적절성(2점), 심의체계의 적절성(3점), 평가체계의 적절성(3점), 그리고 평가내용의 환류(2점)를 세부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31] 공통평가 항목 -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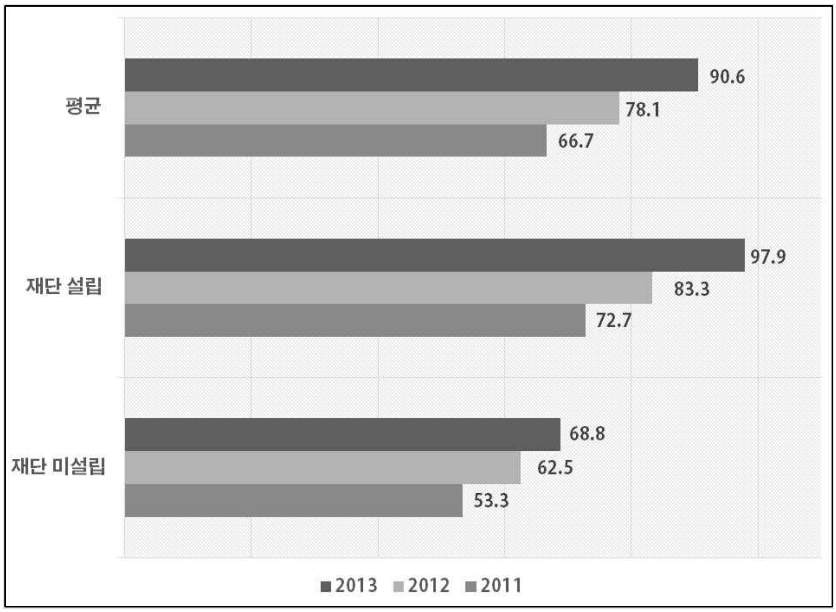
□ 평가 결과 평균점은 83.1점, 재단 설립 지역은 92.9점, 재단 미설립 지역은 53.8점으로 지난해보다도 큰 편차를 보임.

□ 4개의 세부평가 항목 중 지원체계의 적절성이 2점 만점에 1.8점으로 가장 평균점이 높았으며, 평가체계의 적절성이 2.4점으로 평균점이 가장 낮았음. 가장 낮은 세부평가 항목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전국 평균 80점으로 전반적인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원사업 추진체계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음.

가. 지원체계의 적절성

□ 지원체계의 적절성 항목은 지원사업의 일정계획에 맞게 지원신청, 심의, 통지 등이 진행되었는지와 지원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사업설명회와 지역 홍보를 추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실행결과의 비교,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매체홍보 추진여부 등을 평가하였음.

□ 2013년 평가에서도 각 사업별 공고-접수-심의-교부 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었는지, 예산 집행률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업무별 추진일정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의 지원사업 설명회와 설명회 공지를 위한 홍보추진여부 및 홍보방식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함.



[그림 32] 공통평가 항목 - 지원체계의 적절성

□ 지원체계 적절성 항목에는 2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평균은 1.81점(백분위 환산 90.6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은 97.9점, 미설립 지역은 68.8점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 설명회는 지난해와 같이 사업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역부터,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역까지 지원사업 수혜단체들을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역부터, 설명회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지역까지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가 추진되고 있음.

□ 설명회 추진횟수나 추진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라진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절차, 참여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공모 내용들이 지원사업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와, 기존 수혜단체들 이외에 새로운 신규 수혜단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임.

□ 우수사례 : 대전 지역

- 대전은 지원사업 공모 및 심의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선정결과 발표가 1월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단체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편의를 제공하고 연중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번	구분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실행 일정
1	사업계획 수립	13년 사업계획	' 12. 11월	' 12. 11월
2	지원신청 안내 공고	재단 홈페이지	' 12. 12. 4(화)	' 12. 12. 4(화)
3	사업 설명회 개최	대전광역시청 강당	' 12. 12. 5(수)	' 12. 12. 5(수)
4	지원 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 12. 12. 6(목)~12. 21(금)	' 12. 12. 6(목)~12. 21(금)
5	심의위원회 심의	다단계 절대평가	' 13. 1. 7(월)~ 1. 29(화)	' 13. 1. 7(월)~ 1. 29(화)
6	심의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 13. 1. 31(목)	' 13. 1. 31(목)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설명회	대전광역시청 강당	' 13. 2. 18(월)	' 13. 2. 18(월)
8	보조금 집행 및 사업 평가	모니터링 현장 평가	' 13. 2. 19(화)~	'13. 2. 19(화)~
9	평가 환류	모니터링 20점, 정산 10점 반영	익년도 심의에 반영	익년도 심의에 반영

[그림 33] 대전 지역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추진일정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는 사업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설명회 개최 후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 희망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의 '예술지원 컨설팅' 을 연이어 개최하였음. 지원사업 공모만으로 끝나는 설명회가 아니라, 지원신청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양질의 사업기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11. 28(수) 15:00 ~ 17: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 참석대상 : 지역 예술단체 대표 및 실무자 400여명
- 내 용 : 2013년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문화예술진흥사업 등 3개 지원사업) 소개, 신청접수 및 선정 일정 등 사업전반에 관한 내용 등
- 참석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위해 사전 재단 홈페이지 팝업 게시, 설명회 개최 2주전부터 설명회 당일까지 지역 예술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3회 실시로 참석 유도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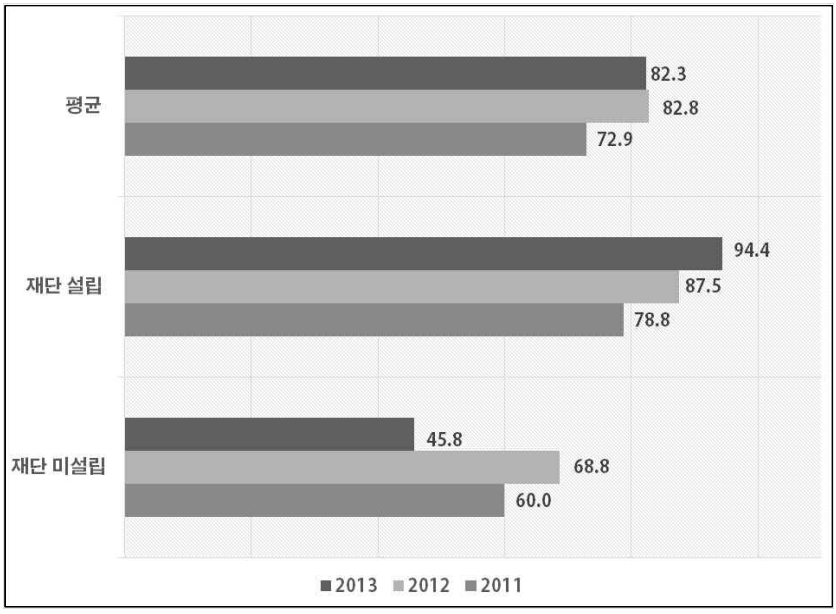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후 '예술지원 컨설팅' 2회 개최.
- 1차 : 일반공모 2012. 12. 4(화) 14:00 대구문화재단 회의실
- ·2차 : 기획공모 2012. 12. 5(수) 14:00 대구문화재단 회의실
- 대상 :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 신청 희망 예술단체
- 컨설팅 내용 : 창작진흥사업, 해외교류지원사업 및 전반적 컨설팅, 신규지원으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창작진흥사업 및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심의 방식, 공공미술분야 지원신청 유무 및 지원신청 방법 등

[표 27] 대구 지역 육성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나. 심의체계의 적절성

□ 심의체계의 적절성 지표에서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기준이 사업목표와 일치하는지, 심의기구를 구성하였는지, 사업별로 심의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위원은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들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심사위원 명단, 심의 결과 및 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추진하였음.



[그림 34] 공통평가 항목 - 심의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 심의체계의 적절성 평가에는 3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 환산을 통한 전국 평균점은 80.2점, 재단설립 지역은 94.4점, 미설립 지역은 37.5점으로 나타남.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자체평가 보고서의 항목별로 평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되지 않은 평가 항목들이 있어 평균점수가 많이 낮아짐.

□ 대부분 지역이 사업별 심의기준은 사업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기구 구성에서도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공연장상주사업과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심의위원 구성이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다만, 매년 동일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육성지원사업인데, 육성지원사업의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단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곳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공개 지역은 심의위원 명단 공개 후에는 심의위원 섭외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과도한 민원제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하지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의결과와 과정이 공개되어도 민원 발생은 극히 소수에 그치고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앞선 재단설립 지역의 설립 초기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 대전 지역**

- 대전은 심의 결과 발표 시 위원 명단과 심의 과정 및 각 분야별 심의 의견, 총괄심의 의견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단계 절대평가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다단계 절대평가 방식은 지역외부 인사 40% 이상 구성 및 최소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중치가 다른 각 심의 기준별 5등급 절대 평가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 저조(E)] 후 양 극단 값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심의단계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친소관계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는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평가 방식으로 판단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총괄심의**	1차 **분야별** 심의	2차 **분야별** 심의	2차 **총괄심의**
안건	· 지원심의 방법 · 공통심의기준 · 분야별지원 예산 배분 · 기타 사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위원 상호 토론 · 지원대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위원별 독립 채점	-채점(절대평가) 결과 종합 -지원 대상 사업 최종 결정 · 절대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 · 각 대상 사업별 지원액 결정 (사업규모, 내용 등 감안 결정)	· 분야별 지원 심의 결과 종합 검토 · 최종의결

[그림 35] 대전문화재단의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제도 단계별 심의안건

사업명	과정	일시	내용	비고
예술창작지원	1차 총괄심의	'12. 1. 7	분야별 예산, 심의방법, 심의기준 의결	1단계
	1차 분야별심의	'13. 1. 8~ 1. 17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채점	2단계
	2차 분야별심의	'13. 1. 17~ 1. 28	채점결과종합, 지원액 결정	3단계
	2차 총괄심의	'13. 1. 29	심의결과 종합 검토 및 의결	4단계

[그림 36]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제도를 적용한 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단계별 추진일정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경기에서는 2013년 2월 공모지원사업 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중심의 위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함.

가. 심의위원 선정의 중복성 배제 및 투명성 확대

- 심의위원 전년 대비 67% 이상 교체(2/3 이상 교체)
- 최근 2년 연속 경기문화재단 심의위원 동일사업 심의 배제
- 당해 연도 동일 심의위원의 2개 공모지원사업 중복 선정 배제
- 심의위원 후보자 3배수 추천하여 무작위로 수락여부, 일정 확인하여 확정

나. 공모지원사업 이해관계자 심의위원 배제

- 각 지역의 예총 · 민예총 지회장 및 임원
- 도의원, 시의원 등 정계 인사
- 심의 대상사업 신청자 또는 관계자

다. 다양하고 풍부한 심의위원 풀 구성

- 경기도 지역 예총 · 민예총 · 문화원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예술위 심의위원 풀 공유)
- 경기문화재단 최근 5년간 심의위원 DB 활용
- 심의위원 풀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예술위 공유)

심의위원 풀 구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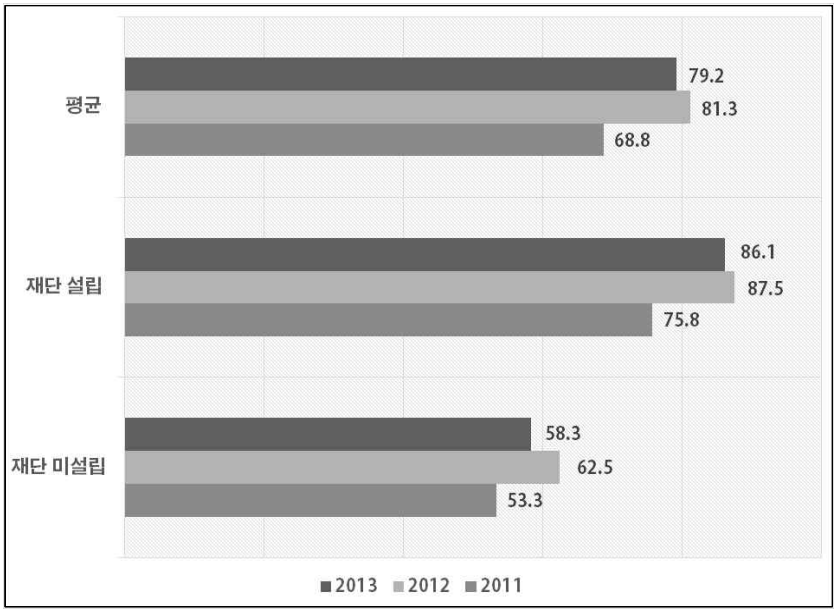
- 문화예술 창작 · 비평 · 연구 · 기획 분야 5년 이상 종사자(활동자)
- 문화일반,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인사
- 예술위원회, 시 · 도 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의 심의위원, 평가위원, 자문위원 경력자
- 전공 및 활동 장르, 성별, 연령별 형평 고려

[표 28] 경기 지역 심의위원 개선안

다. 평가체계의 적절성

□ 평가체계의 적절성 지표는 지원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평가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 평가체계 모델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전문가 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 방식이 적절하였는지, 시민모니터링단 구성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체계 관련 자료와 평가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워크숍 등의 관련 자료,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함. 지난해에 비해 자체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체평가 시스템을 강화한 지역들이 늘어났으며, 시민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도 체계화됨. 반면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됨.



[그림 37] 공통평가 항목 - 평가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 평가체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배점에는 3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2.38점(백분위 환산 79.2점)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경기 지역**

– 경기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방문, 평가회의와 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심층평가가 진행됨, '우리 동네 예술편지'를 통해 지원사업자 간 상호 교류모니터링의 결과가 공유되는 독특한 자체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업담당자의 현장방문을 10회에서 50회로 대폭 확대하여 심층평가를 강화한 것도 특징으로 보임.

사업명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방식	평가방법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별별예술프로젝트	• 분야별 전문비평가 17명으로 구성 시각 – 강보라(시각평론가) 외 7명 연극 – 김나볏(연극평론가) 외 3명 무용 – 김민정(무용평론가) 외 1명 음악 – 장인종(국악평론가) 외 2명	• 별별예술프로젝트 32건 전수 평가 • 우리동네 31건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평가위원 회의 개최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및 평가서 작성
전문예술창작발표	• 전문예술창작발표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단체별 연습현장 방문 2회 • 쇼케이스(PAFe) 현장 참관

	안치운(연극), 황두진(연극), 김채현(무용), 박성혜(무용), 이은경(연극)	• 평가위원 회의 개최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및 평가서 작성
공연장상주단체육성	• 상주단체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8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 이병훈(연극), 김소연(연극), 안경모(연극), 정선영(오페라), 허명진(다원), 김예림(무용), 전지영(국악), 장인종(클래식), 이은미(예술경영,책임연구원), 박재현(연구원)	• 신작, 기획공연, 관객개발 등 단체별 현장 방문 3회 및 인터뷰 진행 • 평가위원과 연구원 2인이 함께 현장 방문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상주단체별 정량보고서 검토 • 성과보고회 개최 • 평가위원 회의 개최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와 등급, 평가의견서 작성

[표 29] 경기 지역 사업별 전문가 평가방식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부산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현장관객평가, 행정평가로 이뤄짐. 총 7개 상주공연장 8개 상주단체에 대해 공연별 2명의 전문가 현장평가가 이뤄짐. 부산은 특히 시민서포터즈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음.

평가절차	사업추진 주체	지원사업자	정책 자문 및 평가	사업의 목표대상
	문화재단	공연예술단체/공연장	전문가	일반 시민
평가단 구성	평가위원 선정	–	선정 사업별 평가단 구성	현장 관객평가
사업준비	–	사업수행 전에 교부신청서 제출	–	–
현장평가	현장참관	사업수행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실시
사업평가 (중간·결과)	평가회 준비	사업성과 발표	평가서 작성	–
평가서	행정평가서	자체수행평가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전문가평가보고서	관객평가보고서

[표 30]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절차

1. 공 연 명		2. 상주단체	
3. 사업기간		4. 상주공연장	
5. 관객 수(해당공연장 총관람석 대비)	/ 석	6. 지 원 금	
7. 공연내용	(※상세하게)		
8. 공연 프로그램요약			

9. 사 업 결 과 평 가

평 가 항 목		배점내역					평가 점수	등 급	
		A	B	C	D	F			
공 연 작 품 성 (60)	예술성(20)	20~17	16~12	11~7	10~5	4~1		70~	A
	완성도(20)	20~17	16~12	11~7	10~5	4~1		60~	B
	창의성(20)	20~17	16~12	11~7	10~5	4~1		50~	C
상 주 협력체계 (20)	관객만족도(10)	10~9	8~7	6~5	4~3	2~1		40~	D
	홍보 마케팅효과(10)	10~9	8~7	6~5	4~3	2~1		0~	F
합 계 (8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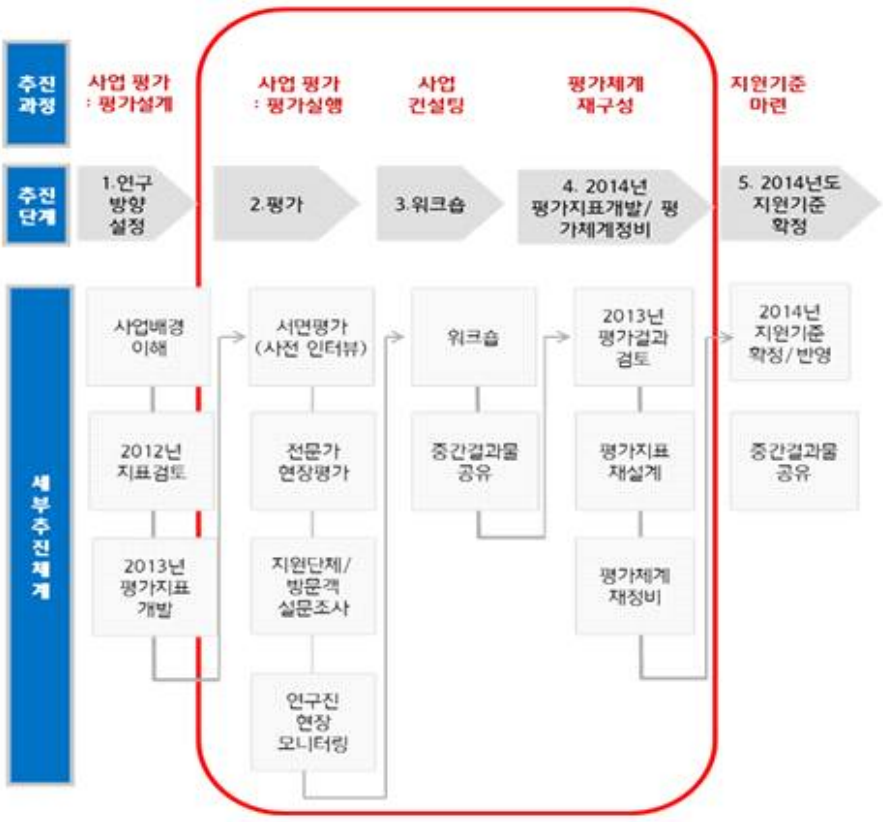
평 가 자 소 속 직
성 명 (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표 31]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전문가 현장평가서

□ 우수사례 : 광주 지역

– 광주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 연구진과 평가모니터링단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래 도표는 평가추진체계를 소개한 도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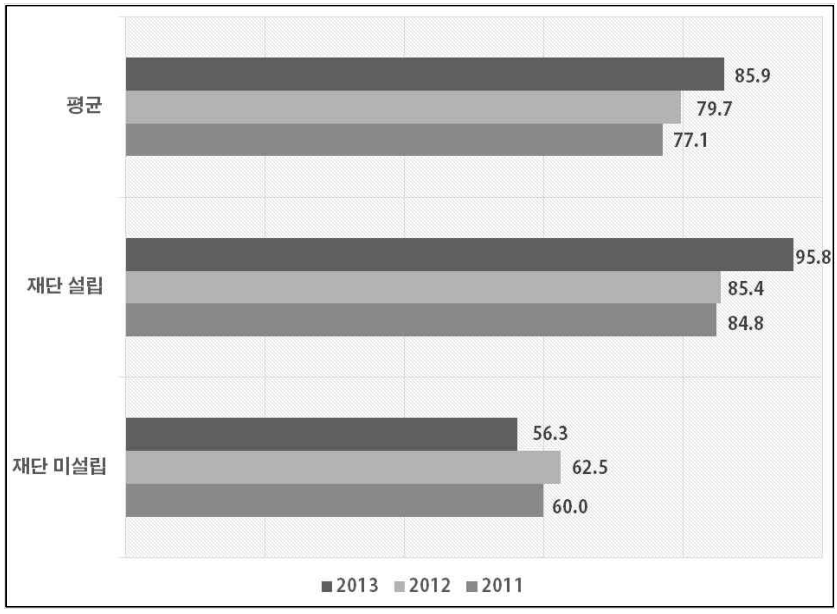
[그림 38] 광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추진체계도

라. 평가내용의 환류

□ 평가내용의 환류 지표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하였는지,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였는지, 전년도 선정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 평가와 사업비 집행,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참여제한 및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평가환류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결과 환류방안 관련 자료, 전년도 평가 결과 적용 및 사업개선 방안과 관련된 회의개최 여부 및 회의록, 전년도 평가 결과 적용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함.

□ 본 평가 항목에는 2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1.72점(백분위환산 85.9점)으로 나타남.



[그림 39] 공통평가 항목 - 평가내용의 환류 평가 결과

□ 우수사례: 서울 지역

- 서울은 지원주체와 수혜대상 단체가 모두 사업개선을 위하여 평가 결과 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선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예술단체(예술가)에 제공하여 차기년도 사업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과 시민모니터링 평가내용이 총평을 편집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또, 지원주체인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는 현장평가 시에 수집한 정보를 종합평가를 통해 피드백하고 지원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평가 결과 선정 예술가(단체)에 제공

○ 선정 예술가(단체)가 차기년도 사업 수행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과 시민모니터의 총평을 일부 편집하여 제공
- 2013년 총 198개 예술가/단체에 제공

□ 현장평가 시 수집한 정보를 종합 평가를 통해 피드백, 지원프로그램 개선 활용

○ 전문평가위원 및 시민모니터가 작성하는 정보는 해당 사업 수행자에 대한 향후 심사 시 환류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도록 구성
- 주관적인 평가는 최대한 배제되도록 평가지표 구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통한 상시 의견 확인
- 2012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2013년 공연)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 개선 의견 제출을 완료

□ 예술지원사업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반영

○ 현장평가위원 및 현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넘어서, 다양한 관계자/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종합하여 다음 해 지원사업 개선에 반영

평가 결과	평가 의견 수렴 경로
사업 수혜자 의견	◦ 성과보고서 [건의사항] 항목 ◦ 서울시 고객만족도 조사(관리카드 통해 미흡사항 상시 관리) ◦ 각 지원사업별 사업설명회, 선정자 간담회 ◦ 사업담당자 현장 방문(상시)
전문가 의견	◦ 예술현장 전문가 간담회 ◦ 예술지원체계개선 연구
지역 정부 의견	◦ 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관리카드 통해 상시 관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중 상시 개선)
평가위원 의견	◦ 평가위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서 상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조회 가능
기타	◦ 예술지원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예술 단체를 위한 세무회계 교육

[표 32] 서울문화재단 평가 환류 방침

4. 홍보마케팅

가. 지역문화수요자와 소통 노력

□ 홍보마케팅 평가는 지원사업에 대한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홍보마케팅 관련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통합홍보채널을 확보 ·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지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개별단체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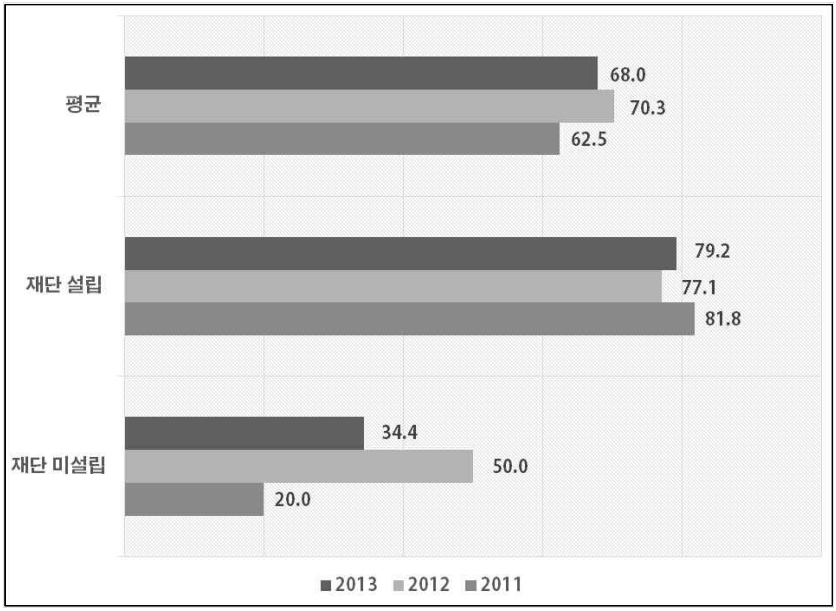
□ 지역별로 기본적인 홍보 매체만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지원사업 수혜단체들의 지원사업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통합홍보 부스의 운영까지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다양한 홍보매체가 개발 · 운영되고 있음.

□ 문화재단 미설립 지역은 대부분 홍보 매체를 운영하거나 업데이트 할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단체의 홍보역량에 따른 수혜단체의 자체적인 홍보노력만으로 지원사업이 홍보되고 있음.

□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만큼이나 간접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시장을 확대하고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문화지원기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의 수혜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지원금 몇 백만 원보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홍보지원의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매년 예술인,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술인들이 금전적인 지원 외에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간접 지원 방식은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아울러 지역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잘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이 자체평가 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 지침공지를 위한 모임이나, 2-3시간 수준의 피상적 교육 활동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수요자들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역문화생태계를 확대하고 강화시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려는 의지가 취약하다고 판단됨.

□ 홍보마케팅 평가를 위해서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정기간행물 발행 여부,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 명의로 지역 언론사에 사업 안내를 위해 진행한 보도, 신규 문화수요자 개발을 위한 통합홍보 및 CRM 방안, 통합 홍보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실질적인 활용수준, 지원수혜단체의 홍보,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워크숍 추진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음.



[그림 40] 공통평가 항목 - 지역문화수요자와 소통 노력 평가 결과

□ 홍보마케팅 노력에 대한 평가에는 4점이 배점되어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평가 결과는 전국 평균 2.72점(백분위 환산 68.0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평균점은 낮아짐. 재단 설립 지역은 평균점이 올라갔으나, 미설립 지역은 홍보마케팅 활동 기술에 있어서 변화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수준임이 확인되어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대구는 공연문화도시 대구를 상징하고 지역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를 구축, 운영하고, 'dgtickets'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티켓 판매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매월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45개 기획사의 공연에 대한 할인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공연정보리플렛 비치 등 실질적인 홍보매체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인원(명)	281	1,189	559	520	655	921	1,019	1,201	6,345
판매수(매)	168	1,663	243	216	552	596	1,393	942	5,773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전광판 할인안내 → 홍보동영상 송출 → 리플렛 비치 → 포스터 게시 → **[공연홍보의 장]**	**dgtickets** **공연정보센터** 	← 티켓발권 ← 공연정보안내 **[원스톱서비스]**	대구시민/ 인근 시 · 도 공연애호가

[표 33] 대구문화재단 dgtickets의 실적 및 역할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부산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 부산 문화예술종합잡지인 계간지 『공감 그리고』 발간(년 4회 매회 3,000부 발행), 부산문화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부산문화재단 모바일 웹 개발 운영, 웹진발행(부산 문화재단 홈페이지 가입자 및 부산 문화예술인들에게 매회 1,000명 발송), 시민서포터즈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서비스 운영을 통해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및 자체사업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기본적인 홍보매체 운영이외에도 사업별 특화된 홍보활동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음.



[그림 41]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공감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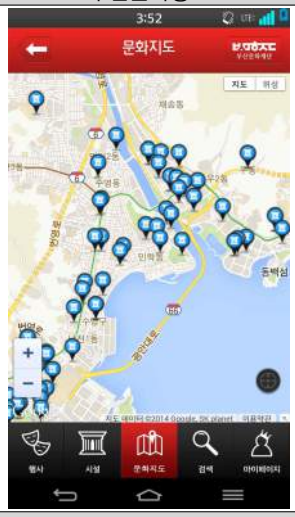
부산문화정보



문화행사



시설정보



문화지도



검색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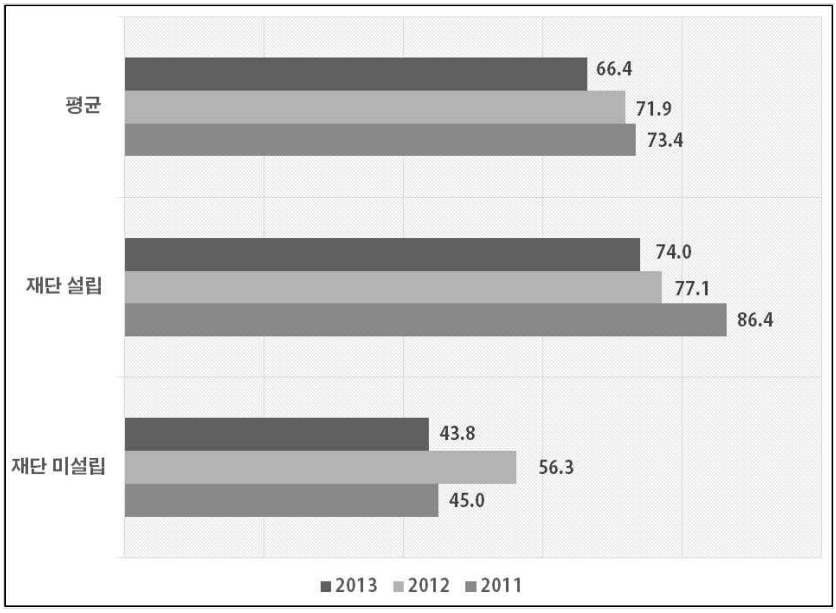
마이페이지

[표 34] 부산 문화정보 어플리케이션 화면 소개

5. 교류 · 협력 수준

가. 지역 간 ·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 여부

- 지난 2011년에 처음 포함된 평가지표로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기획의 주체가 되어 타 지역과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해외 예술가(예술단체)와의 국제적인 교류 · 협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교류 · 협력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지역과 단순히 지원 사업 수혜단체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나열한 지역과 편차를 두려고 하였으며, 지역 간 교류보다 국제적인 교류 활동에 가점을 주었음.
- 이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기획하여 타 지역과의 교류 ·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및 성과를 증빙한 자료, 해외 예술단체(예술인)와 지역 예술단체(예술인)와의 교류 · 협력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례 및 성과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하였음.
- 단, 지역협력형사업과 전혀 무관한 정례 문화행사의 개최나, 수혜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거나, 수혜단체의 창작 활동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시도의 국제 교류형 축제 행사 등은 지역 예술단체의 교류협력 수준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음.



[그림 42] 공통평가 항목 – 지역 간 ·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 여부

□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4점 만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전국 평균점수는 2.66점(백분위 환산 71.9점)으로 지난해 보다 약간 낮아졌는데, 이는 지역 간 교류 협력만으로도 가점을 주었던 데 반해 2013년부터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성과창출 여부와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에 대해 더 큰 가점을 주려고 하였으며 실질적인 교류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우수사례 : 대전 지역**

– 대전은 지역 간 교류를 위하여 타 지역 방문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부터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을 분리 · 확대 시행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지역간 교류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대상단체 '권숙진무용단'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워크숍 (김해문화재단 '13. 8. 19(월) ~ 20(화) ❶ ☞ 공연단체의 지역간 교류 공연 및 지역 단체간 워크숍 · 광역 문화재단 창작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2013. 9. 24(화) 대구 가창창작센터) · 부산 홍티아트센터 개관 및 업무협의 13. 10. 30(수) ·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워크숍/ 감만창의문화촌 13. 12. 13(금)~14(토) ❷ ☞ 창작공간 현황 공유 및 '14년 공동사업 계획 수립 ·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8회(대표자 회의 2회, 실무자 회의 6회)
국제적 교류	· 2013년 예술창작지원 국제교류사업 : 도마국제아트페스티벌외 3건/ 55백만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 국제교류사업 추진 ☞ 판화이후(대표 정연민) : 일본 2명(하루히코 혼다, 이마무라 요시오), 중국 1명(이지우환) 인도1명, (바르세네아 소날) 작가 초청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 ·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 일본 삿포로 연극단체 '풍식이인가(風蝕異人街') 초청공연 (2013. 11. 15 ~ 11. 17) ❸

[그림 43] 대전문화재단의 교류 · 협력 사업 내용

□ 우수사례 : 광주 지역

– 광주는 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한·중 전통문화교류, 공연장상주단체간의 지역 간 교류사업, 제주문화재단과의 재단 간 레지던스프로그램 교류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제주문화재단 교류 추진

광주·제주문화재단 지역 간 교류 워크숍 및 현장방문 추진

- 일 자 : 2013. 9. 24.(화) ~ 9. 25(수)
- 장 소 : 제주도 가시리 유채꽃 플라자, 문화공간 '양' 등 9곳 현장 방문
- 대 상 : 광주·제주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참여 작가 및 실무자, 재단 사업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남협력관 등 50명
- 내 용 : 단체별 추진사업 현황 공유 워크숍 및 제주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

일 시	내 용
9.24(화)	김녕 –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관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삼달리 – 문화곳간 시선(레지던스), 차롱 갤러리, 김영갑 갤러리 방문
	가시리창작지원센터(레지던스) 및 조랑말체험공원 관람
	유채꽃 플라자 – 광주·재주문화재단 단체 소개 및 사업 운영사례 발표
	주제발표 – 지역협력형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고찰 ※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 소장)
	자유토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사랑방 연계) ※ 황치준(호남권 협력관)
9.25(수)	서귀포시 – 유토피아로, 이중섭 미술관, 왈종 미술관
	하례리 – 꿈꾸는 고물상(빈집프로젝트) 방문
	제주시 – 문화공간 양(레지던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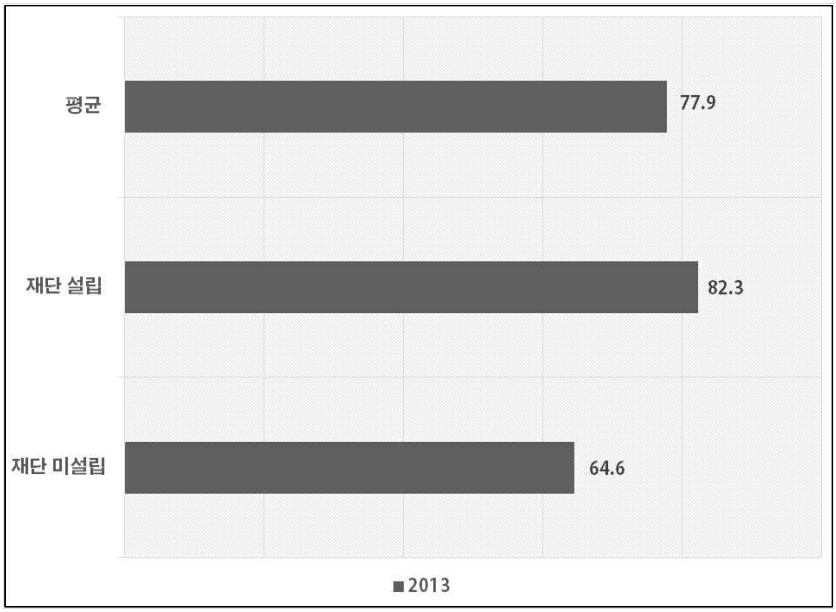




[표 35] 광주문화재단과 제주문화재단 간 레지던스프로그램 교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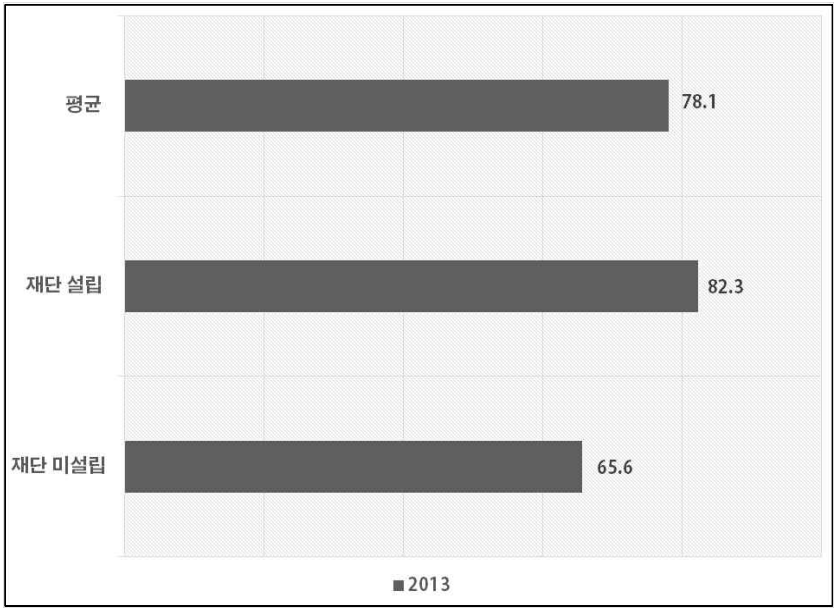
6. 사업성과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항목은 2013년부터 처음 반영된 평가 항목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의 지역협력형사업의 평가의 관점과는 다른 평가관점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음. 지금까지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과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정 관리'의 관점으로 평가해왔다면, 2013년부터는 지난 4년간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을 통해 과정 관리 역량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원사업이 '성과 관리'의 관점으로 평가의 초점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지역의 지역협력형사업 설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고 그만큼 사업의 성과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을 넣은 첫해이니만큼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자체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평가지표별 편차를 비교적 작게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사업성과 항목의 배점도 전체 평점 40점의 30% 수준인 12점으로 하였음.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이 배정된 항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구성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성과 항목은 '계량적 사업성과'(8점)와 '비계량적 사업성과'(4점)의 두 지표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계량적 사업성과'에서는 비교적 지역별 비교가 용이한 공연장상주사업의 추진성과와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제출토록 하여 비교자료로 반영하였으며, '비계량적 사업성과'에서는 베스트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여 우수프로젝트의 성과로 지역별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음.
- 이 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 중 9.34점(백분위 점수 77.9점)으로 중상 수준의 평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재단설립 지역의 평가 결과는 82.3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 결과는 64.6점으로 평가됨.
- '계량적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제출된 계량성과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2013년도 계량성과 보고 자료와 비교하여 지역별 계량적 성과의 변화수준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3년도 평가는 과도기적 평가로 지역별 비교를 통한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그림 44] 공통평가 항목 - 사업성과 평가 결과

가. 계량적 사업성과



[그림 45] 공통평가 항목 - 계량적 사업성과 평가 결과

□ 계량적 사업성과 지표는 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계량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하는 여부와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예술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가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지역협력형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량적 지표들을 취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적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한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원 단체별 공연일수, 공연 횟수, 객석 점유율, 유 · 무료 관객 수 등을 기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지원 단체별 퍼블릭 프로그램 시행횟수와 프로그램 참여지역민 수 등도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음.

□ 계량적 사업성과에는 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배점되어 개별 평가지표로는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는데, 지역별로 최저 4점 이상 최대 7점의 평점을 받았으며, 평균 6.25점(백분위 점수 78.1점)으로 평가됨. 재단 설립 지역은 82.3점, 미설립 지역은 65.6점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의 공연장상주사업 상주단체 작품제작 현황 및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작품수와 관람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비교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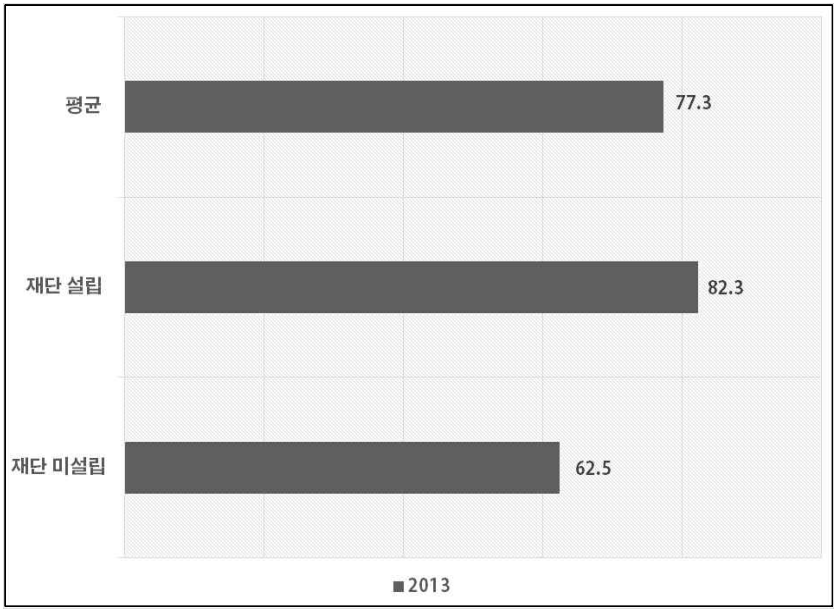
공연장명/상주단체	2013년			2012년		
	창작 초연	기존 창작	외국 작품	창작 초연	기존 창작	외국 작품
봉산문화회관/MAC Theatre	2	5	0	2	2	0
대덕문화전당/초이스시어터	1	2	0	1	1	0
수성아트피아/대구스트링스심포니오케스트라	2	0	22	1	5	5
달성문화센터/멀티아트그룹 D-FLOWER	1	9	0	3	0	0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대구필하모니오케스트라	0	0	18	0	5	5
아양아트센터/아미치아트컴퍼니	2	6	2	1	0	4
서구문화회관/천왕메기,날뫼북춤보존회	2	10	0	4	0	0
합 계	**10**	**32**	**42**	**12**	**13**	**14**

[표 36] 대구지역 2012년~2013년 상주단체 작품제작현황 비교

공연장명	관람객 수	
	2013년	2012년
봉산문화회관/MAC Theatre	6,450	6,320
대덕문화전당/초이스시어터	6,341	6,736
수성아트피아/대구스트링스심포니오케스트라	5,460	2,961
달성문화센터/멀티아트그룹 D-FLOWER	2,050	2,590
대구북구문화예술회관/대구필하모니오케스트라	2,850	2,977
아양아트센터/아미치아트컴퍼니	7,530	7,100
서구문화회관/천왕메기,날뫼북춤보존회	1,620	2,660
합 계	**32,301명**	**31,344명**

[표 37] 대구지역 상주단체 관람객수 2012년~2013년 비교

나. 비계량적 사업성과



[그림 46] 공통평가 항목 - 비계량적 사업성과 평가 결과

□ 비계량적 사업성과 지표는 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비계량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여부와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이 평가를 위해서 특성화지원사업에서 3건, 공연장상주사업에서 2건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 자료를 비교하였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 결과 드러난 인증, 수상, 국제교류 성과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음.

□ 지역별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평균 3.1점(백분위 환산 77.3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균점을 나타냈으며, 재단설립 지역은 82.3점, 미설립 지역은 62.5점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 서울 지역**

– 서울문화재단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로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되였는데 지역문화 예술생태계 구축사례로 최홍규 프로젝트 [사 이 사 이] ; '이태원 아트 로드: 골목에서 예술을 말하다' 를 들었으며, 장소 특정적 공연 사례로는 DVOXAC(드보작) 〈언더그라운드〉과 극단 서울괴담 〈정크타임즈〉를 들었다. 또한 사라져가는 지역의 기록으로 (사)공공예술들화집단 "노고산동 블루스 2"가 우수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며, 예술창작 현장 활성화 성과로는 2013년 현대무용 공연작품 중 최고 흥행, 아이돌 공연 방불케 한 EDx2 댄스 컴퍼니의 첫 공식 단독 창단 공연 "완벽한 이유" 가 특별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2013년 현대무용 작품 중 최고 흥행,
아이돌 공연 방불케 한 EDx2 댄스 컴퍼니의 첫 공식 단독 창단 공연 "완벽한 이유"

– 지난 18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현대무용단 EDx2의 정기 공연이 올라갔다. 현대무용은 난해해 객석이 텅 비고, 설사 있다 해도 무용 전공자나 관계자로 채워지는 게 일반적 풍경이다. 이날은 딴판이었다.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막이 끝날 때마다 환호가, 기립박수가 나왔다. 공연 뒤 팬 사인회에도 400여 명이 몰렸다.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았다. 유니버설발레단 임소영 팀장은 "최근 십여 년 무용계에서 이런 호응을 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들을 보러 온 '보통' 관객 덕에 진풍경이 벌어진 거다. 2회 공연 유료 점유율은 90% 안팎. 이창기 관장은 "무용 전문극장인 강동아트센터가 출범 2년이 됐는데, 현대무용 작품 중 최고 흥행"이라고 했다.

[표 38] 서울문화재단 비계량적 사업성과 – 예술창작 현장 활성화 성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프로젝트 [사 이 사 이] ; '이태원 아트 로드: 골목에서 예술을 말하다'
– 사업기간 : 2013.10.11(금) ~ 10.13(일) 3일간
– 사업장소 : 이태원 한남동 일대

2. 내용
- 이태원 지역 숨어 있는 골목 사이사이 문화예술 나눔
- 지역 공간과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문화예술 생태 기반 확장
-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3. 참여 공간
- 초능력, air de jeu, ALBAM, ALEE, aprake, ARTICLE, Cafe noon, D-triangle, EcommaE, EN PLEINE NUIT, have a bite, FLEE FLEE, HYADES PARIS, JAM & BREAD, L store, MMMG, MOGOOL, monday edition, PIECE PEACE, RYUI KEI & Dusty Goiyanni London, 9 round, salad bolw, second move, SECOND HOTEL, Shana 8th avenue, SHH, The Kam, Waysofseeing 등 30공간

4.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길, 이야기 세 가지 테마로 진행
① 아트 인 숍 – 공간별 다양한 작가 전시 구성
② 아트 인 로드 – 인디밴드 공연, 영화 상영회, 독립영화 상영회, 아트마켓&플리마켓
③ 아트 인 톡 – 전시 투어,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면생리대, 미술심리, 실크스크린)

5. 지역활성화 성과 :

2011년부터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이태원 일대 문화예술 생태 지형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공간을 연계한 내 외부 프로그램, 대중과 밀착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간 마련된 가능성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가 지역 공간들과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지역 공간의 자발적 참여가 프로젝트의 부분을 이루기도 했다.
프로젝트에서 행한 모든 프로그램(전시, 워크숍, 영화 상영회, 공연, 오픈스튜디오, 아트플리마켓 등)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자유롭게 개방해 문화예술 행사 참여의 문턱을 낮췄고 자율적인 참여율을 높였다. 그 결과 3일간의 행사에 총 2,0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하였다.
이태원 지역 고유의 감수성을 활용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정형화된 기존 문화예술 범주들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보다 문턱이 낮은 생활 속의 다원화된 문화예술을 창출하였다.



[표 39] 서울문화재단 비계량적 사업성과 - 지역문화 예술생태계 구축사례 '사이사이'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의 비계량적 성과 중 하나로 공연장상주단체 창작 작품의 초청사례가 제시됨.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에 공식초청 및 우수작품 등으로 선정됨으로써 공연장상주단체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연번	초청기관	상주단체	작품명
1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초이스시어터	뮤지컬 데자뷰
2		초이스시어터	뮤지컬 오~ 미스리
3		MAC Theatre	비방문 탈취작전
4		MAC Theatre	사랑꽃
5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이스시어터	뮤지컬 데자뷰
6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초이스시어터	뮤지컬 오~미스리
7		MAC Theatre	어린이 뮤지컬 투란도트
8		아미치아트컴퍼니	달콤한 연인들
9		아미치아트컴퍼니	뮤직드라마 ‘별 ‘
10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아미치아트컴퍼니	오페라 아시스와 갈라테아
11	밀양여름공연축제	대구스트링스심포니오케스트라	축제 개막식 초청공연

[표 40] 대구 지역 공연장상주단체 창작 작품의 축제초청 사례

□ 대구의 비계량적 성과로 제시된 사례 중 신진예술가 육성 성과 사례는 여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3년 평가에서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된 ‘심사참관인제’ 또한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2년간 안정적 운영으로 사업의 성공적 안착 및 전국적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으로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한 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역 예술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 신진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여 신진예술인이 지역에서의 문화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신진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재정, 활동 및 홍보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의 창작욕 고취 및 자생력을 강화하였음

–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신진예술가 활동 우수사례

▶ 무용분야 이상훈

벨기에 Sidi Larbi chealkoui Eastman / 「Puz/zle」 출연 및 활동,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 부르고스–뉴욕 국제 안무대회 관객상 수상(한국인 최초) / 서울댄스컬렉션 'Story of Status' 공연 (안무상 수상)

▶ 미술 분야 정재훈 : 2013 대구미술관 기획 Y–artist project 선정

▶ 미술 분야 장하윤 : 2013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청년작가선정 및 초대전 개최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

– 울산광역시 2013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시행
– 서울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 요청 : '14년부터 시행예정
– 전라북도청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 요청 : '14년부터 시행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 요청 : '14년부터 시행예정
– 충북문화재단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 요청 : '14년부터 시행예정

[표 41] 대구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육성 성과 사례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경기는 사업별 수상 인증실적을 비계량 성과로 제시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국제교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지원사업의 지역활성화 성과로는 '예술이 흐르는 공단' 사업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에 문화적 활력을 생성시킨 사례를 들고 있으며, 수원, 안산시와의 〈커뮤니티아트 사이트 만들기〉 협력사업 실행의 성과를 우수 지역활성화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우수사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수상(인증)실적을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였음.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수상(인증)실적	세부내용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예술무대 산	2012 유니마세계인형극축제 최고작품상 수상	• UNIMA는 1929년 체코 프라하에서 설립된 국제인형극협회로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된 세계비정부기구임. 4년마다 개최되는 유니마 총회는 각 대륙별, 각 국가를 대표하는 작품을 초청하여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며 각 나라의 인형극의 예술 수준을 가늠해 보는 축제의 장임. • 예술무대 산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단체로 2012 UNIMA 세계인형극축제에 참여하여 45개국 65개 단체 중 최고작품상을 수상함
	극단 북새통	2012 아시테지여름축제 음악상,연출상,배우앙상블상	• 상주단체지원 사업으로 제작한 작품 〈재주 많은 다섯 친구〉로 2012년 아시테지 여름축제에서 3개의 상 수상
	극단	2013 예술경영컨퍼런스	• 상주단체 교류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프랑스 〈태양극

	하땅세	우수사례로 선정	단〉과의 교류공연과 교류 워크숍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후속지원 혜택을 받음
커뮤니티와 아트 (시도 기획지원)	배영환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 〈내일을 여는 책방〉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공공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함
	이웃문화 협동조합	2013 수원문화재단 유망작가 선정	• 수원 지동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한 이웃문화협동조합의 한상아 작가는 수원문화재단 발굴 유망작가로 선정됨
전문예술 창작발표 (육성지원)	전진경	2013 레드어워드 미술부문상 수상 2013 민족예술상 수상	• 유망작가 신작 제작 지원을 받아 레드어워드 미술부문상과 민예총 민족예술상 수상
	인세인박	2013 에트로미술상 수상	• 유망작가 신작 제작 지원을 받은 인세인박은 듀오가 운영하는 에트로 미술상 수상
	조습	2013 박수근미술관 레지던시 선정	• 유망작가 신작 제작 지원 받아 최근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을 그린 〈달타령〉시리즈로 박수근 미술관 레지던시 참여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3 대한민국 무용대상 군무 부문 베스트7 선정	• 공연예술분야 신작 제작 지원을 받아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한국무용대회에서 BEST 7 certifiacte 수상
별별예술 프로젝트 (육성지원)	방&리	2013 영국 브리스톨워터쉐드세서 바이크텍 선정	• 영국 브리스톨워터쉐드세서 바이크텍에 작가로 선정되어 양주 필룩스 조명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아르코 미술관 전시와 대구 예술발전소 독일 ZKM 협업 전시 참여
전문예술 연구출판 (육성지원)	현길언	제 2회 녹색문학상 수상	• 문학분야에서 지원받은 현길언 소설가의 작품이 2013 제2회 녹색문학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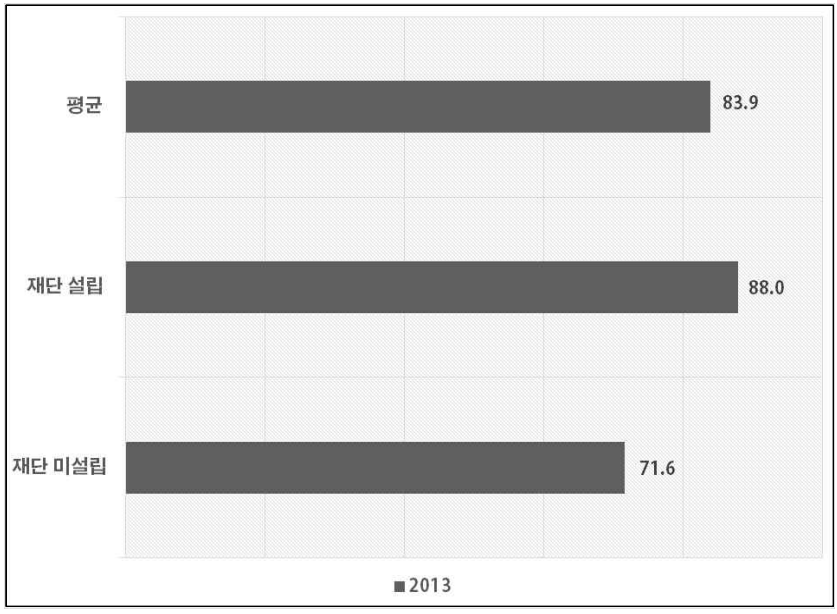
[표 42] 경기문화재단 비계량적 성과 – 지원사업 수상(인증)실적 사례

제2절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2013년도에 처음 생긴 평가부문으로 기존에 육성지원사업, 시 · 기획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등 각각 나눠져 있던 지역협력형 사업이 특성화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의 추진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문이 신설됨.
-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의 평가는 기존의 단위사업에서 평가하던 내용들 중 사업추진역량(10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20점),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5점)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에 배점된 점수는 35점으로 기존의 사업별 점수 60점 중 6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의 평가 부문으로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난해까지 각 사업별로 정리하던 내용들 중 개별사업의 추진역량과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부분만 개별사업별로 정리하고 다른 내용들은 통합적으로 한번만 정리하면 되므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평가위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평가 부분이 공통평가에 이어 특성화 종합 평가까지 보태져서 평가에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음.
-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은 지금까지의 개별사업 평가에서 정리했던 평가 항목 및 지표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자체평가보고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작성되어 제출됨.
- 앞서 종합 평가,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 종합 평가에서 제시된 등급 구분은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평가와 특성화지원사업의 개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 특성화지원사업의 종합 결과를 등급 구분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으로 평가된 평가 항목과 지표들의 결과에 대해 기술함.

1. 사업 추진 역량

- 사업추진역량 항목은 사업 참여 예술인의 참여기준 및 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협력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각 5점씩 10점의 평점이 배점되어 있음.
- 이 평가 항목은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수혜 대상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항목임. 특히, 사업 참여 예술인의 참여기준과 함께 신규단체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과,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이 평가 항목에서는 두 번째로 예술인 및 단체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수준을 위해 지역이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인, 예술단체들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추진역량의 평가 결과는 평균 83.9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은 88점, 미설립 지역은 71.6점으로 과 미설립 지역은 16점 이상의 편차가 발생함.



[그림 47]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추진 역량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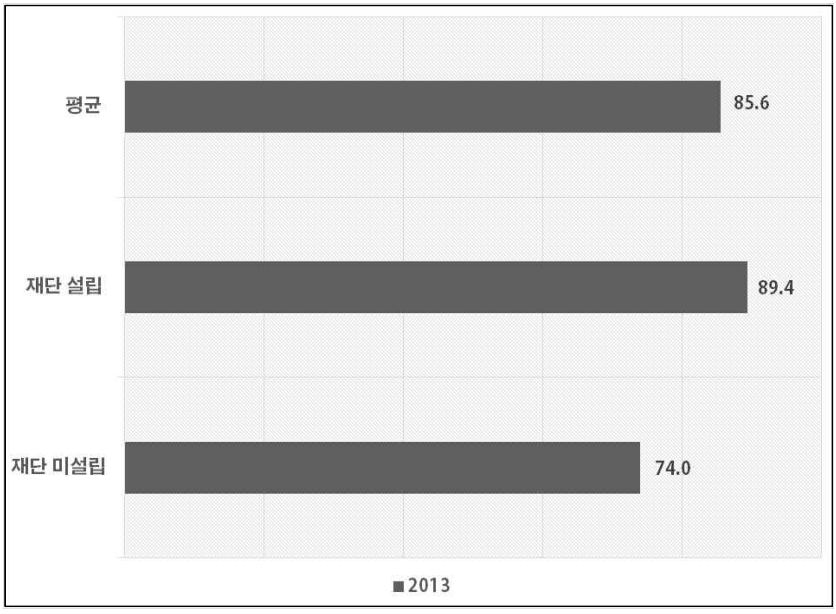
가.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

□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은 지원사업별 사업 참여 단체(개인)의 자격조건이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있는가 여부와 사업 참여 단체(개인)의 참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이 평가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사업별 신규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예술단체(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단체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문예술단체가 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거나 안내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였음.

□ 평가 자료로 활용된 것은 지원사업 안내문에 정리된 참여자격(기준)에 대한 기술내용들과,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자료, 사업별 기존수혜단체와 신규수혜단체의 수 및 비율에 관한 제출 자료를 평가에 활용하였음.

□ 신규수혜단체는 한 번도 지원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단체들을 명시한 것인데 몇몇 지역이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은 연속지원 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신규수혜단체로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이는 지역에서 신규수혜단체를 발굴,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그림 48]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

□ 평가 결과는 평균 85.6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 89.4점, 미설립 지역 74점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은 지역협력형사업의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되는 단체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단체의 자격을 검토·선정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한편, 고액사업의 경우 전문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였음.

구 분		지원 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사업	창작진흥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동호인 · 아마추어 단체
	해외활동 지원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학술진흥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학술활동 단체
기초예술진흥사업	집중기획 지원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지역 공공연장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
	우수기획 지원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단체 • 2013년 기초예술진흥사업(집중기획·우수기획) 및 공연활동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단체 (※ 단, 시각분야는 문화예술진흥사업 포함) • 최근 2년 이내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공연작품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 만 35세 이하(1979. 1. 1일 이후 출생)의 개인예술가(초,중,고, 대학생 제외) • 공연예술(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시각예술(건축, 사진 포함) 분야의 예술가 ※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 국내(전국규모), 국외 예술분야 경연대회 수상자 우대
공연활동 지원사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 공연예술단체로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역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기간, 장소 동일)의 타 사·도 중복신청 금지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통예술분야의 전문예술단체

[표 43] 대구문화재단 지원 신청 자격

□ 우수사례 : 인천 지역

- 인천문화재단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인천을 연고로 하는 더 많은 예술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인천 연고 기준〉을 신설하여 신청자격기준을 확대함. 각 사업별로 사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각각 차별화된 지원조건을 제시하였음.
- 인천의 사업별 기존 수혜단체 및 신규수혜단체(한번도 지원수혜 경험이 없는 단체) 비율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이나 협회의 비율도 10% 미만으로 나타남.

기존	
개인	**단체**
• 인천 거주 1년 이상인 문화예술인 (공고일 기준) • 인천 소재 공공기관/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문화예술인 • 인천에서 1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인	• 대표자가 인천 거주 1년 이상인 단체 • 단체등록일이 1년 이상인 단체 • 인천에서 1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단체 •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모여서 구성한 소그룹/대표자가 인천 거주 1년 이상 • 인천소재 문화예술공간(국.공립 시설 제외)
※ 위 신청자격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청 가능	

⇩

변경	
개인	**단체**
• 인천 연고 문화예술인으로 〈인천 연고 기준〉 – 인천 출생자 – 인천소재 학교 졸업자/재학자 – 인천거주자(공고일 기준) – 인천 소재 공공기관/기업 근무자 (공고일 기준)	• 인천에 등록된 단체(공고일 기준) • 인천소재 문화예술공간(국.공립 시설 제외) • 대표자가 〈인천연고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인천에서 1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증명되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인/단체	
※ 위 신청자격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청 가능	

[표 44] 인천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지원 자격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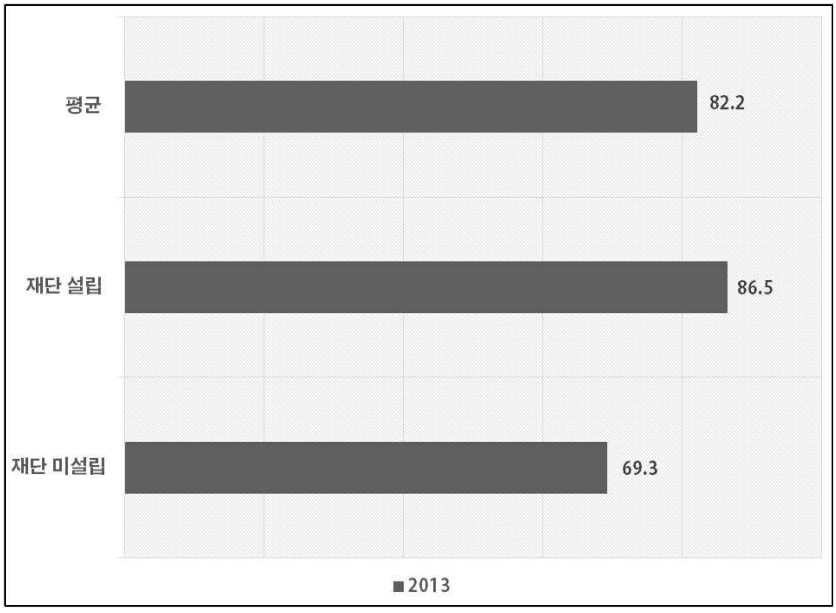
인천 연고 기준사항

○ 전문 문화예술 단체
- 인천에서 1년(1년 내 3회 이상)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인천 연고자가 조직한 단체(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 전문 문화예술인(인천 연고자)
- 인천 활동자 : 인천 거주 1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주민등록초본 및 활동실적 증빙)
- 인천 출신자 : 인천 출생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사람 중 최근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표 45] 인천문화재단 지원자격 – 인천 연고의 기준 사항

나. 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 협력 수준



[그림 49] 특성화지원통합 - 예술인(단체)간의 교류 협력 수준 평가 결과

□ 예술인(단체)간의 교류 · 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단체(예술인)간의 상호 협력 및 연계를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가 여부와 지원주체가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주로 지역 예술인(예술단체) 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들이 평가 자료로 활용 되었으며 지역별 소통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음.

- 절반이 넘는 지역들이 예술인들 간의 교류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매우 소극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보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공연장상주사업이나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지침 자체에 예술단체간의 교류 · 협력을 유도하는 지침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격려하는 교류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은 지역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창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사업과 이해관계 떠나서 지역 예술인들 간의 자발적인 소통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 평가지표의 평가 결과는 평균 82.2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은 86.5점, 미설립 지역은 69.3점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의 공연인력마켓 홈페이지인 'Dream Stage 구축 사업' 은 공연 분야 인력의 수급을 위한 구인 · 구직 전문 사이트임과 동시에 전문 인력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멘토 컨설팅' 기능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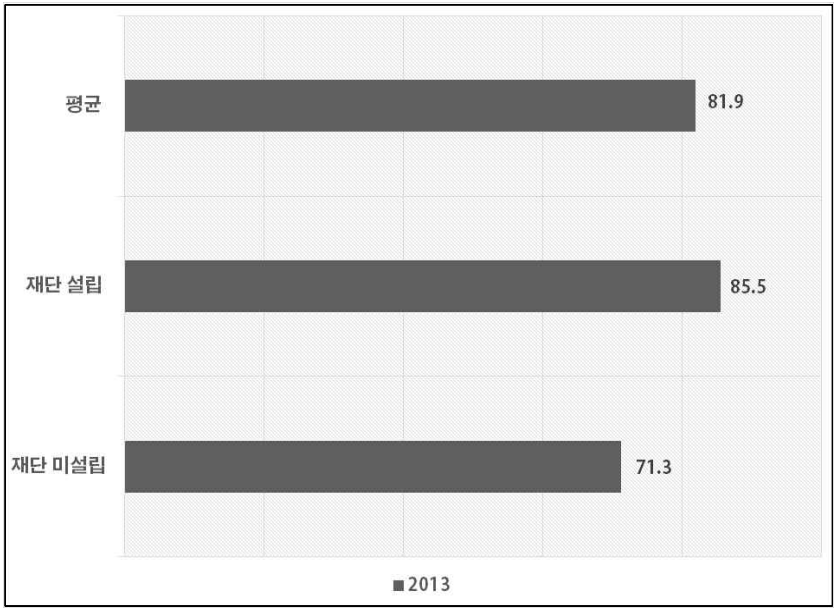
[그림 50] 대구문화재단 'Dream Stage' 온라인 안내 페이지

Dream Stage 구축

· 주　　소 : http://www.dreamstage.or.kr
· 목　　적 : 공연예술인력 구인·구직 관련 정보제공
　　구인 · 구직 정보욕구 충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격증 취득 인력의 정보 제공
　　웹 컨텐츠 및 해당분야 인력에 대한 접근성 용이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와의 연동으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
· 홈페이지 구축 내용
　– 공연예술분야 구인·구직 사이트에 걸맞는 인터페이스 구성
　– 사용자 편의도모를 고려한 메뉴의 네비게인션 구조 설계(베너 포함)
　– 관리자 모드의 운영 편의성 구현
　– 개인인증을 통해 분실 ID 및 PW 확인 가능토록 구현
　–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지 프로그램 개발
　– 시각 장애인을 고려한 적절한 색상의 이미지와 콘텐츠 배치
· 해당메뉴 : 멘토 컨설팅
· 진행방식
　– 문화예술분야중 궁금한 부분(진로, 적성, 전공, 업종·업태 등)을 질문자가 게시판에 내용을 등록
　– 홈페이지 관리자가 해당분야 확인 후 전문가(멘토)에게 내용 전달
　– 전문가(멘토)는 해당답변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달
　– 홈페이지 관리자는 질문자의 게시글에 답변 등록
　– 질문자 답변 확인

[표 46] 대구문화재단 Dream Stage 구축 개요

2.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그림 51]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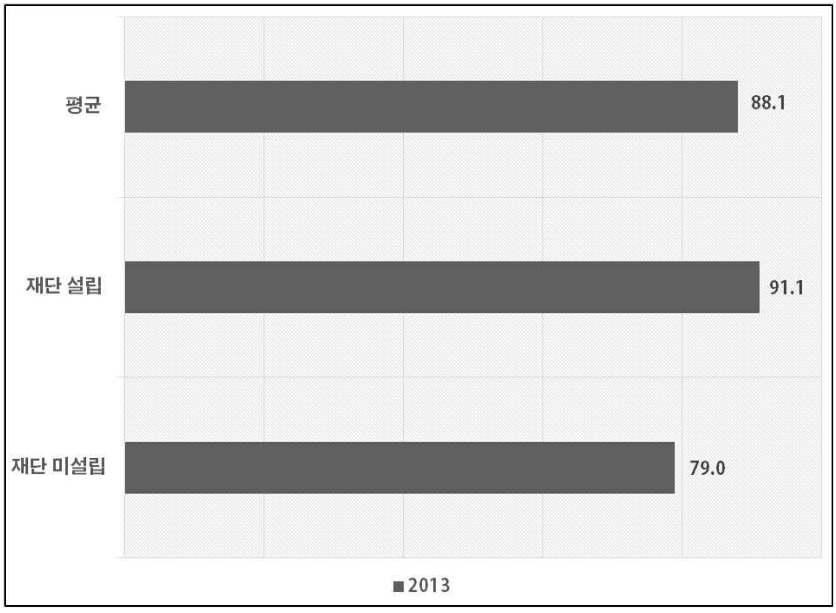
-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항목은 특성화지원사업의 추진 결과가 어떠한지 최초의 성과 목표에 따른 달성수준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주민 만족도 등을 묻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중요한 평가 항목임.
- 이 평가 항목은 계획대비 집행실적 5점, 매칭펀드 조성노력 5점, 사업수혜대상의 만족도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20점의 높은 배점이 되어 있음.
- 대부분 지역이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칭펀드 조성노력은 매칭률에 따른 정량적 평가로 지역별 편차가 조금씩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평가 항목보다는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남. 그 이유는 기본 매칭률 달성을 5점 만점에 3점으로 정하고 추가 매칭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 만족도 평가 역시 지역별로 만족도 조사 방식이나 추진노력에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임.
- 이 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는 81.9점으로 재단설립 지역 85.5점, 미설립 지역 71.3점으로 나타남.

가. 계획대비 집행실적

□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표는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묻는 예산집행실적 평가와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계획대비 예산집행 여부는 예산집행 실적 및 최종 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의 기술내용을 평가 자료로 평가를 하였음.

□ 집행실적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편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평가 결과 평균 88.1점으로 나타났고, 재단 설립 지역(91.1점)과 미 설립 지역(79.0점)의 편차도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 특성화지원통합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의 3년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집행비율 추이를 보면 매년 사업선정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포기/재선정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선정건수	245건	372건	334건	312	288
사업집행건수	202건	358건	325건	295	281
포기/재선정건수	43건	14건	16/7건	13건	7건
사업집행비율	82.4%	96.2%	99.4%	97%	97.6%

[표 47] 대구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집행 비율 추이

나.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

□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당해 연도 매칭기준 달성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의 의지에 따른 추가 매칭으로 발생한 추가 매칭에 대해서는 구간을 정해서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하였음.

□ 이 평가를 위해서는 지방비 매칭 내역 및 재정자립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남.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칭기준 달성 수준을 기본점수 3점으로 하고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임.

□ 평가 결과 평균 74.9점, 재단 설립 지역 76.2점, 미설립 지역 71.0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칭비율은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칭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매칭률이 높은 지역은 다른 평가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볼 때,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의 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우수사례 : 강원 지역**

- 강원은 재정의존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낮은 반면, 사업비에 대한 시 · 도 매칭비율이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강원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2013년도 총사업비에 대한 시 · 도 매칭정도 : 전북(1순위), 강원(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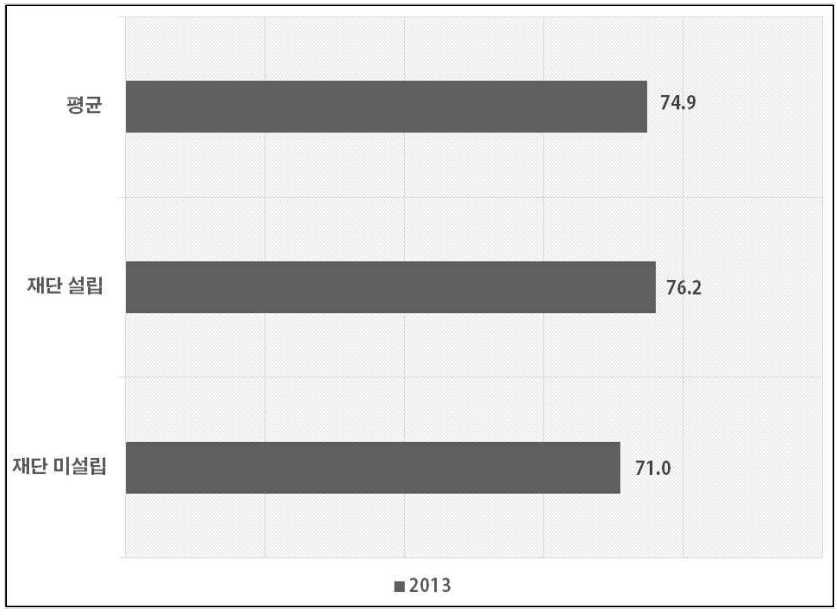
구분	중앙기금 매칭 정도			
	중앙기금	시도매칭	총계	매칭율
강원	412	1,846	2,258	4.48

- 재정의존도(출처: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구분	자립도	의존도	비고
강원	22.5	77.5	

구분		기금	도비매칭	출연금, 자체자금	계	달성도
2013년	문화예술육성지원 (기본 매칭률1:1)	350	350	1,600	2,300	557%
	레지던스지원 (기본 매칭률1:1)	100	100	0	200	100%
	시도기획지원 (기본 매칭률1:1)	180	180	0	3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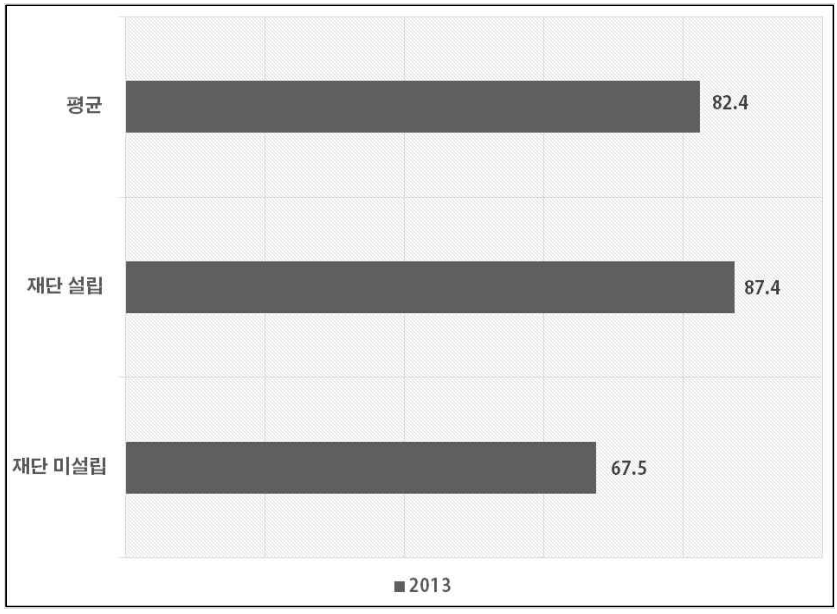
[표 48] 2013년도 강원지역 사업별 기금매칭률 비교



[그림 53] 특성화지원통합 –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 평가 결과

다.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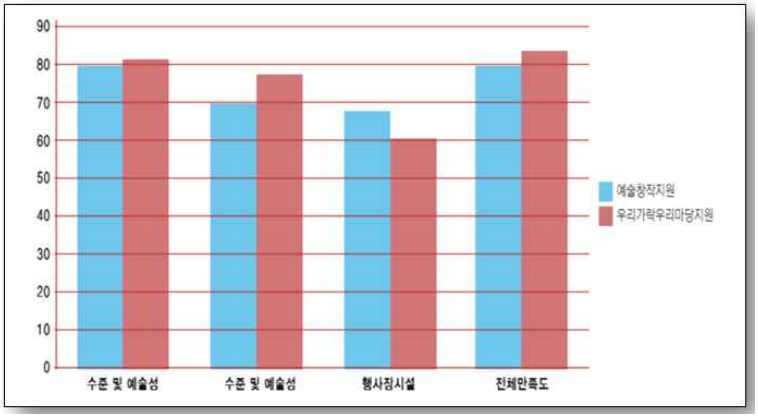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항목의 마지막 평가지표인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지표는 최종수혜대상의 사업 만족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임.
- 이 평가지표는 시민모니터링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객만족도 조사의 실시여부,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 시민모니터링 평가체계,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등의 평가 자료를 통해 평가하였음.
- 평가 결과 평균 82.4점의 평가 결과 가 나왔으며 재단 설립 지역은 87.4점, 미설립 지역은 67.5점으로 20점의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년에 비해 외부 평가기관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전처럼 수혜단체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하는 형식적 만족도 조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54] 특성화지원통합 -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평가 결과

□ 우수사례 : 대전 지역

– 대전문화재단은 전문기관(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관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4개 영역 30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통해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음.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에 대한 4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3.9점으로 보통 이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림 55] 대전문화재단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시민모니터링단(해피서포터즈)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개 장르 14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기타 소액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술단체 자체 조사와 재단직접 설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행함.

만족도 조사 실행 구조			
시민모니터링단 (해피서포터즈)	전문기관 (코뮤니타스)	예술단체 자체	재단직접설문
– 해피서포터즈 55명 공개 선발 하여 현장 모니터 – 특성화지원사업 12개사업 36명 모니터 실시	– 전문기관에 의뢰, 지역협력형사업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 실시 – 5개 장르, 14개 사업에 대한 용역 조사 실시	– 예술단체가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하여 성과보고시 제출토록 함 – 설문조사 양식 재단에서 제공	– 가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작가, 해외작가 대상 설문 – 미술아카데미 참여 학생대상 설문

[표 49] 대구문화재단 만족도 조사 실행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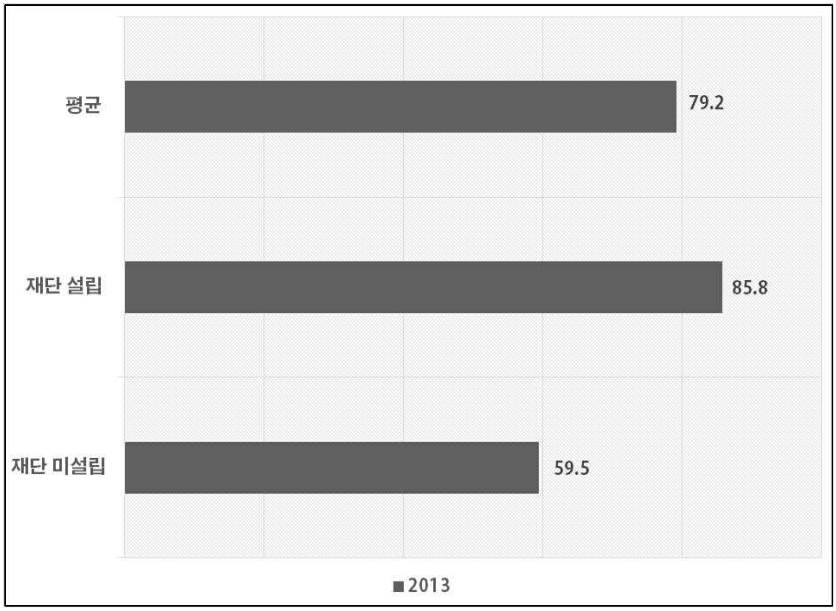
3. 지역문화수요 반영 수준

가.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지표는 특성화지원사업이 지역의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지역예술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임.

□ 이 지표의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수요 분석과 관련한 연구, 조사 여부 및 증빙자료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포럼, 워크숍, 사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활동 개최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요구사항이 사업설계 및 사업선정 시스템의 개선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평가 결과는 79.2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단 미설립 지역의 문화수요 반영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56] 특성화지원통합 -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월 주제별 좌담회를 실시하고 있음.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월 주제별 좌담회 실시

· 기 간 : 2013년 3월 ~ 12월
· 장 소 :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정보자료실, 문학콘텐츠자료실
· 참석자 : 지역문화예술단체 관계자 23명
· 월별주제

월	주제
3	2013공모지원사업 운영방향과 발전방안
4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5	해외 문화예술교육 경험 나누기
6	'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 – 예술체험프로젝트' 3일 '사업을 중심으로'
7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발전 방안 모색
8	대구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9	문화예술교육발전을 위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용 및 네트워킹 방안 모색

[표 50]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경기문화재단은 특성화지원사업 설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총 10차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 주제는 경기문화재단 각 분야별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전체를 조망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로 진행함.

구분	일자	분야	외부 자문위원
1차	10/11	문예지원	안치운 교수 등 4명
2차	10/22	교육·나눔	양훈도 대표 등 4명
3차	10/30	정신문화(유학)	한형조 교수 등 3명
4차	11/04	창작시설	이기복 대표 등 3명
5차	11/12	여성·가족·효제	이혜경 교수 등 3명
6차	11/19	전통연희·국악	김영운 교수 등 3명
7차	11/19	민속놀이·여가	최종호 교수 등 3명
8차	11/20	문화유산(1)	최희수 교수 등 3명
9차	11/25	문화유산(2)	김종대 교수 등 3명
10차	11/28	문화정책·경영	양현미 교수 등 3명

[표 51] 경기문화재단 특성화지원사업 설계 자문회의

□ 우수사례 : 서울 지역

–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연계 거버넌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창작공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창작공간별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 목적 : 각 지역 창작공간을 예술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예술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 운영 목표

· 공간의 운영 및 사업실행에 지역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하여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촉진

· 실질적 사업 참여의 책임과 권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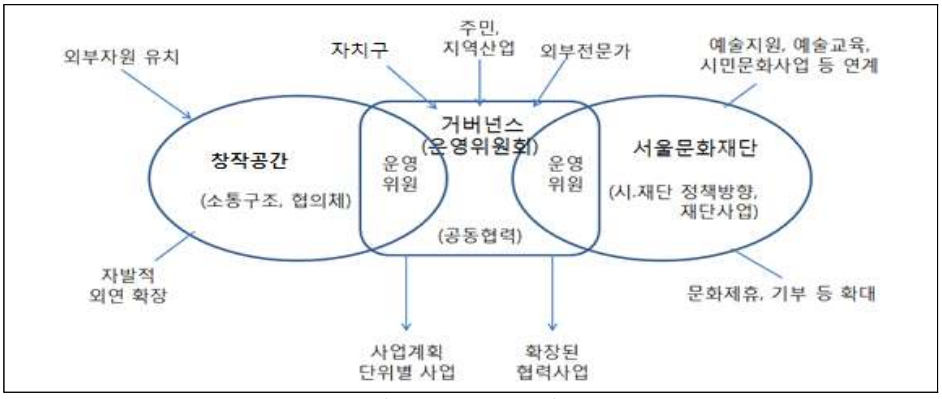
·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 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기간 : 1년

· 월별 또는 분기별 정기 운영회의를 통한 사업운영 참여

· 프로그램 운영 제안 및 대내외 지원 참여 활동



〈운영위원회 모형〉

	위원구성	운영위원회 활동
문래	지역 예술가/상공인/주민, 예술계 전문가/유관기관, 재단직원	정기회의 11회(매월 1회) 임시회의 2회
관악	예술계 전문가, 주민	간담회 6회
연희	문학 전문가, 유관기관, 주민	간담회 4회
홍은	예술가 전문가, 지역예술가, 주민	간담회 3회
서교	지역예술가, 재단직원	정기회의 주1회 임시회의 수시
성북	예술계 전문가, 유관기관, 재단직원	자문회의 1회
금천	예술계 전문가, 유관기관, 입주작가, 재단직원	간담회 3회

[표 52]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별 운영위원회

□ 우수사례 : 인천 지역

– 인천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목요문화포럼', '문화복지포럼', '해안포럼' 등의 포럼형식의 의견수렴채널을 마련하고 있음.

■ 목요문화포럼

○ 〈문화, 도시를 살리다 Ⅰ-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인천문화재단 제41회 목요문화포럼
①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15:00
② 장 소 : 인천문화재단 대회의실
③ 내 용 :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 조명

○ 〈문화, 도시를 살리다 Ⅱ – 인천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 – 인천문화재단 제42회 목요문화포럼
① 일 시 : 2013년 6월 27일(수) 15:00
②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C동 다목적실
③ 내 용 : 제41회 목요문화포럼의 연장으로 인천지역의 구체적 사례 발표

○ 〈그을린 예술, 삶의 예술〉 – 인천문화재단 제43회 목요문화포럼
① 일 시 : 2013년 9월 12일(목) 15:00
② 장 소 : 부평아트하우스 아카이브실
③ 내 용 :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 〈철학, 더러움에 빠지다〉 / 예정 – 인천문화재단 제44회 목요문화포럼
①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16:00
②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C동 다목적실
③ 내 용 : 철학 담론을 통한 비 원칙적 행동의 더러움에 대하여

○ 〈인천, 책 읽는 도시로 가기 위한 창조적 전략〉 – 인천문화재단 제45회 목요문화포럼
① 일 시 : 2013년 12월 19일(목) 14:00
② 장 소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③ 내 용 : 인천이 〈2015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선정됨에 따른 지역 여론 환기 및 방향 제시

■ 문화복지 포럼
①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15:00
② 장 소 : 부평아트하우스
③ 내 용 : 지역과 문화복지의 교차점

■ 해안포럼
○ 시민사회 또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고정 된 틀의 정책개발 기구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난상토론 할 수 있는 연성 자문기구 형태의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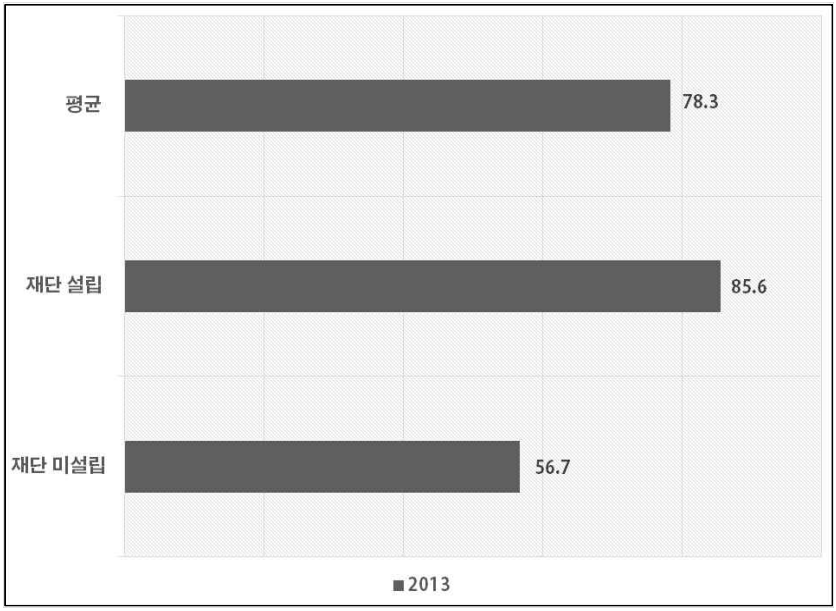
연번	일시	장소	주요 안건
1	12.05.(목)	인천아트플랫폼 아카이브관	3기 대표이사 체제의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공과(功過) 점검
2	12.11.(수)	재단 대회의실	4기 대표이사 체제하의 인천문화재단 정책 공유 및 의견 수렴

○ 인천미술활성화기획사업 중장기 회의
– 인천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중장기 회의 개최(2회)(8/5,8/12)
· 위원 구성(*미술관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표 53]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 정기 포럼 개최

제3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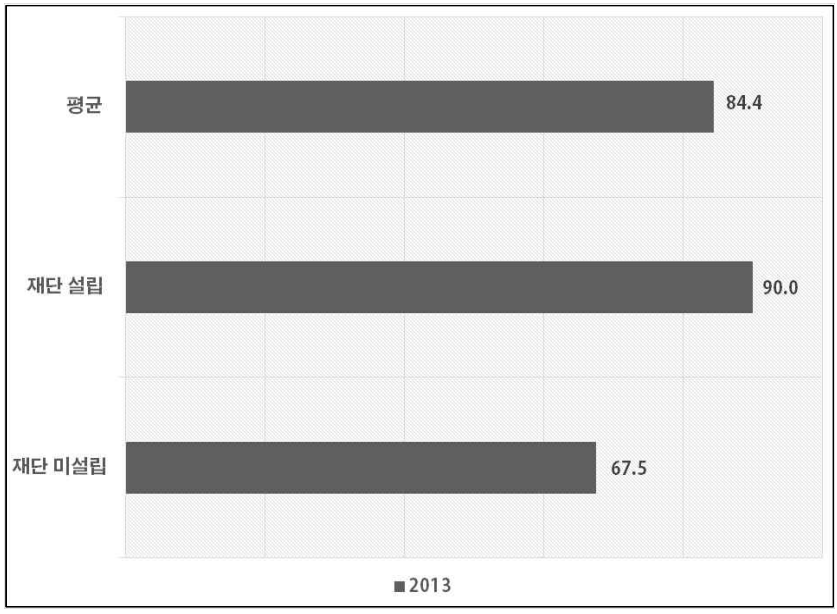
[그림 57] 육성지원사업 -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 수준 평가 결과

가. 사업수혜단체 적절성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 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 전년도에 이은 연속 지원 단체를 제외한 신규단체 비율이 최저 25% 이상,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협회 선정 비율은 최대 15% 이하,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독자적인 배분·선정 기준을 갖고 있고, 지원금 배분율이 육성지원사업 전체의 15% 이하인 경우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았음.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백분위 환산 시 84점),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9.0점(90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9점(89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3(63점)점으로 나타남.



[그림 58] 육성지원사업 - 사업수혜단체 적절성

1)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 신규단체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했으나, 각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신규단체'를 ①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단체 ②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는 단체 ③ 지원금을 작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받지 않은 단체 등 각각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음. 평가 주체 측에서는 '신규단체'의 개념을 ③번으로 규정('비연속 수혜 단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③번 개념으로 응답함
- ③번 개념으로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와 지역문화재단 중 11개가 25% 이상의 비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평균 88점(백분위 환산)을 기록함.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9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 역시 95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3점으로 나타남.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신규단체의 비율이 전년도 78.1%에 이어 83.8%에 달하여 혁신적 면모를 보이고 있고 부산(57.5%), 제주(43.1%)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9.3%), 충남(14.9%), 울산(21.4%) 등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대구(10.4%)와 광주(55.1%)의 경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단체로 지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기관, 단체, 협회 선정 비율의 적절성

-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회·지부에 대한 지원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지표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15% 이하일 경우 높게 평가함.
- 이 지표의 전국 평균점은 83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7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27점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355건의 선정 건수 중 1건에 불과한 반면, 강원(49.1%), 충남(37.3%), 제주(32.5%) 등이 30%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음. 99.2%로 제시한 경북의 경우는 지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독자적인 배분·선정 기준을 갖고 있고, 지원금 배분율이 육성지원사업 전체의 15%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봄.
-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 15% 이하에 가점을 준 것은 지역협력형 사업과 육성지원사업 본래의 취지가 전문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특히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임. 서울의 경우에는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사업을 비지역협력형 사업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지표의 전국 평균점은 80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90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 역시 9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7점으로 나타남.
-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고 독자적인 배분·선정 기준을 갖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부산(생활예술), 대구(생활예술분야), 인천(시민문화활동지원), 광주(시민문화향수지원), 대전(생활속예술활동지원), 경기(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강원(생활예술활성화지원), 전북(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 경남(생활예술분야), 제주(도민문화예술활동지원) 등 11곳임.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지원 분야 : 생활예술
- 지원 내용 : 부산시민이 주축이 되는 문화예술활동이나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단체 · 동호회 · 동아리 등의 예술 활동을 육성, 지원 (인건비 제외)
- 신청 자격 (단체만 지원가능)
  - 부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관련 일반시민모임/단체

– 부산에서 자생하여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 동아리 등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및 단체(신생단체 참여불가)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없는 모임 및 단체
– 초 · 중 ·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임 및 단체
– 종교, 기업, 교내행사(학예회, 대학축제) 관련 단체
– 아마추어라고 판단하기 힘든 전문예술단체(심의위원회 의결)
–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사업
– 12년도 지원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단체 및 개인
• 지원 규모 : 300만 원 이하 (인건비 제외)
• 신청 항목 : 생활예술, 시민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 심의 기준 및 항목

사업취지 부합성 (아마추어여부)	사업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20%	30%	20%
– 순수 시민, 아마추어로 구성된 예술동아리, 단체인가? – 단체의 활동실적은 지원하기에 무리가 없는가?	– 기획과 연출, 구성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사업계획은 완성도 있게 짜여졌는가?	– 신청예산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사업계획은 현실적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	–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사업인가? –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가?

[표 54] 부산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지원 분야 : 창작진흥사업 생활예술분야
•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동호인·아마추어 단체
• 지원 분야 및 규모

장 르	사업 내용	지원자격	지원규모
생 활 예 술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형성된 아마추어·동호인 단체의 전시, 공연, 발간 등 문화예술 관련 창작·발표 활동 ▸자생적인 지역주민 문화예술행사 ▸아동·청소년·일반시민을 위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시민 대상 문화예술 강좌 및 창작교실 운영 ▸시민 대상 전통 문화강좌 및 예절교육 ▸박물관·미술관·문화의 집 등을 활용한 주민 자발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관련 각종 시민참가 경연대회 등	동호인 및 아마추어 단체	1~2백만 원

[표 55] 대구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 우수사례 : 광주 지역

• 지원 분야 : 시민문화향수지원
• 지원 목적 : 지역민 중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및 동호회, 문화예술인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문화를 지원하여 광주시민이 만드는 창조문화도시 구현
• 신청 자격
–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체인 비영리 단체 및 동호회 모임
– 전문 문화예술인이 단체 대표이거나 회원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단체의 주 활동 회원일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우선지원 단체 및 동호회
1. 문화소외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나 모임
2. 3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나 모임
3. 광주시민 문화예술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실적이 있는 동호회나 모임

• 지원사업 성격
– 광주지역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광주시민 대상 문화예술 기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2013년 이내 창작집 또는 작품집 발간이 완료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작품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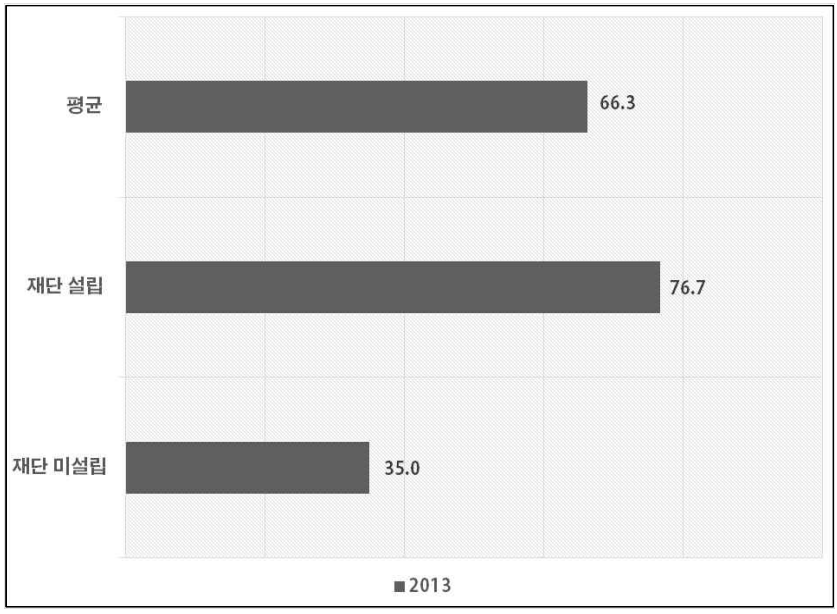
[표 56]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지원

나. 참여예술단체(예술인) 선정의 적절성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이 50% 이하, 평균 지원 금액이 최소 400만 원 이상, 전년도 선정률 60% 이하면서 금년도 선정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보았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지표는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백분위 환산 시 66점),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76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4점(68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8점(36점)으로 나타나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59] 육성지원사업 - 참여예술단체(예술인) 선정의 적절성

1)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의 경우 전국 평균 선정률은 50.9%(수도권 30.9%, 비수도권 55.5%),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은 46.6%,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은 51.8%, 재단 미설립 지역은 63.8%로 나타남.

- 선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3.4%), 경기(32.8%), 인천(36.5%) 등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75.1%), 충남(65.1%). 충북(5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선정률 평균은 30.9%, 나머지 13개 지역의 평균은 55.5%임.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수도권은 0.4%가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은 3.9%가 낮아졌음. 비수도권의 경우 2011년도와 비교하면 13.4%가 낮아진 수치로, 선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할 경우, 육성지원사업 지원신청 전국 총 건수는 9,155건으로 전년도 총 9,441건에 비해 3.0%가 감소했으며 선정 건수는 총 4,351건으로 선정률도 전년도 52.0%에 비해 4.5%가 낮아진 47.5%로 나타남. 선정률은 2011년 56.5%와 비교하면 9.0%가 감소한 것으로, 많은 시·도와 지역문화재단들이 사업간(내) 중복지원과 다년 연속지원, 그리고 협회 및 단체 지원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 경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전체 지역 대비 서울, 인천, 경기 3개 지역의 선정 건수 비중은 14.7%(638건/4,351건)로

전년도 15.9%에서 1.2% 낮아졌으며, 지원 금액 비중도 31.1%(6,534,000천원/21,040,800천원)로 전년도 36.1%에서 5.0% 낮아졌음. 이는 큰 폭은 아니지만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재단 미설립 지역인 4개 지역의 지원신청 평균 건수는 471.3건(전년도 532.7건)이며, 평균 선정률은 63.8%(전년도 68.2%)로 전년도에 비해 지원신청 건수와 선정률이 모두 감소하였음. 재단이 설립된 지역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8개 지역의 지원신청 평균 건수는 548.4건(전년도 549.1건)이고 평균 선정률은 51.8%로, 재단 미설립 지역보다 지원신청 건수는 16.4%가 많은 반면, 선정률은 12.0%가 낮았음.

□ 평균 지원 금액의 경우 전국 평균점은 60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0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0점으로 나타남.

- 전국 단순 평균 지원액은 521.4만원(가중치 적용 시는, 육성지원사업 전국 총 지원액 21,040,800천원, 총 지원건수 4,351건으로 483.6만원임),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은 556.8만원임.
-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이 432.4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이 415.3만원으로 양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나,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울산(856만원)을 제외할 경우 충남(286만원), 전북(326만원), 경북(193만원)의 평균 지원 금액 286.3만원에 불과함.
- 특히 비수도권 13개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27.2만원으로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평균 지원 금액 997.0만원의 42.8%에 머무르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선정률 유지 · 개선 정도의 경우 전국 평균점은 75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0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50점으로 나타남.

- 선정률이 전년도 60% 이하 및 금년도 50% 이하를 동시 만족시킨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 전년도 60% 이하만 만족시킨 지역은 울산,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 양 항목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나 전년 대비 선정률이 낮아진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임.
- 모든 지역이 60% 이하의 선정률을 유지하거나 전년 대비 선정률을 낮추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와 비교 시 경남(2012년 58.6% → 2013년 41.8%), 전남(63.9% → 51.7%), 충남(76.4% → 65.1%)의 경우는 10% 이상 큰 폭으로 선정률을 낮추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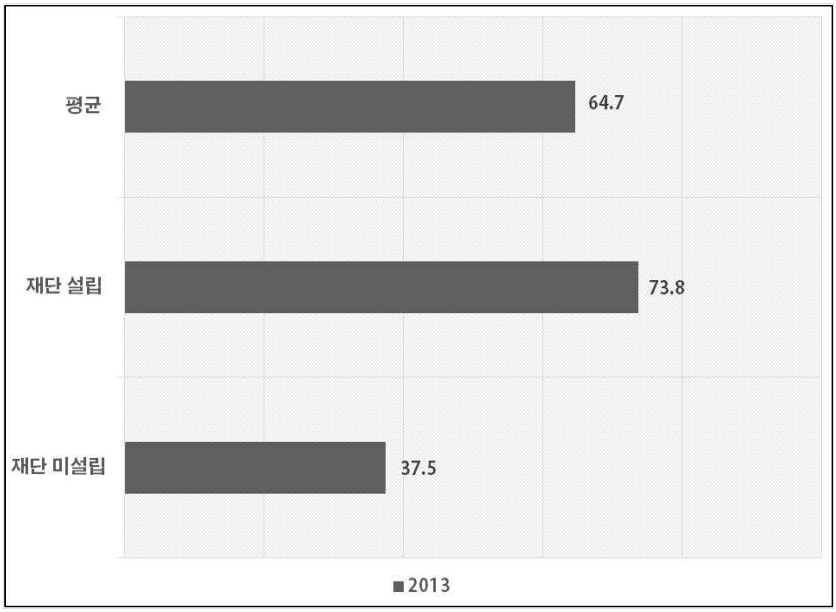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가.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

□ 오늘날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넘어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의 발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형사업의 목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 육성지원사업과 관련, 전략적 설계나 심의 선정기준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의 반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드러낸 지원사업 사례를 제시하고 그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서술의 충실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를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그림 60] 육성지원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지표는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백분위 환산 시 65점),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4점(74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3점(73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38점)으로 나타나,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1)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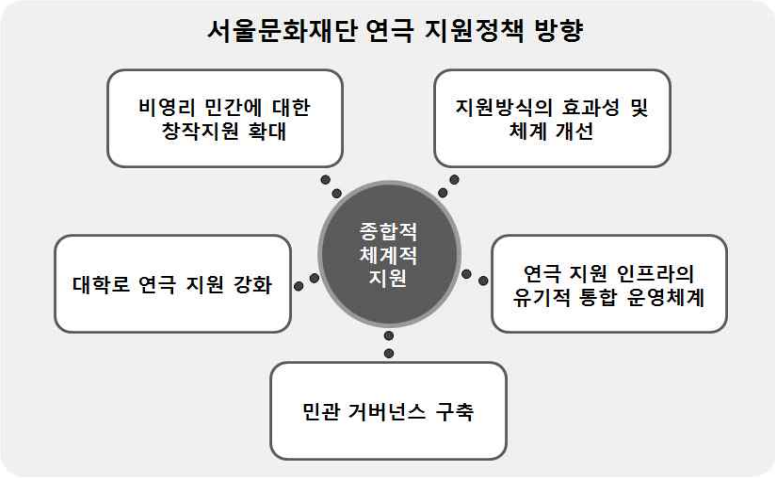
□ 이 지표에 대한 평가는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설계가 존재하는지, 그 설계 내용이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리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지역의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지, 지역의 독창성을 반영한 기획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는지 등을 검토함.

□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심의 선정기준으로만 반영할 경우 내용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전략적 설계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정도에 따라 평가함.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 지표의 전국 평균점은 60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2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 역시 72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26점으로,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큼.

□ **우수사례 : 서울 지역**

- 서울시는 서울지역 공연장 총 225개 중 67개가 밀집하여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연극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비전과 방향, 세부 집행전략을 담은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하였고, 연극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예산(2013년 22.5%)을 배정함.
- 서울문화재단은 연극발전 TF를 구성하고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4차례 연극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극계 인사 21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이와 병행하여 예술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그룹 심화 연구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림 61] 서울문화재단 연극 지원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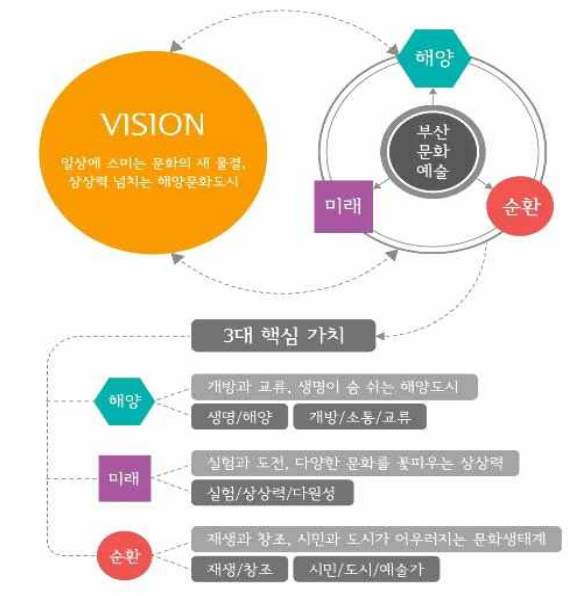
[그림 62] 서울시 연극분야 발전 비전 및 추진체계

□ 우수사례 : 부산 지역

- 부산문화재단은 재단의 비전과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담긴 3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재단 지원사업 추진에 적용함. 즉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전략과제와 함께 3대 핵심가치와 추진영역에 따른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 비전 :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 3대 핵심가치
  · 해양 : 개방과 교류, 생명이 숨 쉬는 해양도시
  · 미래 : 실험과 도전,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상상력
  · 순환 : 재생과 창조, 시민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문화생태계





부산문화재단 비전과 추진전략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육성지원사업 사업목표와 지원 대상에 경기도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담은 작품의 제작을 중점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단계별 연속 지원방식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사업 목표**
· 전문예술인들의 창작·발표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 지역문화자원(민담, 설화, 역사, 인물)을 활용한 극예술 신작 제작을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과 지역 민담·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극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작품 신작 제작 지원

1단계 지원	⇒	2단계 지원	⇒	PAFe 2013 개최	⇒	3단계 지원
• 희곡산출, 낭독공연 지원		• 극예술 쇼케이스 제작		• 1, 2단계 공동발표 개최 (전문평가 및 일반평가단 평가 시행)		• 평가 결과 우수작품 극장초연 지원 • 시군 예산매칭 협조

[표 57] 경기문화재단 단계별 지원 방식

2)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이 지표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 차별성을 잘 드러낸 지원사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사례의 구체성과 합리성, 서술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중 해당 지역에 고유한 독창성을 지닌 지원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점수를 부여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 지표의 전국 평균점은 70점(백분위 환산),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6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4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50점임.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 체계에 따라 육성지원사업을 4단계(문화예술진흥사업 → 공연활동지원사업 → 우수기획지원사업 → 집중기획지원사업)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함.

구 분		사업 목표
기초예술 진흥사업	집중기획 지원사업	· 대구 대표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획공연 · 전시 사업의 집중지원으로 기초예술분야의 심화를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육성
	우수기획 지원사업	· 전년도 대형사업의 우수지원작에 대해 재공연 · 재전시 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속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작품(공연 · 전시) 제작을 통한 레퍼토리화의 발판 마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 신진예술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재정, 예술 활동, 홍보 등을 지원하는 펠로우십 지원제도 도입으로 신진예술가 발굴 · 육성
공연활동 지원사업		· 고액의 제작경비 소요로 민간차원의 창작 활성화가 어려운 음악 · 연극 · 무용 등 기초예술분야의 무대공연작품 중 우수 작품을 엄선하여 집중지원 ·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와 질적 수준향상 등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문화예술 진흥사업	창작진흥 사업	· 지역예술인과 시민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유도를 통한 문화창조도시 조성
	해외활동 지원사업	· 해외활동을 통한 예술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문화 예술행사 참가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역량 및 경쟁력 강화
	학술진흥 사업	· 지역문화예술 자료의 기록, 보존, 조사 등 예술의 유 · 무형적 토대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으로 지역 학술자원 발굴 및 지역예술 정체성 확립

[표 58] 대구문화재단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육성지원사업의 사업별 목표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전문예술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성과 고유성이 드러난 지역문화자원 소재 희곡 3개 작품, 쇼케이스 5개 작품을 지원함.
- 사업 성과로는 경기도 전문예술단체 창작 지원 및 발표 확대,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도모 및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선정작 발표회(PAFe2013)을 통해 경기지역 문화자원 홍보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이 있음.

구분	작품명	시·군 및 소재	내 용
1단계 낭독 공연	삼설기	경기(한글소설집)	경기도문화재 제32호 송서의 주요 레퍼토리인 삼설기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
	남한산성	광주(남한산성)	남한산성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다 간 민초 서흔남의 이야기
	곽가 연대기	성남 (광주대단지사건)	1960년대 성남에서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작품화

2단계 쇼케이스	할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용인 할미산성을 축성한 김무력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
	神明 송문주	안성(죽주산성)	죽주산성에서 활약하며 몽골군을 퇴각시킨 송문주의 이야기를 극화함
	남한산성	성남(남한산성)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여 한국의 민족적 비극과 인간 갈등구조를 그려낸 작품
	황금닭	수원 (칠보산황금닭설화)	칠보산 황금닭 설화를 무용극화한 작품
	댄스컬 홀로그램 추사	과천(추사 김정희)	천재예술가이며,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의 사상과 철학을 홀로그램 댄스컬로 제작

[표 59]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소재 작품 지원 현황





PAFe2013 행사 전경과 포스터

□ 우수사례 : 강원 지역

– 강원문화재단은 김유정, 이효석, 김삿갓 등 강원도의 역사적 인물을 살린 사업 10건, 아리랑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고유성을 살린 사업 29건, 분단지역이나 폐광지 등 지리적 특성을 살린 사업 7건, 문화소외계층 등 사회적 특성을 살린 사업 14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분야	사 업 명	내 용
역사적 인물	시각예술	박수근화백 48주기 제 26회 그림그리기대회	- 강원도 양구출신의 세계적인 화가인 박수근화백의 48주기를 기념하고 양구지역의 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역사적 인물	연극	대한제국, 일천구백칠년 의병대장 민긍호	-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 해산 되었던 당시 원주 진위대 특무 정교였던 민긍호 의병장의 이야기를 엮어 창작, 공연함으로서 극을 통해 오래된 과거가 현재에 재조명되어 미래의 정체성을 확립
역사 문화적 특성	국제교류	2013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진출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공연	- 강원도 고성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스토리 구성, 음악과 미술(한국화)을 중심으로 제작된 인형극으로 강원도의 꿈동이인형극단이 해외진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
역사 문화적 특성	시각예술	학산오독떼기 사계 사진전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5호인 강릉학산오독떼기만의 특성을 최대한 연출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영농 의식을 재현하고 시연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학산오독떼기를 알리는 문화콘텐츠 개발
지리적 특성	다원예술	고성의 사계	- 고성의 4계 사업을 통해 고성 땅 금강산의 최고의 비경을 예찬하는 기존의 민요, 가요를 계절별로 새롭게 구성하고, 또한 고성의 경치를 노래하는 새로운 작사·작곡을 시도하여 계절별로 공연함.
지리적 특성	지역축제	DMZ 60년 평화 아리랑 토크 콘서트	- 전쟁의 상흔을 뒤로하고 미래와 상생, 나아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 조성. 남북 강원도, 특히 DMZ지역의 주옥같은 토속민요의 복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아리랑은 평화와 화합과 상생을 노래하기 위해 기획.
사회적 특성	연극	찾아가는 인형극 함께하는 인형극	- 폐광지역의 아이들이 인형극을 관람하고 실제적으로 인형을 제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인형극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 함.
사회적 특성	전통예술	강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예술마당	- 강원도의 귀농 귀촌인들이 문화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예술과 의례를 통하여 귀농인의 마음처를 돈독히 하고 지역 토착민과의 화합과 공생을 유도하여 '新 강원도민'이 되는 자부심을 갖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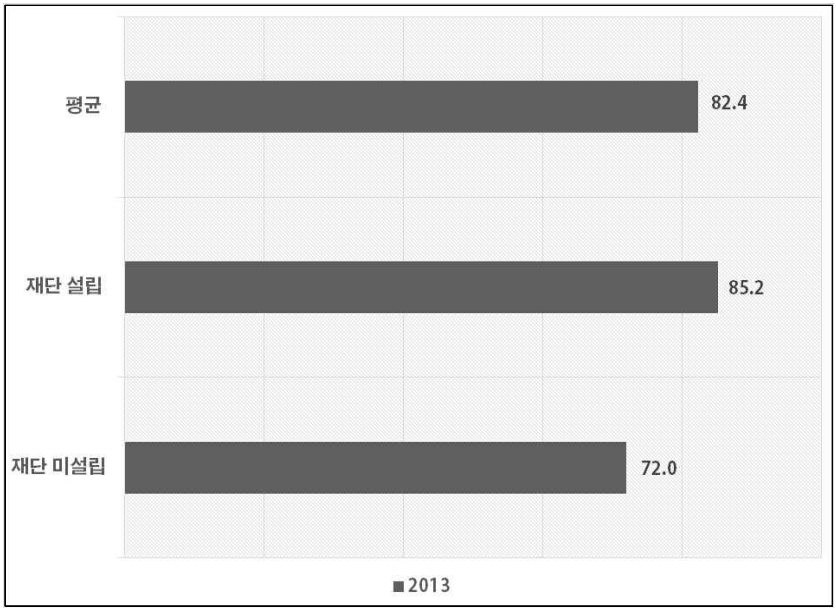
[표 60] 강원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린 지원사업 사례

제4절 시 · 도기획지원사업

1. 사업 추진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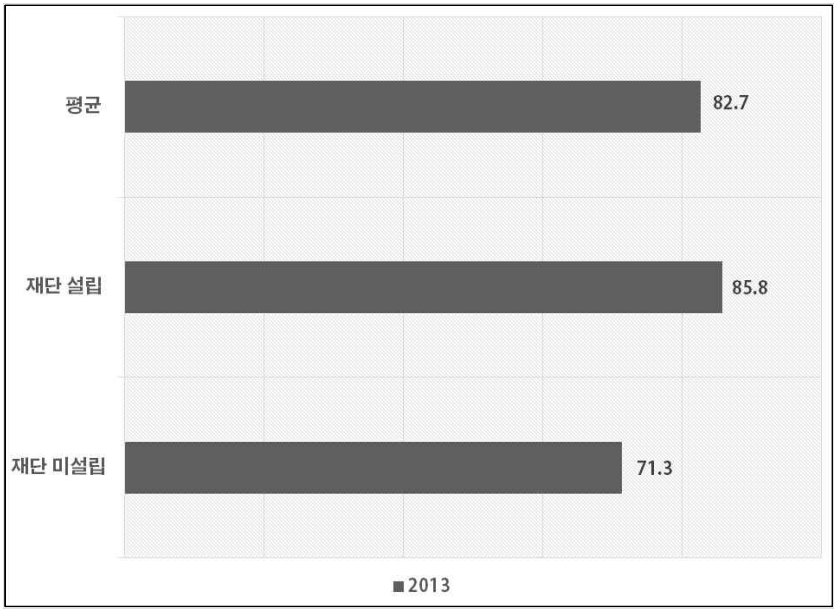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는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시 · 도기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등 시 · 도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임.

□ 시 · 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기초역량의 전국 평균점은 82.4점(백분위 환산 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5.2점(백분위 환산 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2.0(백분위 환산 점)으로 나타남.



[그림 63] 시 · 도기획사업 – 사업 추진 역량

가.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그림 64] 시·도기획사업 -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평가 결과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사업을 시행한 지역전체 평균이 82.4점인데 부산은 92.4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음.
- 지역특성인 해양컨셉 상징물을 활용하며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공공프로젝트로서 완성하였음.
- 국제네트워크를 추진할 수준의 역량 있는 단체가 선정되었음. 기획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세미나 개최 노력을 했음. 각 분야를 망라하는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음.
- 공공예술프로젝트를 2011부터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내부에 기획전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정된 단체와 협력하며 추진할 수 있게 됨.
- 2013년 선정된 단체는 2011년~12년 사이에 각 프로젝트에서 연대 참여한 실적이 있고 다른 지역 또는 일본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활동단체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사업에 관련된 바이럴마케팅, 만족도 조사 등을 고루 시행하여 시도기획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등 참여와 연계를 강화하며 사업을 지속발전가능하게 유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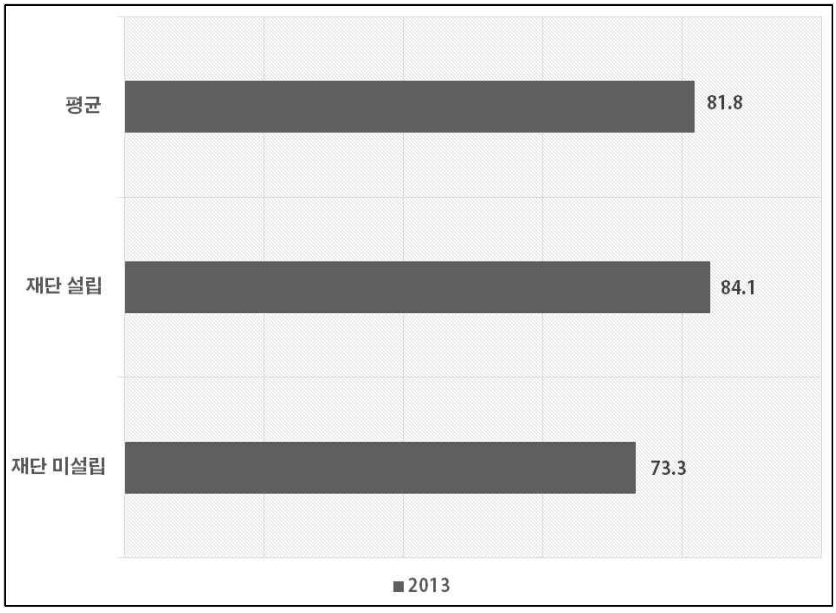
1) 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지, 추진 사업체의 대표자와 사업담당자가 전문가인지를 평가함. 특히 전문예술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 있는 단체로 보고 있음
- 선정된 단체의 전문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 분야의 경력사항, 보유 인력의 전문성 등을 함께 평가함
- 그동안 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이나 관련 추진주체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결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전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는 등 적극모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였는가?

- 시 · 도기획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기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선정 때 기획 역량과 추진체계를 평가함. 따라서 추진주체들은 사전에 역량 있는 전문 인력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단의 기획 전문 인력과 추진체의 전문 인력 확보가 잘 이뤄지고 있음.

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그림 65] 시 · 도기획사업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 시 · 도기획사업이 관련 지역 내에서 거버넌스를 이뤄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거나 협력사례가 있는지를 평가함. 특히 문화관련 행정, 법인체, 단체, 지역문화활동 주체들, 전문예술인사, 기업들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점수는 전국평균이 81.8점, 재단설립 지역은 84.1점, 재단 미설립 지역은 73.3점으로 나타남.

1) 기획사업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재단 또는 사업체들은 선정된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OU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함. 그런데 협력구축 노력은 재단이나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2) 실제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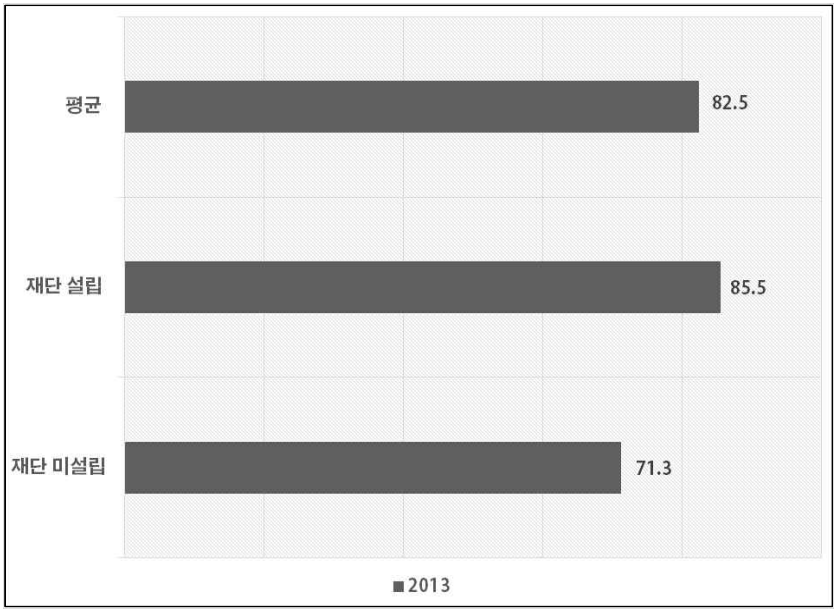
– MOU추진의 경우 상호 공통된 사업마인드를 공유하여 어려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본 틀이 되고 있음. 그 밖에도 실질적인 개별사업별로 협력하면서 협력사항을 찾아 추진하고 있음.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가. 지역의 독창성

□ 이 항목은 당해 사업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여 독창적인 주제와 추진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의 문화수요와 지역단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지를 평가함.

□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전국 평균이 82.5점, 재단설립 지역은 85.5점, 재단 미설립 지역은 71.3점으로 나타남.



[그림 66] 시·도기획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 **우수사례: 대전 지역**

- 대전문화재단의 경우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도시 대전의 고유한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예술결합적인 기획으로 차별성을 살려 특화된 대전의 시·도기획사업으로 추진하였음. 아티언스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문화예술을 융합시키는 뛰어난 기획력을 보였으며 이를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차별화하여 추진하는 추진력을 보였음. 추진방법으로 다양한 전시, 문학융합, 캠프, 포럼 등을 결합하여 새롭게 완성도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

1)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

- 시 · 도기획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진 주체들은 지역의 고유성과 전국적 보편성 사이에서 지역이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의 문화자산, 역사 문화적 특성, 지리 생태적 특성, 스토리를 잘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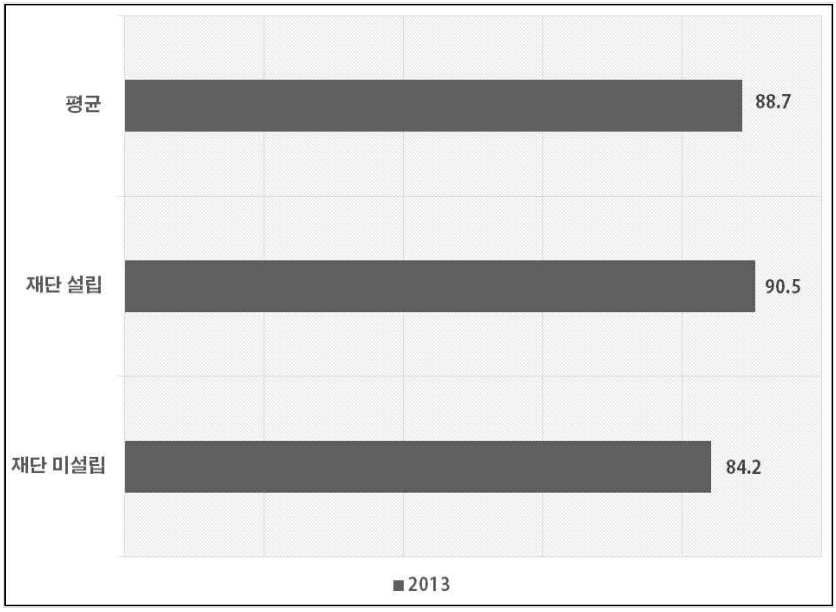
2) 타 지역이 시도해보지 않은 독창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는가?

- 시 · 도기획사업 가운데서도 지역단위의 브랜드로 인지도를 확립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음.
- 다른 지역이 전혀 시도하지 않은 당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기획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들이 사업 명칭만이라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독창성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제5절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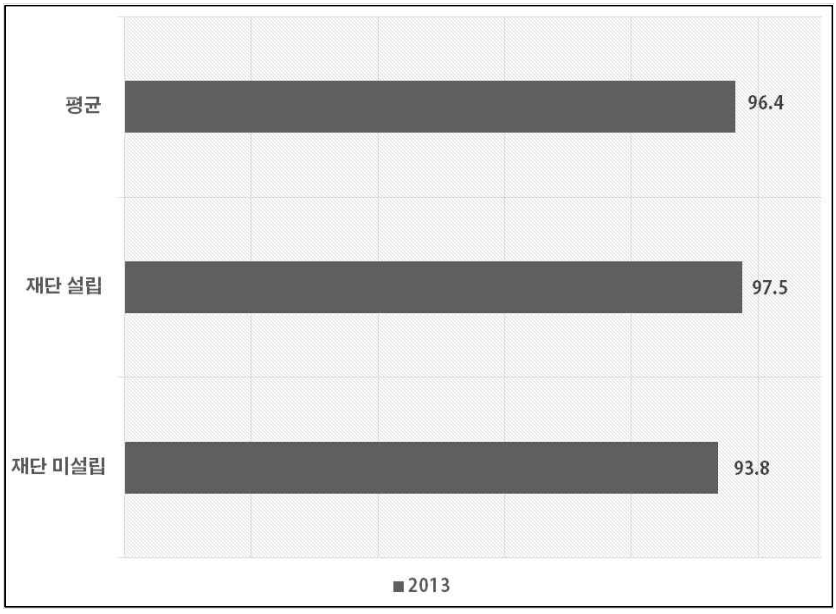
1. 사업 추진 역량

-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역량이 가장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공개심사제도가 완성도 높게 구축된 결과의 반영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의 레지던스 단체나 레지던스 참여 예술가들의 수준이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 섰음을 의미함. 이렇듯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의 확보는 이제 그 질적 역량의 영향력을 지역의 곳곳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의 방향 수립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주체 선정 심사에 있어서 서류심사나 발표를 중심으로 한 공개심사 외에도 신규 신청사업체의 경우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공간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최적의 심사가 실시되고 있어, 선정단체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 바람직함.
-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창작 프로젝트형과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사업으로 분류하여 레지던스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선정 단체들의 성격들이 획일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예술세계의 편중성이나 편협성을 예방하고 있는 효과도 나타남.



[그림 67] 레지던스지원사업 – 사업 추진 역량

가.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그림 68] 레지던스지원사업 -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평가 결과

□ 선정된 단체의 역량은 평균 96.4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음. 레지던스지원사업 기관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성과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은 충분하므로, 성과 제고를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지원 시스템, 지속 시스템, 효율적 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술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간의 쌍방의 아이디어와 의견 일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50%) 레지던스지원사업 공간의 특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1) 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우수사례: 전남 지역**

- 전문문예법인 40%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함. 선정기준(장르, 공간, 프로젝트 특성 명확화)을 충족시키고,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단체들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였음.

□ **우수사례: 경남 지역**

- 레지던시지원사업 기관이 1개인 지역도 있지만 7개 이상을 선정하여 비록 지원 예산은 적지만

레지던시의 거점을 양성하고, 수혜의 경험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 등장함.

2) 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우수사례: 인천 지역

-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1:1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단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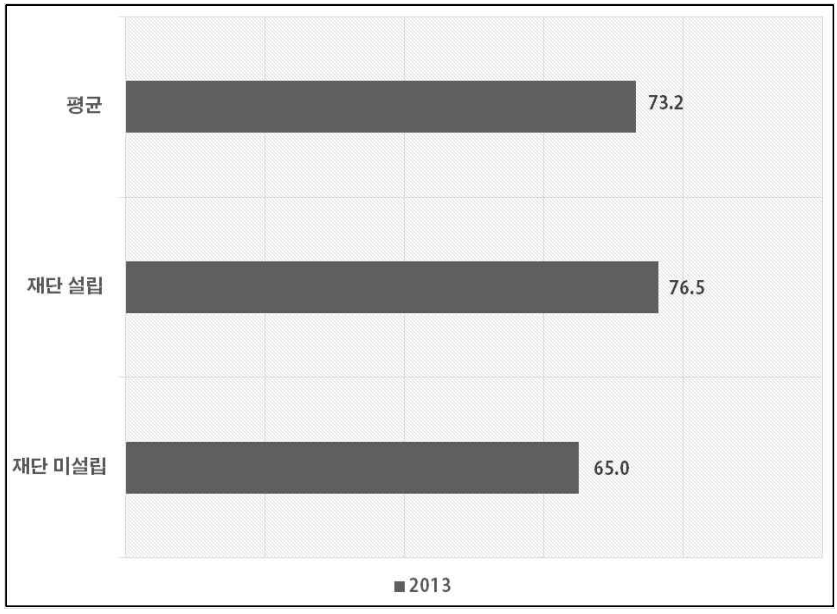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재단의 직영을 통해 역사적 체계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음.

□ 우수사례: 강원 지역

- 선정 단체의 국제적 역량에 대한 지명도나 본 사업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력 면에서 탁월성이 증명됨.

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그림 69] 레지던스지원사업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평가 결과

□ 레지던스지원 사업 평가 항목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균 점수가 73.2점이며, 재단이 설립된 지역의 경우 76.5점에 해당하고 있음. 예술가가 고독하게 창작 작업을 하였던 근대의 전통적 기법이나 가치가 분명히 전수되고 있으나, 최근의 동시대 예술은 장르 간, 소재 간 융합형 예술이 선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사고와 표현 도구와 표현 방식에 대한 추구가 강한 편임. 따라서 예술가 간, 예술 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의 결집과 자극이 필수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형성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나, 지역 소재 대학이나 해외 예술계 등과의 연계는 국제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도 창작자 개인에 의존하고 있을 뿐 기관 등과의 협력 구조 형성에는 여전히 미진한 편임.

□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의 구축 대비 실제 협력 사업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 평가 대응용 형식적 네트워크 구축일 수 있다는 의문이 발생할 정도임. 협력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자체 기획과 예술위원회 차원의 협력사업 사례 발굴과 그 결과에 대한 공유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한 시점임.

1) 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는가?

– 모든 지역에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업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국내 레지던스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 혹은 국내 타 영역의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어느 한 편에 치중해 있고, 국외 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등 균형성이 낮은 편임.

2) 실제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가?

□ **우수사례: 광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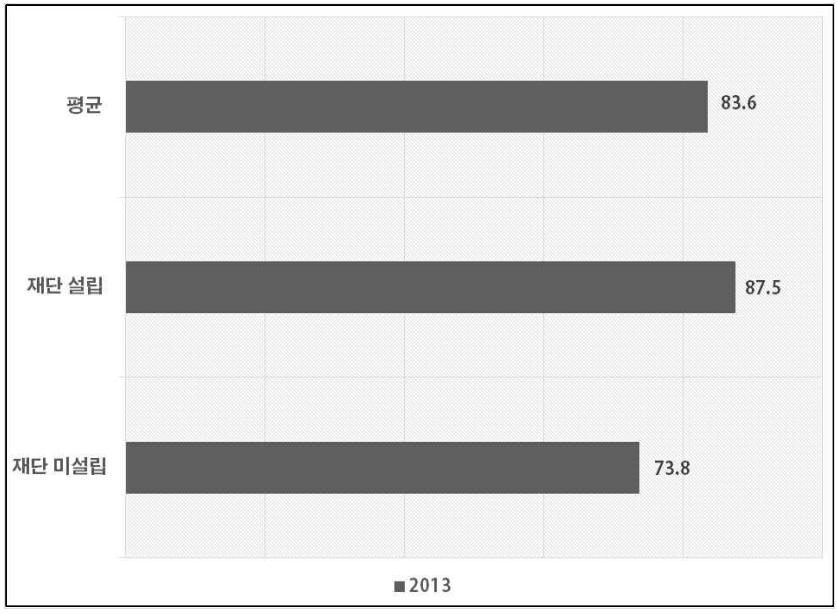
– 국내외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고, MOU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관계 구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구축했으며, 그를 통해 자체 역량강화 효과를 발휘함.

□ **우수사례: 충남 지역**

– 지역 기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구비되고 있음.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 사업내용의 기획력과 완성도에 있어서는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 점수가 87.5로 재단 미설립 지역의 73.8점에 비해 월등히 높음. 재단의 전문적인 인력들에 의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기획 방향의 제시와 지원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70] 레지던스지원사업 -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평가 결과

가. 지역의 독창성

□ 지역의 생태나 환경을 반영하여 예술과의 접점을 찾는 등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살린 프로젝트들이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레지던스지원사업에 있어서 도시중심과 소외지역중심의 두 부류의 핵심 공간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지역파급효과를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음.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환경을 고령화, 교류부진, 문화격차로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업에서 반영하도록 기획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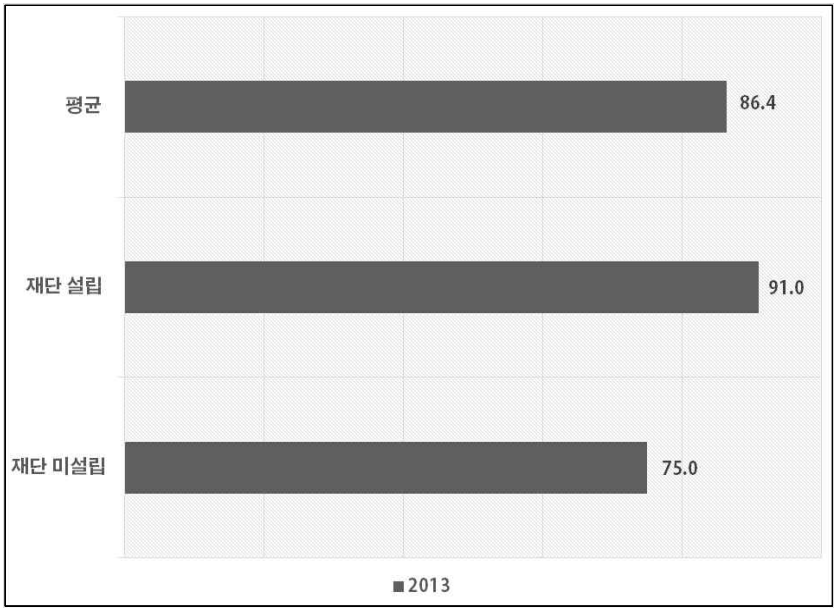
□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예술가 개인, 레지던스 입주자 집단 별 사고의 스펙트럼 활성화 필요

-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 스튜디오여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스토리 활용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함. 타 지역의 레지던스 기관들이 월례회나 자체 기획 워크숍 등을 통해 작품 구상안

들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성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사고의 스펙트럼을 서로서로 공유하여, 지역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레지던스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로서는 지역의 고유한 색깔이나 스토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임.

□ 효율성 증진을 위한 운영체계는 미흡한 편임.

–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맡겨져서, 큐레이터간 협의체나 레지던스 사업체 간 협의체 등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추구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협의 채널이 필요시에는 대응할 운영체계를 급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림 71] 레지던스지원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1)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

□ **우수사례: 광주 지역**

– 지역의 문화예술적 특성은 재단 자체사업에 반영되고, 레지던스지원사업에서도 무등산의 생태를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 환경과 예술 간의 접점을 찾는 등 독창성이 반영되고 있음.

□ **우수사례: 대전 지역**

- 전국 유일의 판화 관련 레지던스 로그램이 수행되는 등 사업의 고유성에 있어서 돋보임. 앞으로 이 레지던스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정착된다면 대전 지역이 판화 전문 지역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겠음.

□ **우수사례: 강원 지역**

- 지역폐교, 이동미술관 등 지역재생과 지역 찾아가기를 겨냥한 지역 고유의 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됨.

□ **우수사례: 충북 지역**

- 3개 단체의 경우, 2개는 도시 중심, 1개는 도시의 소외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지역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령화, 교류 부진, 문화격차로 진단하고, 그러한 환경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사업에서 반영되도록 기획력을 발휘함. 도심 공동화가 진행된 지역의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함.

□ **우수사례; 전북 지역**

- 레지던스 공간이 한옥마을에 위치해서 기본적으로 지역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학관의 경우 구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이어서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고유성을 획득함.

2)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우수사례: 경남 지역**

-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큐레이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성과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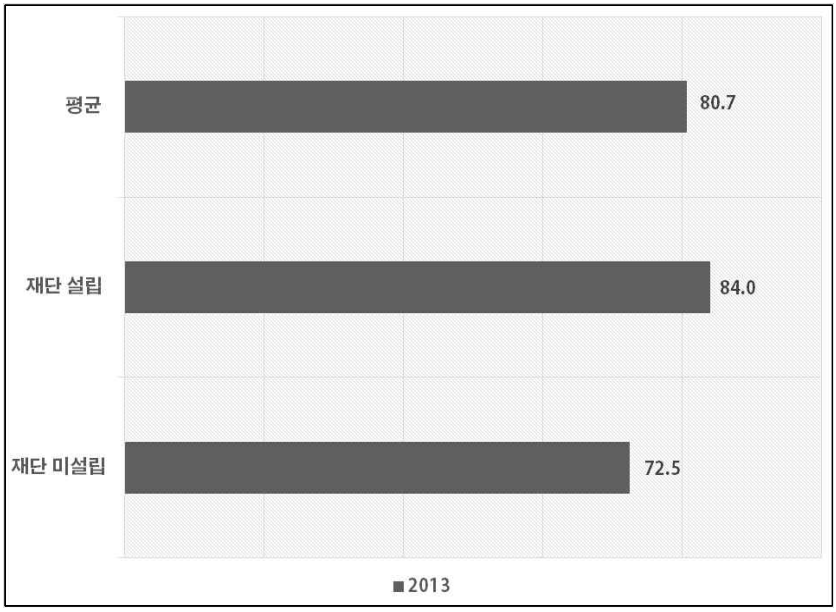
□ **우수사례: 광주 지역**

- 운영체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체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음.

나.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 문화사랑방이나 정례적인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과 같이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의 요구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틀이나 회의가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설명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정보를 제고하기 위한 일방적인 학습형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레지던스 주관 기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용과 수렴 체계는 전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그림 72] 레지던스지원사업 -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평가 결과

1) 지역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 우수사례: 전남 지역
- 찾아가는 좌담회 등 지역수요반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계기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원도심 기록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등 시의적절한 기획력이 돋보임.

2) 레지던스 사업 공간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레지던스지원사업 공간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계캠프(주민, 학생)'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예술창작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오픈스튜디오 뿐 아니라 문화 나눔의 날, 미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으로 레지던스 공간이

친주민형 예술공간으로 활용됨.

□ 우수사례; 인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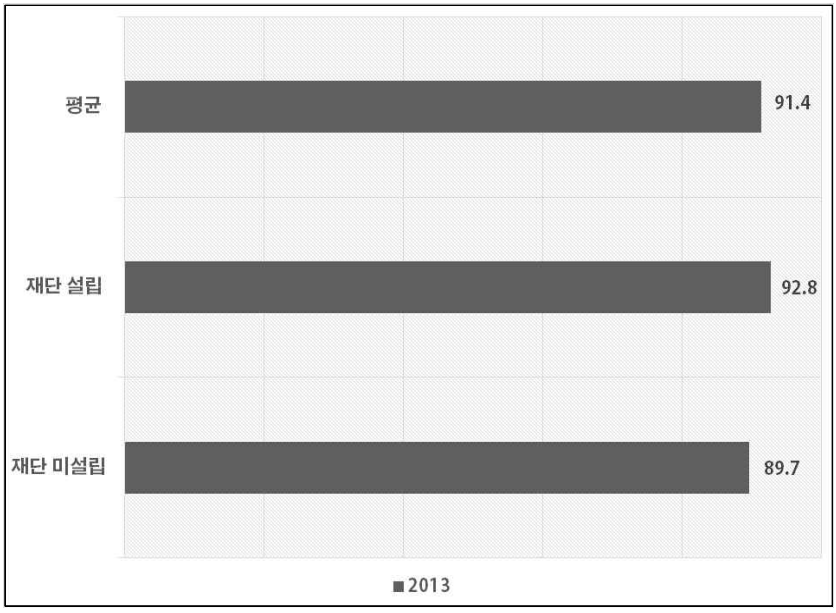
– 커뮤니티형 레지던스 사업기관은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서의 개념을 사업공모 시기부터 포함시켜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친주민적으로 운영됨.

제6절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 계획대비 집행실적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계획된 장소, 공연시간 준수, 행사구성, 관객참여도 및 집객수준, 결과보고서 작성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임.

□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표에는 7.5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평균점은 6.9점(백분위 환산 91.4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0점(백분위 환산 92.8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7점(백분위 환산 89.7점)으로 나타남.



[그림 73] 우리가락우리마당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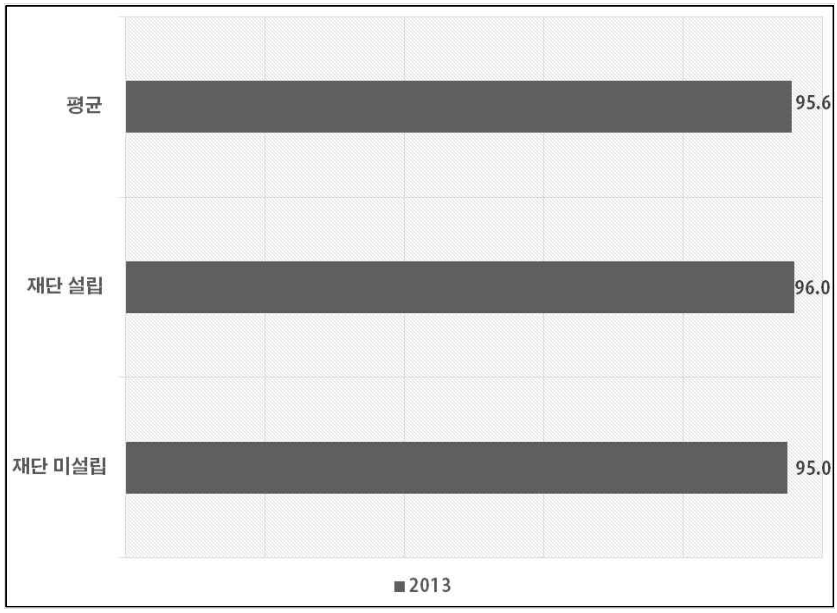
가. 공연일정 및 공연 횟수 준수 여부

□ 이 항목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의 공연일정 및 공연 횟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임.

□ 개최시기는 대개 4월~10월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주 1~2회 주말 저녁시간을 주로 이용함. 공연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됨. 전국적으로 15회 이상 공연 횟수를 잘 지키고 있음.₩

□ **우수사례: 전북 지역**

– 전북 지역의 경우 총 22회의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을 진행했으며, 이 중 2회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진행 함.



[그림 74]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일정 및 공연 횟수 준수 여부 평가 결과

나. 계획된 행사장소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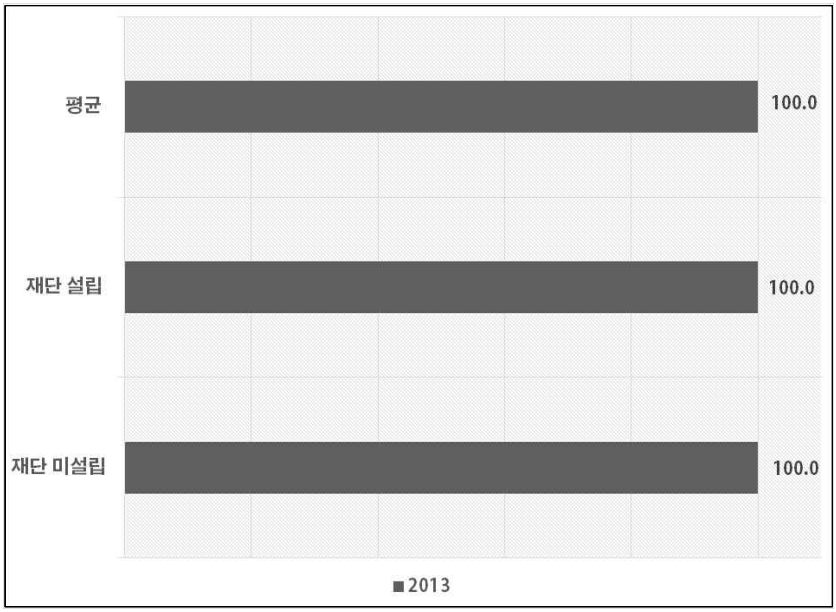
□ 야외공연장, 야외특설무대를 활용한 상설공연으로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장의 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 대전 유림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전북 전라북도청 야외공연장 등 국악공연 랜드마크화 정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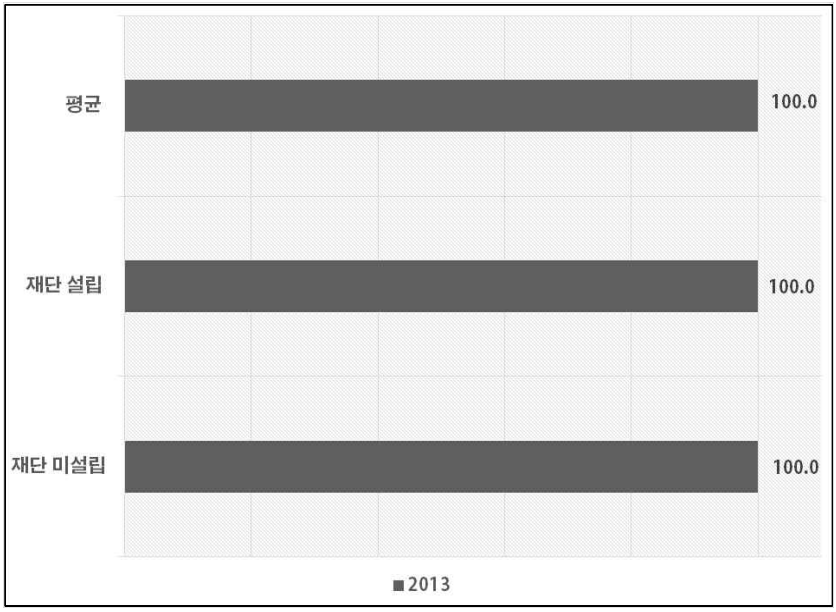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 주변 관광명소들이 소개되면서 관광코스로 용두산 공원을 찾는 일본,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림 75] 우리가락우리마당 - 계획된 행사장소 사용 여부

다. 적절한 공연시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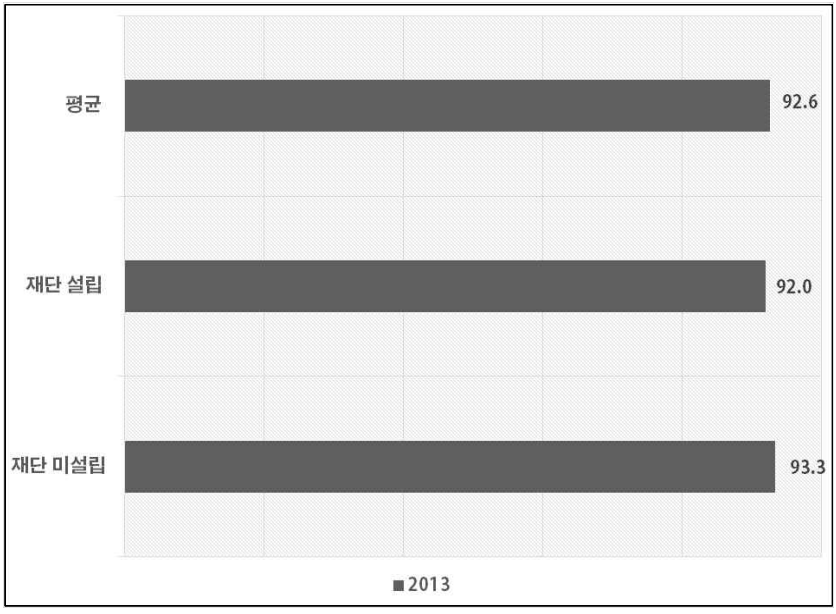


[그림 76]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공연시간 준수 여부 평가 결과

□ 주로 주말 저녁시간을 이용하고 있고, 공연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됨. 공연행사 이전에 시민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적절한 공연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라.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행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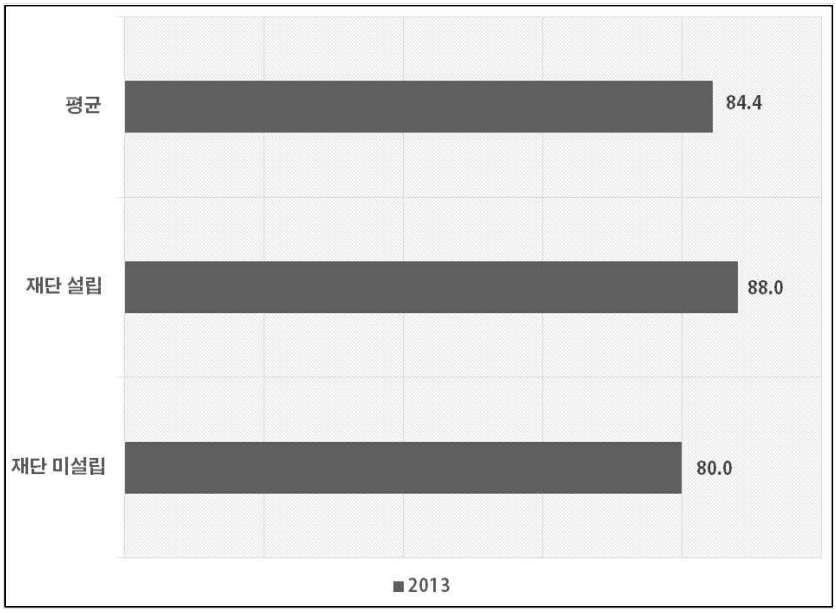
[그림 77] 우리가락우리마당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행사 구성 평가 결과

□ 상대적으로 전통예술자원 기반과 자원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편차가 보이고 있음. 단조로운 행사구성과 단일팀이 참가하는 행사구성과 다수의 팀이 참여하는 종합구성, 전문성과 예술성의 지역적 편차가 있음.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당초 5개 프로그램에서 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재급의 명인들의 명품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하였음.

마. 관객참여도 및 집객 수준



[그림 78]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객참여도 및 집객 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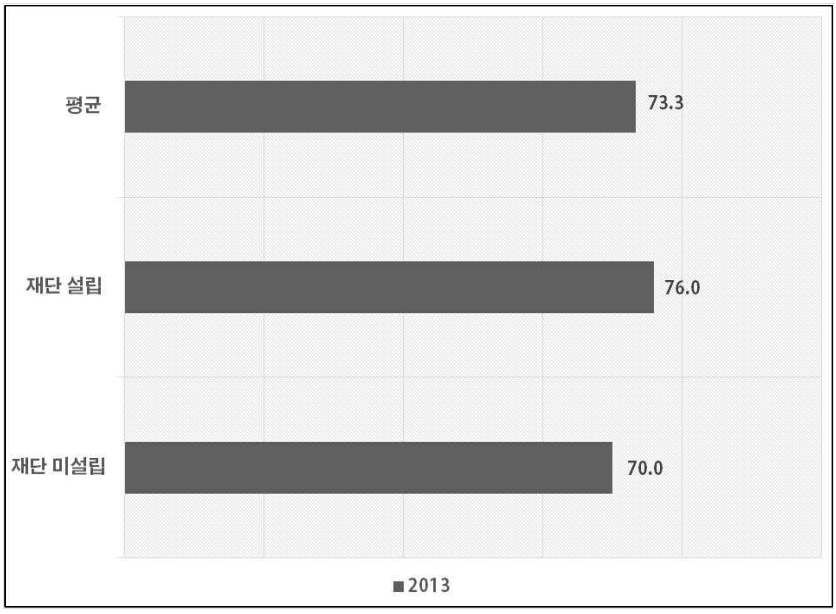
□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의 국악상설공연 브랜드화가 진행되며 고정관람객과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고, 생활문화속의 공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전통문화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관객참여도 차이가 있고, 다양한 구성과 재미있는 레퍼토리, 홍보의 다각화와 활용에 따른 집객수준의 편차가 있음.

□ **우수사례**

- 대구의 경우 관람객 20,000명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고, 전북 10,210명, 부산 총 관람객 19.930명, 외국인 관람객 2,280명으로 우리가락우리마당 고정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바. 결과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그림 79] 우리가락우리마당 - 결과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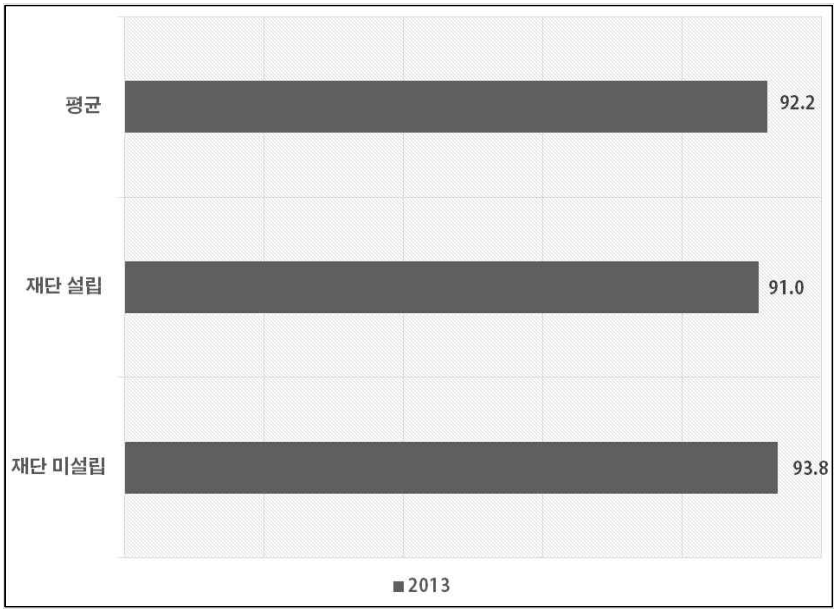
□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의 경우 현장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의 완성도와 제출 자료의 성실도의 편차가 있음.

□ **우수사례**

– 대구, 전북, 부산의 결과보고서의 경우 평가지침에 따른 항목별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성실히 첨부되어 있음.

2.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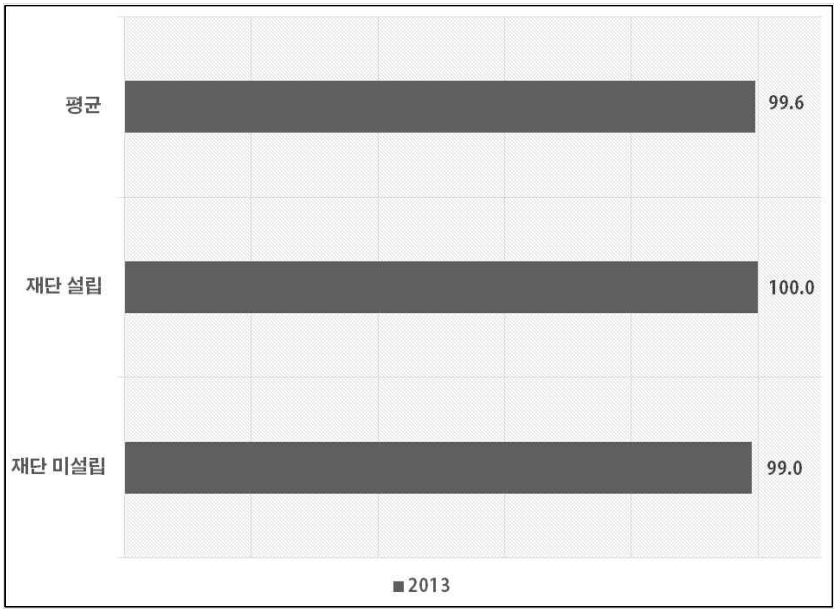
□ 출연진 구성 및 공연 프로그램 완성도 항목은 전반적으로 90점 이상의 성취도를 보임.



[그림 80] 우리가락우리마당 -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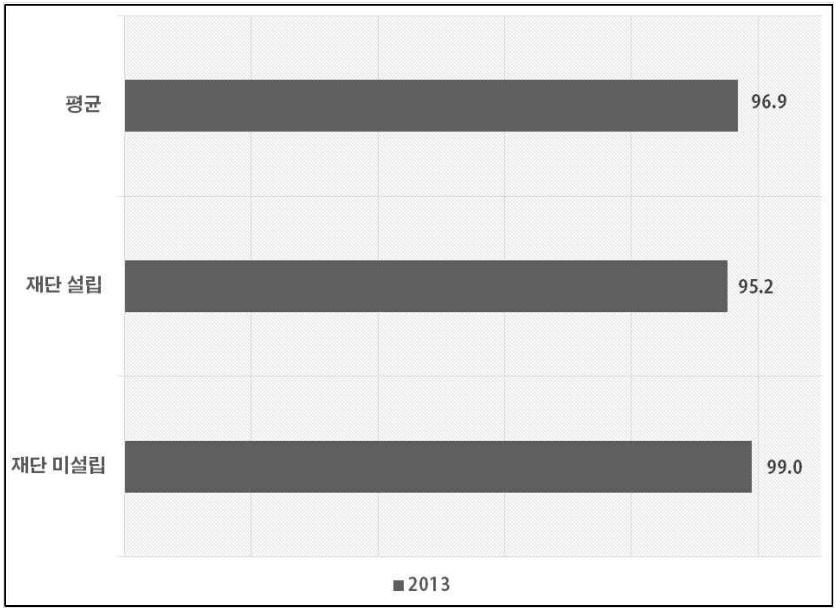
가. 주관단체 출연 회차 전체 10% 이내 유지 여부

□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침에 따라 주관단체의 출연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단체, 예술가의 참여를 통해 행사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림 81]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관단체 출연 회차 관련 평가 결과

나. 신생단체 출연 전체 20% 이상 보장 여부



[그림 82] 우리가락우리마당 – 신생단체 출연 관련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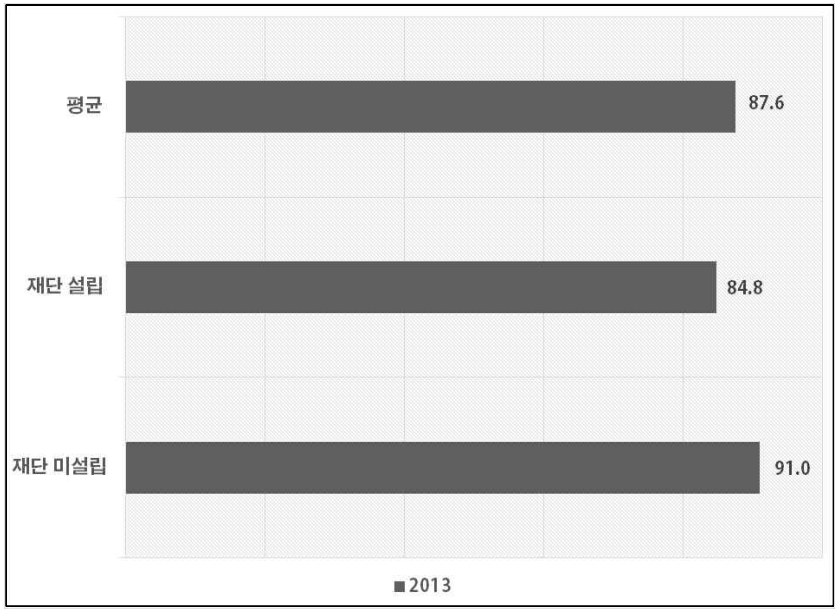
□ 신진단체 및 신진예술가 참여의 폭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국악공연의 대중성확보와 신진단체, 예술가 참여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과 전문성확보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측면을 가만해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예술단체의 기본적인 참여가 바람직해 보임.

□ **우수사례**

– 대구의 경우 신진예술가 참여 48%이상 보장으로 신진국악인의 발굴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대전 56개 팀 중 35팀 신규참여, 충남 37개 팀 중 34팀 신규참여, 경북 34개 팀 중 10개 팀 신규참여하고 있음.

다. 출연진 수준 및 전문 국악예술단체(예술인) 출연 여부



[그림 83] 우리가락우리마당 – 출연진 수준 및 전문 국악예술단체 출연 여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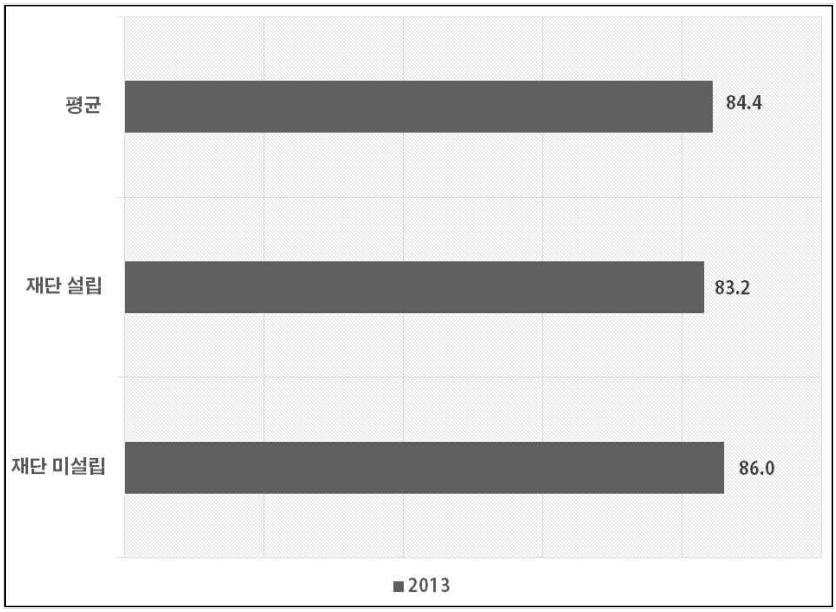
□ 전통국악예술 자원의 기반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편차가 있음.

□ 아마추어 동아리수준의 출연진과 단일팀 구성으로 사업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넘어 전문성과 예술성을 담보하는 타 지역 공연단체의 초청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사례**

– 전북의 경우 무형문화재 공연지속, 송순섭명창, 강정렬명인, 나금추명인, 조영자명창 등 전통예술 명품공연을 지속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도 문화재급 명인들의 명품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라.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유도하는 공연구성 및 연출



[그림 84]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구성 및 연출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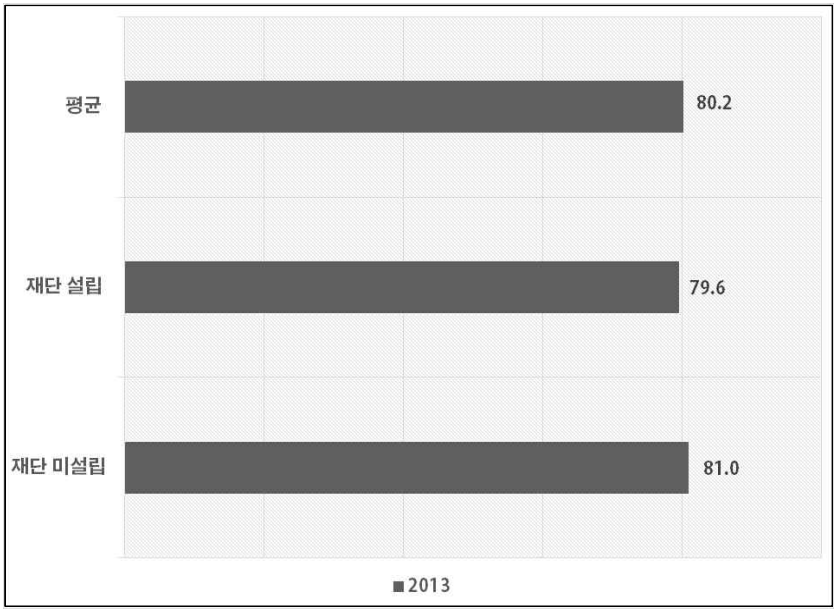
□ 전통국악공연의 대중성확보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유도하는 공연구성은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연출자의 결합이 요구되는 항목임.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 보임.

□ **우수사례**

– 대구의 경우 시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재급 명인들의 명품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 운영하였고, 전북의 경우 전통예술 명품공연 지속, 문화취약지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 추진, 전통예술과 전래놀이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개 폐막 특별기획을 통해 볼거리, 재미, 전통예술의 정수 전달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구현하고 있음.

3.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그림 85]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평가 결과

가.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관람공간 및 무대공간 등 시설 확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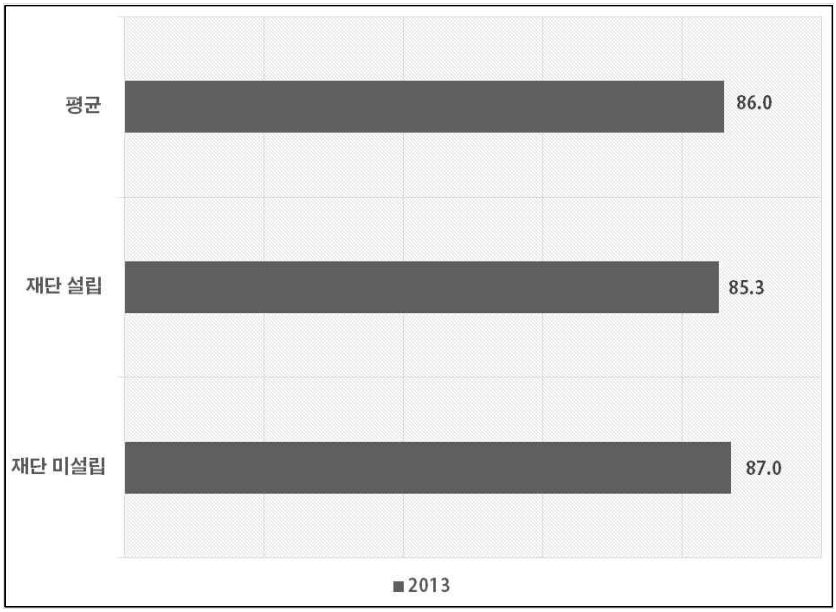
□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을 진행하는 전 지역에서 야외공연장 야외특설무대를 상설공연장화 하고 있고, 국악공연장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야외공연장의 특수성으로 우천 시 대책 마련이 미비하고, 공연장 시설개선이 과제로 남음.

□ 전통국악 공연을 위한 무대공간 및 시설 확보는 전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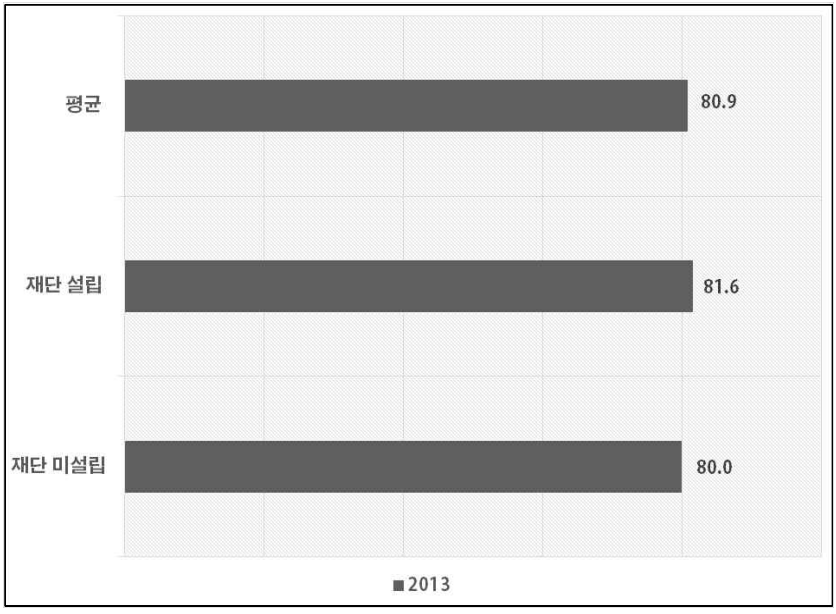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대구의 경우 코오롱야외음악당을 활용하고 있고 대형공연이 가능한 규모의 무대와 음향, 조명장비와 더불어 충분한 좌석확보(고정석 1,080석, 수용인원 27,000명), 1만여 평의 잔디광장을 갖추고 있음.



[그림 86]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관람 및 무대 시설 확보 여부 평가 결과

나. 적절한 관람객 편의시설의 확보 및 운영 여부



[그림 87] 우리가락우리마당 - 적절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보 및 운영 여부 평가 결과

□ 야외공연장, 야외상설무대라는 한계로 인해 관람객 편의시설이 전문공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우수사례: 전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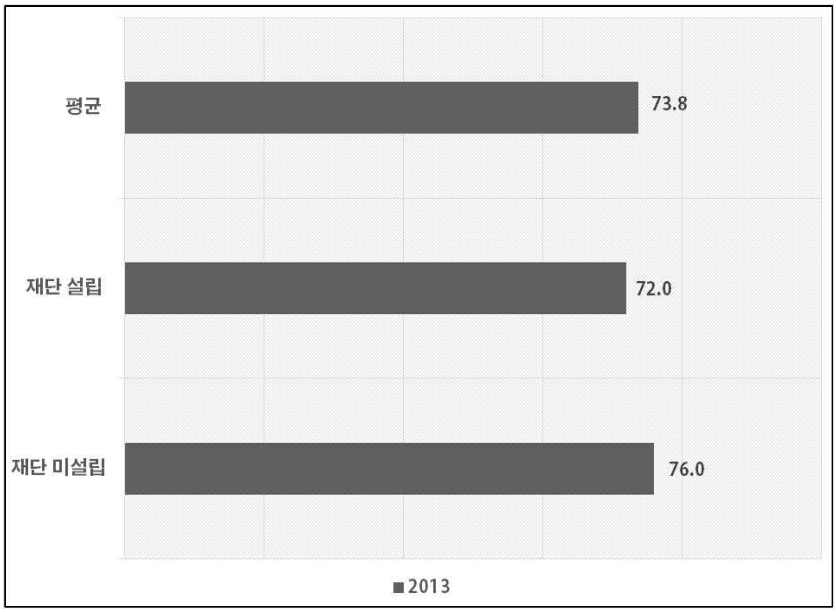
– 전북의 경우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천 시 대책마련, 행사 진행 중 사고대처를 위한 시스템 마련, 긴급조치 물품 비치, 안내데스크 배치 등 관객 편의 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대구의 경우 동선마다 가까이 있는 화장실, 고정석, 경사진 잔디광장, 주차장, 대중교통접근성 등이 우수한 장소를 활용하고 있음.

다. 국내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한 공연해설 및 안내 여부

□ 지역에 따라 전문해설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88] 우리가락우리마당 – 국내외 관람객 관람 편의를 위한 해설 및 안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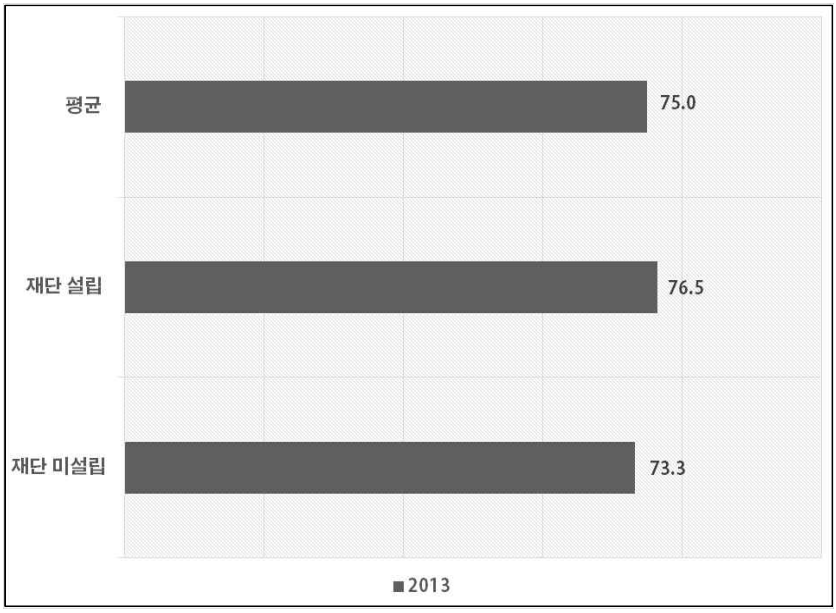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부산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 일 중 리플릿 제작 배포하고 있고, 시민자원봉사자 활용으로 3개 외국어(영, 중, 일)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대구의 경우 전문사회자, 안내도우미 활용으로 해설이 있는 공연추진.

□ **우수사례: 대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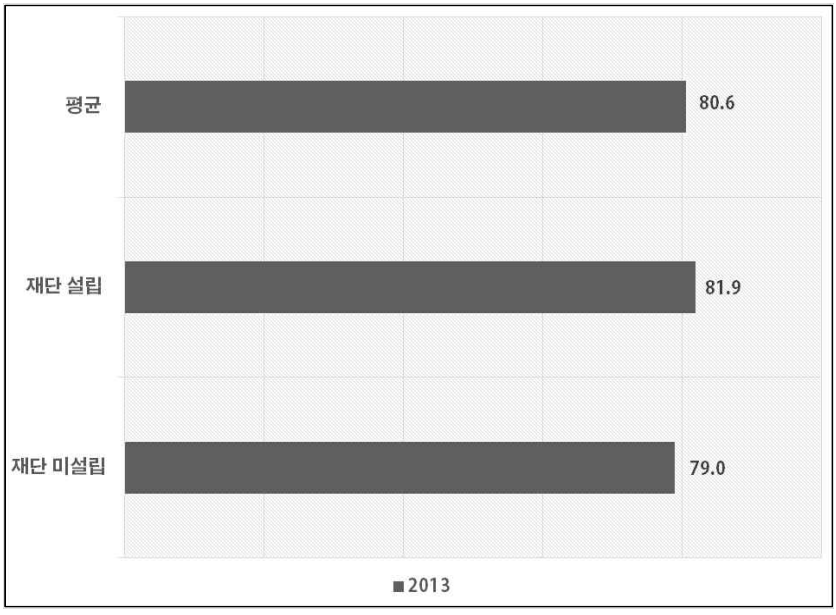
– 대구의 경우 케이블방송 국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사회자 해설진행, 매회 4명 진행스텝 배치운영(무대 1명, 공연안내/리플릿 배포 2명, 설문1명)

4.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 성과



[그림 89]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 성과 평가 결과

가. 관람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여부



[그림 90] 우리가락우리마당 –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채널 활용 여부 평가 결과

□ 전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홍보매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보도자료 배포 이외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미미한 지역이 보이고 있음.

□ SNS서비스제공, 홈페이지활용, 웹진 활용홍보, 댓글달기 이벤트 진행, 등 다수의 지역에서 다각적인 홍보활동 진행.

□ **우수사례**

– 경북의 경우 프린지공연을 진행하였고, 초 중 고 유치원에 배포할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음. 전북의 경우 우리가락우리마당 커뮤니티를 구성 운영하였고, 테마가 있는 문자 보내기, 이야기판 작성,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홍보영상차량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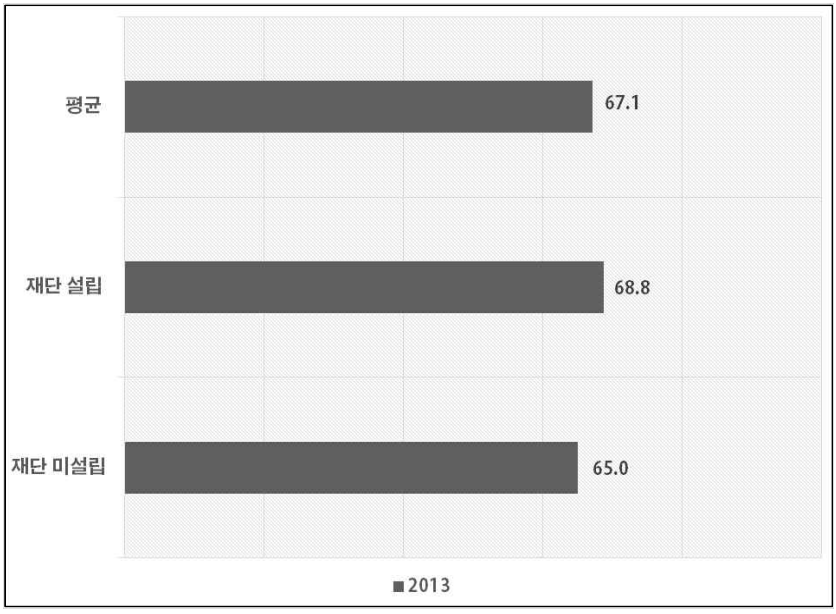
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상시공연홍보 채널 운영 여부

□ 우리가락우리마당 자체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재단홈페이지,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 전국대상 통합홈페이지 및 블로그활용 방안 마련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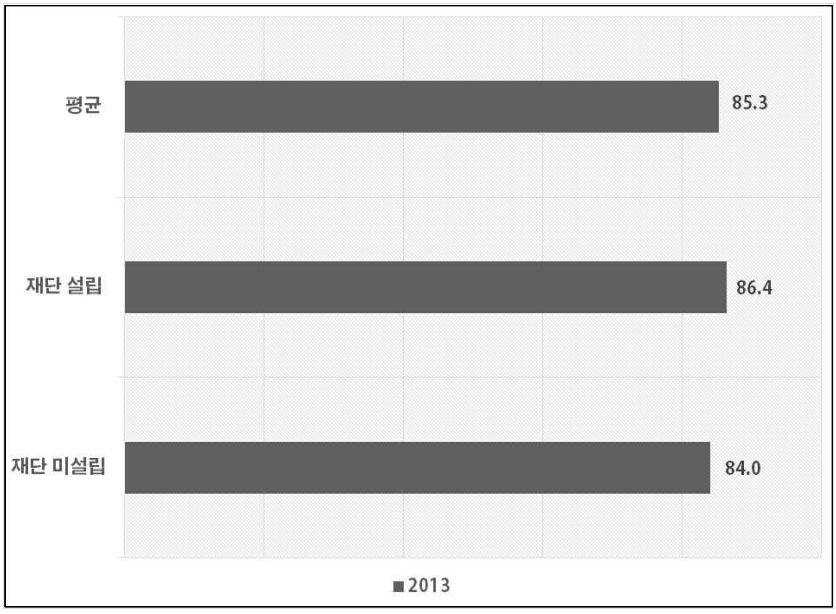
□ **우수사례: 전북 지역**

– 전북의 경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웹매체를 활용한 공연정보제공, 실시간 공연 노출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



[그림 91] 우리가락우리마당 – 상시공연홍보 채널 운영 여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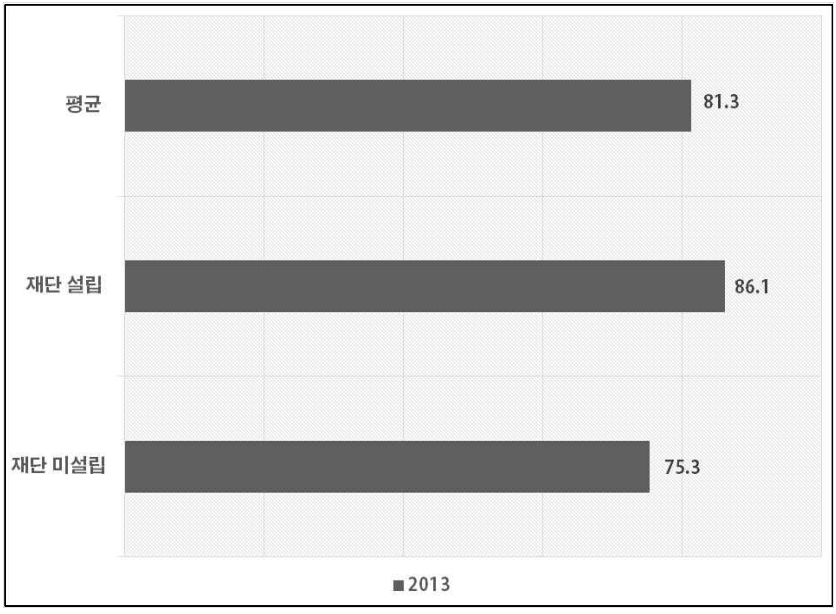
다. 공연 보도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창출 여부



[그림 92] 우리가락우리마당 – 공연 보도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창출 여부 평가 결과

- 전 지역에서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보도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를 진행하고 있음.
- 기획기사 유도,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적극적인 보도와 편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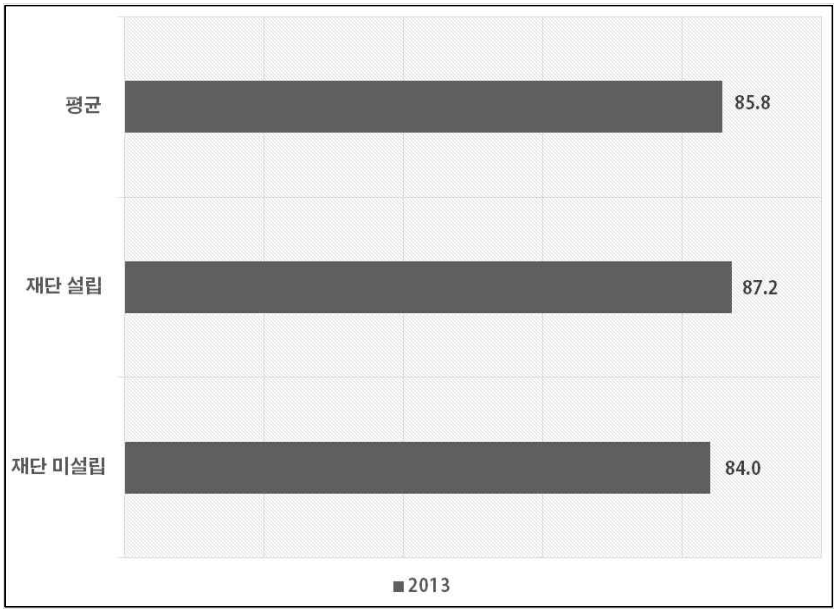
5.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그림 93]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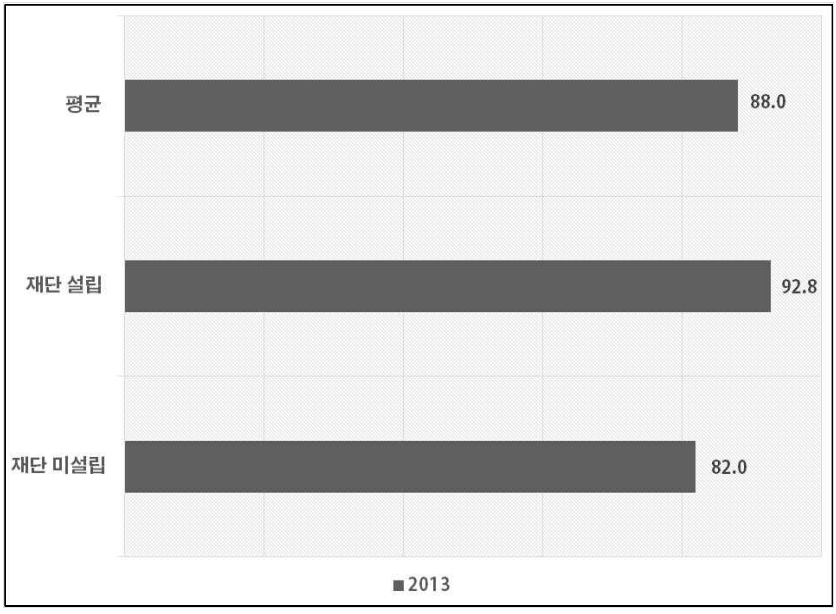
가. 공연 프로그램 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많은 지역에서 지침에 따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민요배우기, 전통놀이체험, 프러포즈이벤트, 관객신청공 접수, 꿈나무 예술가 출연, 전통국악기 배우기, 국악기제작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기획, 진행되고 있음.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부산의 경우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2명을 별도로 운영하여 본 공연 한 시간 전부터 민요배우기,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진행하여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을 얻어냈음.



[그림 94]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평가 결과

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및 참여자 만족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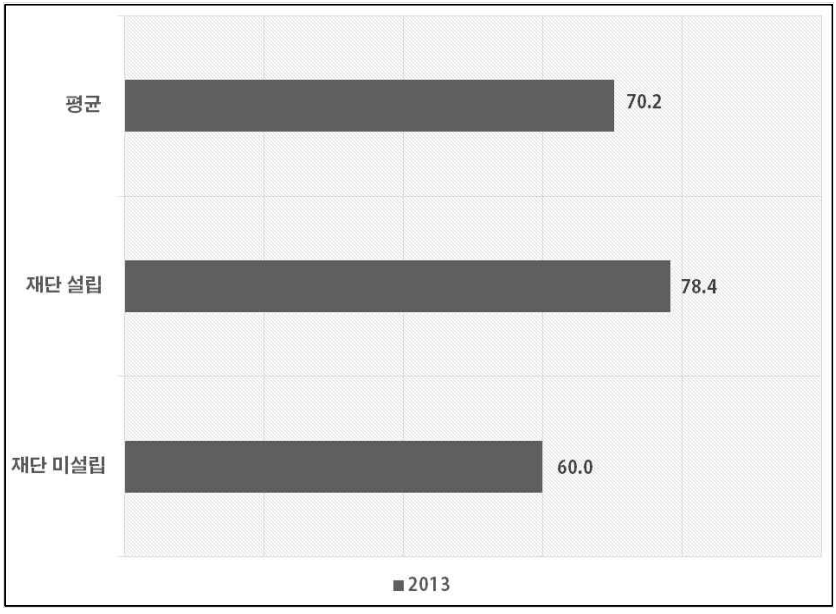
[그림 95]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자 만족도 수준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며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람객 입장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도 조사가 필요함.

□ **우수사례**

– 대구의 경우 매회 공연마다 면접원을 배치 운영하여 공연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주의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한 평가, 모니터링, 만족도조사를 실시함.

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의 연계성 여부



[그림 96] 우리가락우리마당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의 연계 평가 결과

□ 전통국악,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공연과 연관성과 개연성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임.

□ **우수사례**

– 충북의 경우 사전공연으로 지역동아리 꿈나무 예술가 출연, 부산의 경우 민요배우기, 전통놀이 체험, 대구의 경우 프러포즈 이벤트, 관객신청곡 접수, 전북의 경우 전래놀이 체험, 도민참여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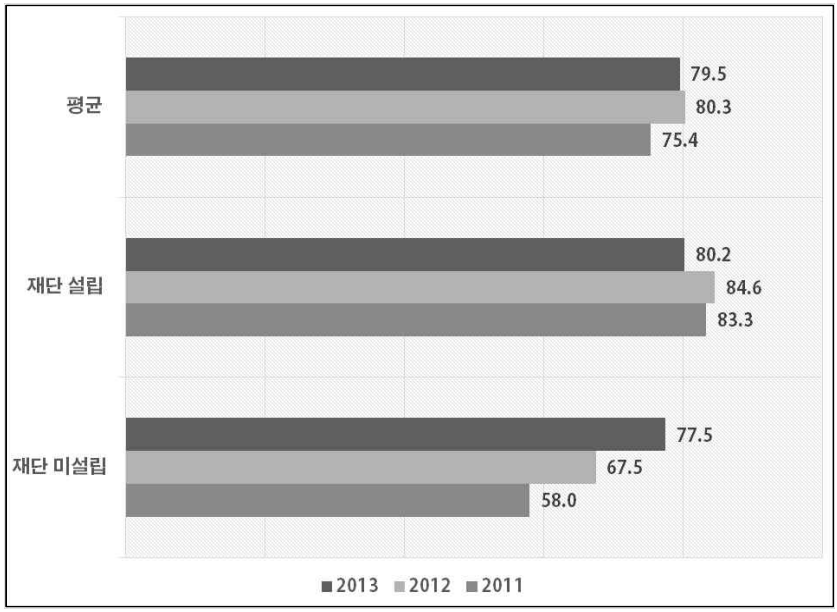
제7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사업추진 기초역량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는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가 공연장상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임.

□ 공연장상주사업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2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15.9점(백분위 환산 79.5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6.0점(백분위 환산 80.2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5.5점(백분위 환산 77.5점)으로 나타남.

□ 특히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연차별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백분위 환산 평균점은 전년도 대비 10.0점이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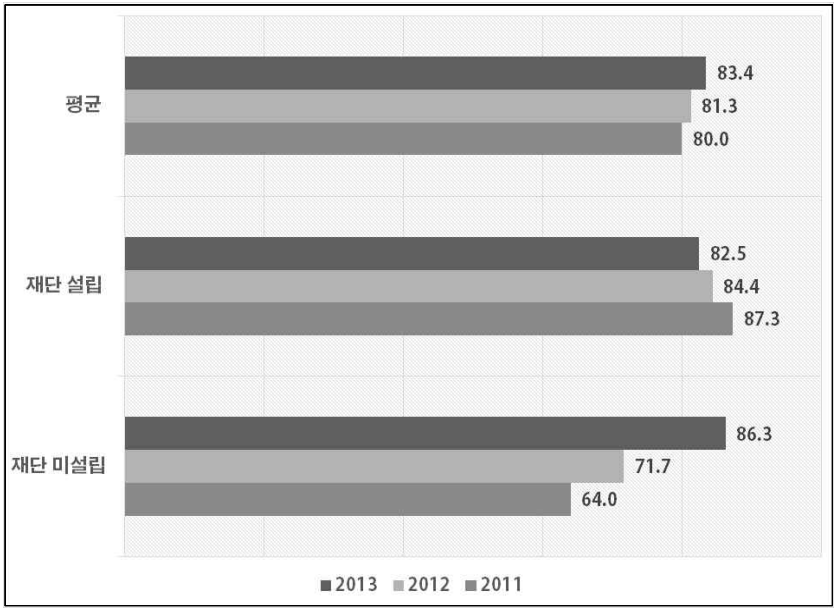
[그림 97]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추진 기초역량 평가 결과

가. 선정된 단체의 역량

□ 이 평가 항목은 공연장상주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선정된 단체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예술단체인지,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와 담당자가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선정된 공연장이 기획 · 홍보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였음.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한 단체 수, 지원 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의 선정 비율, 선정예술단체의 대표의 이력사항 및 상근 전문 인력 유무 및 이력사항, 사업 참여 공연장의 기획 · 홍보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음.



[그림 98] 공연장상주사업 – 선정된 단체의 역량 평가 결과

□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지표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8.3점(백분위 환산 83.4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3점(백분위 환산 82.5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8점(백분위 환산 78.3점)으로 나타남.

□ 재단 미설립 지역의 연차별 상승세가 비약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두드러짐.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전문예술단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지만 상당수가 참여함으로써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단체 선정 심의 및 선정 후 평가체계가 점차 확립되어 가기 때문으로 보임.

□ 역량 있는 지역대표예술단체들과 전문예술단체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역이 공연장상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예술단체의 현황을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선정예술단체의 전문적 역량과 공연장의 기획 전문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거나 부실하게 제시하는 지역이 다수 있음.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도출하려면 우선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에서 선정예술단체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차적일 것임.

□ **우수사례: 서울 지역**

–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연장과 단체의 역량에 대한 심사항목을 배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와 세부운영계획서에 상세한 인적자원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선정 심사 자료로 제공함.

- 지원신청서에 공연장 및 예술단체의 전문 인력 보유내용을 작성
- 지원신청서 내 '신청단체' 정보란에 단체 구성원의 인력사항 및 '신청인 및 단체 대표자' 정보란에 신청인(단체대표)의 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기재
- 세부운영계획서 내 공연장의 '마케팅 및 기획역량', 예술단체의 '단체현황', '지원인력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심사 시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판단가능

[인터넷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및 단체 대표자' 정보 기재 부문]	[세부운영계획서 상의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역량']
	
[세부운영계획서 상의 공연장의 '마케팅 및 기획역량']	[세부운영계획서 상의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및 조직역량']
	

● 선정단체 및 공연장 심사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세부내용
공연장	역량 (50)	마케팅 및 기획 역량(25)	ㅇ 인적역량(홍보·마케팅·기획인력) ㅇ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시설 및 운영역량(25)	ㅇ 시설 및 운영 현황 – 객석규모, 무대시설 현황, 부대시설 등 – 가동률, 객석점유율 등 ㅇ 전문 인력 보유현황
	지원 계획 (20)	상주단체 지원계획(20)	ㅇ 상주여건 마련 노력 정도 ㅇ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정도
단체	예술적 역량 (50)	활동실적(30)	ㅇ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활동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관객개발 성과
		조직역량(20)	ㅇ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 보유 인력 및 구성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
	지원 계획 (20)	협력의지 및 지원계획(20)	ㅇ 물리적 상주 등을 통한 공연장과 협력의지 ㅇ 공연장활성화에 대한 협력정도 ㅇ 공연장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노력
협력 프로 그램	계획 (60)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60)	ㅇ 사업계획의 목표 부합성 ㅇ 프로그램의 우수성 ㅇ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표 61]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지원신청 및 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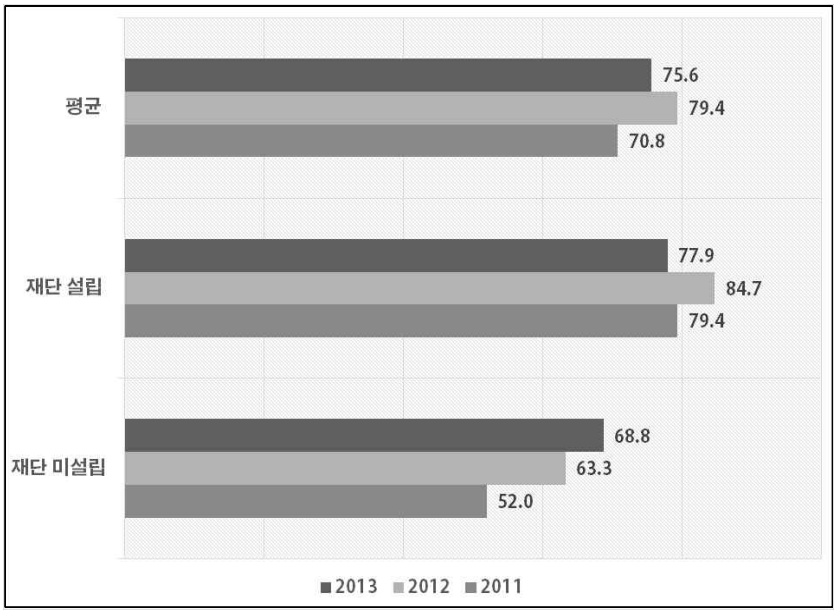
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 이 평가 항목은 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실제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지, 해당 공연장이 공연장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이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원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어떠한지, 사업 참여 공연장의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가입 및 활동 여부 등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조 사례, 지역문화원, 지역

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과의 협력 관련 사례, 공연장상주사업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긴밀한 협력 활동내역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그림 99] 공연장상주사업 -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평가 결과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지표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7.6점(백분위 환산 75.6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8점(백분위 환산 77.9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6.9점(백분위 환산 68.8점)으로 나타남.

□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연차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재단 설립 지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재단 미설립으로 인해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협력을 주도할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재단 측면, 상주사업 측면, 단체 측면에서의 협력네트워크를 각각 제시하고 협력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곳이 있는 반면에 상주사업과는 무관하거나 단체들의 노력에 국한된 협력관계를 제시한 곳이 상당수임.

□ 특히 예술위원회와의 협력, 수행단체 컨설팅지원 등 재단의 일상적인 고유지원업무 수행과정을 대표적인 협력활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곳들도 있음.

□ **우수사례: 대구 지역**

- 대구의 경우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음. 일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장에서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상주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연장도 2곳이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자부담 매칭 비율 분석

No	공연장명	자부담 예산	공연장 자부담액		상주단체 자부담액		비고
1	봉산문화회관	37,500,000	10,000,000	26.7%	27,500,000	73.3%	
2	아양아트센터	145,807,070	96,807,070	66.4%	49,000,000	33.6%	
3	달성문화센터	20,000,000	–		20,000,000	100%	
4	서구문화회관	10,700,000	4,500,000	42.1%	6,200,000	57.9%	
5	북구문화예술회관	57,090,340	28,782,300	50.4%	28,308,040	49.6%	
6	대덕문화전당	15,000,000	15,000,000	100%	–		
7	수성아트피아	25,500,000	25,500,000	100%	–		

●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상주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공연장도 2개에 이르고 있음. 특히, 봉산문화회관, 수성아트피아 및 대덕문화전당의 경우 상주단체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대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음

[표 62] 대구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매칭 비율

□ 우수사례: 울산 지역

– 울산의 경우 공연장상주사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공연장에서는 총 지원금의 20%를 홍보비로 받아 홍보와 기획, 티켓 판매와 배부를 공연장에서 일괄 지원하며 예술단체는 공연장 연습공간 제공과 공연에만 전념하여 홍보 및 관람객 확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실천해 옴.

● 북구공연장상주단체 〈공연장 협력 여건 개선 및 홍보비〉 총괄 내역서

계	극단 세소래	울산문수오페라단	놀이패 동해누리
55,000,000	19,000,000원	18,000,000원	18,000,000원

● 극단 세소래 〈공연장 협력 여건 개선 및 홍보비〉 내역서
● 【지 원 금】 19,000,000원 (총 지원금 95,000,000원의 20%)

구분	내 용	지급액	내 용

1	북구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5,500,000	방송광고 6,600,000원 인쇄홍보 9,900,000원 총 금액 16,500,000원 세소래(1/3) 5,500,000원
2	교류 공연 – 두동 이야기	3,000,000	
3	늙은 부부 이야기	2,500,000	
4	음악극, 호랑이 처녀	2,500,000	
5	수능프로젝트 – 내 마음의 안나푸르나	3,500,000	공통(포스터, 가로등 배너 등) – 총 4,860,000원 – 세소래(1/3) 1,620,000원 개별(티켓, 리플렛 등) –총 1,880,000원 * 1,620,000원+1,880,000원
6	운영사례집 발간	2,000,000	전체금액 6,113,830원 세소래(1/3) 2,000,000원
합계		19,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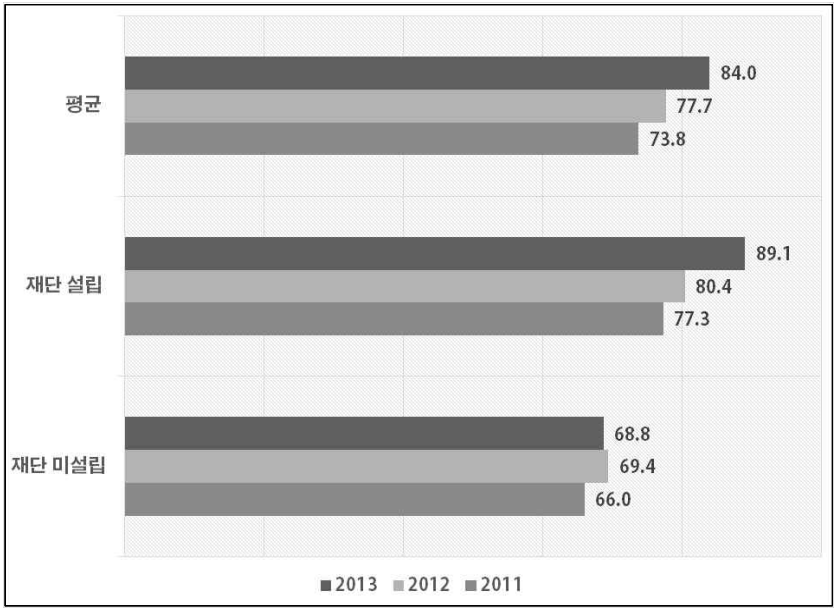
[표 63] 울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집행 내역

2.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평가는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매칭펀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사업 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높게 나왔는지 등 사업 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항목임.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지표에는 2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16.8점(백분위 환산 84.0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7.8점(백분위 환산 89.1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13.8점(백분위 환산 68.8점)으로 나타남.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는 재단 설립 지역의 경우 연차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3년간 60점대에 머무르고 있음. 재단 미설립 지역이 낮은 이유는 사업 성과 목표 설정 미흡, 만족도 조사 미실시 등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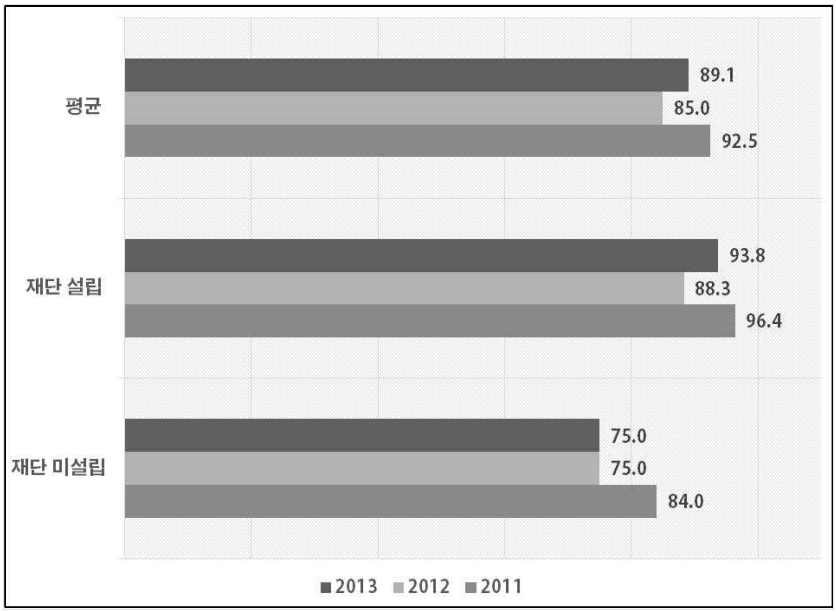
[그림 100]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평가 결과

가. 계획대비 집행실적

□ 계획대비 집행실적 항목은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항목임.

□ 사업계획에 대비한 예산집행 여부 확인, 지원예산의 최종 집행 실적,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예산집행 관련 자료와 회계보고서 등의 실적보고서, 사업의 성과 목표 와 달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음.



[그림 101] 공연장상주사업 - 계획대비 집행실적 평가 결과

□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표는 5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4.5점(백분위 환산 89.1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4.7점(백분위 환산 93.8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백분위 환산 75.0점)으로 나타남.

□ 사업지원목적 달성도에서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전 지역에서 예산 집행 실적은 만점을 받음.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성과 목표와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성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실적만을 제시함으로써 목표 대비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들이 있었음

□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선정 단체 수, 예산 집행만을 목표와 실적으로 제시하거나 공연 횟수 등 단순 실적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와 이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에 대한 지역차원의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우수사례: 부산 지역**

- 당해 연도 사업추진 사업성과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성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단체들이 제출하는 실적자료의 목표수치 항목(공연실적,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수 및 관객 수 등)을 양식화함.

춤공간 'shin'-신은주 무용단

1. 공연실적(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한함)

구 분	당초 목표(A)/교부신청서			연간 성과(B)		
	공연행사수	공연 횟수	공연일수	공연행사수	공연 횟수	공연일수
□ 자체 기획공연	4회	4회	10일	7회	9회	11일
□ 합동 공연	1회	5회	3일	1회	5회	3일
계	5회	9회	13일	8회	14회	14일
목표달성도(각 항목별 합계의 B/A)				185%	210%	100%

2. 발표 작품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한함)

구 분	당초 목표(A)/교부신청서	연간 성과(B)	달성도(B/A)
□ 창작 초연	1개 작품	3개 작품	300%
□ 기존 창작품	8개 작품	8개 작품	100%
□ 외국 작품	4개 작품	7개 작품	175%
계	13개 작품	18개 작품	171%

3. 참여 예술인 및 관객 수(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한함)

구 분	당초 목표(A)/교부신청서	실적(B)	달성도(B/A)
□ 참여 예술인 수	90명	120명	130%
□ 참여 관객 수	3,000명	3,500명	102%

4. 상주 공연예술단체 운영 성과

구 분	2012년(A)	2013년(B)	증가율 〔(B-A)/A〕
□ 단원 증가 규모	6명	8명	133%
□ 단체 재정자립도	20%	35%	75%

5. 상주 공연장 운영성과

구 분	2012년(A)	2013년(B)	증가율 〔(B-A)/A〕
□ 관람객 증가 규모(연간)	500명	1700명	340%
□ 공연개최 횟수(연간)	10회	25회	250%

6. 상주단체 연간 공연실적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 일수	공연 횟수	공연장	관람인원		공연장상주 단체사업 유무
					유료	무료	
'나눔' 소외계층 초청공연	5.20	1	1	부산춤공간Shin		80	유
국제레지던스 기획공연-일본가	6.30	1	1	부산춤공간Shin	60	30	유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 일수	공연 횟수	공연장	관람인원		공연장상주 단체사업 유무
					유료	무료	
부키 춤과 음악							
국제레지던스기획 전-대만 현대무용가	8.9	1	1	부산춤공간Shin	70	40	유
춤 영화 '열정의 무대'	9.13	1	1	부산춤공간Shin		80	유
'전설' 바다이야기	9.26-28	3	5	부산춤공간Shin	300	500	유
공공프로젝트-거리 "춤"	10.5~6	2	3	해운대 어울마당, 광안리 해변가, 남포동PIFF광장		1,000	유
자연의 울림 그리고 나로의 여행	12.6	1	1	부산춤공간Shin	60	30	유
'전통' -오늘의 신우리춤	12.12	1	1	부산춤공간Shin	70	50	유
소계		11일	14회		560 명	1,360 명	

7. 상주단체 자체기획 공연실적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 일수	공연 횟수	공연장	관람인원		비고
					유료	무료	
부산국제춤마켓	10.16~10.27	6	6	부산춤공간Shin			
소계		6일	6회		명	명	

8. 상주단체 교류협력 및 초청공연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 일수	공연 횟수	공연장	관람인원		비고
					유료	무료	
해당사항 없음							
소계		일	회		명	명	

9. 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운영일수	운영횟수	관람인원		참석인원(명)
			유료	무료	
전문인	72	72		10	10
일반인	36	36		8	8
노인	36	36		100	100
소계	144일	144회	명	118명	

10. 공연장-상주단체 간담회 운영실적

회차	일시	장소	간담내용	참석자

1	2013.3.5	부산춤공간Shin 회의실	상주단체사업프로그램기획및 아이디어회의	예술감독및대표,상근단원
2	2013.8.1	부산춤공간Shin 회의실	창작공연홍보 및 작업과정피드백	예술감독및대표,상근단원
3	2013.10.1	부산춤공간Shin 회의실	레지던시 홍보 및 관객홍보에관한건	예술감독및대표, 상근단원
4	2013.12.1	부산춤공간Shin	송년공연 및 연계프로그램활동과정보고	예술감독및대표, 상근단원
소계	4	4일	4회	

11. 공연장 운영

프로그램명	운영일수	운영횟수	관람인원		참석인원(명)
			유료	무료	
전문인	72	72		10	10
일반인	36	36		8	8
노인	36	36		100	100
소계	144일	144회	명	118명	

[표 64] 부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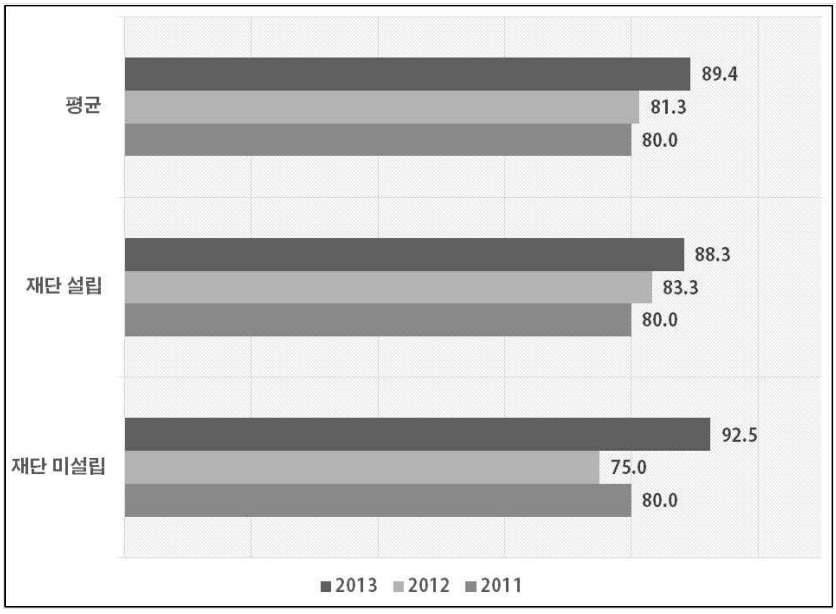
나. 매칭 펀드 조성 노력 정도

□ 이 평가 항목은 당해 연도 매칭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지방비 매칭 자료 및 재정자립도 자료, 예산구성 및 집행내역 분석자료, 문화예산 및 본 사업의 펀드 매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음.

1) 당해 연도 매칭 기준이 달성되었는가?

□ '매칭 펀드 조성 노력 정도' 지표는 5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4.5점(백분위 환산 89.4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4.4점(백분위 환산 88.3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4.6점(백분위 환산 92.5점)으로 나타남.

□ 매칭펀드 노력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지방 7:3, 수도권 5:5 비율로 무난히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경기의 경우 감액추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5:5 매칭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여 최저점을 받음.



[그림 102] 공연장상주사업 - 매칭펀드 조성 노력 정도 평가 결과

□ 우수사례: 대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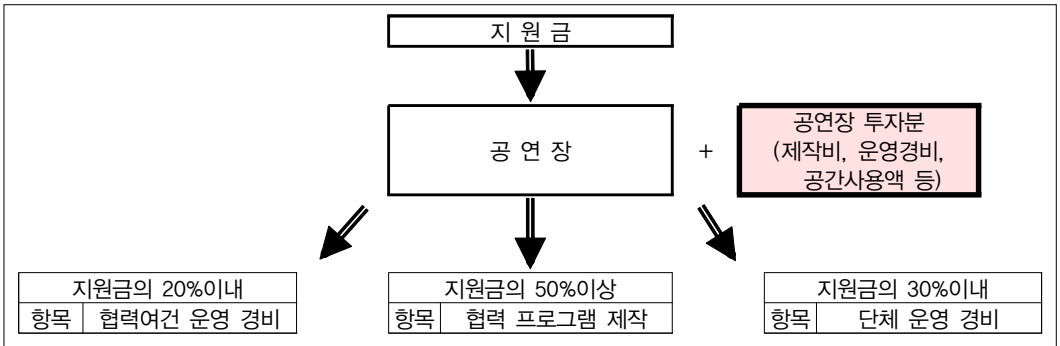
- 대전도시공사 등 지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50,000천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대전문화재단 예술매칭펀드로 총 18,000천원을 추가 지원하여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함.

단 체	내 용
최영란무용단	총 18,000천원 재원 유치 - 주)모닝엔터컴 등 3개사로부터 10,000천원 기부금 유치 - 대전문화재단 예술매칭펀드로 8,000천원 지원
권숙진 청연무용단❸	총 50,000천원 재원 유치 - 대전도시공사로부터 40,000천원 기부금 유치 - 대전문화재단 예술매칭펀드로 10,000천원 지원

[표 65] 대전문화재단 기부금 조성 현황

□ 우수사례: 서울 지역

- 공연장 선정 시 재단의 지원금 외 공연장의 자체투자분을 보유할 경우 우대함으로써 재단 지원금 외 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재원 마련에 기여함. 실제로 총 지원 금액(2,916백만 원)의 27.7%에 해당하는 금액(806,432천원)을 공연장 측에서 추가 투자하여 사업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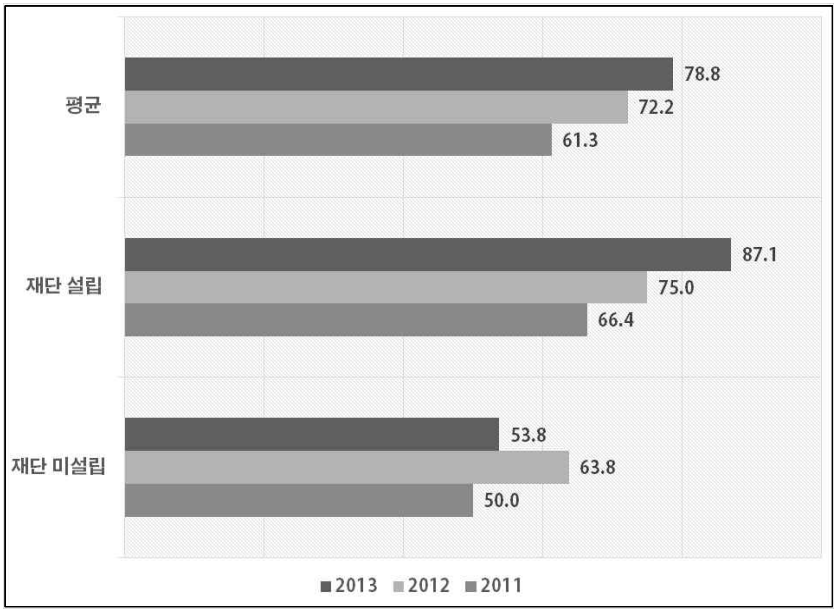
연번	공연장명	단체명	장르	지원결정액	공연장투자금
2012년 (2차년)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원국발레단	무용	100,000	42,200
	서강대학교메리홀	이경옥무용단	무용	88,000	40,400
	서강대학교메리홀	극단여행자	연극	100,000	25,955
	서대문문화회관	극단로얄씨어터	연극	100,000	20,700
	성수아트홀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연극	80,000	15,500
	성북구민회관	극단 서울괴담	연극	90,000	2,000
	종로구민회관	아트브릿지	연극	80,000	1,500
	서대문문화회관	서울튜티앙상블	음악	95,000	53,460
	금나래아트홀	금천교향악단	음악	70,000	12,000
	마포아트센터	더뮤즈오페라단	음악	70,000	19,144
	강동아트센터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80,000	52,000
	오유아트홀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음악	60,000	13,100
	오유아트홀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음악	78,000	18,100
	꿈의숲아트센터	TIMF앙상블	음악	95,000	13,255
	충무아트홀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80,000	90,000
	충무아트홀	앙상블시나위	전통	80,000	12,000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타루	전통	80,000	29,000
	은평문화예술회관	사단법인공명	전통	80,000	10,970
	북촌창우극장	별樂	전통	50,000	18,300
	북촌창우극장	고래야	전통	50,000	16,300
	소월아트홀	아즐가	전통	80,000	10,080
	강북문화예술회관	광개토사물놀이	전통	60,000	4,200
	마포아트센터	와이즈발레단	무용	89,000	21,398
2013년 (1차년)	나루아트센터	SEO발레단	무용	80,000	9,000
	강동아트센터	안애순무용단	무용	98,000	50,000
	두산아트센터	안은미무용단	무용	98,000	80,000
	성미산마을극장	이야기꾼의책공연	연극	70,000	8,880
	강북문화예술회관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연극	80,000	4,900
	은평문화예술회관	극단현장	연극	80,000	34,760
	구로아트밸리	올리브와찐콩	연극	95,000	15,000
	종로구민회관	파도앙상블	음악	60,000	1,420
	나루아트센터	클래시칸	음악	65,000	7,400
	노원문화예술회관	전통공연예술연구소앙상블재비	전통	85,000	21,510
	금나래아트홀	중앙국악예술협회	전통	100,000	15,000
	서울남산국악당	정가악회	전통	85,000	7,000
	꿈의숲아트센터	연희집단THE 광대	전통	85,000	10,000
소계				2,916,000	806,432

[그림 103]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지원 금액

다.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 이 항목은 공연장상주사업 수혜대상인 주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적절히 실시하였는지,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높은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결과 등 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조사대상, 설문항목 등 조사의 대표성 확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주요 조사결과가 요약된 별첨자료 등을 근거로 하였음.



[그림 104]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 수혜 대상의 만족도 평가 결과

□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지표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7.9점(백분위 환산 78.8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7점(백분위 환산 87.1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5.4점(백분위 환산 53.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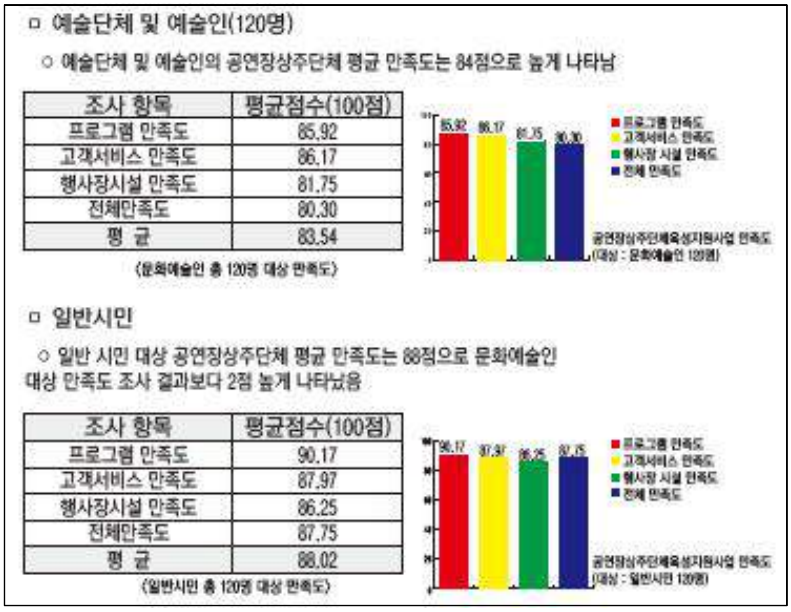
□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의 경우 재단 설립 지역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확산됨으로써 평가점수가 연차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재단 미설립 지역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음.

□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지역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추세로서 공연장, 수행단체, 관객 등 3주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곳도 여럿 나타남.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우수사례: 대전 지역

–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관객 총 240명(일반시민 120명, 문화예술단체(개인)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프로그램 만족도, 고객서비스 만족도, 행사장시설 만족도, 전체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83.54점, 일반 시민이 88.02점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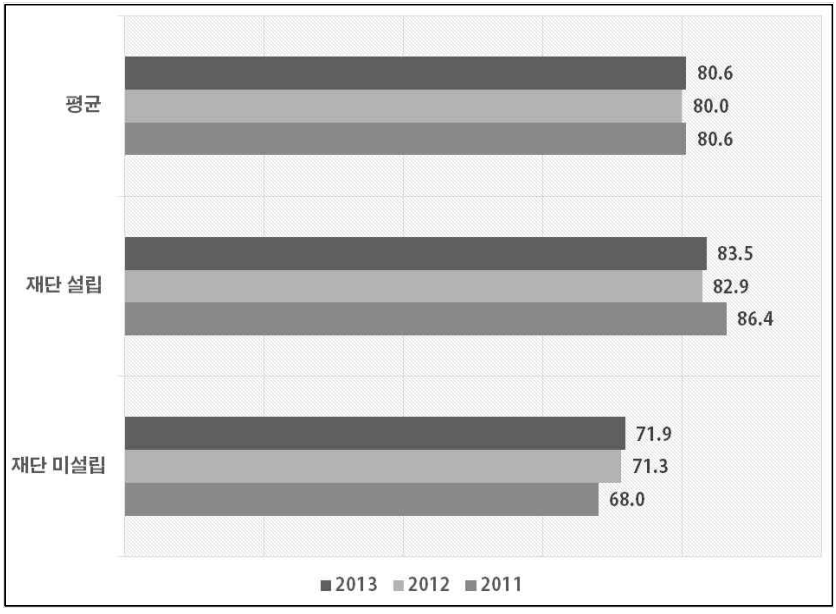
[그림 105] 대전문화재단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3.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여 독창성을 가졌는지, 지역의 문화수요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지표에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8.1점(백분위 환산 80.6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8.4점(백분위 환산 83.5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2점(백분위 환산 71.9점)으로 나타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는 연차별 평가점수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재단 설립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고, 지역적 특성 및 지역문화수요 반영에 보다 적극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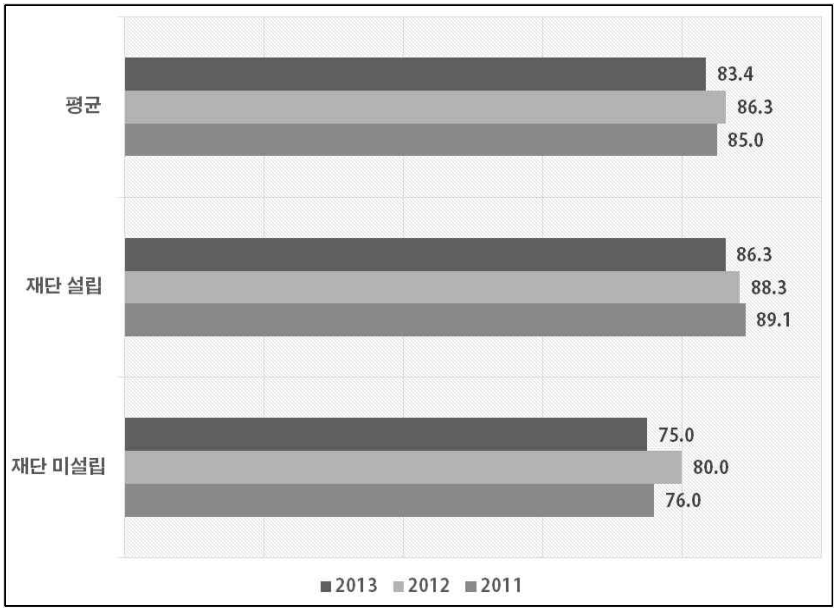


[그림 106] 공연장상주사업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평가 결과

가. 지역의 독창성

□ 이 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를 평가함. 또한,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공연장상주사업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를 통해

지역의 독창적인 운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그림 107] 공연장상주사업 - 지역의 독창성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역의 독창성' 지표에는 5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4.2점(백분위 환산 83.4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4.3점(백분위 환산 86.3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8점(백분위 환산 75.0점)으로 나타남.

□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에서는 지역의 독창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임. 지역적 특성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이 활발함. 대부분 지역이 상주단체 페스티벌과 워크숍 등을 통한 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우수사례: 경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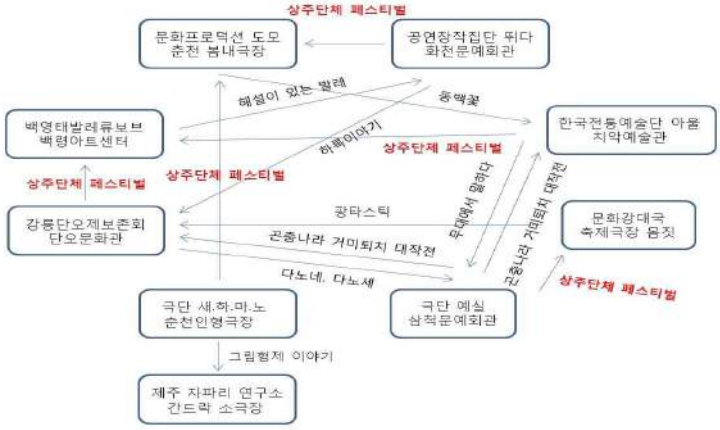
- 경기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과천시민회관의 극단 모시는사람들은 해방 전후 늙은 '경마'를 소재로 하는 작품 〈내꺼야〉를 제작하였고 마사회 후원으로 2014년에 재공연 예정임. 또한,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네샤프로덕션은 백남준을 기리는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작 〈로보사피엔스 춤추다〉를 제작함. 포은아트홀의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용인 심곡서원을 활용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심곡서원에서 조광조를 만나다〉 개발하여 서원에서 시범 운영함.

공연장(기관)	상주단체명	사업내용
양주문화예술회관	예술무대 산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허벌판에 있어 집객이 힘든 양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여건을 반영하여 가족 관객 개발을 위해 가족축제 〈예술극장 보물찾기〉를 개최하여 실제로 극장 관객 개발 효과를 거두었음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극단 모시는사람들	•해방 전후 늙은 '경마'를 소재로 하는 작품 〈내꺼야〉 신작 제작하였고, '마사회' 후원으로 2014년에 재공연 예정
백남준아트센터	가네샤프로덕션	•백남준을 기리는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작 〈로보사피엔스 춤추다〉 작품 제작
안산문화재단	극단 몸꼴	•안산거리극축제와 연계하여 야외극 〈무지막지 서커스〉를 제작하여 거리극축제에서 선보임 •극단 몸꼴을 위해 안산문화재단이 야외에 공연창작센터 리모델링하였고, 극단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외작품 〈충동〉, 〈마을축제-오픈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였음
포은아트홀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용인 심곡서원을 활용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심곡서원에서 조광조를 만나다〉 개발하여 서원에서 시범 운영
구리아트홀	극공작소 마방진	•이주민이 많은 구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 시민극장 프로그램 개발 - 총 16차시(회당 4시간) 워크숍 후 공연 발표
고양문화재단	세종솔로이스츠	•암 치료 전문병원이 있는 고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백석병원 1인 병실 등에서 〈베드 사이드 콘서트〉 개최하여 많은 감동과 호응을 받았음

[표 66]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현황

□ 우수사례: 강원 지역

- 영동/영서 지역 간 교류, 공연장간 교류, 상주단체페스티벌 교류, 타 지역 초청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침



[그림 108] 강원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교류 현황

□ 우수사례: 경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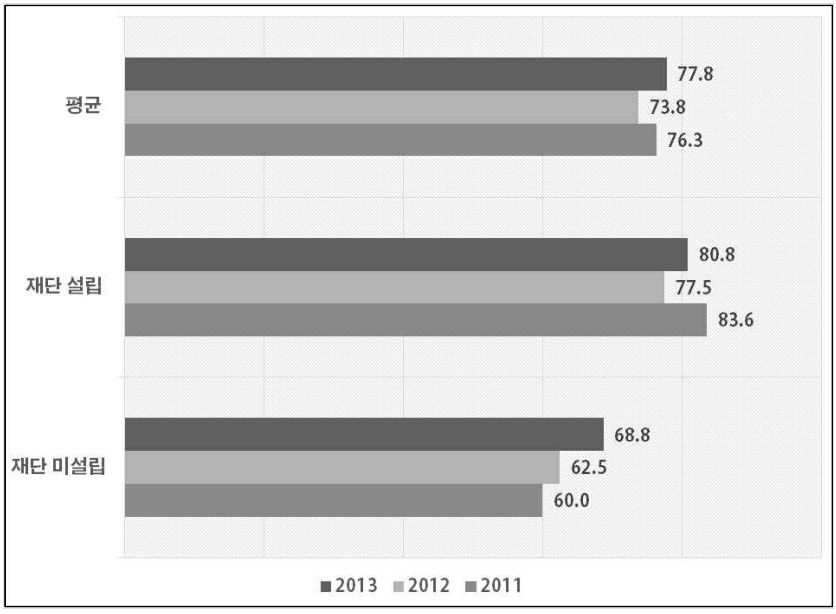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워크숍 사전 설문조사 및 참여단체 의견개진을 통해 상주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주단체 역량강화와 교류, 협업을 촉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지원 사업을 신설함.

번호	지원분야	선정단체	지원금 (천원)	사업내용(협업 내용)
1	소규모페스티벌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40,000	상주단체 간 공동기획을 통한 교류 페스티발 개최(상주단체 6단체 참여)
2	창작프로젝트	극단 노뜰	20,000	극단 노뜰과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협업 프로젝트
3	국제교류프로젝트	극단 하땅세	20,000	극단 하땅세와 프랑스 태양극단의 국제교류 프로젝트

[표 67] 경기문화재단 공연장상주사업 단체별 교류 사업

나.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 이 평가 항목은 선정된 지역 공연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그림 109] 공연장상주사업 – 지역문화수요의 반영도 평가 결과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역 공연장 책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의 지역 문화예술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활동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도 지표에는 5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3.9점(백분위 환산 77.8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4.0점(백분위 환산 80.8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3.4점(백분위 환산 68.8점)으로 나타남.

□ 간담회, 워크숍, 상시 활동 등을 통해 공연장과 상주단체들과의 소통활동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례적인 만남의 창구가 없는 지역도 다수 있음.

□ 지역문화수요 반영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은 편임.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 · 인터뷰 등을 활용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수요파악을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곳이 대부분임.

□ **우수사례: 전남 지역**

– 현장평가, 현장점검, 상주단체 연간 사업평가 등을 통해 공연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남 문화예술 실태조사(1회), 재단 워크숍(2회) & 심포지엄(1회), 찾아가는 좌담회(8회),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통해 꾸준히 상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 반영 사항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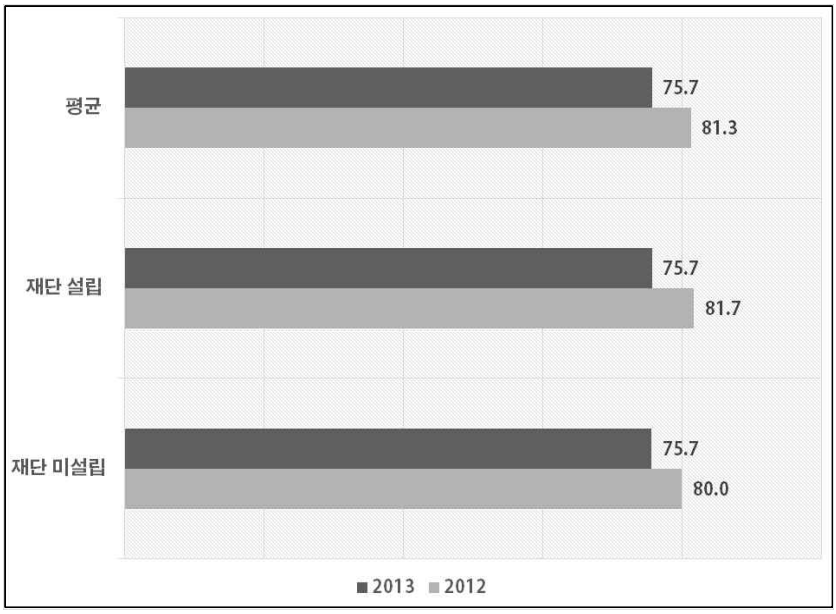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현장평가추진	· 사업목적 : 공연장과 단체의 협력 및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하여 심의에 반영 · 사업기간 : 2012년도에 추진 · 평가내용 : 사업추진의지, 협력관계 등 평가
사업현장점검	· 사업수행단체 현장점검 · 사업기간 : 5 ~ 11월 · 점검내용 : 수행단체의 애로점, 사업추진을 위해 공연장의 협력관계 · 점검자 : 재단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전남 문화예술 실태조사 (1회)	· 사업목적 : 전남 문화예술정책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인 의견수렴 및 재단의 만족도 조사 · 사업기간 : '13. 10. ~ ' 14. 1.(4개월) · 조사대상 : 도내 문화예술단체(개인) 223명 ※ 주요의견 →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확대 → 지역의 역사문화 소재 활용한 기획사업 추진 →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장기적인 문화예술 비전 제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

구 분	내 용
재단 워크숍(2회) & 심포지엄(1회)	※ 주요의견 * 중복의견 삭제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약사항 해소 요청
찾아가는 좌담회 (8회)	※ 주요의견 * 중복의견 삭제 → 지원사업 간소화
성과공유 워크숍	※ 주요의견 * 중복의견 삭제 – 사업현장의 애로점 해결방안 제시

[표 68] 전남문화예술재단 공연장상주단체 요구 수용 여부

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모니터링

□ 2013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한 공연장상주사업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음. 16개 지역 공연장 및 공연단체 각 28곳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연장상주사업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공연장 관계자(116명)와 공연단체 관계자(162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 분석을 통해 공연장상주사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그림 110] 공연장상주사업 - 모니터링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모니터링 결과에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전국 평균점은 7.6점(백분위 환산 75.7점), 재단 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6점(백분위 환산 75.7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은 7.6점(백분위 환산 75.7점)으로 나타남.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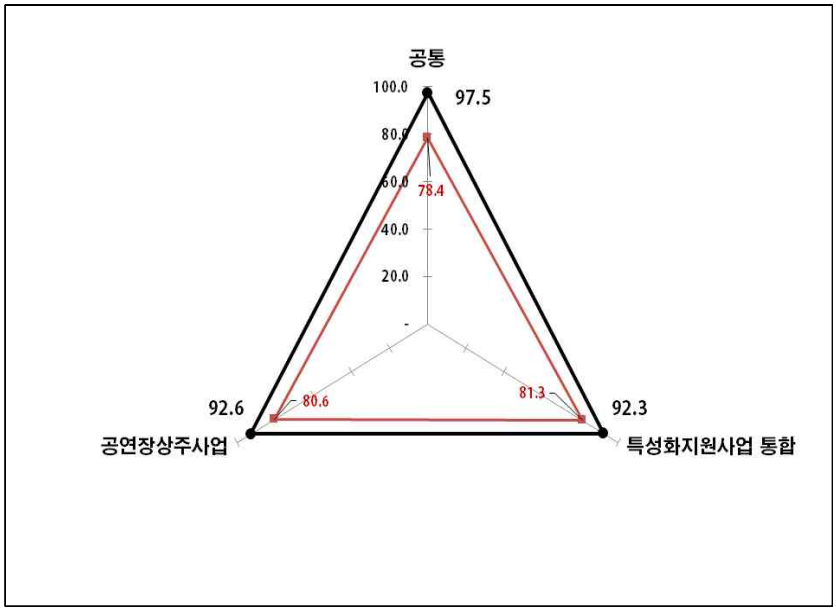
지역별 평가

제 1절: 서울
제 2절: 부산
제 3절: 대구
제 4절: 인천
제 5절: 광주
제 6절: 대전
제 7절: 울산
제 8절: 경기
제 9절: 강원
제10절: 충북
제11절: 충남
제12절: 전북
제13절: 전남
제14절: 경북
제15절: 경남
제16절: 제주

1. 종합 평가
2. 공통 평가 항목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4.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5. 시 · 도기획지원사업
6.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7.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1절 서울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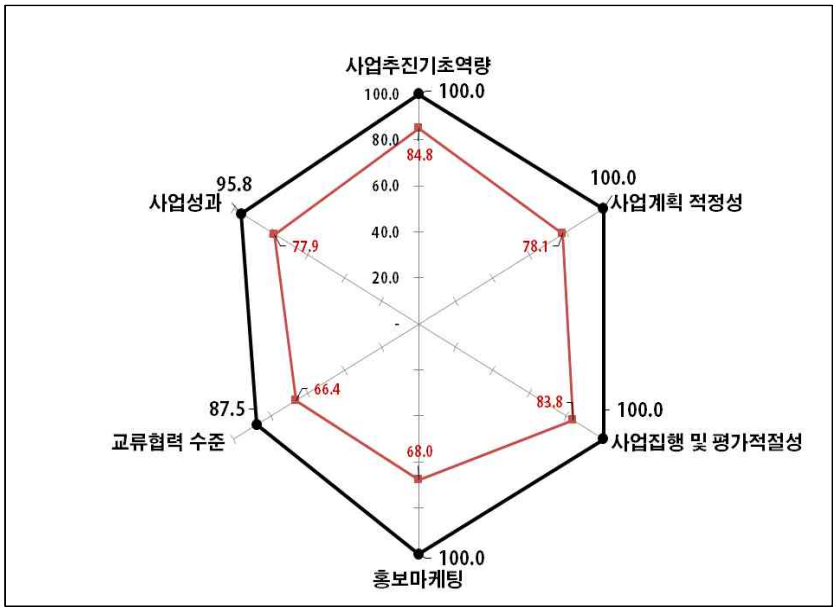


[그림 111] 서울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서울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문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97.5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은 92.3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92.6점으로 평가됨. 2013년부터는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사업을 한 개 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감점 없이 평가를 하였으며, 지난해처럼 시·도기획사업 미추진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음. 부문별로는 공통평가 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서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사업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도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추진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112] 서울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 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각 평가 항목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류협력수준이 87.5점으로 평가 항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 체계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 및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2013년도 예술지원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혁신 10대 과제를 설정하였음.

- ① 창작지원사업 예산의 확대
- ② 재단 글로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 지원 사업 마련
- ③ 특성화공모 지원사업 확대
- ④ 창작 수월성-시민문화 활성화 연계 지원
- ⑤ 예술 창작공간과의 연계 방안 구축
- ⑥ 예술창작작자-매개자-소비자 유통구조의 플랫폼 구축 강화
- ⑦ 전문예술창작지원 정기공모 지원 사업 개선

- ⑧ 예술가에게 복합 정보서비스 제공
- ⑨ 예술지원 조직체계의 강화
- ⑩ 예술지원 체계를 위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2013년부터는 우수예술콘텐츠 발굴· 육성지원과 인증기능 강화를 정책브랜드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서울형 예술지원 전략 수립 (2010~2012) 시스템 체계화	우수 예술콘텐츠 발굴 · 육성지원 (2012~2013) 콘텐츠 고급화	인증과 네트워크 기반 예술지원 (2013~2015) 정책 브랜드화
· 서울형 예술지원 개념 정립 · 운영시스템 개편 및 전산화 · 서울형 창작지원 인프라 구축	· 창작공간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 미디어갤러리와 연계한 콘텐츠 구축 · 자치구 문예회관거점 콘텐츠육성지원	· 특성화 · 차별화된 기획으로 지원브랜드화 · 예술지원사업 브랜드화로 인증효과강화 ·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유통지원강화

[표 6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 2014년 서울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2013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울문화재단 10+10' 이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의 10년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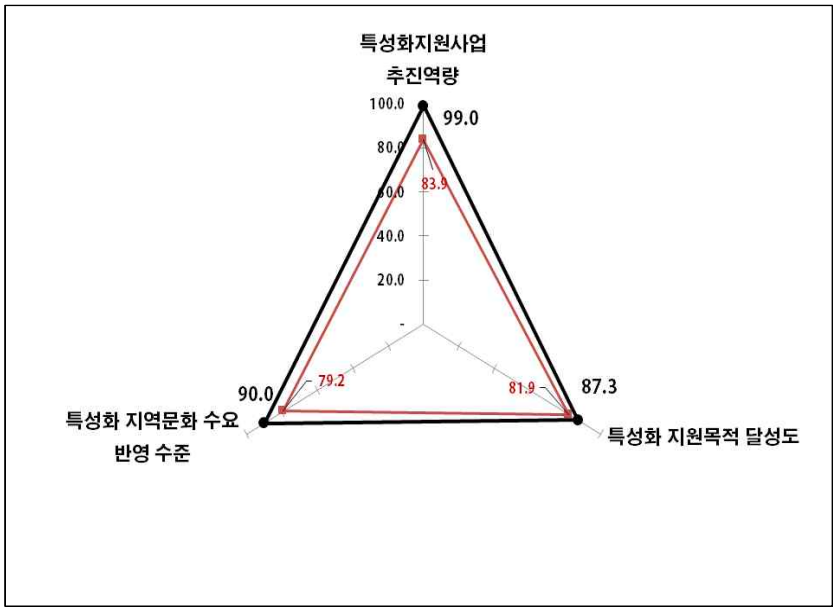


[표 70] 서울문화재단 2013 정책토론회 현장 이미지

□ 서울지역은 특히 홍보마케팅 항목에서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매체 접근성과 표적 세분화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

□ 사업성과로 제시된 우수사례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상사례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소 특정적 공연사례로 제시되었던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에서 진행된 〈언더그라운드〉와 의릉 앞 솔밭공원에서 진행된 극단 서울괴담의 〈정크타임즈〉와 같은 작품은 재미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13]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지원 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서울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92.1점임.

□ 서울 지역은 전국 평균점을 높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기준' 과 '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협력수준' 지표로 구성된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 항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서울 지역은 지원사업 참여희망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설명회를 3일간 6차례에 걸쳐 사업별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원사업 참여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이 확인됨.

□ 서울 지역의 전년대비 2013년 예술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공고일정 정례화
- 재단 지원사업 중복지원 기준안 마련

- 예술지원과 창작공간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예술지원 추진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혁신

□ 특히, 한 해 동일단체(개인)에 대한 재단의 복수지원 발생 시 처리기준 정립에 대한 내용은 타 지역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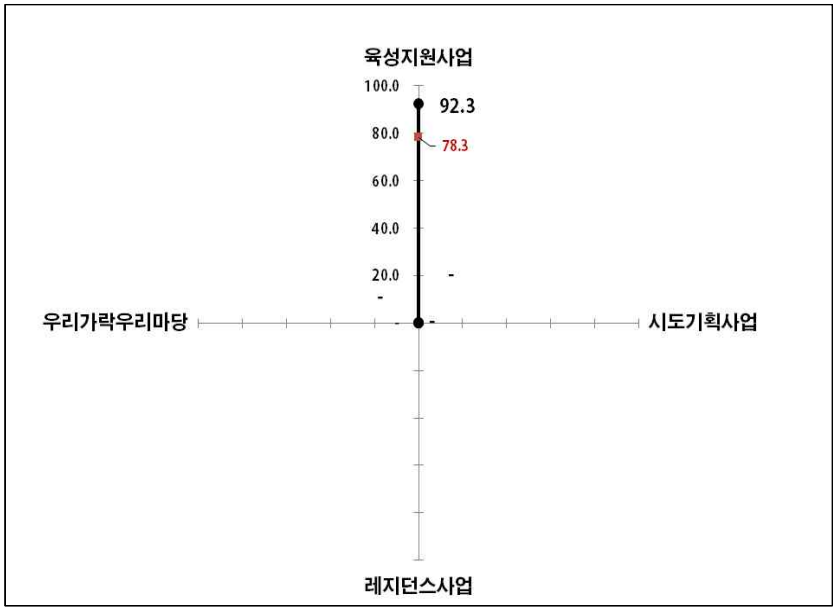
구 분		창작공간		문화사업/축제	서울메세나
		직접지원(지원금)	레지던스지원	용역계약 (개런티)	직접지원 (매칭기금)
예술 지원	직접 지원	동일사업: 지원불가(중복지원)	복수지원 가능 (중복개념×)	지원 아닌 사례비 차원 (중복개념×)	복수지원 허용 (제도 활성화)
		상이사업: 지원가능(연2회) 3회 時 심사조정			

[표 71] 서울문화재단 복수지원 발생시 처리 기준

□ 서울 지역은 관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관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준비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까지는 자체적인 관객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최종 수혜자를 통한 지원사업 성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설계는 2013년 예술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서울형 예술지원 전략별 주요과제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남. 분담과 협력(네트워킹), 특성화(브랜드화), 차별화라는 추진전략에 따라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 특히 창작공간과 연계한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지원팀과 창작공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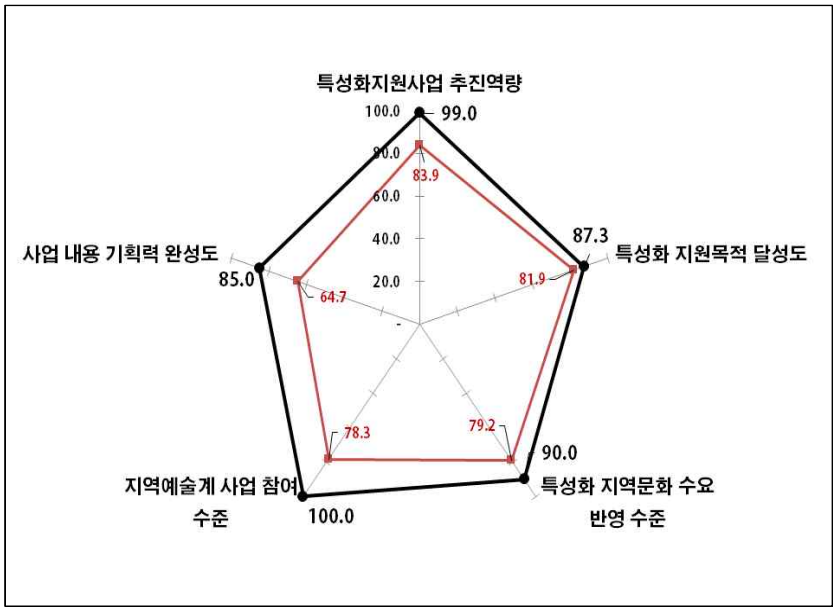
□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개선의견에 대한 생생하고 전문적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15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23회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포럼을 진행하였음.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울문화정책 제안하기’ 게시판은 의미에 비해 참여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4]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서울 지역은 특성화지원사업 중 육성지원사업만을 추진하였으며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음. 특성화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만 진행됨.
- 육성지원사업은 92.3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평균 78.3점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15] 서울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서울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5점(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8.5점(8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3.5점(백분위 환산 시 94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로 경기 지역 24.5점(98점)에 이어 2위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점 9.3점, 서울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

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 서울 지역의 경우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39.7%(141/335건)임. 그러나 장르별 편차가 심하여 연극과 음악의 경우 각각 9.8%, 10.9%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2012년도(연극 18.2%, 음악 21.1%, 전체 40.3% 178/442)보다 장르별 편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차후 장르별 균형 감각에 의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서울 지역의 경우는 355건 중 한국음악협회(제45회 서울 창작음악회. 3,000만원) 1건으로 제시됨.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서울 지역은 지역협력형사업(육성지원사업)을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만을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시민예술활동지원·시민축제지원은 예술창작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갖고 있음. 시민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배분 비율은 35.1%(2,295.5/6,545.5백만 원, 예술창작지원사업 4,250백만 원, 시민예술활동지원 288.5백만 원, 시민축제지원 2,007백만 원)이나,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0%에 해당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 평균점 5점, 서울 지역 5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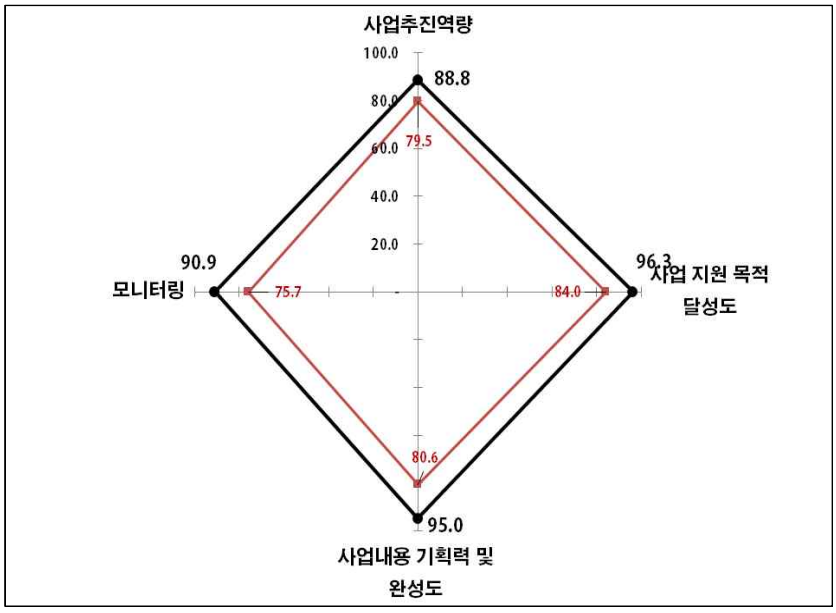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서울 지역은 2013년도 23.4%(355/1,516건), 2012년도 29.7%(442/1489건)로, 각 연도 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선택과 집중 경향이 강화되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 평균 지원 금액 930만원임. 서울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1,211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2위 울산 856만원),
- 이는 육성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일반적으로 지원액수가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보다 큰 예술창작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2012년도와 대비하여 지원예산이 삭감(48억 → 43억 원)되고 신청건수가 증가(1,489 → 1,516건) 했음에도, 심의 선정건수를 20%나 축소(442 → 355건)시킴으로써 평균 지원 금액 증가(10,867 → 12,113천원)한 것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 평균점 7.7점, 서울 지역 8.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연극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그룹 연구 실시, 다만 지역 독창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부족함. (위원 B) 서울시내 공연장의 1/3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극분야를 집중 지원(2013년도 지원신청 14.5%, 예산배분 22.5%)함. 또한 연극발전TF를 구성하여 대학로 연극실태 조사, 서울 연극발전 종합계획, 재단 연극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 우수사례로 선정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수도권 예술 창작 활성화,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 긍정적 개선효과를 제시함. (위원 B)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용, 전통, 시각분야 사업성과만 제시하고 있으나, 시민예술활동지원 사례(이태원 아트로드, 언더그라운드, 정크 타임즈, 노고산동 블루스 2)는 지역적 고유성/차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16] 서울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8.8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6.3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95.0점, 공연장 모니터링 90.9점임.

– 서울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92.6점임.

□ 21개 공연장 36개 예술단체가 수혜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6개 공연장, 10개 예술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전체 수혜단체 중 28%에 달함.

□ 서울 지역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전국 676개 가운데 162개가 소재하고 있은 곳으로서 브랜드전략 교육, 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 등 단체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음.

□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연장과 단체의 역량에 대해 각각 25%의 비중을 배정하여 심사항목으로 채택하고, 지원신청서와 세부운영계획서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인적사항', '신청인(단체대표)의 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공연장의 '마케팅 및 기획역량', 예술단체의 '단체현황', '지원인력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 선정심사 자료로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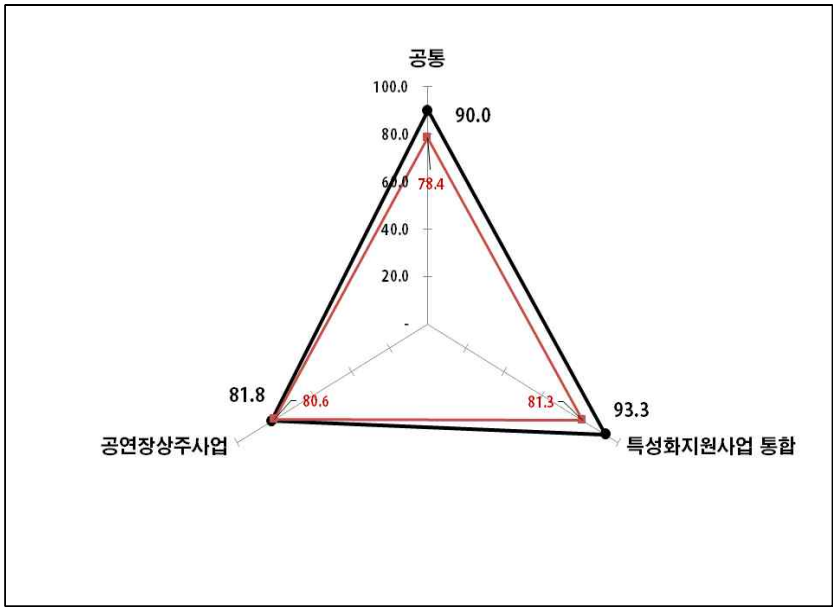
□ 이원국발레단의 경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제작 · 홍보 ·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주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호흡을 맞춰 협력하고 있으며, 같은 공연장상주단체인 전통공연예술연구소 앙상블 '재비'와 협연하는 상주단체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였으며, 서대문문화회관 + 은평문화예술회관 + 마포아트센터 등 서울 서부지역을 순회하는 협력공연 개발을 시도하였음.

- 지역과 재단의 비전 및 예술지원사업 전략을 반영하여 "우수 콘텐츠 기획 발굴 · 육성"을 예술지원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영역을 "공연예술창작활성화부문"과 "지역문화커뮤니티활성화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로 "새로운 작품 창작활동" 중심 사업, "지역관객수요를 반영한 공연 및 커뮤니티활동" 중심 사업으로 구분하여 2012년부터 성과 관리함.
- 공연장상주사업 선정단체의 주요수상 실적, 국제 교류 성과 현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이를 제시함.
- 공연장 선정 시 재단의 지원금 외 공연장의 자체투자분을 보유할 경우 우대함으로써 재단 지원금 외 추가 투자 분을 유도하여 사업추진 재원 마련에 기여함(총 지원 금액(2,916백만 원)의 27.7%에 해당하는 금액(806,432천원)을 공연장 측에서 추가로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함)
- 공연장상주사업의 현장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주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43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87.8%이상이 해당공연에 대해 "또 오고 싶다"고 응답해 매우 높은 재관람 의사를 보임.
- 서울의 상주단체 및 공연장 특성을 반영하여 창작 작품 및 우수공연레퍼토리 개발 등 공연제작 및 발표에 중점을 둔 "공연예술창작활동 중심 그룹"과 지역특화공연 및 예술교육 등 "지역관객개발 및 커뮤니티활동 중심 그룹"으로 지원 부문을 설계함
- 서울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우수사례로 지역문화커뮤니티활성화 부문에서 성북구 북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마을평상공연 · 북정마을 사람들(극단 서울괴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아시아 문화탐험 연극, 서울 역사에 대해 학습하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아트 브리지) 등의 교육연극이 시도됨.
- 선정단체 대상 간담회, 현장인터뷰, 평가워크숍연중 예술인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의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개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2절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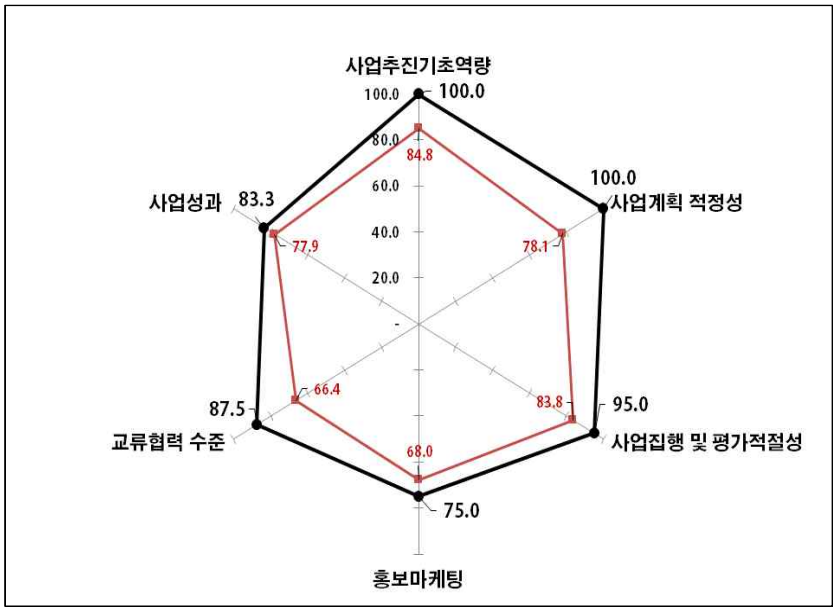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17] 부산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부산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뮨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90.0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은 93.3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1.8점으로 평가됨. 공통 평가 항목 평가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부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에서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부산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추진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어 개별사업추진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118] 부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부산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평가 항목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홍보마케팅 부문이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부산 지역은 부산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지역문화분권 및 시민문화운동을 주도하며, 새로운 문화정책의 핵심인 청년 · 다원 문화지원을 통해 청년문화수도, 전국 최고의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 문화거버넌스 구축사업
- 문화 나눔 사업

- 나눔을 통한 예술영재 프로젝트
-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다섯 손가락'

□ 부산 지역은 재단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워크숍, 정기적인 교육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36명의 직원이 총 118회의 교육을 받았으며, 문화충전의 날을 두어 직원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토론회를 매월 개최 12회의 토론회에 96명이 참가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2013년도 공모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은 각 1차례의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였음.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 11월 19일 개최되어 약 300여명의 예술단체(예술인)가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지원 단체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에 있어서도 언론보도,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등 재단 발행 매체 공지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지원사업 심의 및 결과발표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지원사업의 심의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금요일 18시로 되어 있어, 지원사업 심의결과에 대한 질의나, 문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시간에 발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임. 아무리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나 확인을 위한 문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이후 2일간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을 앞두고 심의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재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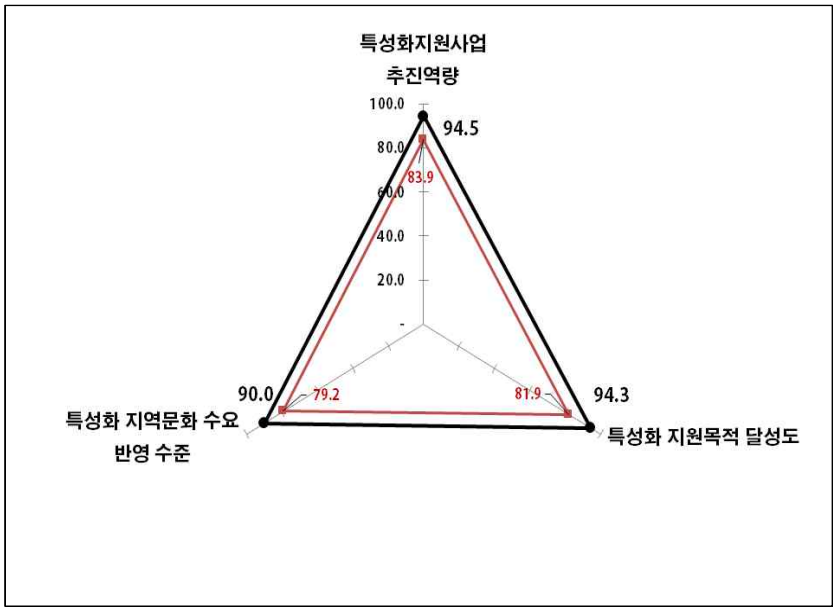
□ 부산 지역은 지원사업 자체평가를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선발, 교육, 운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시민서포터즈 연말평가 보고회에 참여한 시민서포터즈가 100명에 달하며, 연간 활동보고 및 성과발표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공연관람으로 이뤄진 보고회도 의미 있는 보고회로 평가됨.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의 성공적 사례임.

□ 계량 성과 측면에서 전년대비 공연일수 및 관객 수가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모니터링의 안정적 운영사례로 평가됨. 육성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선정단체수가 늘어 공연 및 전시일수(횟수), 관객 수 등의 계량적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공연장상주사업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 관람객수와 공연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참여공연장 가동률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비계량적 사업성과로 제시된 우수사례(Best Practice)는 사상인디스테이션과 사상거리 일대에서 개최되었던 〈2013 거리예술 페스타〉와 역시, 사상구 일대를 사업장소로 추진된 시 · 도기획사업

인 〈에코 DIY프로젝트 in 사상〉,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성공사례로 〈오픈스페이스 배〉가 우수사례로 제시됨. 앞의 두 사업은 모두 청년층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의 청년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됨. 특히, 〈2013 거리예술페스타〉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거리예술 공연의 추진모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됨. 〈오픈스페이스 배〉는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었음. 공연장상주사업의 성과로는 〈상주단체 페스티벌〉과 여러 상주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융복합 프로그램 기획지원〉사업이 제시되었음. 부산 해운대를 주제로 연극, 창작발레, 국악 장르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낸 〈해운대 연가〉는 새로운 공연의 모델을 제시하며 상주단체의 장르간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19] 부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부산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92.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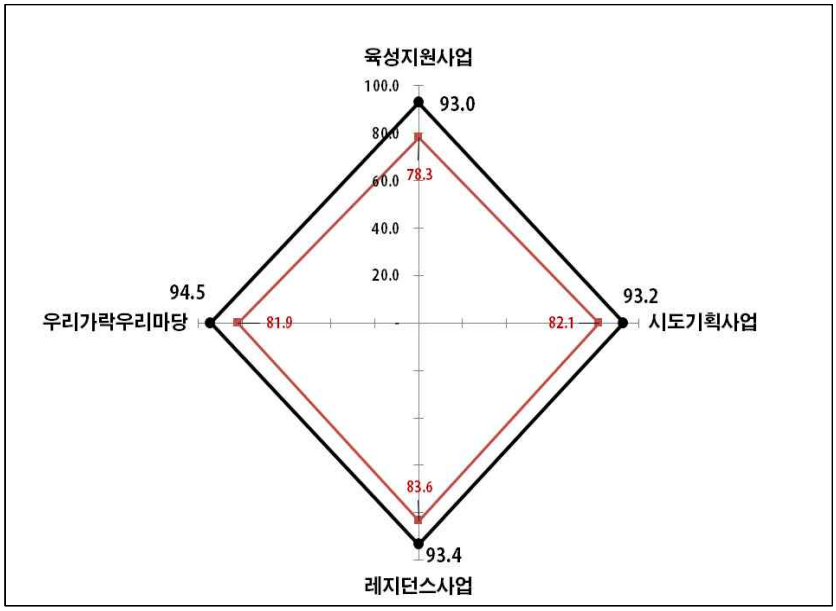
□ 부산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 지원사업 설계 및 추진을 이한 안정된 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지역은 선정된 예술단체 225개 중 전문예술법인단체가 22개로 9.8%의 선정률을 보였는데, 부산의 전문예술법인단체 59개 중 22개가 선정된 것으로 37.3%의 선정률을 보여줌.

□ 사업별 기존수혜단체 및 신규수혜단체(한 번도 수혜경험이 없는 단체) 수 및 비율을 보면, 육성지원사업이 신규단체(개인) 선정비율이 57%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획지원사업은 1개 선정된 단체가 신규수혜단체였고, 레지던스 사업은 4개중 1개 단체가 신규로 선정되었음. 육성지원사업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57%로 나타난 것은 분석이 필요함. 지금까지 한 번도 수혜경험이 없는 단체들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수한 예술단체(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57%로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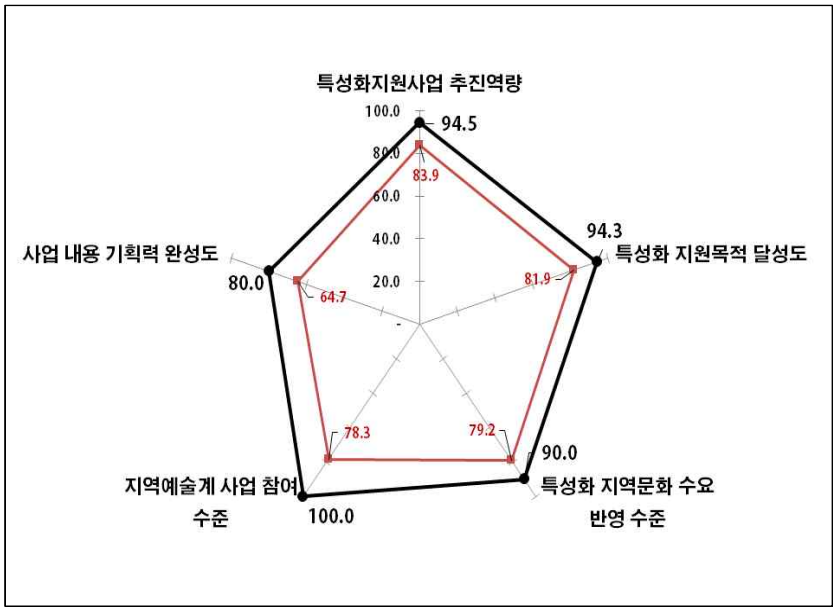
- 부산 지역의 2013년 재정자립도가 71.7%로 전년도에 비해 20%가까이 증가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의 중앙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부산 지역의 매칭규모는 1:4 수준으로 2011년도 전국 8위에서 2012년과 2013년 연속 서울을 제외한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정책 지원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역문화컨설팅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음. 분야별, 세대별, 장르별로 관련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현재까지의 부산문화정책 진단 및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시민향유. 생활문화 등 삶의 질 차원의 문화정책 연구, 예술인 복지 및 창작지원 등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연구로 구성됨. 이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와 생활문화활동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지역문화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문화재단은 2012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 실시하여 논의된 안건들을 실제 2013년도 공모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협회단위 신청건수', '분야별 세부장르 심의', '심의위원 공개추첨제 시행', '외부 심의위원 40%이상 위촉', '전문예술법인. 단체 우대적용' '수행평가 외부용역의뢰', '13개 분야로 카테고리 재정비' 등 7개의 안건논의 확정 및 8건의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반영하거나 반영시점을 결정하여 공모 안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사업 공모안 개선과 함께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예술인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그림 120] 부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부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육성지원사업 93.0점, 시·도기획사업 93.2점, 레지던스지원사업 93.4점, 우리가락 우리마당사업 94.5점으로 전체 평균 93.5점으로 평가됨.
-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특성화지원사업의 개별 사업추진역량과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21] 부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부산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5점(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8점(8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3점(백분위 환산 시 92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로 경기 지역 24.5점(98점), 서울 지역 23.5점(94점)에 이어 3위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부산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부산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57.5%(261/454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부산 지역의 경우는 4.4%(20/454건)의 낮은 비율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심의기준으로 1개 단체 1개 사업 선정 원칙(단, 협회는 2개까지 가능)을 정해 놓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부산 지역은 시민의 문화적 참여 욕구 해소 및 시민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생활예술 분야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 예술창작활동 심의기준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음. 지원금 배분율은 2.7%(56/2,100백만 원)로 낮게 배분하고 있으나 선정률은 매년 높게 설정(2011년 80%, 2012년 76%, 2013년 79%)하고 있음.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부산 지역 5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부산 지역은 2013년도 46.8%(454/971건), 2012년도 45.3%로, 각 연도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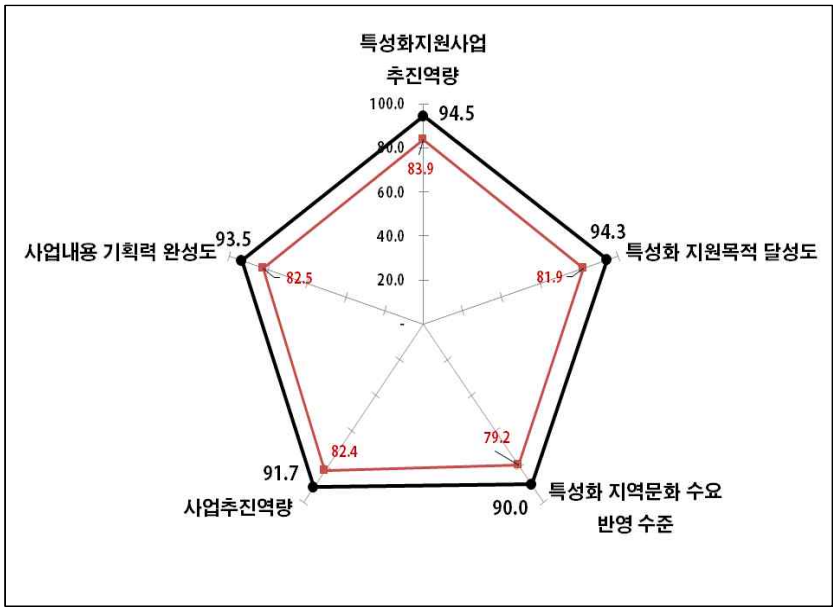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 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 432만원임. 부산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463만원(2,100백만 원/454건)으로 전국 8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 4위 인천 783만원, 5위 대구 569만원, 6위 대전 548만원, 7위 제주 488만원)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부산 지역 8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 (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비전과 핵심가치를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함. (위원 B) 지역 비전과 해양, 미래, 순환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3대 추진영역별 설계에 반영하여 9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에 적용함.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 (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사례 제시 있음. (위원 B) 연구모임 aff-com의 local來人:local lane(사업예산 1,400만원)을 사례로 하여 개요만 제시함. 동 사업은 부산을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인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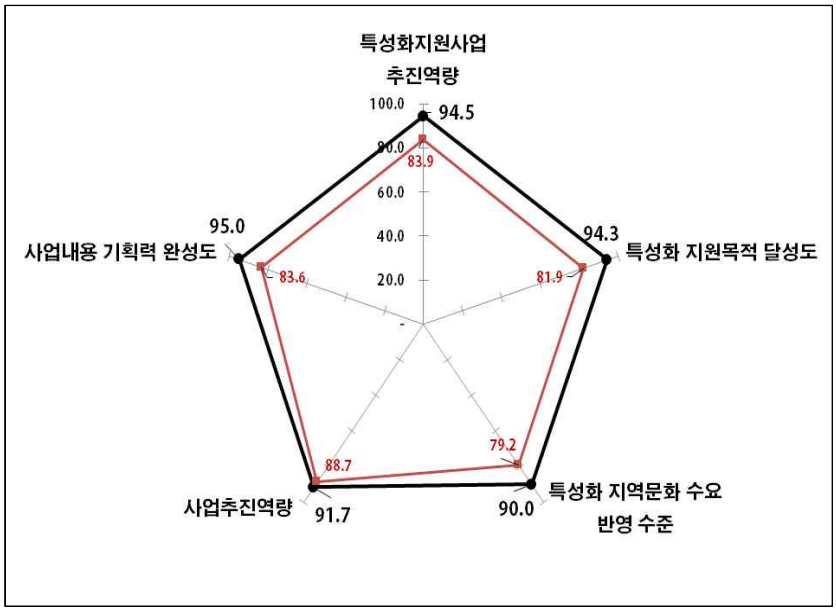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22] 부산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사업추진역량은 91.7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93.5점을 기록하였음.
- 사업추진 기관은 그동안 부산 기획사업에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력 있는 단체임. 따라서 사업의 취지나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재단과의 공감도 이뤄진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추진이 가능한 역량 있는 단체로서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여 기획 및 집행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 재단이 심의위원, 관련단체, 작가, 시민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교류를 정성껏 추진하였고, 참여자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의 주제는 지역특성과 독창성을 살려 해양컨셉의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최근 사업의 연속적 측면에서 공공프로젝트를 살려나가며, eco + DIY라고 하는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음.
- 사업경영을 위해 전시, 퍼레이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카데미 언론 바이럴마케팅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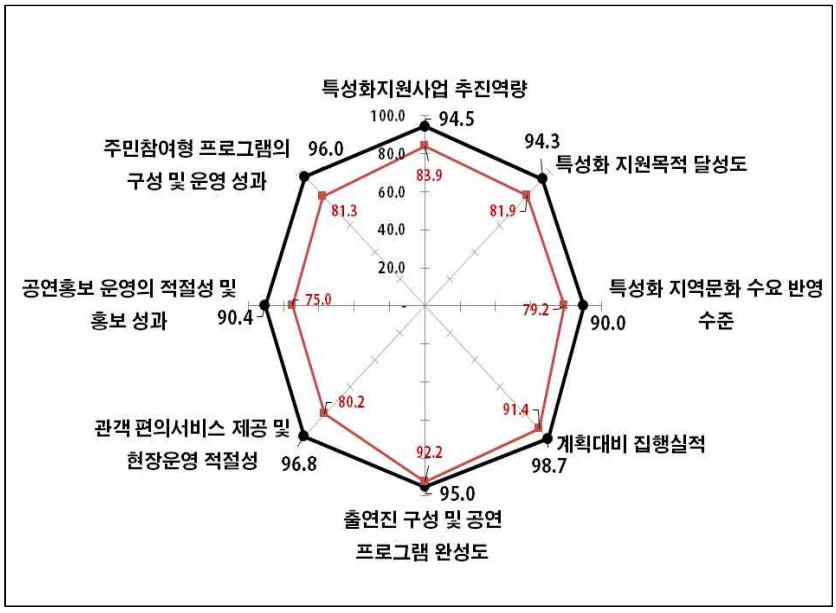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23] 부산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50%) 레지던스지원사업 공간의 특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사업 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확보함.
- 부산의 경우, 지역협력형 사업 수행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도 우수하고,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최고 수준임.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고 있음. 이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국제적인 레지던시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레지던스 수행 기관들이 역사적으로나 규모면에 있어서도 역량이 충분히 구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과임. 다만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부문이 만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부산의 레지던스 기관들의 자부심의 역효과라고 할 수 있음. 지역 대학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국제 레지던스 참여 예술가들이 없는 국외 지역과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관계 맺기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현재의 우수한 역량과 뛰어난 예술 수준이 폐쇄적으로 닫히거나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임.
- 레지던스 사업 공간에서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계캠프(주민, 학생)'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예술창작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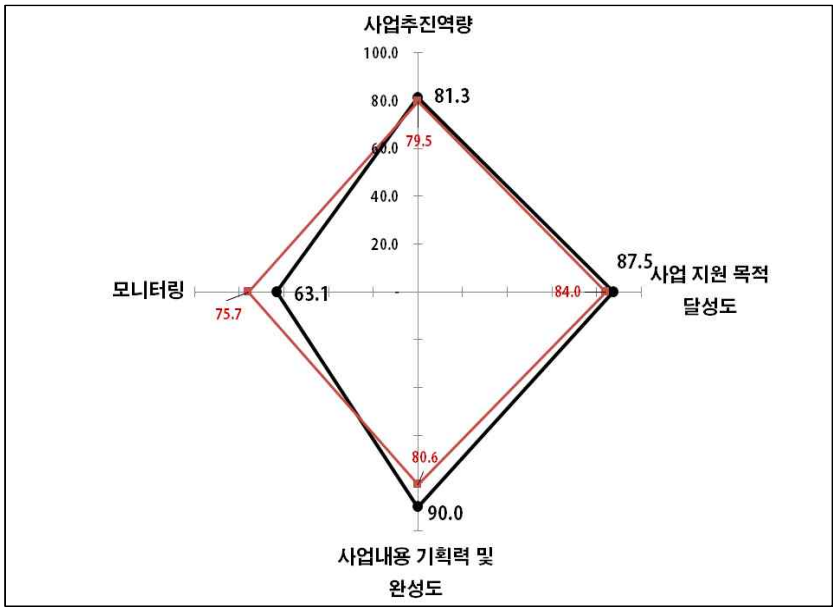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24] 부산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부산 지역의 우리가락우리마당은 용두산공원 야외상설무대에서 49개 단체(신규 6개 단체), 총20회를 운영하였음.
- 영 · 중 · 일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고, 시민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3개 국어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공연 시작 전 민요배우기, 전통놀이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음.
- 총 관람객 수 19,930명(외국인 관람객수 2,280명)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연안내 전광판 활용하여 영문자막을 강화하고 있음.
- SNS 서비스제공, 재단 내 유사사업과 연계홍보, 재단홈페이지, 웹진을 활용한 상설홍보진행.
- 용두산공원이 명소화 되고 있지만, 시설의 열악, 우천시대비책 미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25] 부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1.3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87.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90.0점, 공연장 모니터링 75.7점임.

- 부산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6.8점임.

□ 2012년 총 8개 선정단체 중 5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이었으며, 2013년 부산시 문화예술과(전문예술법인 담당자)와 연계한 컨설팅과 전문예술법인(단체)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3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예술법인(단체)이 100%를 차지함.

□ 상주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의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구청, 교육청, 방송국, 기업)등과 연계 · 협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다만, 재단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예술위원회와의 협력 내용만을 제시함

□ 2013년도 사업추진 수행목표와 운영성과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목표 달성여부는 개별 단체 실적자료상의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 집계하고 목표수치 항목(공연실적,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수 및 관객 수 등)을 제시함. 전체 목표 대비 평균 158% 성과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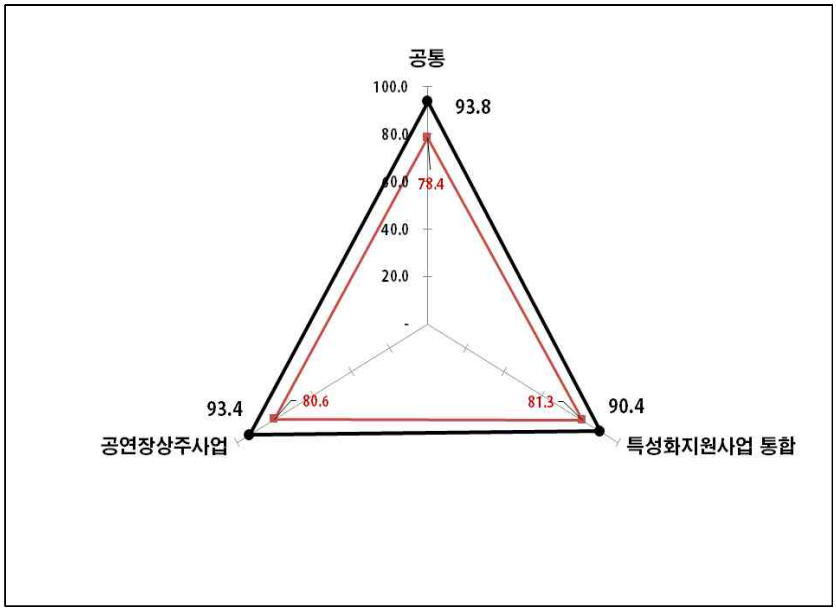
□ 개별 공연프로그램 당 최소 3~4회 전문가/관객평가를 시행함. 20명의 전문가가 53회에 걸친

현장평가를 수행함. 435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다만, 2곳의 단체는 표본수가 각각 4명, 2명에 불과하였음.

- 기존 매칭된 상주공연장-상주단체 결연이 아닌, 2개 단체(공연장) 이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예술장르 혼합구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모색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추구하기 위해 상주단체 간 협업 및 다 장르간 융복합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20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융·복합프로그램 기획지원)을 추진함. 이를 통해 해운대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김옥련 발레단이 주축이 되어 '해운대'라는 지역의 대표 명소에 퍼져 있는 전설과 우화 그리고 역사이야기들을 다룬 "해운대 연가"를 제작함.
- 또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 해설이 있는 공연, 캠프 등 퍼블릭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함.
- 8개 상주단체 중 5개 상주단체 참여하는 2013 상주단체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꿈"을 실시함. 위메프 소셜커머스, 부산영어방송 등에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등 홍보마케팅을 다각화함. 상주단체간 교류공연도 활발히 실시함.
- 영남권 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4차에 걸친 실무간담회, 단체 공연 시마다 간담회(약 25회), 7회의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연장 및 상주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제3절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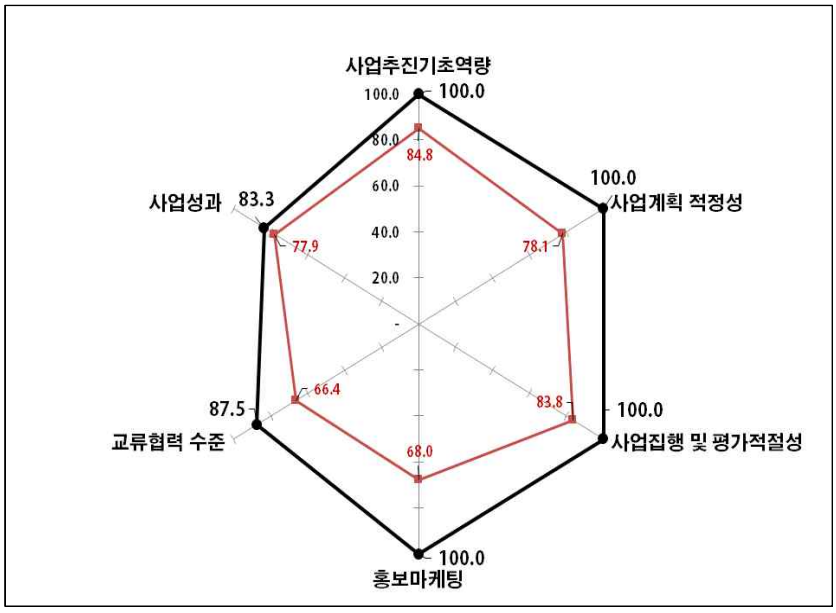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26] 대구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대구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 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93.8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은 90.4점, 공연장 상주사업부문은 93.4점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음.
- 대구 지역은 지난해에 전체 종합 평가와 공통 평가 항목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탄탄한 사업기획역량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에서는 일부 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대구 지역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기획역량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재단 내 여러 부서의 사업과 지역협력형사업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연계를 잘 기획해내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개발하고 선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음.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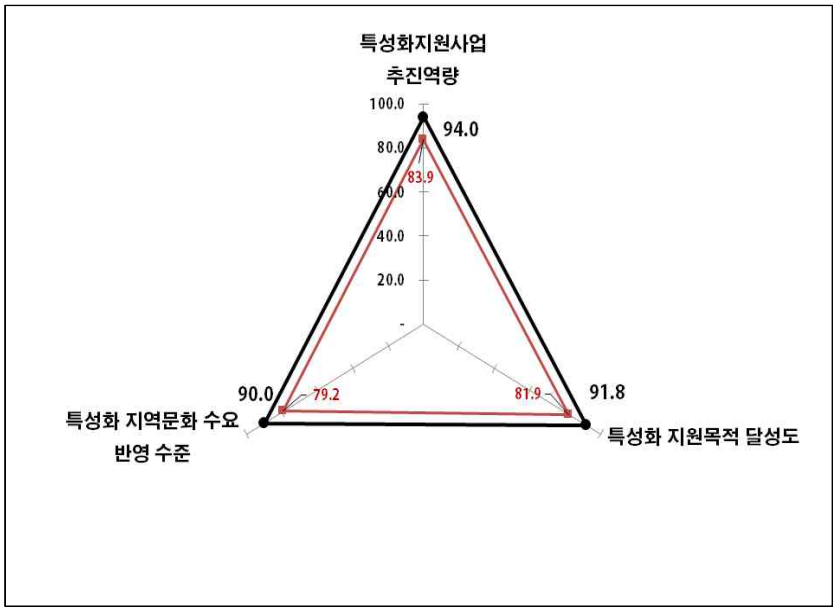
[그림 127] 대구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대구 지역은 공통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교류협력수준과 사업성과 항목은 타 평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대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즐긴다"로 대구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술창작진흥, 문화브랜드 개발, 예술향유 증대를 세 개의 추진전략으로 삼고 각각 전문예술인(단체)과 문화정책/시민, 시민/문화소외계층을 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 지역의 기획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재단에서 시행한 '2013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강좌를 통해 20명의 기획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재단 직원들이 함께 청강교육을 통해 기획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토록 한 것은 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됨.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지원방향으로 다음 5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첫째,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문화예술지원 육성 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 콘텐츠 발굴과

집중지원 셋째, 안정적 창작공간의 지원확대 넷째, 소액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액 현실화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다섯째, 우수 사업에 대한 시상과 지속지원의 확대를 통해 활기찬 창작 분위기 조성임.

- 대구 지역은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공연단체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만족도 결과를 파악하고 있음. 향후 전체사업이 아닌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관객만족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노력을 파악하는 홍보마케팅 평가 항목에서는 dgtickets운영이 새로운 오프라인 매체로 제시됨. 공연예술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공연티켓 할인제공과 공연정보제공,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됨. 5월 오픈이후 12월까지 총 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dgticke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티켓판매대금 누적액은 1억2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어 시간이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연장상주사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상주단체의 레퍼토리화가 가능한 창작 작품 및 전체 작품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상주단체에서 제작한 창작 작품이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의 공연 초청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역예술단체의 활발한 창작활동 기회가 마련되고 우수콘텐츠 제작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가창 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스지원사업에 대한 해외 입주 작가 공모현황을 보면 매년 그 수가 증가되어 2012년 9명, 2013년 30명, 2014년 49명으로 단계적으로 입주 작가 공모에 대한 참여인원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추진성과가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 비계량적 사업성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상실적 등 인증 성과와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이 여러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성과로 보임. 울산, 서울, 전북, 제주, 충북 지역에서도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사업' 에 대한 지원에서 '사람' 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지원 정책의 기조변화를 꾀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었는데, 신진예술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쉬운 점은 신진예술가들에게 제시되는 연간 필수 활동조건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계량적 성과중 하나로 제시된 MAC Theatre의 창작뮤지컬 레퍼토리화 실험은 지역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성공적인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며, 특히, 골목길 시리즈로 올려졌던 '사랑꽃' 이라는 작품은 지난해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한 성과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연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28] 대구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대구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의 평균점은 91.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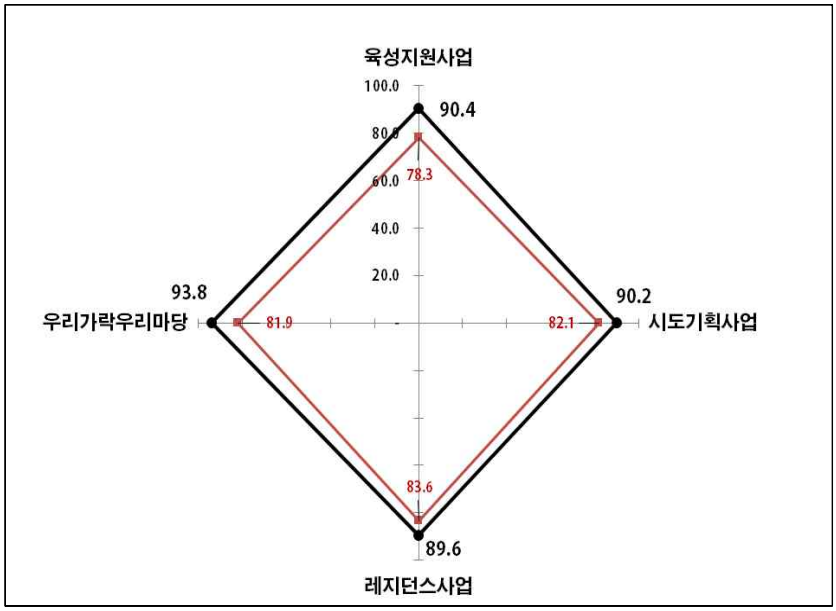
□ 대구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 지역은 특성화 지원사업 전체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방향을 개선하면서 대구지역에 적합한 지원사업 설계를 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 서류심사(20점), 인터뷰심사(30점), 실기심사(50점)로 심사기준과 선발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신진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정된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멘토시스템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신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신진예술가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레지던스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의 경우 참여 예술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상대적으로 육성지원사업 참여 예술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 지역은 예술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 창작스튜디오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는 입주 작가와 프로그램 매니저 재단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음.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 신진예술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멘토 컨설팅을 활용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좌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총 7차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하지만 제시된 의견수렴 채널은 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많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단체)의 의견을 듣는 폭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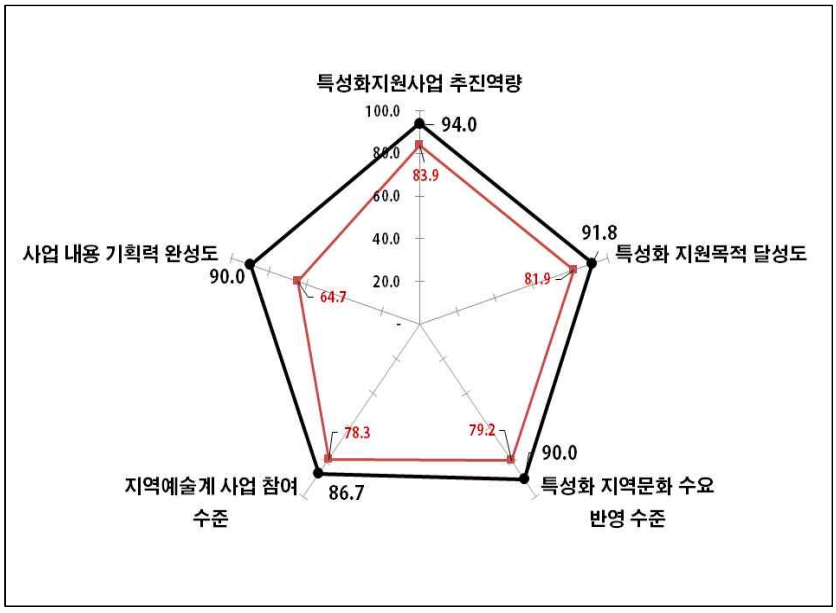
[그림 129] 대구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대구 지역의 특성화 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를 보면 4개 사업 모두 평균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평가가 가장 높고, 레지던스자지원사업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4가지 사업 모두 고르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레지던스지원사업도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30] 대구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대구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8점(백분위 환산 시 8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5점(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9점(9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2점(백분위 환산 시 88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로 대전 지역과 함께 전국 4위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대구 지역 8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대구 지역은 신규단체 선정비율을 10.4%(30/288건)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 신청단체로 지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임. 2013년도에 선정된 단체 중 전년도에 이은 연속 지원 단체가 아닌 단체의 비율을 의미함.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대구 지역의 경우는 4.9%(14/288건)의 낮은 비율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2011년 3.8%, 2012년 4.7%로 매년 5% 이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대구 지역은 창작진흥사업 중 생활예술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활예술분야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음. 지원금 배분율은 2.3%(40/1,731백만 원)로 낮게 배분하고 있음.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대구 지역 5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대구 지역은 2013년도 48.8%(304/623건), 2012년도 51.7%로, 각 연도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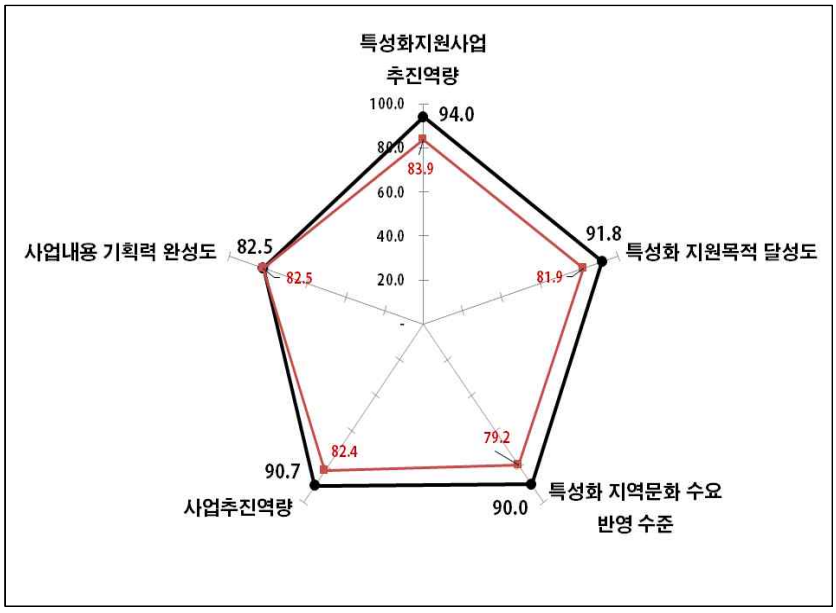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선정률을 2.9% 낮추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 432만원임. 대구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569만원(1,731백만 원/304건)으로 전국 5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 4위 인천 783만원)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대구 지역 9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대구의 공연문화 중심도시 육성계획을 설계에 반영함. (위원 B) '대구공연문화 중심도시' 육성 중장기 계획(2010~19년)에 따라 대표 콘텐츠 육성과 레퍼토리화 기반조성을 위한 단계별 육성전략을 펴나가고 있음.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신청건수, 신청금액, 선정단체 등이 줄어들고 지원 금액 증가하는 추세로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단계에 들어섬.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위원 B) 1. '문화예술진흥지원 육성 체계'에 따라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4단계(문화예술진흥사업→공연활동지원사업→우수기획지원사업→집중기획지원사업)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별 목적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2.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인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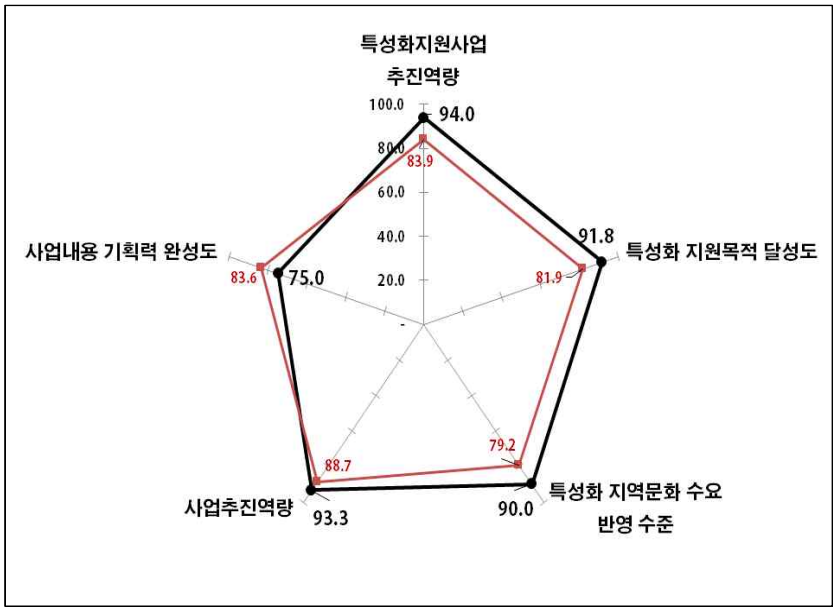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31] 대구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대구 지역의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90.7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임.
- 영상도시라는 큰 주제 속에서 영상사업과 서정시를 주제로 선택하여 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른 축제와 결합하여 행사를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 다각도로 노력했음.
- 재정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조건부로 재정지원을 받아 순전히 기획사업에 활용하는 등 기회사업의 협력적 요소를 최대한 다각도로 실현하고 있음. 그 밖에도 홍보, 사업, 재정 등 각 분야별로 주요 기관과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함.
-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나 단체의 역량이 성과에 연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특별히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노력이 돋보임.
- 사업의 추천을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고 사업에 적용해왔음.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자문 평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했음.
- 서정시나 영상은 전국에서 보편성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대구만이 갖는 독창성이 다소 미흡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지역인물에 초점을 두는 등 노력하고 있음.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32] 대구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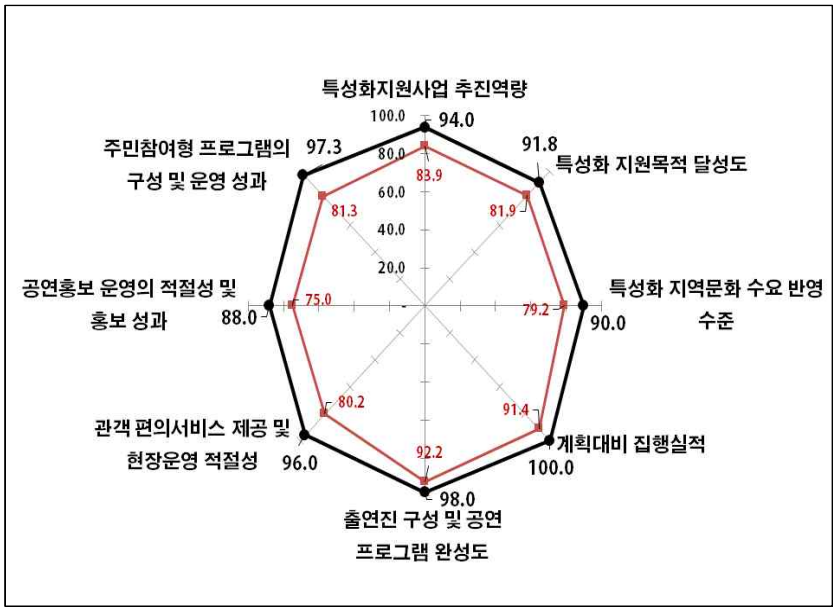
-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재단의 직영을 통해 체계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음. 다만, 타 지역에서 다양하게 신규단체를 발굴하고, 프로젝트형과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사업들도 발전시키는 균형감각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가창창작스튜디오 직영에 만족하고 있어, 안주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한정된 공간으로는 지역 내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직영이 아닌 민간차원의 레지던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 기관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의 구상이 요망됨. 단순히 공모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설득 등의 시도가 필요

-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 국제 레지던스 해외작가 외에는 중국 기관만 관계가 설정되어 국가나 지역별 저변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 스튜디오여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이나 스토리 활용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함. 타 지역의 레지던스 기관들이 월례회나 자체 기획 워크숍 등을 통해 작품 구상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성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사고의 스펙트럼을 서로서로 공유하여, 지역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레지던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로서는 지역의 고유한 색깔이나 스토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임.

- 오픈스튜디오 뿐 아니라 문화 나눔의 날, 미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으로 레지던스 공간이 친주민형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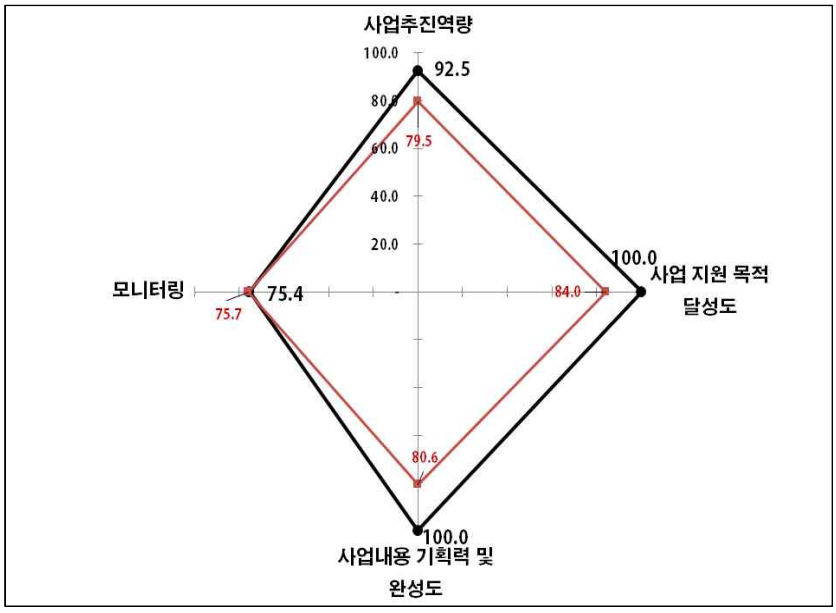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33] 대구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대구 지역은 신진예술인의 참여를 48%이상 보장하고 있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을 국악 상설공연장으로 명소화하고 있으며 29개 단체(신규14개 단체)가 참여하여 15회를 운영하였음.
- 당초 5개 프로그램을 7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고 시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재급 명인들의 명품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관람객이 전년대비 14% 2,750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공연전 15분정도 전문사회자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국악프로그램 전문사회자가 해설이 있는 공연을 진행하였고, 안내도우미배치, 안내리플렛 배포 진행함.
- SNS운영, 댓글달기이벤트운영, 홈페이지활용, 보도자료배포 등 홍보활동 진행.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체험마당, 관객신청곡 이벤트, 프러포즈이벤트, 매니아만들기 등 기획운영하였고, 공연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34] 대구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92.5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100.0점, 공연장 모니터링 75.7점임.

- 대구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93.4점임.

□ 2013년도는 모두 연속지원 단체들로서 2012년도 선정단체의 지속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7개 공연장/상주단체 중 4곳에 각 17,500,0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대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실무교육, 특강, 영남권 포럼 · 문화사랑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역량강화 노력을 경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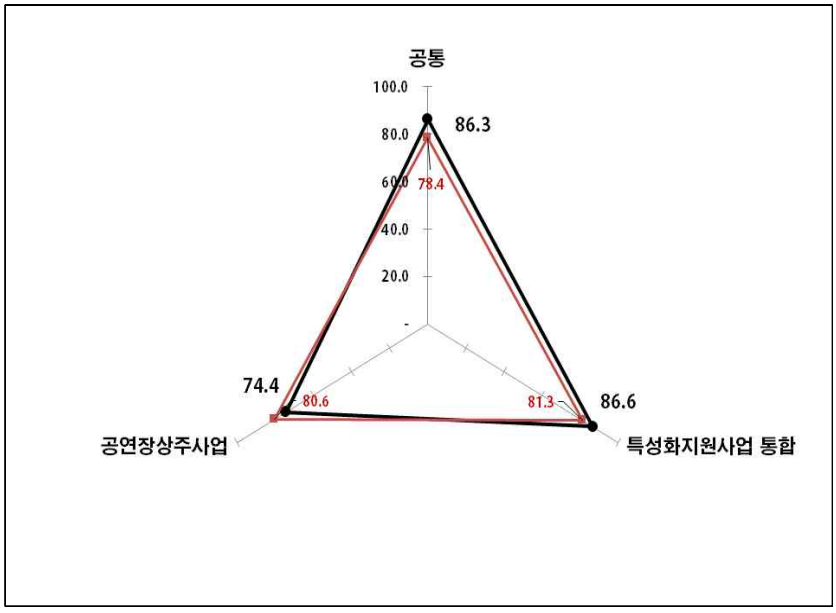
□ 전문예술법인(단체)가 2곳에 불과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연장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포진하고 있음. 공연장 및 상주단체 전문 인력 주요 약력을 적절하게 제시함.

□ 상주단체간 협력체계, 재단과 타 기관간 협력체계, 상주단체와 타 기관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교류활동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대구의 경우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음. 일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장에서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상주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연장도 2곳이 있음.
- 대구 지역은 공연문화중심도시 비전아래 상주 · 공연 · 교육프로그램 · 교류 분야별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도를 점검함. 모두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예술인의 수도 현저히 늘어남.(2012년 1,011명 -〉 2013년 1,440명)
- 아래의 3가지 방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따른 종합만족도 89.5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에 이름.
- 전문 기관을 통한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 실시
-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대구문화재단 해피서포터즈' 를 선발하고 지역협력형사업, 문화바우처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민모니터요원의 활동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공연장 자체적으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조건 중 신규 창작작품 공연을 1회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단체만의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공연장별 시즈닝 프로그램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등 지역 내 공연예술축제에 공급되고 있음.
- 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상주단체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의 간담회와 2차례의 추진위원회를 열고 3일간 세 곳의 공연장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함.
- 각 공연장별로 2~4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 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관내 병원, 재활원,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의 요청으로 지역밀착형 음악회를 개최함. 또한, 뮤지컬 배우 발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 실제 2013년 '사랑꽃'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공연을 소화함.

제4절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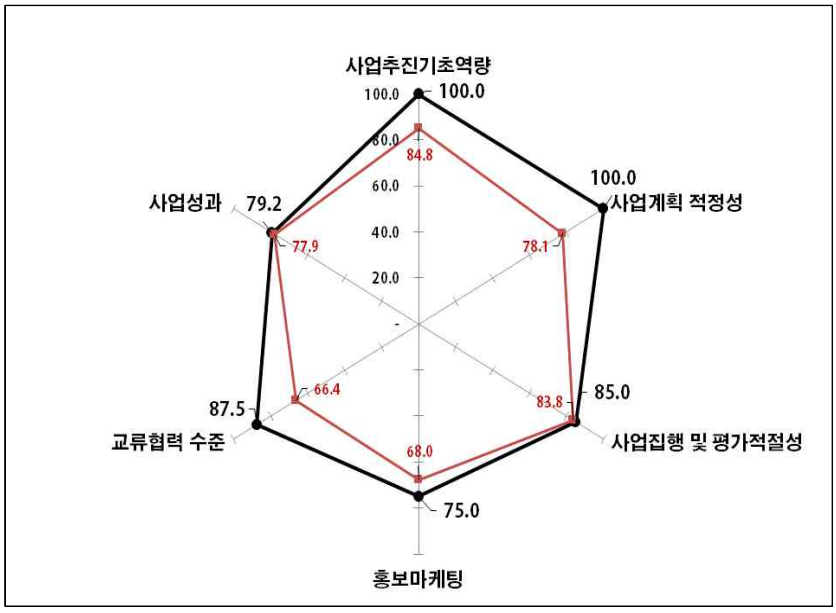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35]인천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인천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86.3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6.6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74.4점으로 평가됨. 공통평가부문과 특성화 지원사업 부문은 평균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연장 상주사업은 전국평균보다 한참 낮게 평가됨.
- 인천 지역은 오랜 재단 운영 역사와 안정된 지원사업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매년 지역협력형 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사업에서도 레지던스 사업만 최고등급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사업은 최우수 등급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연장 상주사업이 낮게 평가되어 종합 평가에서도 우수 이상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아쉬움이 있음.
- 지역협력형사업의 평가는 평가사업의 방대함과 연간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자체평가보고서에 의존한 평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인천지역은 실제적인 추진역량과 사업성과를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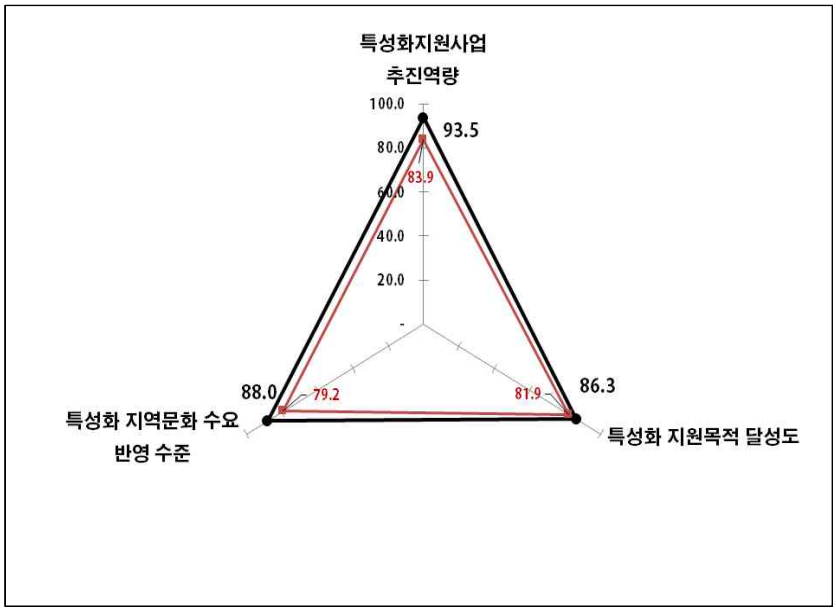
[그림 136] 인천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로 구성됨.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높은 배점으로 추가되었음. 인천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업추진 기초역량과 사업계획 적절성 면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사업성과와 홍보마케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에 머무름.
-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은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부문으로 각 평가 항목별로 지원사업 추진의 토대가 되는 지역의 지원시스템과 조직체계, 지원 철학과 가치,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이 광역시 문화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 답지 않게 사업 성과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 목표를 기술하고 사업별 정성적 성과지표와 정량적 성과지표를 기술하여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심의체계 적절성 여부에서 심의결과를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공개내용

은 지원내역, 심의위원명단, 심의총평으로 사업별로 심의결과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평가체계 적절성 여부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내부 12명, 외부 12명 총 24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인천지역은 재단 직원들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민모니터링을 위하여 30명의 인천 문화예술 서포터즈를 운영하였는데, 재단의 직접 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참관 및 평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자체 기획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단순 향유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금을 위한 교육을 추진함. 총 6차례에 걸쳐 매월 1회씩 6개월간 비영리단체의 모금이해, 모금 명분서 구성과 기획, 모금의 전략과 전술, 모금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부자 개발 및 예우, 연례모금 설계의 주제로 나눠 구체적인 기부금 모금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추진하여 참여한 예술단체들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지역 간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여부에서는 인천 AALA문학포럼, 가나자와 재즈스트리트 참가 예술가 선발, 문화매개자 해외탐방 지원, 아트플랫폼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남. 그런데, 재단에서 추진한 국제교류형 사업이 지역협력형 사업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성과평가 항목에서 우수사례로는 공연장상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단체가 4년 동안의 지원과정을 통해 자체 대표레퍼토리 공연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상주단체들의 4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IPRT-13 공연예술페스티벌 〈Thank you. 고맙습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 창작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고연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축제를 통해 지역 내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 지역, 국제교류로 확장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37] 인천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특성화지원사업의 설계와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지원 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인천 지역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의 평균점은 89.3점임.

□ 인천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전국평균점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에서 93.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기준에서 지원사업 신청자격기준을 인천연고자로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별로 더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남. 사업별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단체 선정기준 결정의 모델을 보여줌.

□ 인천 지역의 신규단체(한 번도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단체)는 전체 선정단체 중 20.3%이며 기관, 협회 선정비율은 9.7%로 적절한 선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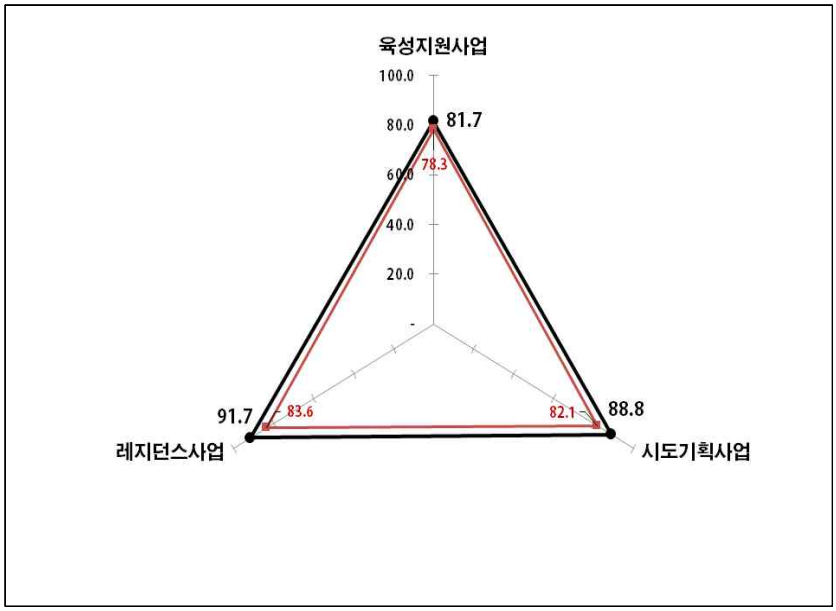
□ 계획대비 집행실적에서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육성지원사업 1차 공모에서 포기한

예산을 2차 공모에 편성하여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사용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드러남.

구분	지원금(원)	집행액(원)	집행률	비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1,133,000,000	1,072,928,917	94.7%	5건 사업포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892,000,000	887,400,000	99.5%	–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100,000,000	3,569,000	96.4%	–

[표 72] 인천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예산 및 집행률

□ 인천 지역은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전문가 심의위원 외에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심의위원(10명) 및 사업지원자가 직접 참여하는 심의를 추진함. 행정심의 및 서류심의를 통과한 신청단체들의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전문가/시민/신청단체 합동심의를 통해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문화활동에 대한 저변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사업지원자는 지원사업단체 대표 1인이 각 분야별로 자신의 단체를 제외한 타 단체의 신청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로 사업단체간 다면평가에 의한 공정성 확보라는 특별한 심의제도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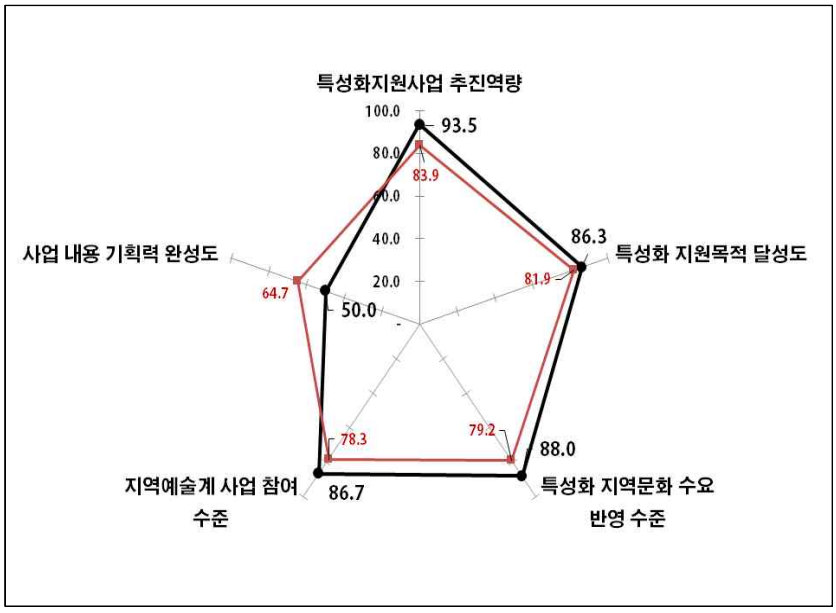


[그림 138] 인천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인천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를 보면 3개 사업 모두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레지던스 사업의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남.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됨.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39] 인천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인천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8점(백분위 환산 시 8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5점(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5점(5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8점(백분위 환산 시 72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사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약간 못 미친 수준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점 9.3점, 인천 지역 8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

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인천 지역은 20.3%(27/133건)로,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인천 지역의 경우는 133건 중 13건, 비율이 9.7%로 바람직한 수준임.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인천 지역은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고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으나, 육성지원사업에서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은 21.2%(234/1,104백만 원)로 다소 높은 편임.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 평균점 5점, 인천 지역 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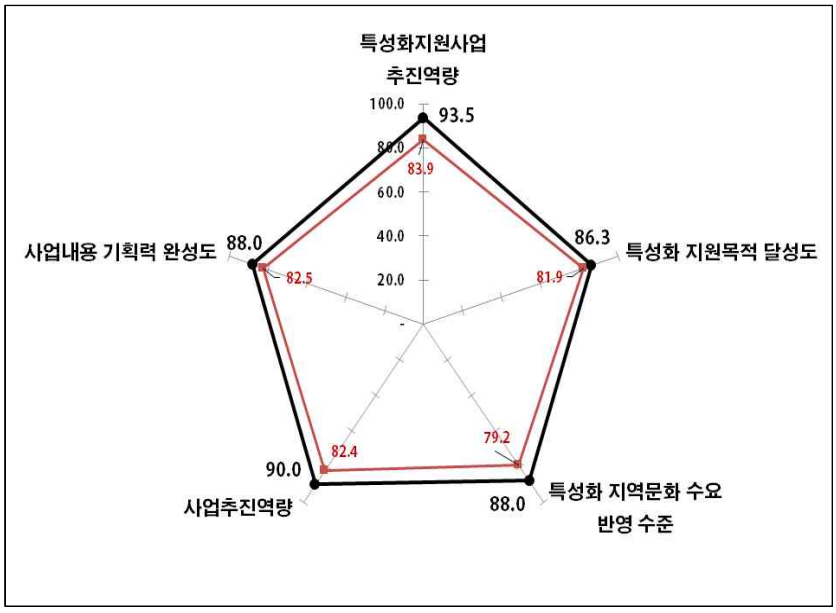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인천 지역은 36.5%(141/386건)로 2012년도(33.6%)에 이어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 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 평균 지원 금액 930만원임. 인천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783만 원(1,104백만 원/141건)으로, 전국 4위(서울 1,211만원,

울산 856만원, 3위 경기 795만원) 수준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 평균점 7.7점, 인천 지역 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시도기획지원사업의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을 육성지원사업의 지역 독창성 반영사례로 잘못 제시함. (위원 B) 시도기획지원사업인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을 육성지원사업의 지역 독창성 반영사례로 잘못 제시하고 있음.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2건만을 파편적으로 제시함. (위원 B) 인천 연수구 소재 능허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능허대사랑비', 인천의 전통연희 '거렁뱅이영감굿' 2건만을 제목 수준에서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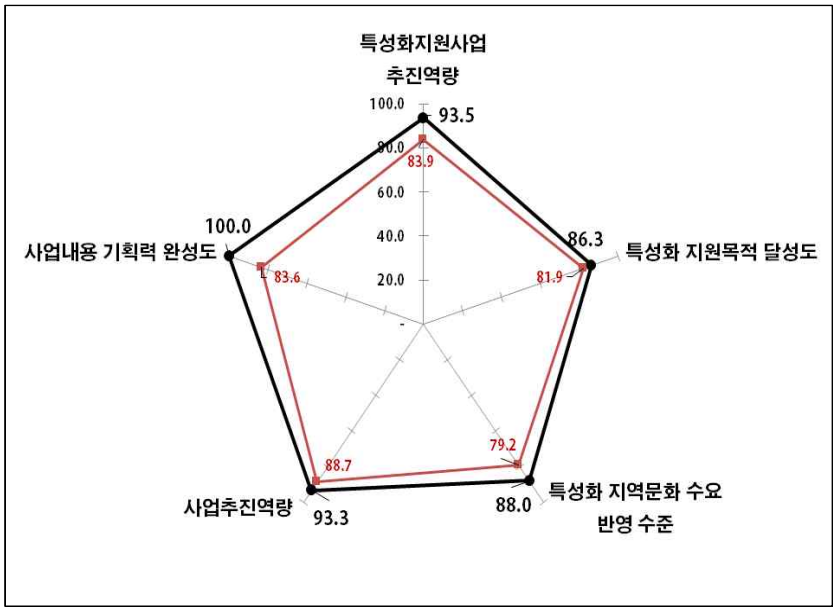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40] 인천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인천지역의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90.0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8.0 점을 받았음
-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도기획사업으로 연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섬, 마을 등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기획하고 있으며, 마을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개성 있는 사업으로 기획하여 추진함
- 주민들과의 관계유지에 주력하고, 기획회의, 전문가 추진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획평가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과 같은 완성도 높은 추진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정확충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공공지원의존성을 줄이고 일회성 행사에서 자발적인 지속사업으로 발디딤 하기 위한 기획전략으로 바람직한 사례임(자체펀딩 70%: 재단지원 30% 방식으로 운영)
- 지원방식으로 다년간 지원, 서포터 프로그램 도입, 재단과 지역예술가 공동기획 거버넌스 마련 등은 새로운 시도로서 타 지역에서 참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됨.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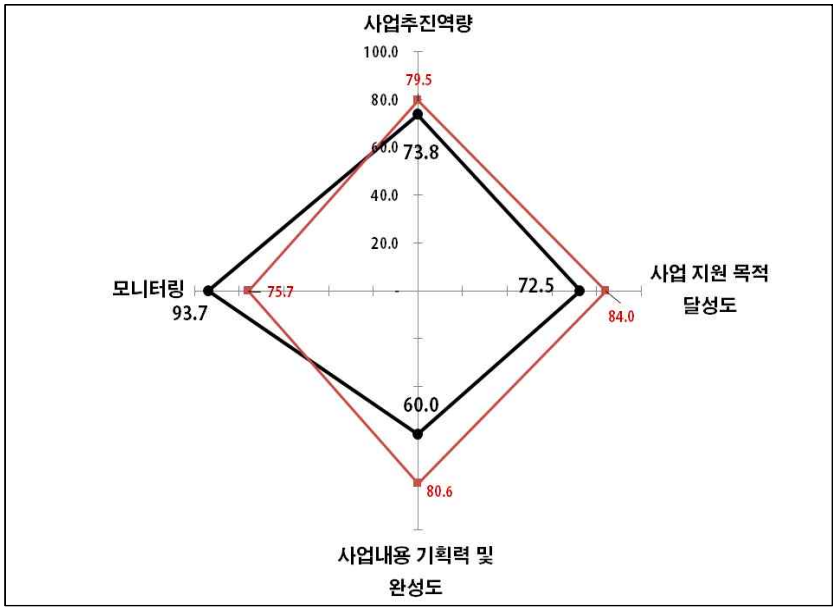
[그림 141] 인천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심사 단계에서 전문성이 높은 기관들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전 컨설팅 제도 및 사업기간 중 전문가와 단체 간의 1:1 컨설팅을 11회 수행하는 등 사업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촉진함.
- 지역 내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그 구축 규모의 양에 비해, 실제 협력사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형식적 네트워크에 그칠 위험이 내재됨.
- 구도심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역사와 삶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커뮤니티형 레지던스 사업이 수행되어, 개항지인 인천 지역의 근대사와 개발행정 등에 맞서는 특정 지역의 역사성 및 인천의 개도국 노동자들의 본국 문화 및 정주민의 다문화이해 증진을 유도함.
-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개방형 포럼들이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수요 파악은 저조하였음.
- 커뮤니티형 레지던스 사업기관은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서의 개념을 사업공모 시기부터 포함시켜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친주민적으로 운영됨.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인천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42] 인천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79.5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84.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80.6점, 공연장 모니터링 75.7점임.

- 인천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74.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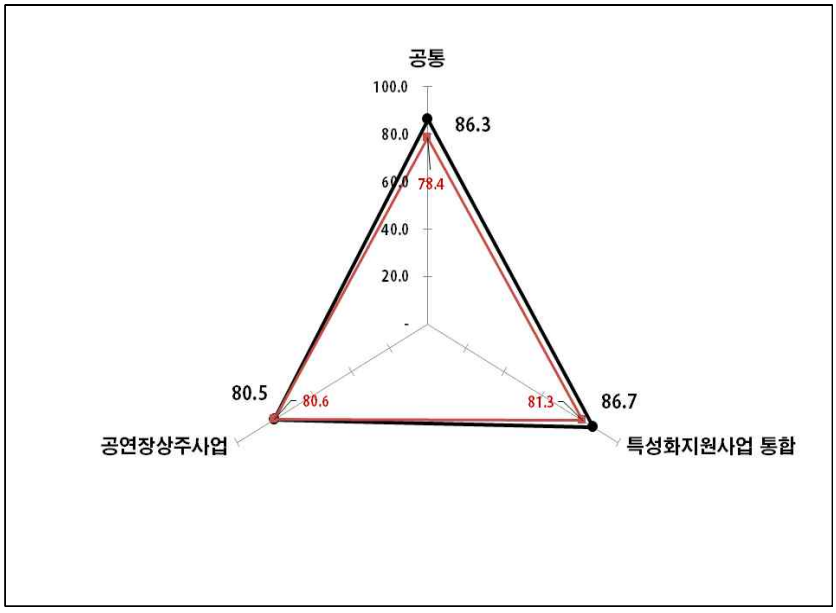
□ 두 차례에 걸친 성과심의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사업목적 달성 여부 확인) 및 2차년도 지원금의 증·감액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공연장 중 상주단체와 협력이 부족한 곳은 다른 공연장으로 매칭을 교체함

□ 7개 지원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4개로써 66.6%에 이름. 선정단체들은 대개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인천의 대표적 공연단체로 충분한 사업수행역량과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전문 인력 참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주요이력 · 전공 등)가 미흡하여 전문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상주단체들이 외부기관과의 어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해왔는지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으며, 재단이 주도가 되어 추진한 네트워크 활동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음.
- 공연실적, 발표작품수, 참여인수 항목의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 목표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종의 샘플조사의 형태로서 공연장상주사업 만족도 조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체선정 시 인천 지역의 장소적 이해 및 소재를 구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상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주단체페스티벌을 'IPRT 인천공연예술페스티발'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함.
- 2차례에 걸친 공연장상주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공연장/상주단체와의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만남 창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민 요구 수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시가 없음.
- 인천 지역의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며 지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해당지표에 대해 만점을 받겠다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공연장상주사업 관계자들이 수고한 1년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직 내부의 충분한 평가와 검토가 절실함.

제5절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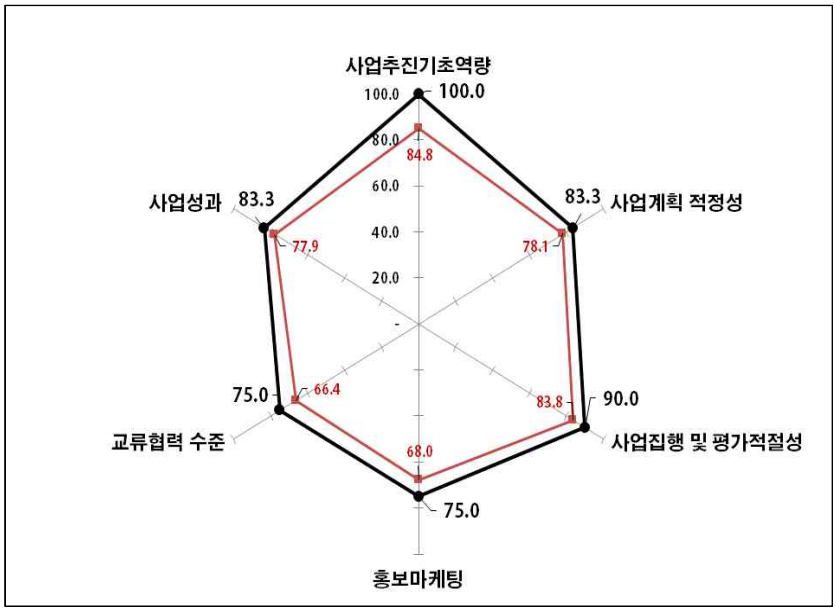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43] 광주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광주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86.3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6.7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0.5점으로 평가됨. 공연장상주사업은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평가부문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광주 지역은 종합 평가는 예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역량은 조금씩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과 개별사업을 합한 특성화 통합 합산 결과는 우수등급으로 사업추진역량이 향상되었음.
- 공연장상주사업은 다른 지역들의 평가가 우수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연장 상주사업과 공통평가부분까지 합산한 종합 평가 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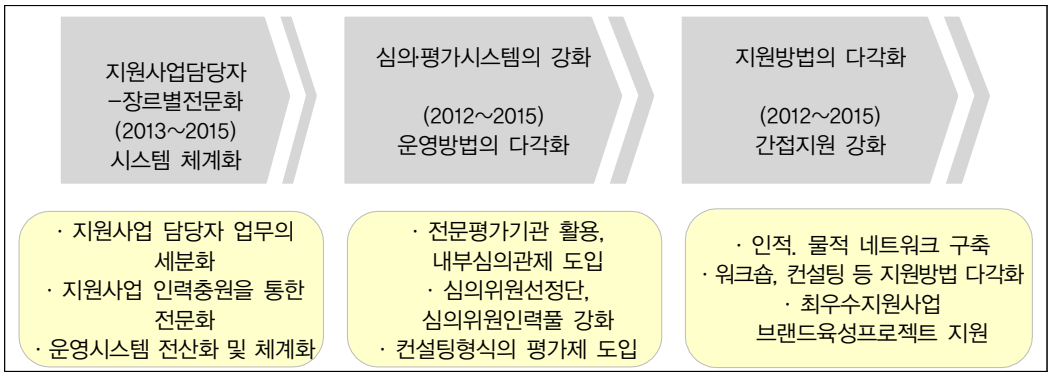


[그림 144] 광주 지역 공통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광주지역은 전체적으로 전국평균을 높이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추진기초역량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교류협력수준과 홍보마케팅 항목에서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음. 광주지역의 공통평가 평균점은 86.3점으로 평가됨.

□ 광주 지역은 "행복한 일상, 문화공동체 광주" 라는 문화비전을 갖고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문화의 공적 책임성, 문화예술의 다양성,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을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

□ 광주 지역은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의 개선점을 설정하고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에 단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73]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 광주 지역은 광주문화재단의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2년 1위를 차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률 100%, 이용률 74.1%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시민문화복지와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시민예술가 150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나무예술단' 활동은 120개 단체 시민예술가들의 문화예술분야 재능나눔 활동으로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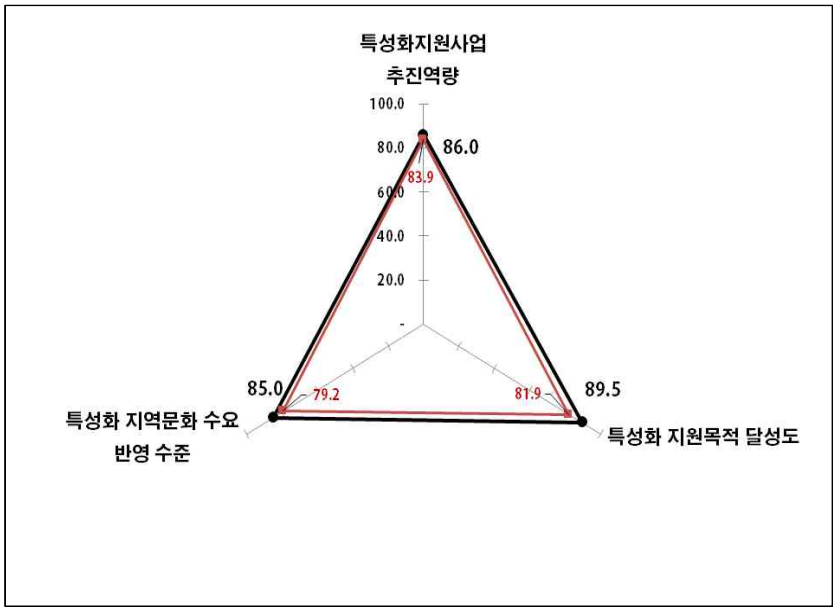
- 광주문화재단은 2012년 12월 "2013년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지원전략 체계화 및 운영개선안" 을 마련하여 연차별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문화재단은 사업평가체계모델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평가위원 참여를 통한 전문가 평가와 현장모니터링, 관객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는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활용도를 높임.

- 예술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들의 직업능력 및 창업,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전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교육내용은 '매체 · 장르 융합 기획자 양성', '소셜큐레이션 제작자 양성', '예술매개 갈등조정자 양성', '스토리텔링 & 아카이빙 전문가 과정', '음원제작 전문가과정', '융합시대 시각예술 과정' 등을 통해 120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분야 취업지원 교육을 이수함.

- 지원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에서는 공연장상주단체 14색 페스티벌,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활동 〈순수–양림의 소리를 듣다〉, 지역 작고작가 회고록 발간을 통해 예년과는 다른 차별화된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45] 광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광주 지역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의 평균점은 86.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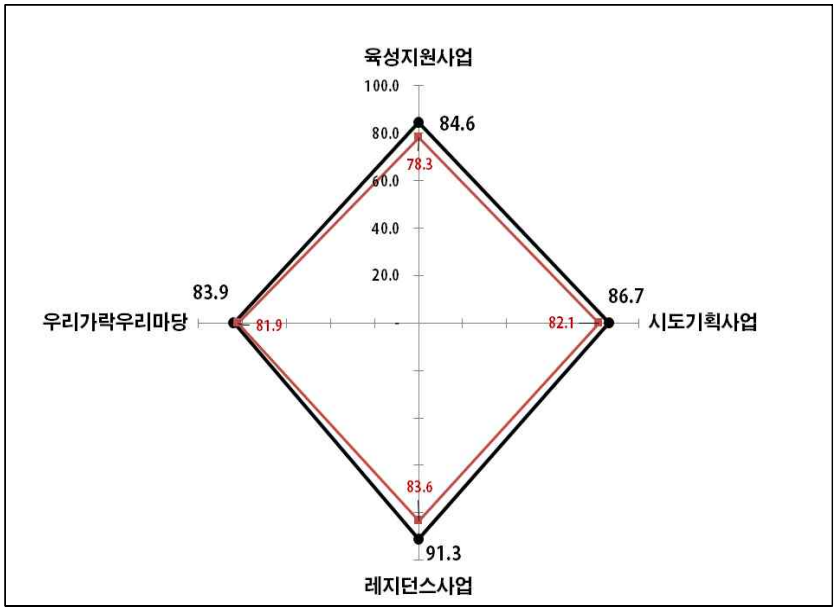
□ 광주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 지원사업 설계 및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 지역은 사업별 신규지원 단체 발굴 및 지원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선정단체 중 55%가량이 신규지원 단체로 나타남. 지금까지 한 번도 수혜 받지 못했던 신규단체를 '신규지원 단체'로 하고 신규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신진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예술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육성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신진예술가들의 신규지원 참여 비율은 전체 선정단체의 15~20% 규모가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됨.

□ 계획대비 집행실적에서 레지던스, 시 · 도기획,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모두 100%의 집행률을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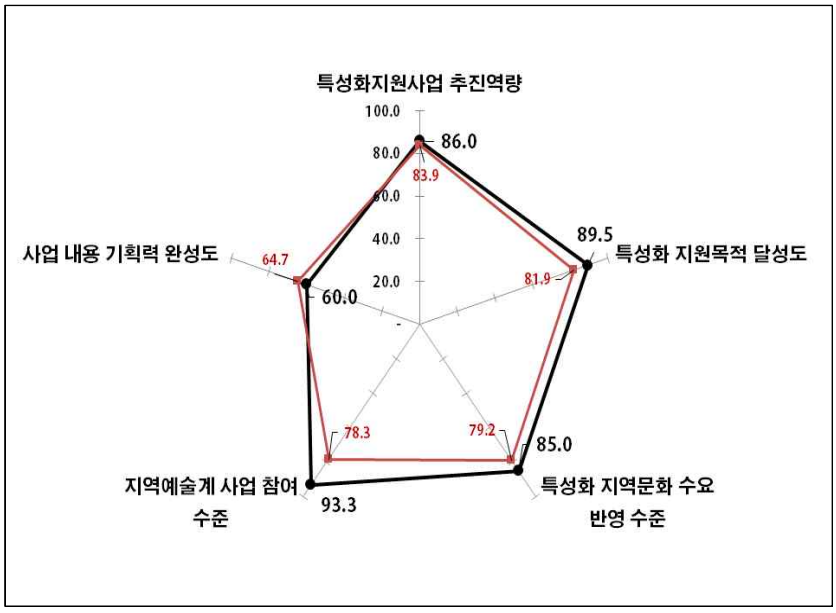
고 있으며, 육성지원사업은 97.25%의 집행률을 나타냄. 미집행 발생 사유는 지원금 감액지원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포기한 10개 단체의 지원 금액(15.5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됨.

-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전체 779명 중 186명인 23.9%의 시민들이 홍보의 적극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지원 단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관객확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역시 홍보부족(18%)으로 나타나, 현재 온-오프라인 홍보매체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매체 개발과 운영, 예술단체의 홍보분야에 대한 간접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원사업 수혜단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형식적 교육에 머무르거나, 재단의 지원사업 안내나 행정 처리를 위한 공지형 워크숍이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의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워크숍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림 146] 광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47] 광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광주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4점(8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6점(6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0점(백분위 환산 시 80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광주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광주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55.1%(85/154건)로, 과반수를 신규단체로 선정하였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회·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광주 지역의 경우는 9.1%(14/154건)의 비율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광주 지역은 시민문화향수 지원사업으로 별도 구분하고, 전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심의기준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지원금 배분율도 8.4%(45/537백만 원)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광주 지역 4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광주 지역은 2013년도 47.6%(154/323건), 2012년도 47.7%로, 각 연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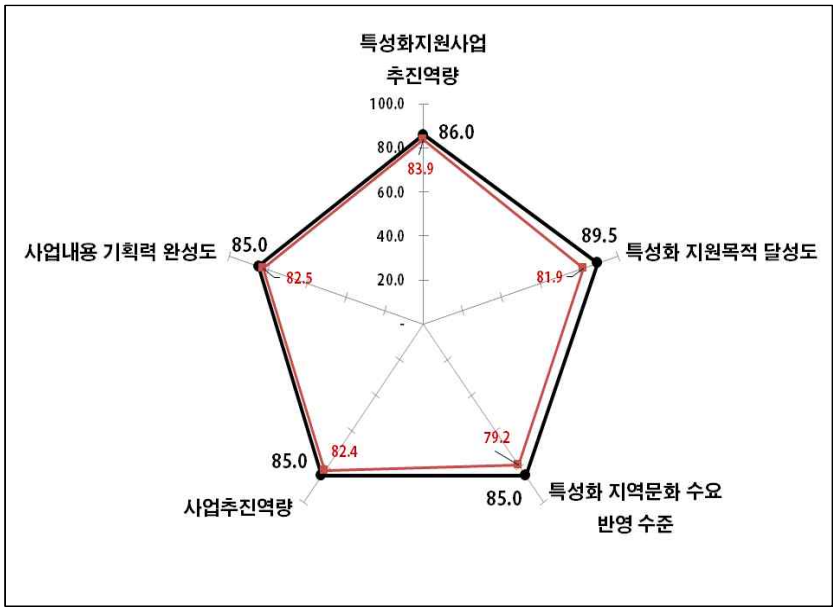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 432만원임. 광주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349만원(537백만 원/154건)으로 전국 12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선정률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성지원사업 재원 규모가 전국 15위(1위 서울 43억 원, 2위 부산 21억 원, 3위 강원 19억 7,200만원, 4위 대구 17억 3,100만원, 5위 전북 16억 5,880만 원)일 정도로 열악한데 따른 것으로,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광주 지역 6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육성지원사업 설계는 부족함. (위원 B) "광주지역 고유문화와 전통 보존계승에 기여하는 사업" 등 심의기준으로만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한 방향성이 부족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사례가 간단한 목록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움. (위원 B) 21개 지원사업 목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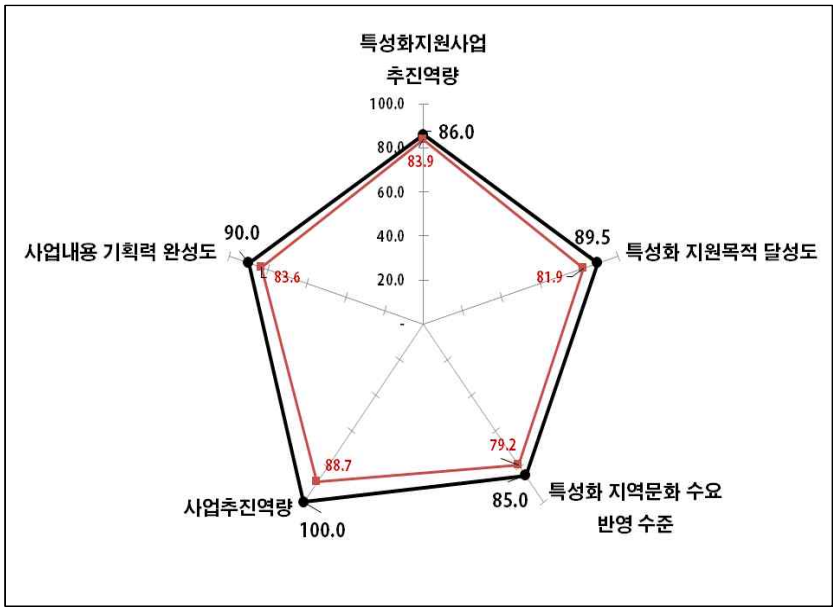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48] 광주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광주 지역의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85.0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5.0 점을 받았음
- 5개 사업 단체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5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이어서 전문예술법인 선정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음. 이는 지원심의 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모집한데서 이뤄진 결과임. 기획사업의 취지나 지역협력형사업이 보다 전문적인 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므로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1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선정된 단체와 재단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워크숍을 진행하고, 추진절차에 오류 없도록 추진해왔음. 또한 관련 기관이나 지역대학 등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성과 공유 워크숍 등으로 전체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지역의 근대유산 자료인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의 향토성을 발굴활용하고 공연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등 향토자료를 기획프로그램 자원으로 시도한 노력이 돋보임. 그 밖에도 무등산을 자연스럽게 연주회장으로 이끌도록 편백나무 숲 연주장으로 변모시킨 기획도 돋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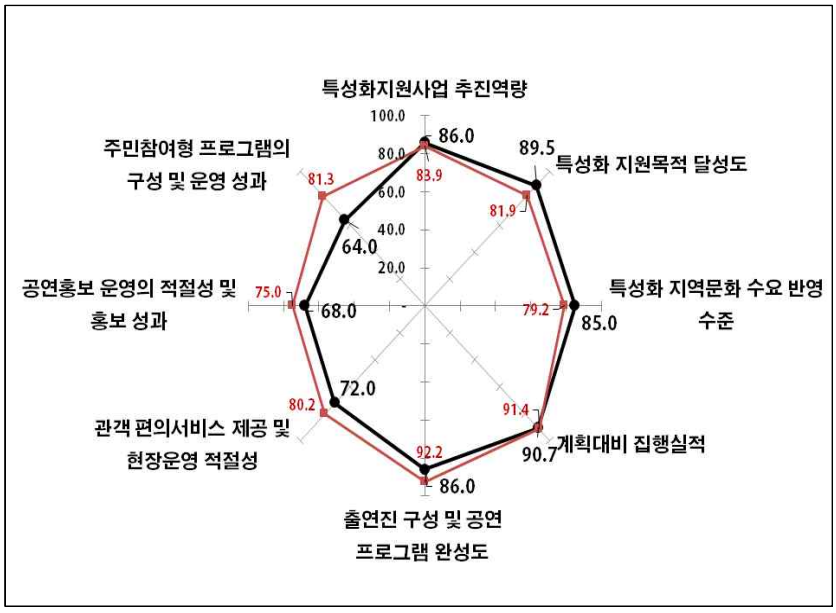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49] 광주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비율(33.3%)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사업 기획에 있어서 교류와 시민연계 프로그램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성과도 높은 편임.
- 국내외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고, MOU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관계 구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구축했으며, 그를 통해 자체 역량강화 효과를 발휘함.
- 지역의 문화예술적 특성은 재단 자체사업에 반영되고, 레지던스 지원 사업에서도 무등산의 생태를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 환경과 예술 간의 접점을 찾는 등 독창성이 반영되고 있음.
- 레지던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 등에 대한 고찰이 있고, 자체 평가지표의 개선방향도 모색되었음.
-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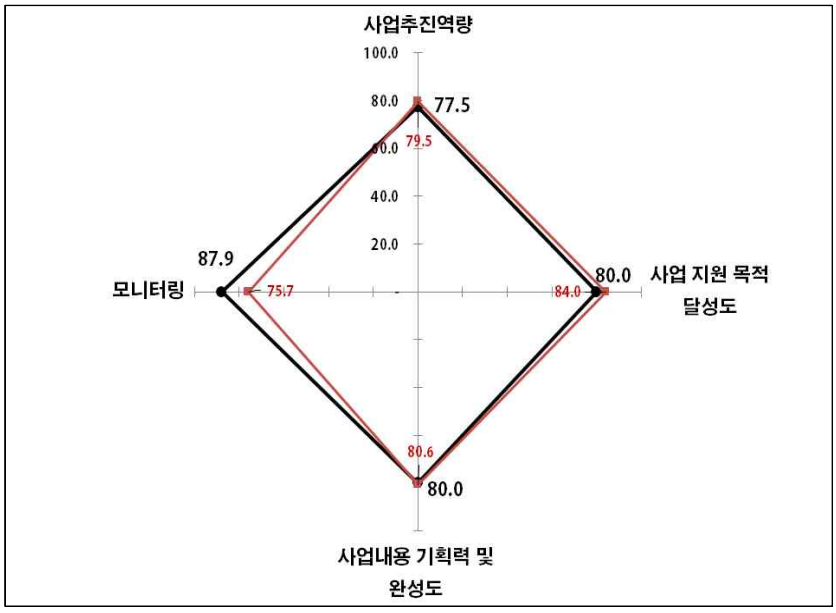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50] 광주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광주지역은 총13개 단체(신규4개 단체), 11회를 운영하였고, 6,33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음.
- 외부평가기관 의뢰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재단 위탁시설인 전통문화관 이용에 따른 전담직원 및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음.
- 모니터링단 운영 및 워크숍진행, 결과워크숍진행,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였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51] 광주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79.5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8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80.0점, 공연장 모니터링 87.9점임.

– 광주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0.5점임.

□ 14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는 10개 단체로 72%를 차지함. 선정단체 모두 지역 내 인지도 있는 전문예술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 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전문 인력 참여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주요이력 · 전공 등)가 미흡하여 전문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 광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연장상주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곳으로서 상주 2개 단체(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트컴퍼니 원), 비상주 1개 단체(그린발레단)와 함께 협력하여 '광산상주단체 페스티벌 투게더' 를 개최하고 2013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별도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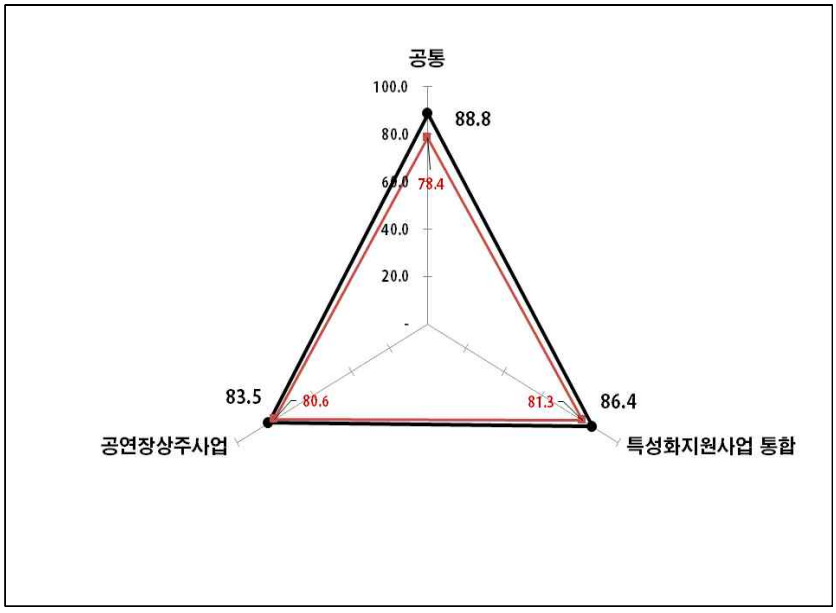
□ 호남 지역문화협력관의 컨설팅 등 일상적인 고유 업무에 따른 협력 이외에 공연장상주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상황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관내 축제 등 관련행사에 참여한 내용이 있으나 재단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내용 파악이 어려움. 컨설팅은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재단의 고유 지원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공연장가동율, 공연실적, 발표작품수, 참여인수 항목의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 목표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상주단체들로 사무국을 운영하여 '광주14색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함. 또한, 3개 단체가 서울 · 대전 · 부산 지역 공연장과 각각 교류활동을 벌임.
- 공연장상주사업 현장점검, 간담회, 개별면담, 선정단체 워크숍, 성과공유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다만, 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표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음.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지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를 재단에서 확인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제6절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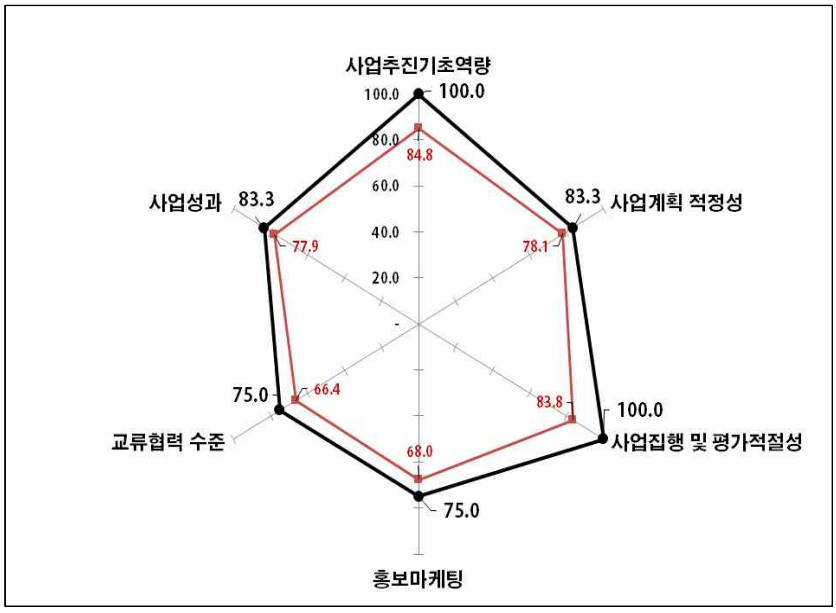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52] 대전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대전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90.0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93.3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1.8점으로 평가됨. 공통평가나 특성화 사업 부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에서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대전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추진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어 개별사업추진 역량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153] 대전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대전지역은 매년 공통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 가 높아지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6개 평가 항목 중 교류협력수준과 홍보마케팅 부문이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대전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평가보고서 첫 부분에 2012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상세하게 적어서 개선된 내용에 대해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대전 지역의 문화비전은 '창조와 융합의 문화예술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꿈이 있는 고품격 문화창조도시 구현'이라는 미션 하에 '창조적 문화 환경 지속강화 체계 구축', '융복합 문화예술 선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2020년까지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자기 주도적 경영혁신마인드의 일상화를 위하여 2012년 '내가 재단이다' 운동을 통해 책임, 전문성, 창의행정역량을 강화한데 이어 2013년에는 '내가 재단이다 2.0' 운동을 펼쳐 '고객가치창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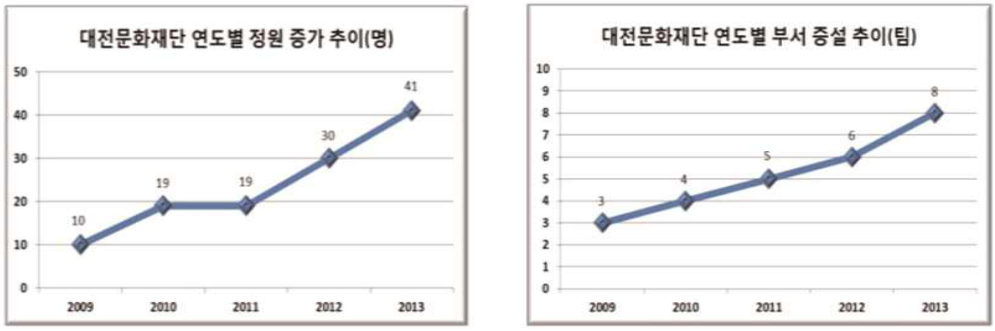
이것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이라는 재단의 4대 전략목표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사업으로 평가됨.

□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말 설립이후 2기 대표체제로 5년차에 들어서고 있으며, 재단의 활동영역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역량의 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직원 수와 부서가 늘어나 10명으로 출발한 재단 직원이 2013년 말 현재 4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년도	정원 (현원)	대표 이사	사무 차장	직원			
				2급 (나급)	3급 (다급)	4급 (라급)	5급 (마급)
2009	10 (10)	1 (1)	1 (1)	-	3 (3)	-	5 (5)
2010	19 (14)	1 (1)	1 (1)	1 (1)	3 (3)	2 (1)	11 (7)
2011	19 (17)	1 (1)	1 (1)	1 (1)	3 (3)	2 (1)	11 (10)
2012	30 (26)	1 (1)	1 (1)	1 (1)	5 (5)	4 (2)	18 (16)
2013	41 (37)	1 (1)	1 (1)	1 (1)	7 (6)	7 (1)	24 (27)

〈개정 `10. 1. 19〉〈개정 `10. 12. 23〉〈개정 `12. 6. 12〉〈개정 `12. 12. 21〉〈` 2013. 9. 12〉〈` 2013. 12. 20〉

[그림 154] 대전문화재단 정.현원표



[그림 155] 대전문화재단 연도별 정원증가 및 부서증설 추이

□ 대전 지역은 예술단체(예술인)의 연간 사업계획수립과 진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공모일정을 타 지역에 비해 약 1개월 앞당겨 조기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13년 1월 31일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음.

□ 대전 지역은 문화예술단체의 홍보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함. 7월, 8월, 11월 3차례에 걸쳐 각각 3일간의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기획 사례 및 광고홍보기획, 기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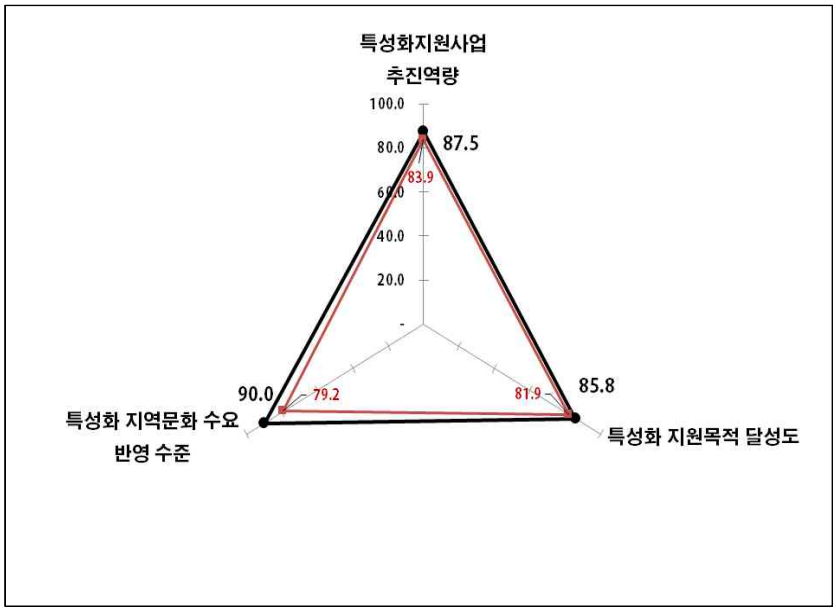
작성법' 관련 교육과 '대전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실무지식역량 강화' 교육과 '인문지식, 전시실무, 법률 및 행정, 세무, 공가운영' 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기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번	구분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실행 일정
1	사업계획 수립	13년 사업계획	' 12. 11월	' 12. 11월
2	지원신청 안내 공고	재단 홈페이지	' 12. 12. 4(화)	' 12. 12. 4(화)
3	사업 설명회 개최	대전광역시청 강당	' 12. 12. 5(수)	' 12. 12. 5(수)
4	지원 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 12. 12. 6(목)~12. 21(금)	' 12. 12. 6(목)~12. 21(금)
5	심의위원회 심의	다단계 절대평가	' 13. 1. 7(월)~ 1. 29(화)	' 13. 1. 7(월)~ 1. 29(화)
6	심의결과 발표	재단 홈페이지	' 13. 1. 31(목)	' 13. 1. 31(목)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설명회	대전광역시청 강당	' 13. 2. 18(월)	' 13. 2. 18(월)
8	보조금 집행 및 사업 평가	모니터링 현장 평가	' 13. 2. 19(화)~	'13. 2. 19(화)~
9	평가 환류	모니터링 20점, 정산 10점 반영	익년도 심의에 반영	익년도 심의에 반영

[그림 156] 대전문화재단 사업 추진 일정

□ 대전 지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차세대 신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 시각, 공연예술' 전 분야의 차세대 artiStar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2013년 55백만 원)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신진예술인들이 전국 규모의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57] 대전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대전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7.8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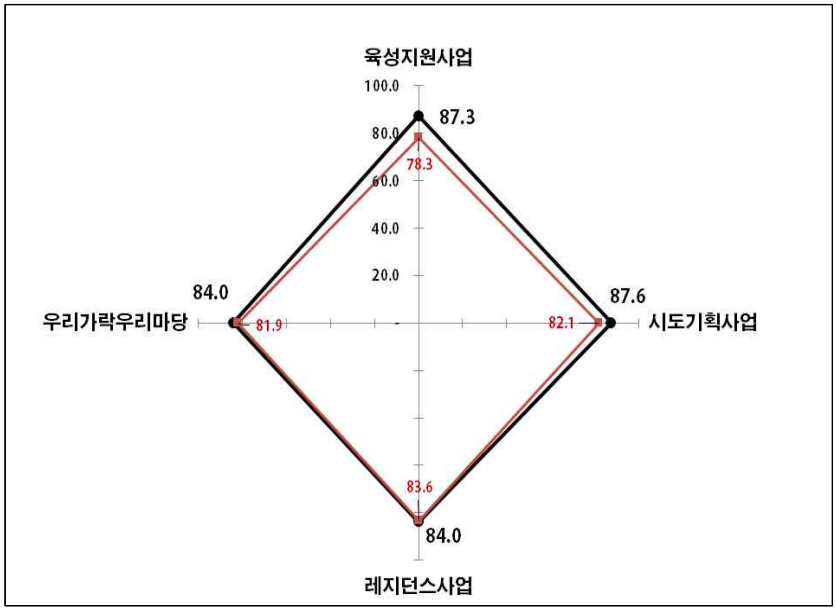
□ 대전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전국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대전 지역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소통체계확립을 위해 문화사랑방, 막월 문화포럼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막월 문화포럼은 매월마지막 월요일 재단 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의견수렴 창구로 2013년에는 9차에 걸쳐서 개최하여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막월 문화포럼에는 매회 30~40명의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회차	일 시	장 소	내 용(주제)
1차	4. 29(월) 16:00	재단회의실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의 이해와 전망
2차	5. 27(월) 16:00	재단회의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에 따른 전망과 과제
3차	6. 24(월) 16:00	재단회의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및 정책 과제
4차	7. 29(월) 16:00	재단회의실	대전예술, 국제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5차	8. 26(월) 16:00	재단회의실	대전예술의 발전을 위한 비평의 활성화
6차	9. 30(월) 16:00	재단회의실	대전연극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방안
7차	10. 28(월) 16:00	재단회의실	대전형 문화예술기부 활성화 방안
8차	11. 25(월) 16:00	재단회의실	공공미술 2.0시대의 대전형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9차	12. 30(월) 16:00	재단회의실	예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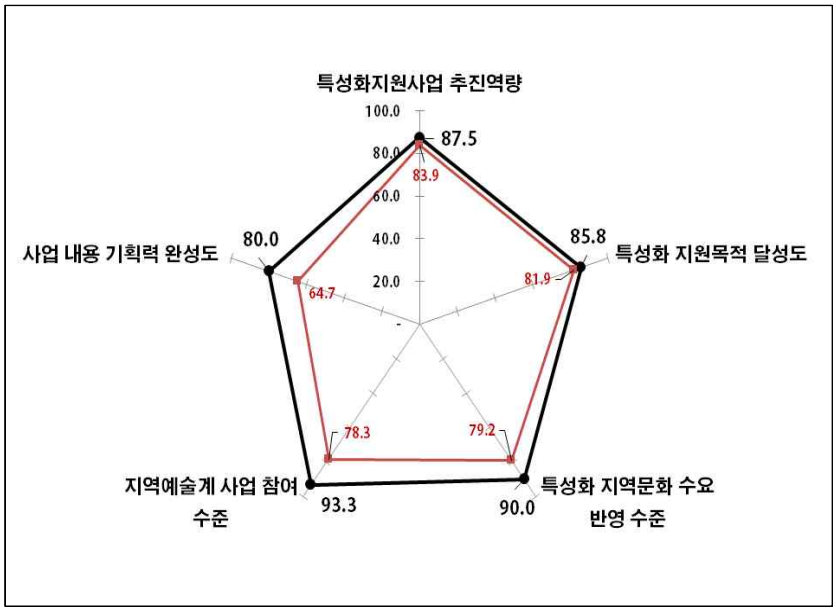
[그림 158] 대전문화재단 2013년도 막월문화포럼 개최내역

□ 대전 지역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현장평가와 관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장모니터링은 9개 분야 197건에 대해 전수평가를 진행하였고, 일반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73.9점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됨.



[그림 159] 대전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60] 대전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대전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4점(8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8점(8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2점(백분위 환산 시 88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로 대구 지역과 함께 전국 4위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대전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대전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28.0%(54/193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대전 지역의 경우는 9.8%(19/193건)의 비교적 낮은 비율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대전 지역은 2010년 이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예산(’13년 9억 700만원, 국비: 시비 30:70)은 모두 전문예술단체(개인) 지원으로 집행하고, 별도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속예술활동지원’ (1억 5,000만원)은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개인)를 지원하고 있어 육성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율은 0%에 해당함.
- ‘생활속예술활동지원’ 을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으며, 전문예술단체와 시민문화단체 지원예산 중 시민문화단체 지원예산의 비율도 14.2%(150/1,057백만 원)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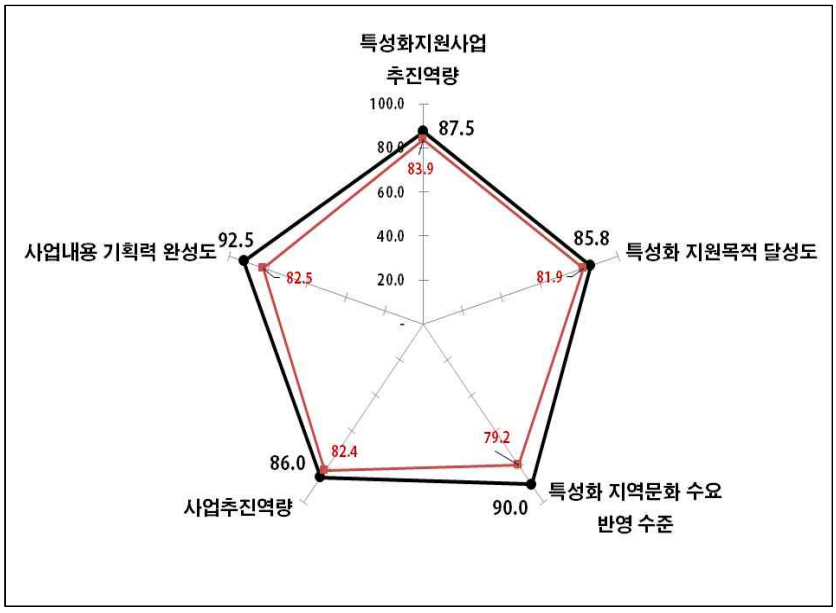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대전 지역 4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대전 지역은 2013년도 55.8%(193/346건), 2012년도 59.8%로, 2013년도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나 선정률을 4.0% 낮추었음.
- ‘평균 지원 금액’ (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 432만원임. 대전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548만원(1,057백만 원/193건)으로 전국 6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 4위 인천 783만원, 5위 대구569만원)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대전 지역 8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 (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사항을 제시함. (위원 B) 7차례 지역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함. 다만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한 고려는 약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 (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육성지원사업에서 일부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제시 (위원 B) 육성지원사업에서 일부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제시함. 조사평론활동 7건, 차세대지원 11건, 국제교류 4건의 목록과 간단한 사업내용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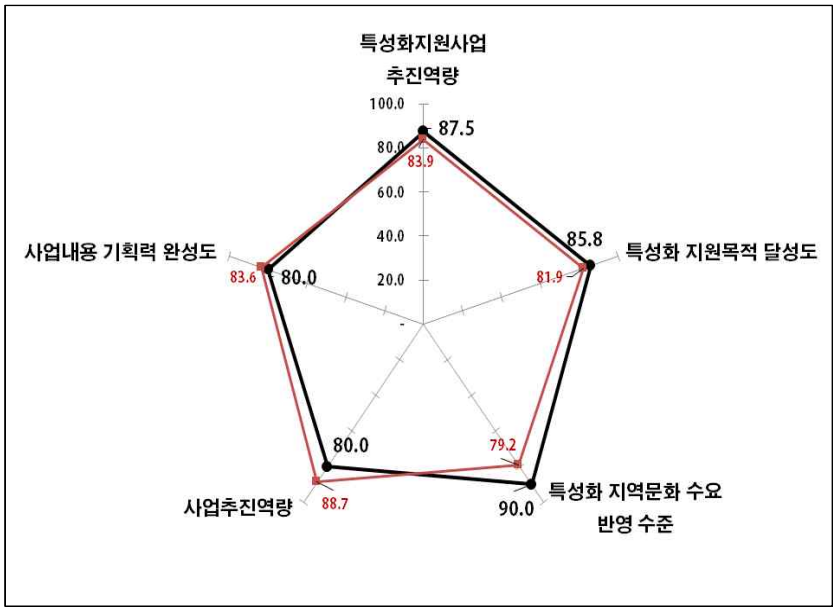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61] 대전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대전 지역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86.0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92.5 점임.
- 지역문화재단의 기획력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기획을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작가 선정 시 관련 경력에 초점을 두고 특별히 기획력 있는 인사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지역 특성 있는 주제로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내세우고, 융합콘텐츠의 발굴 확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독창성을 잘 살린 기획으로 높이 평가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음
- MOU를 다양하게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획사업 고유의 MOU라기 보다는 재단의 포괄적인 MOU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별로 실질적인 관계자와 MOU를 맺고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활동이 더욱 중요함.
- 지난해 성과를 발전시키고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을 새 사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전략으로서 바람직한 운영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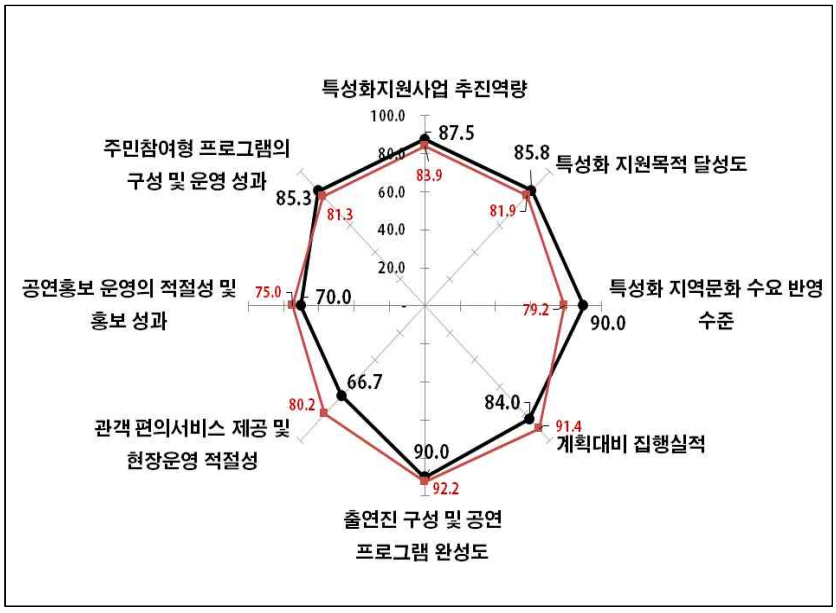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62] 대전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선정된 4개의 단체 중 한 단체는 해외 창작인력을 거의 1/2 수준에서 수용하는 등 지역의 개방성을 높이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창작인력이 대거 포진해 대학졸업 이후 동문 동아리와 같은 인상을 면하기 어려움.
-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4개의 기관 중 2개의 기관은 적극적이었으나 국내 기관과의 협력 사업만 서술되어 다소 안이한 수준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2개 기관의 협력 활동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큐레이터 등 사업 지원 시스템의 강화로 성실한 자료 확보와 기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함.
- 전국 유일의 판화 관련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등 사업의 고유성에 있어서 돋보임. 앞으로 이 레지던스 사업이 지속되고 정착된다면 대전 지역이 판화 전문 지역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겠음.
-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에게 공간이 활용된 사례로서의 대관형 활용에 대한 성과는 기술되고 있으나,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관 대상 기관명이나 사업명 등의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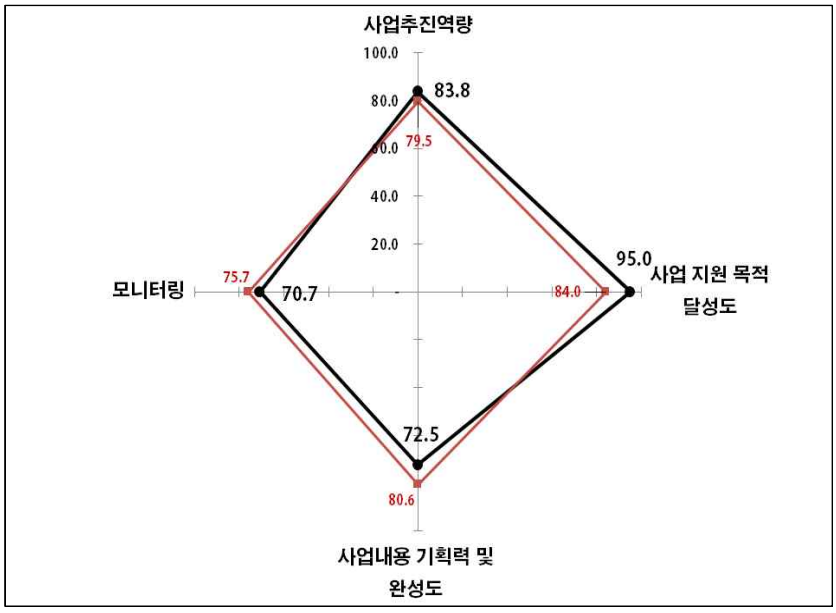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63] 대전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대전 지역은 총56개 단체(신규 35개 단체), 총15회를 진행하였음.
- 유림공원이 문화휴양지로 자리매김하며 우리가락우리마당 명소화 추진 함.
- 동참마당, 체험마당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 함.
- 조명, 음향 등 무대장치 개선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64] 대전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3.8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5.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72.5점, 공연장 모니터링 75.7점임.

- 대전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3.5점임.

□ 6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는 2개 단체로 33.3%를 차지함. 선정단체 모두 지역 내 인지도 있는 전문예술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 대전문화예술 기획ㆍ경영 아카데미, 대전문화재단 막월포럼(4회), 공연장상주사업 관련 문화사랑방(2회), 운영회의(2회)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 및 공연장 · 상주단체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짐.

□ 수행단체들이 지역협동조합, 교육기관, 지역 기업 등과의 MOU 체결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구축한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다만, 재단 차원에서의 상주단체사업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제시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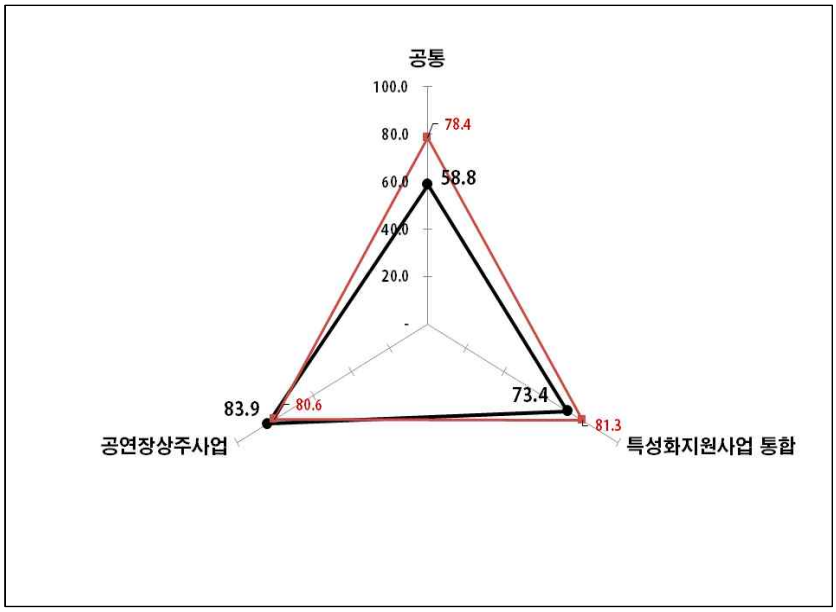
□ 대상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활성화' 와 '커뮤니티활성화'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두 유형 모두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공연장 가동률은 2개의 공연장

모두 80% 이상에 달함.

- 상주단체 (사)마당극패 우금치의 경우 제1회 창작국악극대상 '연주상'을 수상함.
- 대전도시공사 등 지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50,000천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대전문화재단 예술매칭펀드로 총 18,000천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함.
- 관객 총 240명(일반시민 120명, 문화예술단체(개인)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프로그램 만족도, 고객서비스 만족도, 행사장시설 만족도, 전체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83.54점, 일반 시민이 88.0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첨단 과학 도시 대전과 어울리도록 과학기술과 공연예술을 접목시켜 퓨전 창작무용(권숙진 청연무용단의 '상상지몽'), 광장극(우금치의 '돼지잔치') 등을 제작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함.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예술로 나누는 공감(共感)'을 개최함. 또한, 지역 간 교류프로그램으로 권숙진무용단의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워크숍을 개최함. 공연장 · 상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함. 또한, 지역 내 2개 공연장이 상호 교환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지역 간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사랑방(3회), 운영회의(2회) 등을 통해 공연장 · 상주단체간의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사업개선이 이루어짐. 다만, 주단체와 공연장과의 관계 설정, 상주 조건 협의(연습실, 퇴실시간 등)에 대해 재단의 중재 · 조정 역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됨.
- 지역민이 요구하는 지역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4개의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원도심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을 추진하였음(10회).

제7절 울산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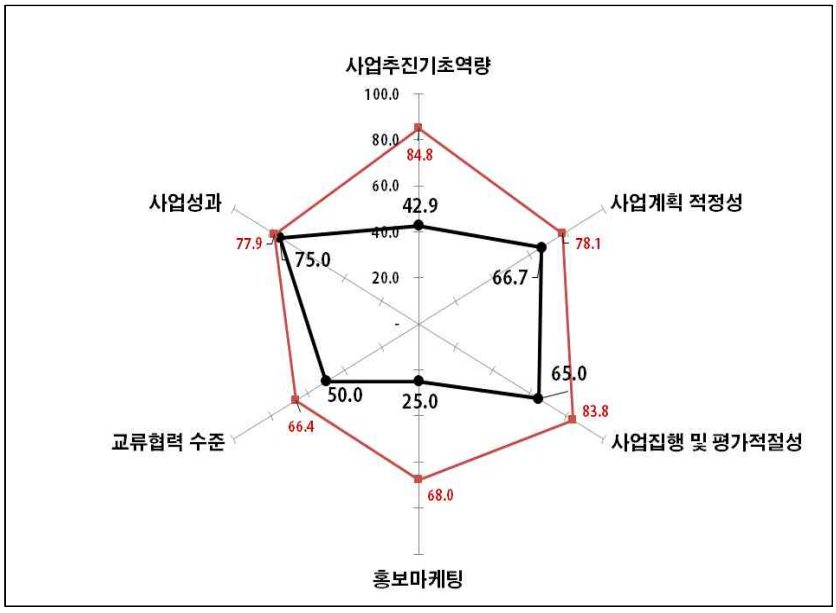


[그림 165] 울산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울산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문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58.8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73.4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3.9점으로 평가됨. 공연장상주사업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2개 부문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 울산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공연장상주사업과 레지던스지원사업은 한 등급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재단 미설립 지역 중 하나인 울산지역은 개별 사업별로 다양한 평가 결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지원주체인 울산광역시의 지원사업 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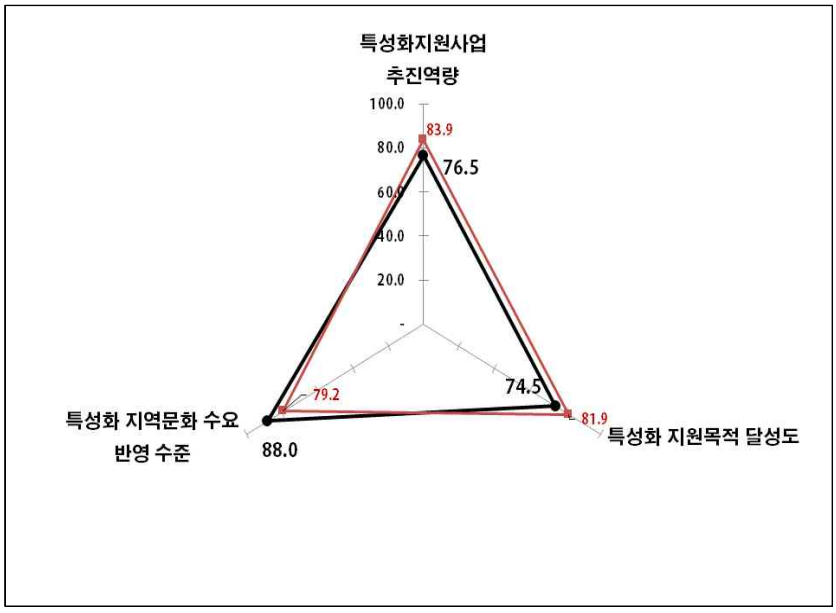
[그림 166] 울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울산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평가 항목별로 고르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추진 기초역량과 홍보마케팅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지역은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문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기반조성',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이라는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울산의 비전인 '즐거운 도시, 활력 있는 삶, 문화예술도시' 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3년 울산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4월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울산 지역은 특히 산업도시로서 메세나 운동을 통해 52개 기업체가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울산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력의 지역정착화' 를 위한 활동으로 '문화예술인촌 조성',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확대', '지역출신

문화예술인 귀향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 대학원의 예술경영자과정 개설' 등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해양문화관련 산업 육성', '만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임.

- 울산 지역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5대 중점 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전문 인력 부족하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 인력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울산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 지역 문화예술기관이나 협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예술가와 자발적인 민간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지역은 다른 사업보다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첫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국대회에서 대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67] 울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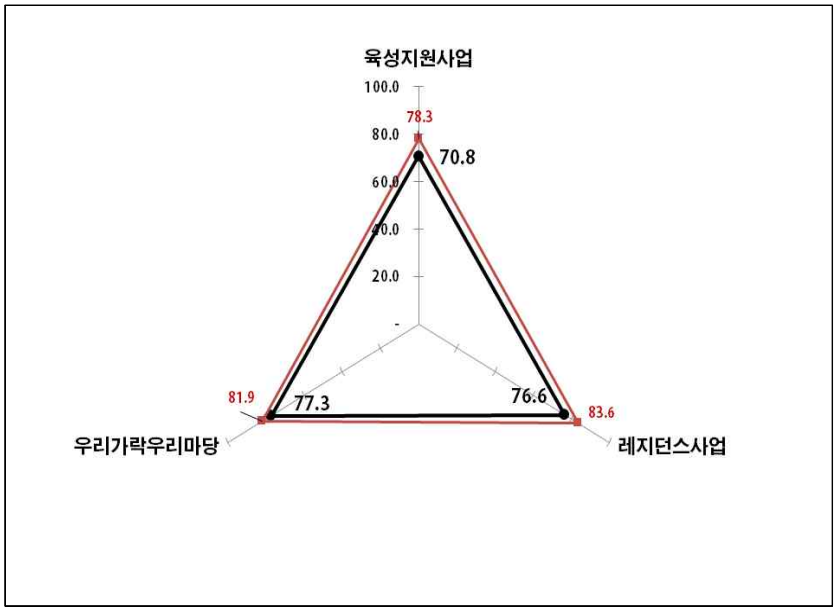
- 울산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79.7점임.

□ 울산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중 특성화지역문화 수요 반영수준만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2개 항목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울산 지역은 지원사업 참여 단체(개인)의 자격조건을 공고에 게시하고 전문예술단체 기준을 제시하여 수혜단체들에 대한 참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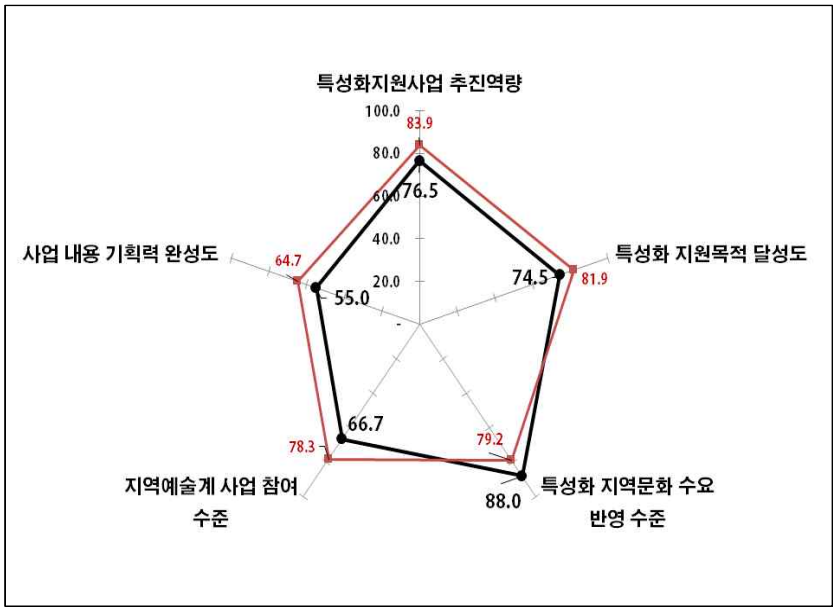
□ 총 84개 사업 중 사업비 8백만 원 43개 사업과 사업비 8백만 원 미만사업 25개 사업을 포함 총 68개 사업을 평가하였음.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의 참여 없이 전문가 평가단이 관람객 3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관람객 조사대상자 수가 작품당 3명씩으로 너무 적은수의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져,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울산 지역은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수요를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관심도 및 문화예술활동', '울산 문화예술자원현황', '문화예술정책'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수요와 문화향유활동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됨.
- 울산 지역은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주로 예술단체 중 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등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관련 기관, 협회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민간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와 수요파악을 위해 폭넓은 대상이 참여하는 간담회, 포럼 등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168] 울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69] 울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울산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7점(백분위 환산 시 7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3점(6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5.5점(5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5.5점(백분위 환산 시 62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다소 못 미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재단 미설립 지역(2013년 기준 울산, 충남, 전북, 경북) 평균점 6.8점, 울산 지역 7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울산 지역은 21.4%(18/84건)로,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회·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울산 지역의 경우는 84건 중 15건, 비율 17.9%로, 워크숍을 통해 평가위원 간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합의한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울산 지역은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 여부,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음. 육성지원사업에서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은 1.8%(13/719백만 원)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점 1.8점, 울산지역 3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울산 지역은 2013년도의 경우 57.2%(84/148건)로 2012년도(55.6%)보다 약간 높아 졌으며, 전년도에는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2013년도의 새로운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는 수준임.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 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 415만원임. 울산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856만원(719백만 원/84건)으로, 전국 2위(서울 1,211만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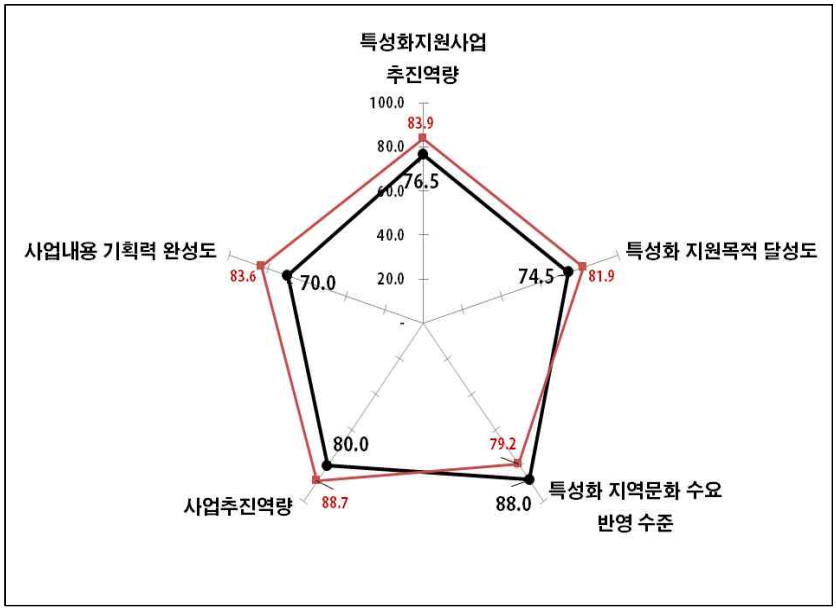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재단미설립 지역 평균점 3.8점, 울산 지역 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간단히 제시됨. (위원 B)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과 지리적 생태적 특성, 독창성이 고려되어 반영되었는지, 지역의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 시 반영한다고만 간단히 언급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사례 제시됨. (위원 B)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15개 사업에 대한 목록과 개요를 제시하고 있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 울산 지역은 시·도기획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70] 울산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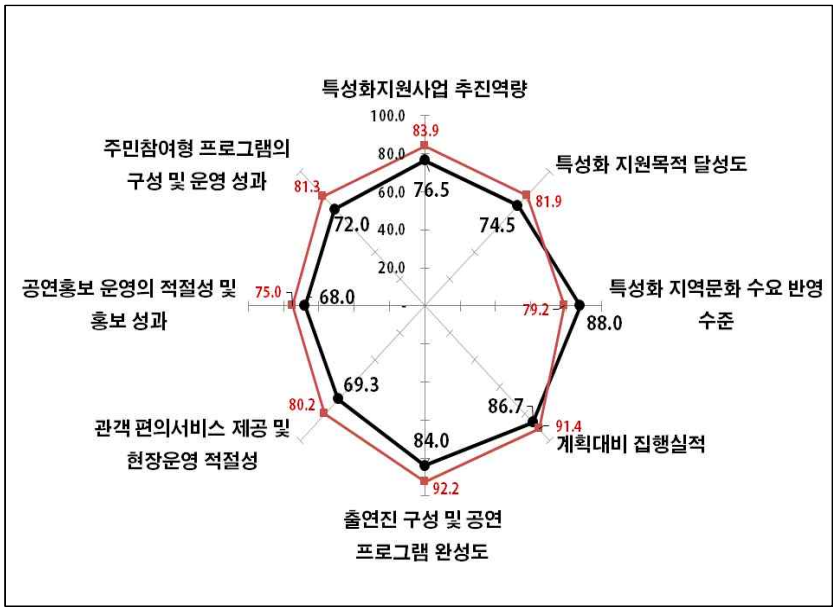
□ 2개의 선정된 단체가 전문성에 있어서 다소 격차가 있어, 안정적으로 전문성이 구축되었다는 판단 난이

□ 국내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소재 대학이나 국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과는 미비함.

□ 지역고유의 특성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어,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으로 연결될 수 없음.

□ 지역의 문화계나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 등의 서술은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누락되어, 자체 평가 문장만으로는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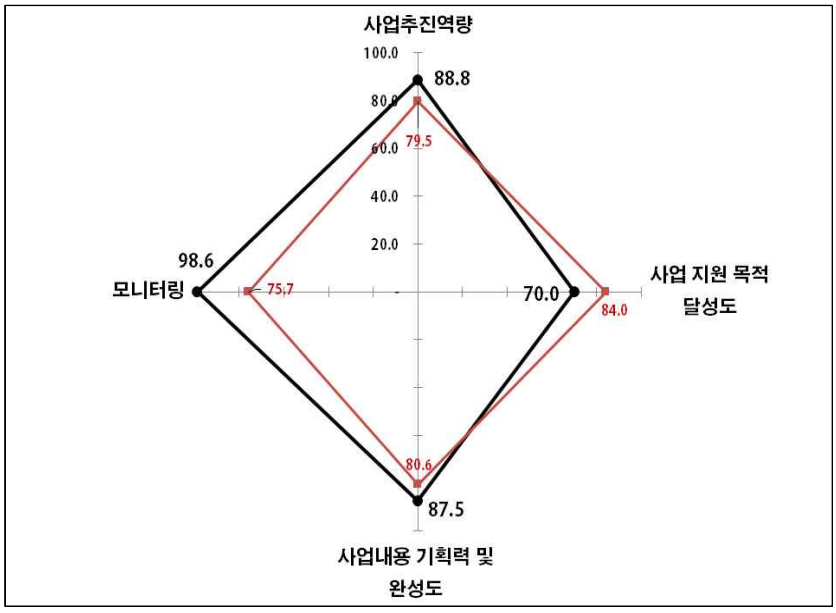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71] 울산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울산 지역은 10개 단체(신규1개 단체), 총 10회를 진행하였음.
- 울산대공원 남문SK광장을 국악공연 명소화로 추진하였지만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시설투자에 사용함. 우천대비시스템 확보 필요.
-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 국악단체들을 초청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공연장 시설의 열악성 개선과 시스템 확보가 시급함.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72] 울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8.8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7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87.5점, 공연장 모니터링 98.6점임.

- 울산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3.9점임.

□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3개 상주공연단체가 중앙소공연장에서 1개 상주공연단체가 상주사업을 추진함. 4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는 2개 단체로 50%를 차지함.

□ 특히,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로서 공연장의 전문기획자와 3개 단체가 협력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

□ 제 2회 북구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을 사업 초기에 개최(2013. 4. 10~4. 23)하는 팀워크와 역량을 발휘하였음. 전 좌석이 조기에 매진됨.

□ 북구의 경우 북구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협의 운영하고 있음. 지역 간 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울산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수행 4년(2011~2013년) 성과 자료집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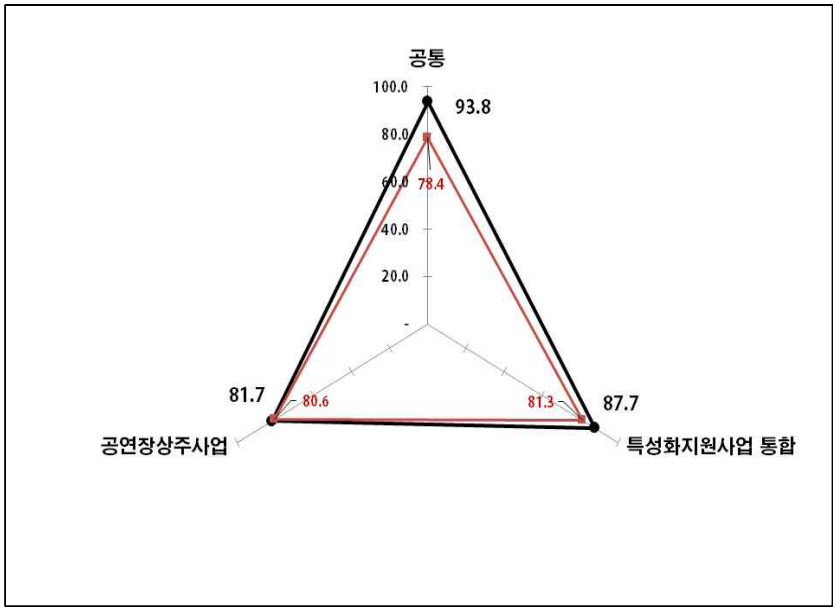
□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공연장상주단체 문화사랑방 개최, 영남권 공연장상주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등을 통해 사업 참여 공연장과 예술단체 관계자 대상의 교육, 워크숍을 추진함.

- 관내 자치구, 지역문화원, 지역대학, 처용문화제 지역축제조직, 울산문화예술회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2회 북구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에서 지역이외에도 타시도,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함. 풍물예술단 버슴새는 메세나기업인 경남은행과의 자매결연을 맺음.
- 공연장상주사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공연장에서는 총 지원금의 20%를 홍보비로 받아 홍보와 기획, 티켓판매와 배부를 공연장에서 일괄 지원하며 예술단체는 공연장 연습공간 제공과 공연에만 전념하여 홍보 및 관람객 확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실천해 옴.(ex,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티켓판매 및 홍보=공연장, 공연섭외 및 공연=예술단체)
- 공연/전시/행사실적, 발표작품수, 예술교육 참가자수/관람객수, 참여예술가수 항목의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 목표 대비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 공연장상주사업 관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간담회, 교육, 문화사랑방 등을 통하여 요구를 수렴하고 있으나 지역 문화수요 반영 자료는 불충분함.
- 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표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음.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지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를 지역에서 확인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제8절 경기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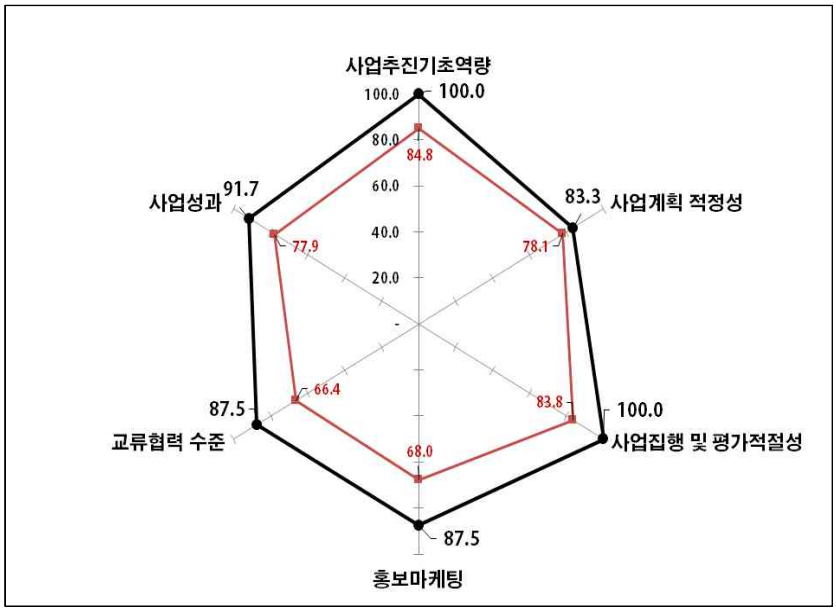


[그림 173] 경기 기역 종합 평가 결과

□ 경기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평가는 93.8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7.7점, 공연장상주사업부문은 81.7점으로 평가됨.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공연장상주사업부문에서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경기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추진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174] 경기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경기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평가 항목별로 전국평균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가 항목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추진기초역량과 사업집행 및 평가적절성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문화재단은 '마법과도 같은 문화예술의 힘으로 도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다'는 뜻에서 '행복한 삶을 가꾸는 아름다운 마법, MAGIC Q!'라는 비전을 세우고 비전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Museum), 문예창작(Arts), 경기문화재단(Governance), 경기문화의 정체성(Identity), 문화시민(Civic Culture)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비전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비전은 '아름다운 문화예술', '행복한 문화시민', '함께 가꾸고 나누는 지혜'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문예지원사업의 비전과 연결되어 3대 전략목표(전문예술창작활동 집중지원, 예술창조와 향유자로서의 문화시민, 재단 특화사업 브랜드화)에 따른 7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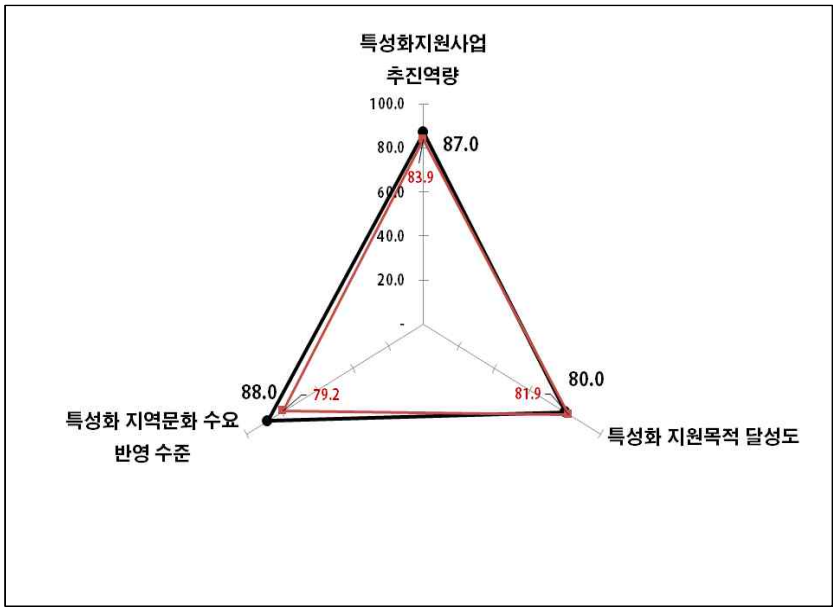
- 경기문화재단의 육성지원사업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별별예술프로젝트 지원', '전문예술창작발표 지원', '전문예술연구출판 지원' 사업의 4대분야로 나뉘어 재단 자체 또는 기초재단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2013년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최초로 무기 · 전문 계약직 3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를 단행하여 숙련된 전문인력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함.
- 성과 목표 유무 및 적합성에서 전문예술창작발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극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희곡지원(1단계)->쇼케이스 제작지원(2단계) ->우수작품 극장초연지원(3단계)의 과정으로 지역의 대표 레퍼토리로 활용할 수 있는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함.
- 예술이 흐르는 공단은 도내 공단 근로자의 일터에서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기업)과 예술의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문화예술파트너쉽의 모델을 개발하는 성과를 가져옴.
- 경기 지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및 평가환류 시스템을 통해 우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미흡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대 공모지원사업별 평가제도 운영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 전문평가단 – 공연장상주단체, 전문예술창작발표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별별예술프로젝트 ○ 지원사업자 간 상호 교류모니터링 - 우리동네 예술편지 ○ FGI(포커스그룹 인터뷰) – 커뮤니티 사이트 ○ 공모지원 심의위원들의 제안 의견 수렴
심층 평가 진행	**서류검토와 현장방문, 평가회의와 보고서 작성** ○ 평가단의 지표개발, 서류검토, 현장평가, 평가단회의 진행 ○ 성과보고회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사업담당자 현장 방문 확대(10여회 → 50회) 및 평가회의 참석
평가 결과 익년도 사업에 환류	**사업 신설, 수정보완,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평가 환류** ○ 사업신설 -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지원사업 신설 ○ 수정•보완 - 공연장상주단체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로 전환 전문예술연구출판 책자발간에서 창작지원금으로 전환 별별예술프로젝트 지원금 증액, 예술로Job 사업 일몰 전문예술창작발표 지원비 부분적 감액 및 후속지원 증액 ○ 심의반영 - 우수단체 우선지원, 미흡단체 선정 제외

[표 74] 경기문화재단 평가 및 환류 체계

- 지원사업자간 상호 교류 모니터링제도인 〈서로에게 보내는 예술편지〉사업은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선정자들이 다른 단체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편지로 작성하면 재단 톡톡 커뮤니티와 아트 〈우리동네예술편지함〉에 게시해서 공유하는 사업으로 다른 단체의 사업내용과 방식을 참고하여 다양한 사업구상과 상호 교류, 협업 촉진하는 모니터링을 통한 예술단체간 협력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 경기 지역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재단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재단 공식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홍보, 재단 통합 뉴스레터 16회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커뮤니티아트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보였음. 이런 통합 홍보활동 이외에도 전문예술창작발표 사업 선정 공연단체 쇼케이스(PAFe 2013)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지원, 예술이 흐르는 공단사업의 도록과 리플렛 제작, 배포, 보도자료 배포 추진, 공연장 상주단체 레퍼토리북 제작 및 소규모 페스티벌 개최지원등의 충분한 홍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기 지역의 사업성과 중 비계량 사업 성과로 제시한 사업 몇 개를 살펴보면, 상주사업 지원단체인 '예술무대 산' 은 2012 유니마 세계인형극축제 최고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극단 '하땅세' 는〈태양극단〉과의 교류공연과 워크숍결과가 2013 예술경영컨퍼런스 우수사례로 선정됨. 시도기획지원사업인 커뮤니티와 아트 사업 지원 단체인 배영환 작가는 〈내일을 여는 책방〉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75] 경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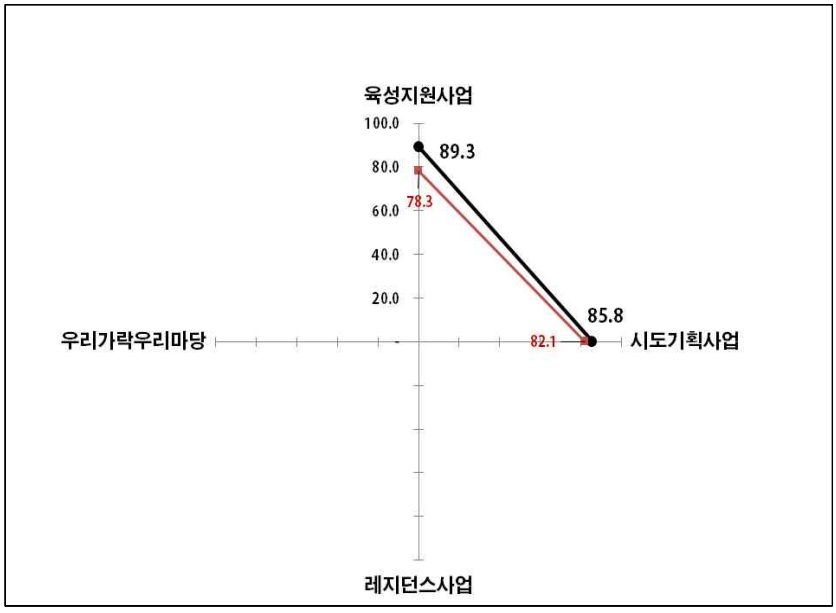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경기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5.0점임.

□ 경기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중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항목에서 평균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2개 항목은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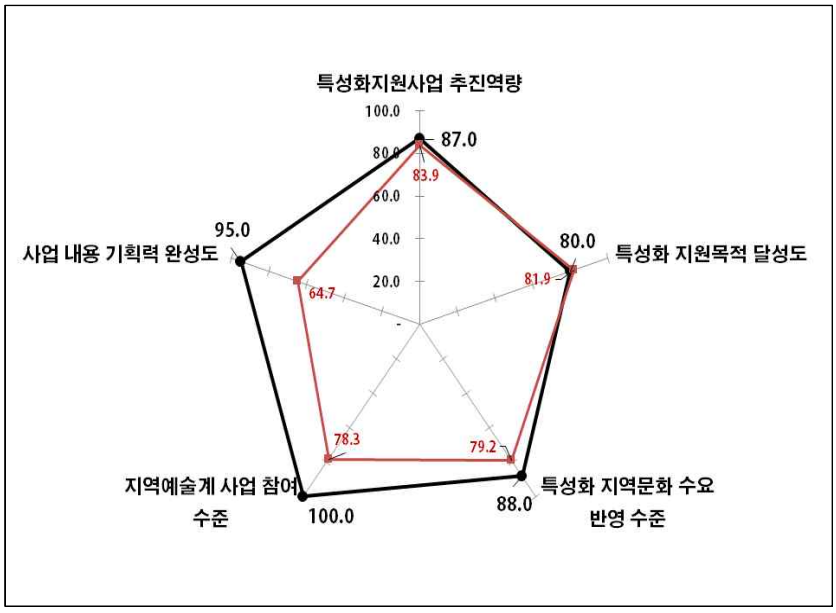
□ 경기 지역의 2013년도 선정사업 중 기존단체 재선정건수 16.2%로 신규 지원 비율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남. 사업특성으로 볼 때 전문예술 연구출판사업의 경우는 100%신규지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 신규 지원 비율이 너무 높아 기존단체가 연속사업으로 기존의 사업을 지속시키고 확대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신규지원 단체는 한 번도 지원신청을 받은 적이 없는 신진예술가(단체) 참여비율을 확인하여 각 지역이 신규예술가(단체)의 발굴과 육성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자료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신규단체 지원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선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지역은 2013년에 도 매칭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지난해와는 달리 1:1매칭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지역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시만족도는 64%, 문예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3.0%로 지난해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경기 지역은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사업별 간담회와 평가회, 운영회의를 통하여 상시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문화예술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FGI를 공연예술분야 관계자, 문학관련분야 관계자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지원사업 참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49명의 수혜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한적인 수요분석을 시도하였음.



[그림 176] 경기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77] 경기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경기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5점(1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9.5점(9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24.5점(백분위 환산 시 98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이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임을 고려할 때 매우 뛰어난 점수로 전국 1위에 해당함.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평균점 9.3점, 경기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 경기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83.8%(119/142건)로, 전년도(78.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연구진 워크숍에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역시, 육성지원을 통한 전문 예술단체(인) 역량 강화와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경기 지역의 경우는 142건 중 16건, 11.3%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경기 지역은 육성지원사업을 네 개의 세부사업(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별별 예술프로젝트, 전문예술 창작발표, 전문예술 연구출판)으로 구성하여 도민예술활동 단체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의 지원금 배분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배점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 평균점 5점, 경기 지역 5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는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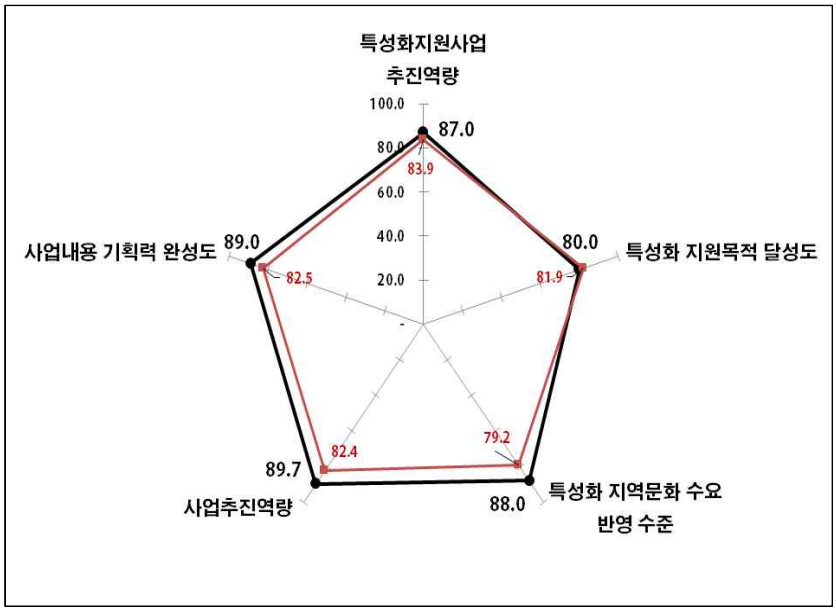
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경기 지역은 32.8%(142/432건)로 2012년도 26.6%에 이어 각 연도 설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 521만원, 수도권 평균 지원 금액 930만원임. 경기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 795만원(1,130백만 원/142건)으로, 전국 3위(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856만원) 수준임.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 평균점 7.7점, 경기 지역 9.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극예술콘텐츠 지원을 위해 전문예술 창작발표사업을 지원함(지역소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지원하여 집중 육성함). (위원 B) 지역문화자원(민담, 설화, 역사, 인물)을 활용한 극예술 신작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자원 발굴 - 희곡작품화 - 초연지원 방식으로 단계별로 집중 육성함. 평가위원 합의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전문예술창작발표지원사업 중 PAFe2013이라는 선정작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브랜드화함. (위원 B) 지역문화자원 소재 희곡 3개 작품과 쇼케이스 5개 작품을 선정 지원하고, 선정작 발표회(PAFe2013)를 개최함. 평가위원 합의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178] 경기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경기 지역의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89.7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9.0 점임.
-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적을 갖춘 단체를 선정했고, 재단과 주체의식을 공유한 단체를 선정하고, 협의와 네트워크 활동이 뚜렷한 단체를 선정하는 등 일단 역량을 갖춘 단체를 적절하게 선정했음.
- 경기 지역에 광범위하게 입지하고 있는 공단의 특성을 살려 기획했으며, 시·도기획사업에 대한 인식공유 과정을 거침.
- 재정거버넌스를 잘 살려서 기업 매칭 등 2억 원을 포함해서 시·도기획사업에 총 4억 원의 경비를 활보하는 등 사업진행 전국에서 최다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자주적인 노력이 돋보임
- 협력적 활동을 위해 경기도 내 21개 복합공단 등의 협력의지를 확인했고,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렵하여 공동기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 사업관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돋보여 기획사업과정에 적절하게 활동했음.
- 커뮤니티사이트 만들기, 공무원 공공미술아카데미 운영 및 학점승인제 등은 온 오프 상에서 기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문화부로부터 공공디자인 부분 최우수상을 받게 됨으로서 그 수준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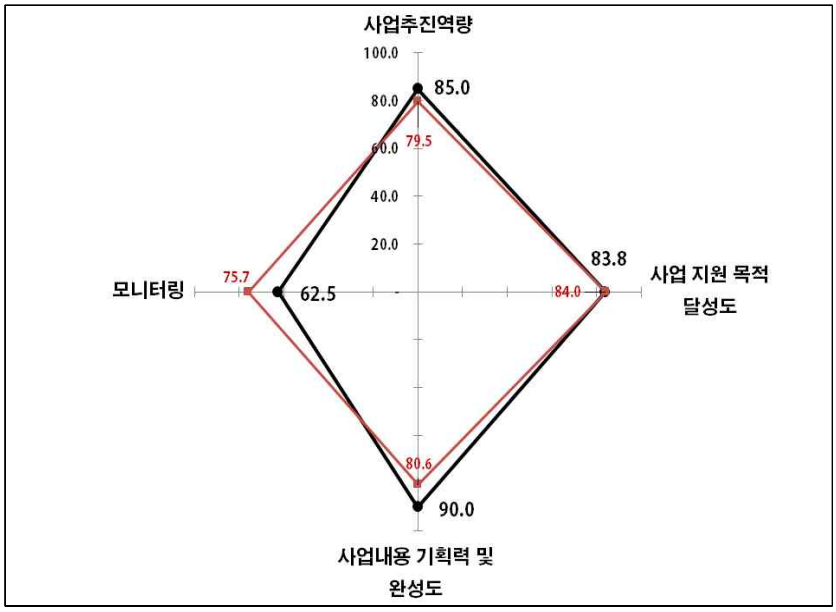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경기 지역은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경기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79] 경기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5.0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83.8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90.0점, 공연장 모니터링 62.5점임.

- 경기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1.7점임.

□ 경기 지역은 공연장상주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2~4년차 연속지원 대상 단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평가 환류를 강화함.

- 상주단체 심의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와 평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 평가위원 중 1~2인을 심의위원으로 구성
- 전문 비평가와 연구원이 2인 1조로 각 단체별 3회씩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총 4회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총 60여회 모니터링)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예술단체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의견서를 제시하여 단체의 역량 강화와 발전 촉진
-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지표에 따라 점수와 등급 부여
- 상주단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 등급은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하 등급은 연속지원에서 제외

□ 21개 공연장 22개 예술단체가 수혜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공연장 · 상주단체가 14개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정된 전문예술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공연장 및 상주단체의 전문 인력 참여 명단을 제시하였으나 주요이력, 전공 등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여 전문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움.

□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와의 협력활동이 활발함. 다만, 타 관련기관과의 협력 활동에 관한 제시가 없음.

□ 공연장상주단체 워크숍(1박2일간)을 통해 공연장 및 상주단체간 교류를 촉진하였음. 공연장상주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시행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35개 단체 참여)하고 이를 워크숍 계획에 반영함. 또한, 공연장상주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함.

□ 워크숍 사전 설문조사 및 참여단체 의견개진을 통해 상주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주단체 역량강화와 교류, 협업을 촉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 교류지원 사업을 신설함.(3개 사업에 10개 단체가 협업, 총 8,000만원)

□ 공연장이 자체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공동기획·제작함으로써 협력 사업 확대 및 예산의 일부 추가 조성 효과를 거둠.

□ 극단 하땅세는 상주단체 교류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프랑스 〈태양극단〉과의 교류공연과 워크숍 결과 2013 예술경영컨퍼런스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후속지원 혜택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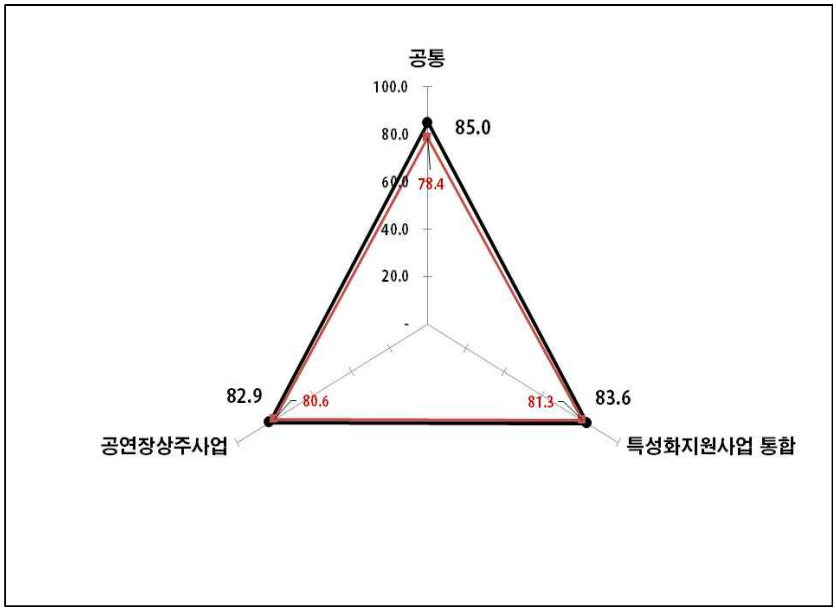
□ 2012년 대비 국고 50백만 원 상향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는 65백만 원이 감액됨. 국비 858백만 원 대비 도비 743백만 원으로 매칭비율이 1 : 0.9로서 수도권 지역 1 : 1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전체 지역 중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음.

□ 만족도 조사는 공연 관람객과 관객개발 프로그램 참여자 1,111명을 대상으로 7개 단체를 부분 조사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과천시민회관의 극단 모시는사람들은 해방 전후 늙은 '경마'를 소재로 하는 작품 〈내꺼야〉를 제작하였고 마사회 후원으로 2014년에 재공연 예정임. 또한, 백남준아트센터의 가네샤프로덕션은 백남준을 기리는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작 〈로보사피엔스 춤추다〉 를 제작함. 포은아트홀의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는 용인 심곡서원을 활용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심곡서원에서 조광조를 만나다〉 개발하여 서원에서 시범 운영함.

제9절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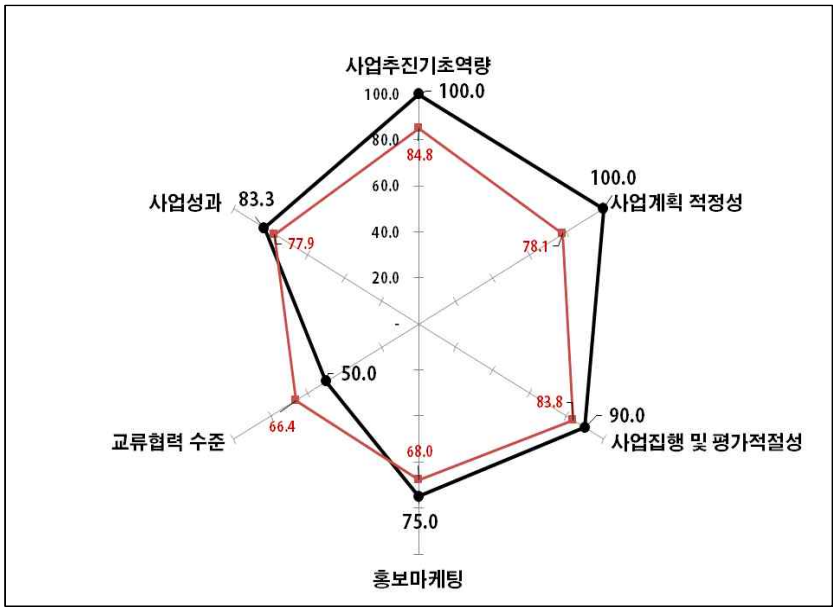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80] 강원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강원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평가는 85.0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은 83.6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2.9점으로 평가됨. 전국평균을 모두 상회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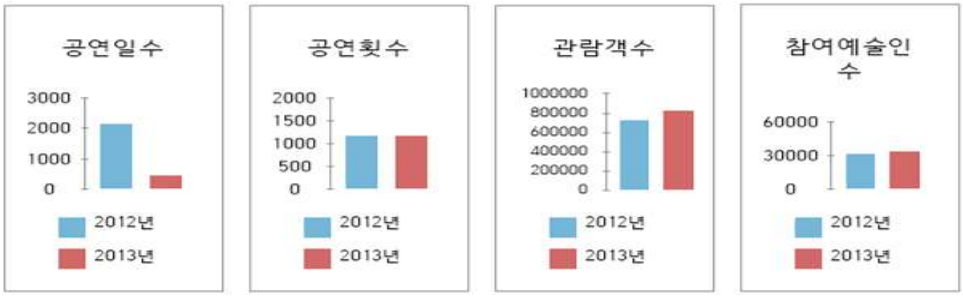
[그림 181] 강원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강원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홍보마케팅 및 교류협력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강원 지역은 '강원문화의 가치제고로 세계 속의 문화강원 실현' 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강원문화 가치 세계화', '문화예술 진흥기반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조' 라는 3대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 강원 지역은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사업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각각 70~90명까지의 예술단체(예술인)가 설명회에 참여하였음.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차원의 평가체계를 확보하고 운영하였음. 지원사업 선정시의 심의위원을 전문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사업의 추진과 진행에 대한 확인 및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지원사업 심의위원이 최종 성과 평가 시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목적의 달성도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여 연속적인 심의-평가-환류의 체계를 구축하였음.

- 지역문화수요자와 소통노력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채널 확보여부에 대해서,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월평균 1만 명 수준 방문), 강원문화재단 대표 블로그 운영(방문자수 11,460명), 강원문화재단 페이스북 운영(친구 814명)을 통해 도민대상으로 문예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인쇄홍보물을 통해 도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문화예술전문가 토론회, 사업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이슈, 화제 및 지원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문화사랑방을 개최하였으며, 지원사업 안내 및 계획서작성, 회계 및 세무교육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도 개최함. 다양한 대상들을 타깃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육,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나 개별 예술단체들의 실질적인 홍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 워크숍이 만들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 간,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에서 재단직원의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은 지역협력형사업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수행 단체들 간의 지역 내, 지역 간의 교류 워크숍 및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교류 워크숍 등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강원 지역은 각 사업별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도표와 그래프로 전년도 사업성과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지원방침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기관, 협회 등 1개 단체가 한 분야에서 2~3건씩 사업을 독식하던 사례가 줄어들면서 지원사업의 체계가 전년도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공연일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참여예술인수
2012년	2,143	1,164	718,676	30,882
2013년	444	1,172	815,147	32,969
증감	–1,699	8	96,471	2,087

[표 75] 강원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성과 비교



[그림 182] 강원문화재단 육성지원사업 성과 비교

□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꿈동이 인형극단'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초청공연 사례, 도내에서 전무하던 스펙타큘라 클래식 공연인 '감자콘서트', 시장 내 설치미술전시 및 음악창작, 문화복덕방 운영 등이 결합된 '예술로 연주하는 시장' 사업, 공연장상주단체 4개 단체의 연합 페스티벌 사업 등을 들고 있는데, '감자콘서트'는 규모도 크고 순회공연을 통해 대형 클래식 공연 접촉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방문하여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다만, 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의 예술계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때, 대형 이벤트 형태의 공연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브랜드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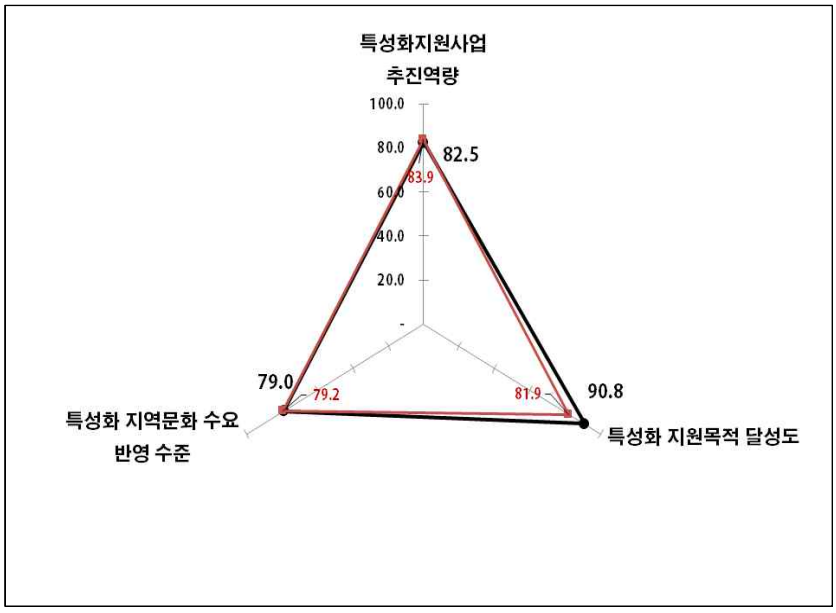


[그림 183] 강원문화재단 '감자콘서트'



[그림 184] 강원문화재단 원주전통시장 - 예술로 연주하는 시장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85] 강원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강원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4.1점임.

□ 강원 지역은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항목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평가됨.

□ 강원 지역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2년 19%에 이어 2013년도에는 30%의 신규단체 선정으로 적절한 선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권역을 나눠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신규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예술인, 예술단체들의 협력 소통체계를 위한 노력으로 강원지역은 매월 2차례씩 총 16회에 걸친 문화사랑방을 개최하여 주제별 토론,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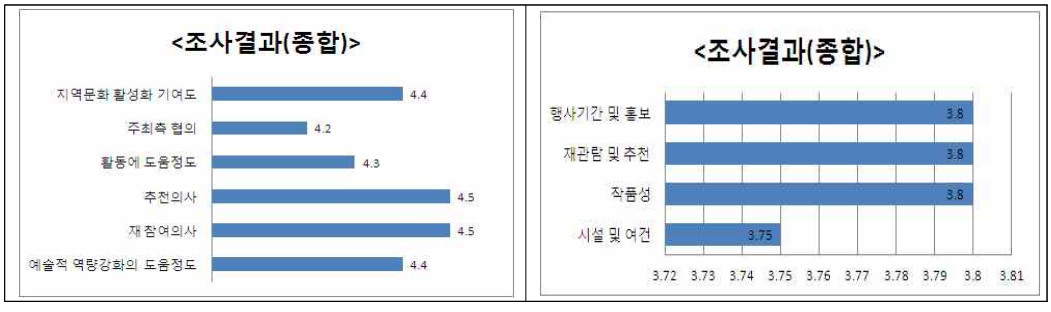
□ 레지던스지원사업의 단체별로 계획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단체명	추진계획(A)			추진실적(B)			달성도(B/A)		
	행사 횟수	일수	관객 수	행사 횟수	일수	관객 수	행사 횟수	일수	관객 수
노림스튜디오	4	50	1,000	6	60	2,000	150%	120%	200%
태백탄광문화연구소	4	100	1,500	10	108	1,820	250%	108%	121%
정동진하슬라미술관	3	50	30,000	3	81	32,000	100%	162%	106.7%
송계아트스튜디오	12	72	1,600	12	72	1,610	100%	100%	100.6 %
한지로 그리는 세상	3	15	4,800	3	21	5,100	100%	140%	1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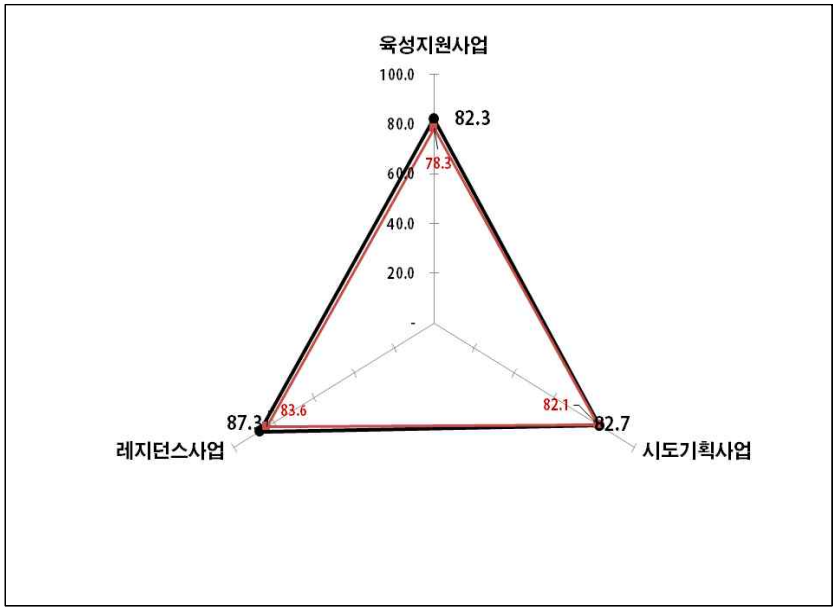
[표 76] 강원문화재단 레지던스지원사업 성과

□ 강원지역은 기금대비 매칭사업비의 강원도 의지가 확고하고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노력으로,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557%이 달성률을 보였으며, 총사업비 기준 448%의 매칭률을 보여 전북에 이어 전국 2순위의 매칭수준을 보여줌.

□ 강원지역은 참여예술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관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추진하였으며, 조사결과 지역문화활성화 기여도, 재참여의사, 추천의사, 예술적 역량강화 도움 정도에서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났음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시설 및 여건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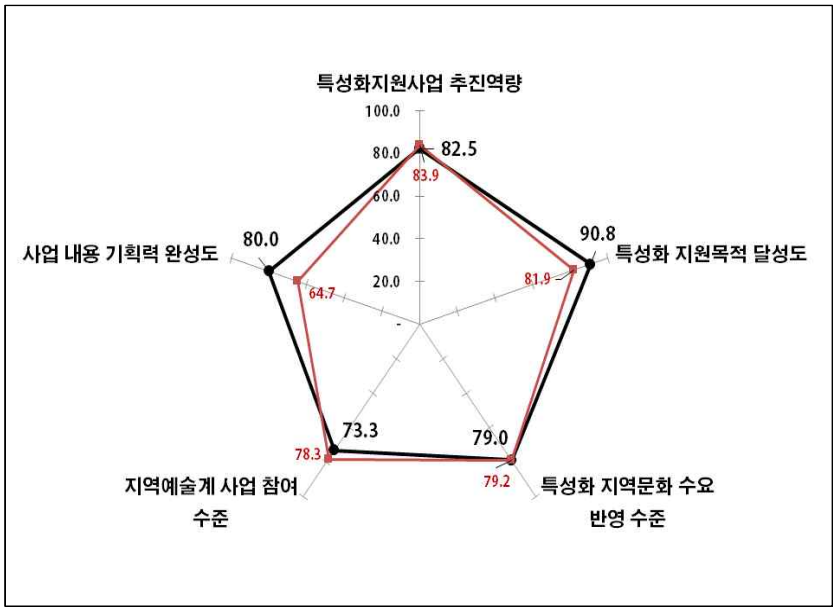
[표 77] 강원문화재단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186] 강원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강원 지역은 육성지원사업 82.3점, 시 · 도기획사업 82.7점, 레지던스지원사업 87.3점으로 전국 평균 또는 전국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87] 강원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강원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9점(백분위 환산 시 9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2점(4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8점(8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9점(백분위 환산 시 76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강원 지역 9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강원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30.1%(159/529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회·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강원 지역의 경우는 선정비율이 49.1%(228/529건)로 전국에서 가장 과도한 지역으로 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창작활동 위축이 우려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강원 지역은 ‘생활예술활성화지원사업’으로 별도 구분하고 전문예술인 인정범위를 공지하고 있으며, 생활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준을 갖고 있음. 도민문화활동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2억 7,000만원 전체의 13.7%(270/1,972백만 원)로 전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강원 지역 2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강원 지역은 2013년도 59.0%(529/897건), 2012년도 56.7%로, 2013년도 기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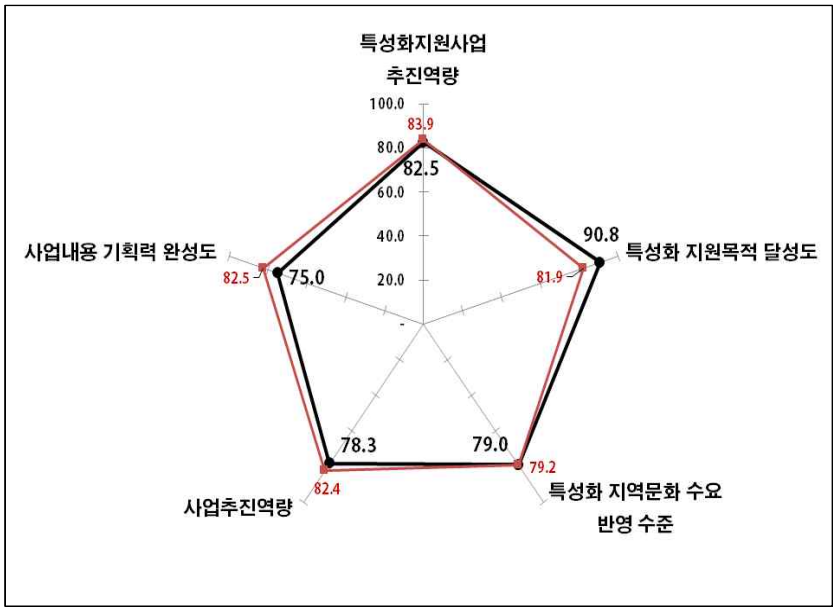
는 약간 미달함.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32만원임. 강원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373만원(1,972백만 원/529건)으로 전국 10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육성지원사업 예산액은 전국 3위(1위 서울 43억 원, 2위 부산 21억 원, 4위 대구 17억 원)이나 지원건수(529건)가 많아 평균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선정률을 낮춰 지원 금액을 적어도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432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강원 지역 8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방향성 제시 있음. (위원 B) 문화소외지역이 많고 폐광지, 분단지역, 다문화가정, 귀농가정이 많은 점 등 강원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 결정시 우선 선정하고 있다고 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역사적 인물,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 고유성과 독창적 반영 사업을 제시함. (위원 B) 역사적 인물(10),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29), 지리적 특성(7), 사회적 특성(14)에 따른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 사업 60개 목록과 내용을 제시함. 평가위원 합의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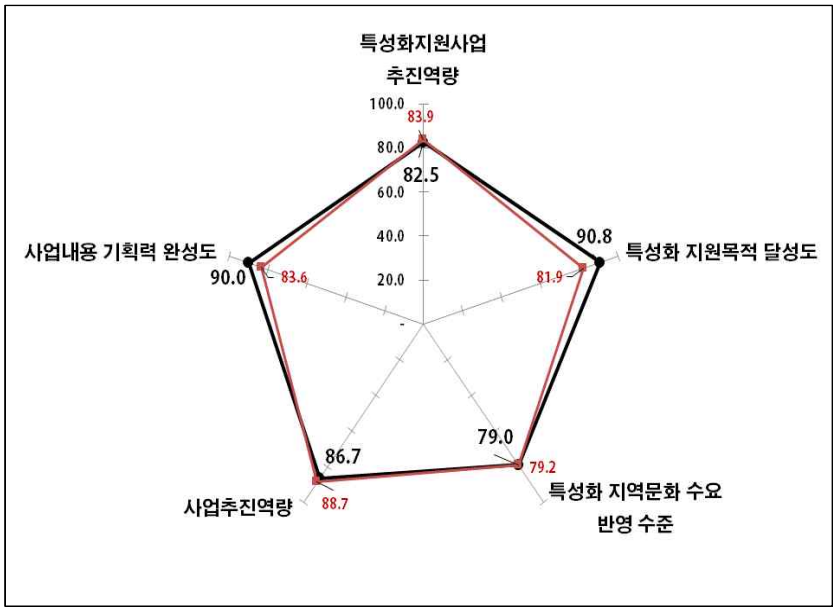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 · 도기획사업



[그림 188] 강원 지역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강원 지역의 시 · 도기획사업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임.
- 재단에 시 · 도기획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미래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 도기획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선정된 단체들이 이 다양한 콘서트를 기획추진했고, 전문자격증을 갖는 등 기획 사업을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프로그램에 지역 독창성과 기획특성을 살리기 위해 사업용어에 '감자'라는 지역상징어를 사용하는 등 상징적인 기획 특화를 추진하고 있음. 클래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장르를 과감하게 선정하였음
- 지자체와 문화재단이 시 · 도기획사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 전략을 꾸려가고 있으며 지역 언론사에 아이템별로 계획적인 홍보를 추진해왔음.
- 해당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실제 사업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공문을 보낸 수준에서 협력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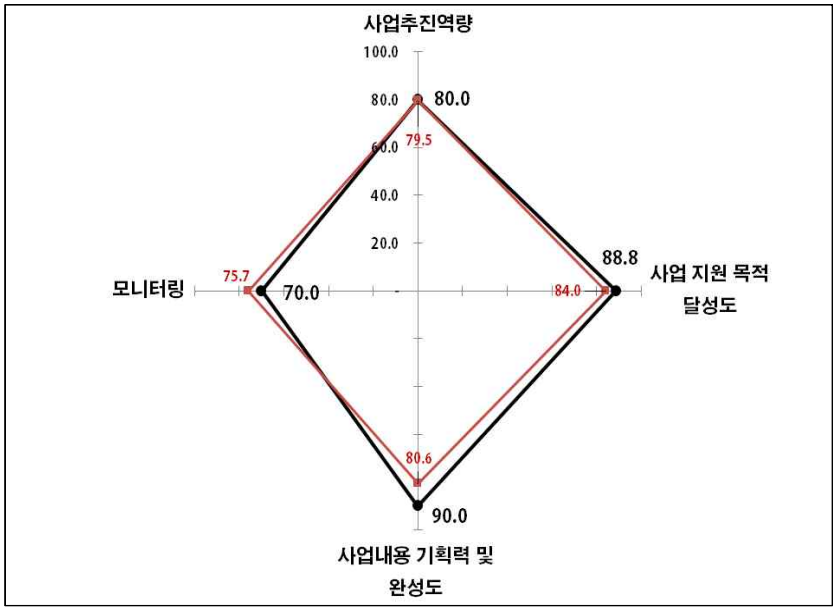
[그림 189] 강원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선정단체의 국제적 역량에 대한 지명도나 본 사업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력 면에서 탁월성이 증명됨.
- 역의 언론사, 기업 등과의 연계는 추진되었으나, 그 연계성은 재단과의 관계일 뿐, 사업수행단체들의 연계나 협력 체계는 구축된 사실이 적시되지 않고 있음.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창작지원형, 프로젝트형, 복합형 등으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경향을 반영하고 선도하고 있으나, 의견수렴의 창구인 문화사랑방의 충실도는 높은 편이 아님.
- 지역폐교, 이동미술관 등 지역재생과 지역 찾아가기를 겨냥한 지역 고유의 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됨.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강원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90] 강원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0.0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88.8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90.0점, 공연장 모니터링 70.0점임.

- 강원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2.9점임.

□ 2013년도 8개 선정단체 중 6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 · 단체로서 75%를 차지함. 선정단체들 모두 기획 · 사무 · 기술 인력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역량이 충분하고 사업 목적에 적합함.

□ 다만, 공연장의 경우 사무인력과 기술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획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8곳 중 2곳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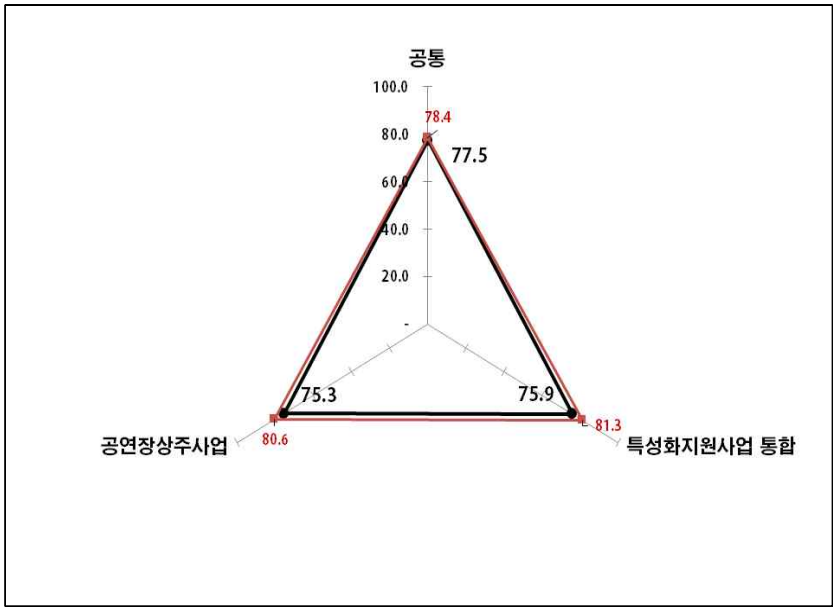
□ 공연장에 기획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그동안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보다는 시설 대관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상주단체측의 기획인력이 공연장에 상주하게 되면서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공급이 더욱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유관기관 협력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유한 지원업무로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전국 주요 문화예술공공기관들이 대부분임. 재단차원에서 공연장상주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 · 발굴한 협력기관이 부족함.
- 선정단체와 공연장 간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함.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함,
-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의무이행사항은 창작초연작품 1개, 우수레퍼토리 2개 작품, 퍼블릭프로그램 1회, 페스티벌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둠. 8개 지원 단체 모두 의무조건을 준수하였으며,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함.
- 공연장 관계자 40명, 참여예술인 80명, 관람객 16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강원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이라는 중장기 비전에 따른 전략과제에 따라 제작된 창작초연의 50%가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소재로 하거나 지역적 환경을 반영한 작품제작으로 성과를 창출하였음.(DMZ, 강릉 관노 가면극, 김유정 등)
- 상주단체 워크숍을 실시함. 강원 공연아트마켓 및 자료전, 지역문화공간과 예술인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한 문화포럼도 함께 개최함. 월 2회의 문화사랑방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시민대상 사업기획 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 사전조사를 거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함.

제10절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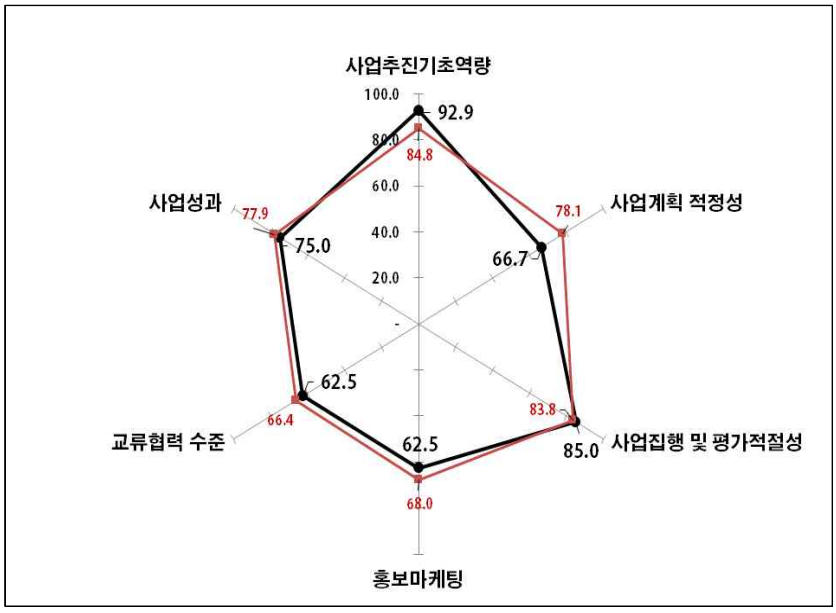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191] 충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충북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평가는 78.4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은 81.3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0.6점으로 평가됨.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점보다는 약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른 운영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충북 지역은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각 사업별, 부문별로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도 평가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원사업 추진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아직 충북문화재단이 재단으로서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여건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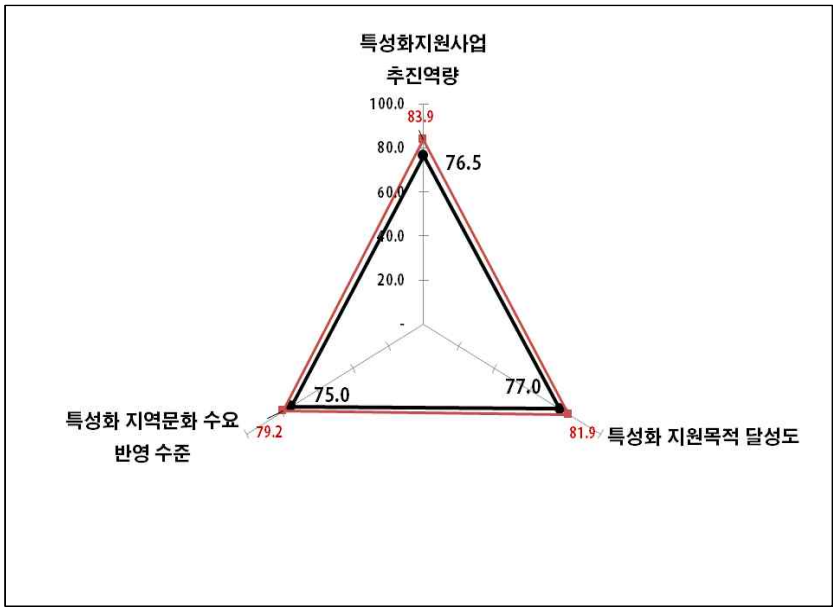
[그림 192] 충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충북지역의 공통평가부문의 평균은 77.5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별 달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충북 지역은 지난해 사업평가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사업별 평가 결과 6개 항목 36개의 이행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지역은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음. 충북문화재단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풀뿌리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페스티벌로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전문예술인들과 시민아티스트들의 접점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303개 동아리에 전문예술가 225명을 파견함. 또한, 문화예술자원의 문화예술공간화 사업으로 '충북문화관'을 운영하여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충북 지역은 지난해 재단 설립과 동시에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해왔던데 비해 2013년

은 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현장의견과 연구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자체 평가까지를 주도하여 실질적인 발전이 시작된 시기로 평가됨.

- 육성지원사업은 선정률 60% 이하를 유지하며 전문단체의 평균지원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공연장 상주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추진단체들 간에 교류 사업을 유도해내고, 자체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는 등 각 사업별 성과 목표 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예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협력형 사업들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가 중심이 되었으며, 공연장상주사업은 시민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평가가 진행되었음. 관객만족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전역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홍보를 하기 위해 12개 시군에 12명의 문화리포터를 선발, 양성하여 홍보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있음.
- 충북은 강원문화재단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류 워크숍을 강릉 하슬라 미술관에서 추진하였으며, 충북 레지던스 작가들과 관련기관들 재단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레지던스지원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매개 마을 만들기 방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향후 재단의 국제협력, 국제교류 사업 추진의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음.
- 계량적 성과에서 충북은 공연장 상주단체의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객석 점유율과 관람객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충북지역은 청주, 청원지역에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청주 · 청원과 타지역간의 문화예술격차가 심함. 이를 극복하고 도농 간 문화예술격차 해소를 위해 청주 · 청원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소외지역 공연장에 상주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 결과 실질적인 관객개발 효과가 나타나고 공연장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충주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유료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앞으로는 무료 공연뿐 아니라 양질의 유료공연이 시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소외지역 도민들도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문화향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음.
- 충북 지역은 우수사례로 놀이마당 울림의 '태교신기축제'라는 독특한 축제를 개발한 사례와, 자계예술촌의 '산골마실극장' 사례, HIVE 레지던시 작가(최재영)가 베트남 레지던시 결과전시와 국내 보고전시를 통해 여러 작품이 판매된 사례, 사물놀이 '몰개'가 일본 가고가와 시의 초청을 받아 초청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과사례가 제시되었음. 각 분야별로 우수 단체들의 성과가 충북예술계 전체의 창작역량 강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193] 충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충북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76.2점임.

□ 충북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평균점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고르게 추진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 지역은 육성지원사업에서 전문예술가와 준전문단체들을 구분하여 지원신청 단계부터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제시하고 있는 지원조건으로는 전문예술인과 준 전문예술인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타 지역의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자격 기준을 참고하여 좀 더 정밀한 전문예술인 참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전문예술인 참여기준이 자칫 신규 예술단체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신진예술가와 시민아티스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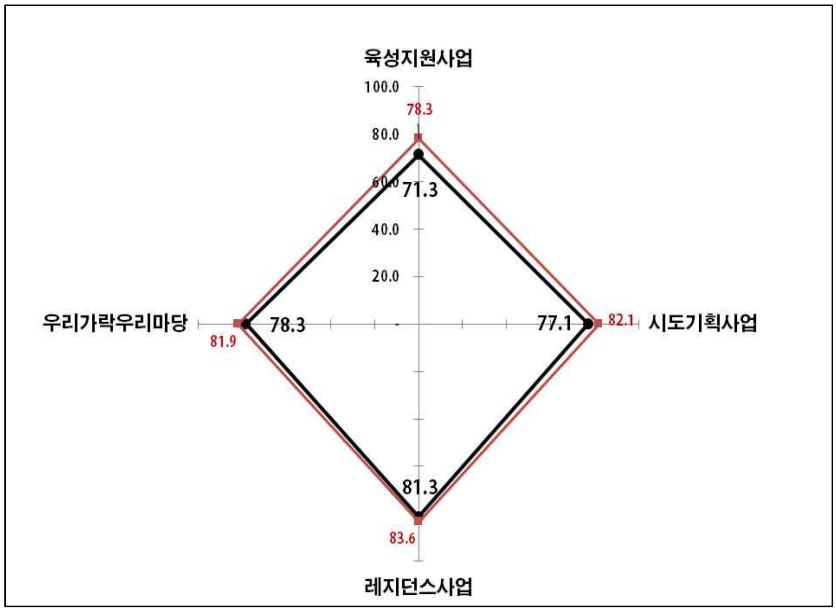
□ 지역 예술계와 소통을 위해 '문화사랑방', '충북문화예술지원사업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0월~11월에 걸쳐 2013년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계 의견반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점차 재단의 필요에 의한 계기적 소통행사가 아니라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채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민모니터링 조사는 상주사업에 한해 실시하였으며, 관객만족도 조사는 육성지원사업 36개 사업을 포함 전체 54개 사업에 1,750명의 관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과정	사업내용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1차 토론회 : ’12. 10. 18 /도청 대회의실 내용 :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관련 토론회
	2차 토론회 : ‘12. 11. 1 / 도청 대회의실 내용 : 타 시도 사례를 통해 본 충북 지원사업의 과제
	3차 토론회 : ’12. 11. 15 / 도청 대회의실 내용 : 충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사업 방안 마련
기획 · 자문 회의	문화재단 기획위원회의 : ‘12. 11. 23 / 충북문화관 내용 : 지원사업 반영을 위한 최종 검토 및 자문
사업계획 수립	‘12. 12월 사업 계획 후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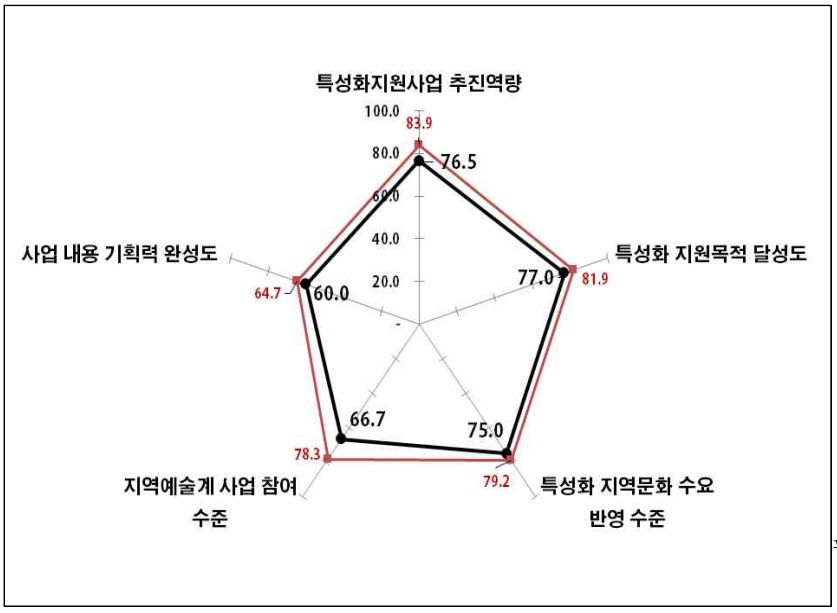
[표 78] 충북문화재단 지역예술계 소통 노력



[그림 194] 충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충북지역은 특성화 지원사업 모두 전국 평균 수준과 근접한 평가를 받았으며, 사업 전체에서 고르게 안정적인 추진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레지던스 사업과 우리가락 우리마당에서는 '다' 등급의 평가를 받아 다른 사업에 비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약간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 육성지원사업은 71.3점, 시 · 도기획사업은 77.1점, 레지던스지원사업은 81.3점,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은 78.3점으로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평점이 가장 높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195] 충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충북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8점(백분위 환산 시 8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2점(4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6점(6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6점(백분위 환산 시 64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충북 지역 8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충북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26.6%(58/218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충북 지역의 경우는 선정비율이 27.1%(59/218건)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단이 설립된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32.4%보다는 낮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충북 지역은 2013년도부터 전문예술단체와 준전문예술단체(아마추어 동아리를 넘어선 단계)로 분리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준전문단체의 지원 자격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고 있음. 육성지원사업 총 사업비 중 11.5%(94/814백만 원)을 배정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충북 지역 2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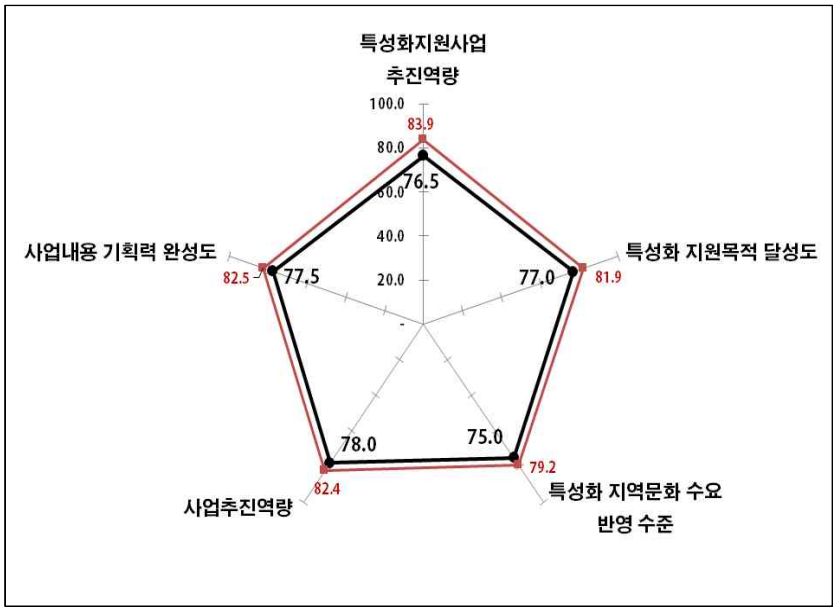
부여했음. 충북 지역은 2013년도 59.2%(218/368건), 2012년도 57.0%로, 2012년도 기준에는 부합하나 2013년도 기준에는 약간 미달함.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32만원임. 충북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373만원(814백만 원/218건)으로 전국 10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432만원)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지원 금액(39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육성지원사업에 자체 자금을 추가 투입하거나 선정률을 더 낮춰 평균 지원 금액을 400만 원대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을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충북 지역 6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 설계를 위해 자원조사를 통한 문제 도출, 시급성 과제 등을 도출함. (위원 B) 충북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 설계를 위해 충북문화예술자원조사, 문화예술동아리 조사 연구 시행, 아마추어 동아리→ 준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 독창성보다는 지역균형 지원을 더 고려하여 지원함. 사례 제시 없음. (위원 B) 지역 독창성보다는 12개 시군의 지역균형 지원을 더 중시함. 사례 제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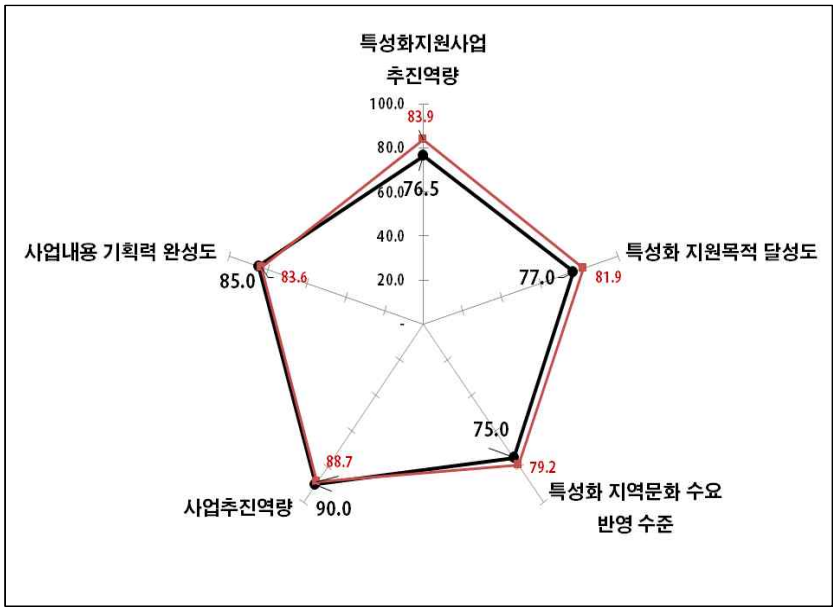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196] 충북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을 받았음
- 사업실적 있는 단체를 선정해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함. 선정된 3개 단체 중 2단체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역 전통역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소재, 공간의 재탄생, 관광융합적 기획 등으로 특성을 살려 지역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 지역기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단체, 기업, 협회들과 MOU를 맺고 협동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아 기획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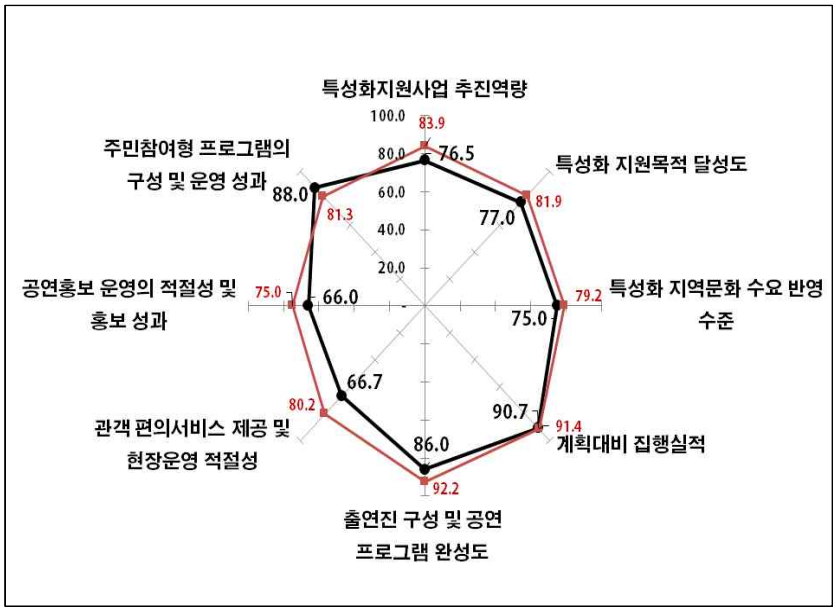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197] 충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3개 단체의 최근 활동 경력 등이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보여주고 있음. 2개는 도시 중심, 1개는 도시의 소외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레지던시 사업의 지역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유관기관 네트워크는 국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계 환경을 고령화, 교류 부진, 문화격차로 진단하고, 그러한 환경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사업에서 반영되도록 기획력을 발휘함.
- 도심 공동화가 진행된 지역의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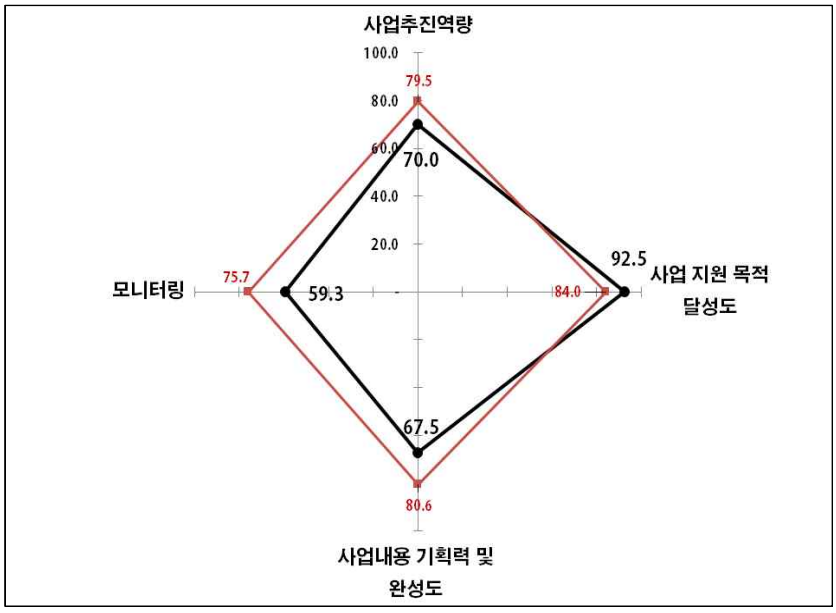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198] 충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충북 지역은 총 19단체(신규 2개 단체), 총 15회 진행하였음.
- 오창호수공원의 국악공연 명소화를 추진함.
- 사전 공연으로 지역동아리 꿈나무 예술가 출연 진행하였고, 체험프로그램으로 해금배우기, 국악 기제작체험 진행함.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99] 충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75.0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2.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67.5점, 공연장 모니터링 59.3점임.

- 충북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75.3점임.

□ 공연장상주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은 11개 단체 중 6개 단체로 54.5%의 비율임. 나머지 단체도 역량이 충분하고 사업 목적에 적합함.

□ 선정 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의 컨설팅을 개최하여 전문성 강화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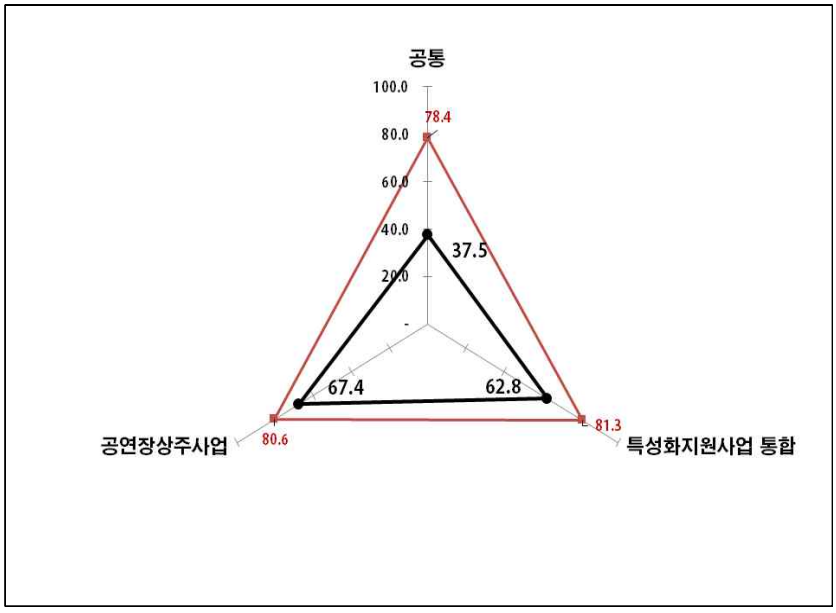
□ 관련기관 협조 체계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나, 도내 공연장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등의 지역 내 공연장상주사업 협력활동을 펼침.

□ 상주단체 수행프로그램으로 연간 독립적인 작품 3개 이상 공연(신작1, 기존작2, 단 비상주는 연간 독립적 작품 2개 이상 공연), 총 8회 이상 공연(교류 2회 이상 추진, 단 비상주는 3회 이상 공연(교류공연 1회 포함)), 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상주에 한하며, 주2회 5개원 이상 추진)을 의무사항으로 둠.

- 8개 공연장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77.8%가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또한, 11개 (비)상주단체 프로그램 참여예술인 55명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단체당 각 30명씩 33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청원 지역의 단체들이 문화소외지역 공연장에 상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외지역의 공연장이 활성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충주문화회관은 새 단장을 통해 연습실과 사무실을 확보하여 상주단체에 제공하는 등 공연장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공연장상주단체 교류 페스티벌을 종합공연예술축제로 기획하여 5개 상주단체가 참여하는 '뻔뻔(fun fun)한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함.
- 충주 사물놀이 몰개의 소리강좌 '명창에게 배우자'와 사물놀이교실 '몰개와 함께 덩더쿵'은 수준 높은 우수 국악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자리 잡음.
-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 조정하고 있음. 다만, 정례적인 의사소통 창구에 대한 제시가 없음.

제11절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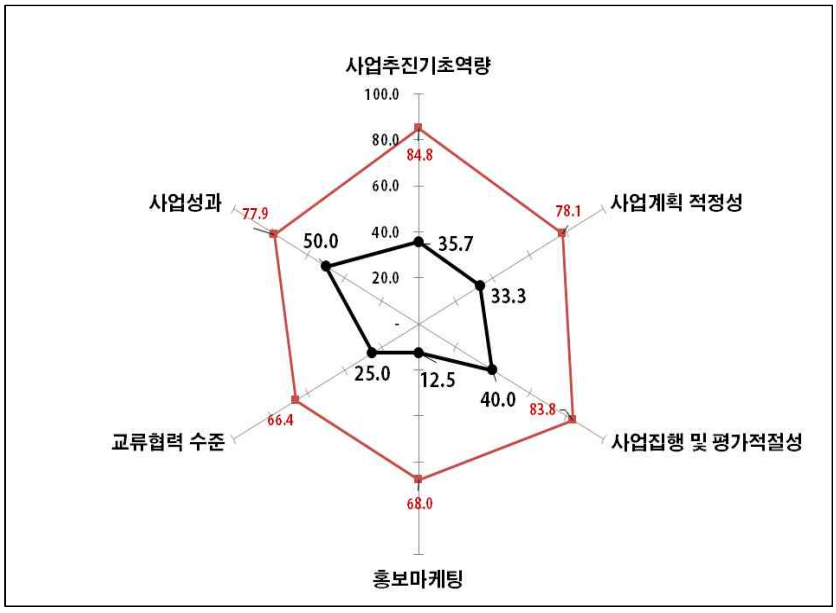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200] 충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충남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37.5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62.8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67.4점으로 평가됨.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가 가장 높음.
- 충남 지역은 2014년 충남문화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과도기적인 시기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수준에 비해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역량의 미비로 평가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 역량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201] 충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충남지역은 지난해보다는 공통평가 부문의 평균점이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광역시 및 재단설립 지자체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재단출범 원년인 2014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통평가 항목별로 자체평가 내용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못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여부에서 충북지역은 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에 평가모니터링 연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음. 총 5개 사업 164건의 사업(총 5개 분야 317건의 약 50%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로 전문가 평가위원 2명 및 시민평가위원 1명이 참여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병행 한 것으로 확인됨. 상주사업 및 레지던스지원사업, 시도기획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업은 전수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육성지원사업은 300만 원 이상 지원사업 144건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됨.

구 분	사업유형			계	연극	음악	전통예술	미술	비고
전수 평가	계			14	2	5	3	4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7	1	4	2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4				4	
	시도기획사업			2	1	1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			1			1		
구 분	계	문학	미술	공연 예술	전통 예술	청소년 문예활동	종합 예술	국제 교류	기타
조 건 부 선택평가	144	7	26	43	22	16	22	2	6

[표 79] 충남 지역 전수평가 및 조건부 선택평가 대상 사업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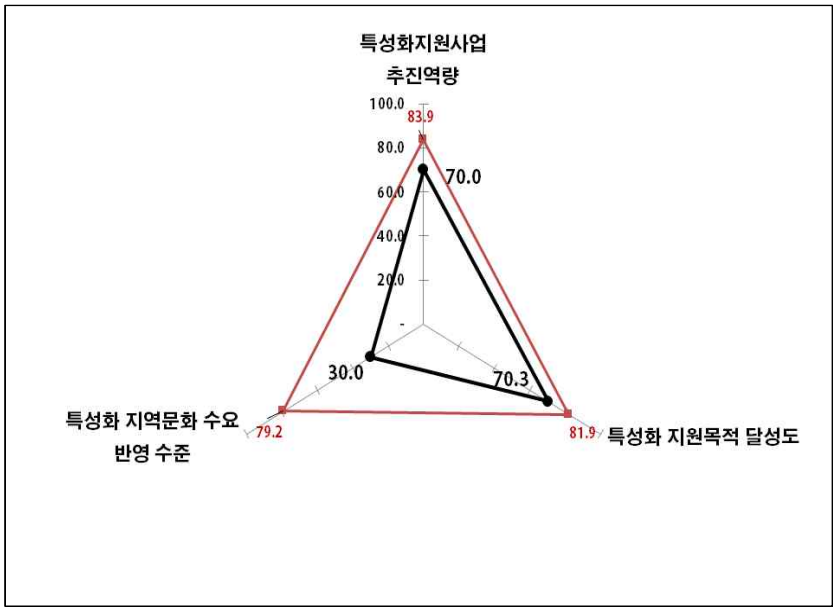
□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도 및 시 · 군 홈페이지, 충남예총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였으며 지역신문과 도정신문 등에 사업공고 등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채널은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계량적 사업성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및 참여관객수를 집계하여 제시함. 전년도에 비해 참여 예술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비계량적 성과로는 공연장 상주사업 선정단체인 서천군 '전통예술단 혼' 이 전국무용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제시함.

구분	2012년	2013년		비고 (단위: 명)
	참여 예술인 수	참여 예술인 수	참여 관객 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6,005	12,094	202,989	
시·도기획지원	265	77	2,800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170	91	16,240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230	355	3,2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91	385	14,424	
합계	7,161	13,002	239,653	

[표 80] 충남 지역 계량적 사업 성과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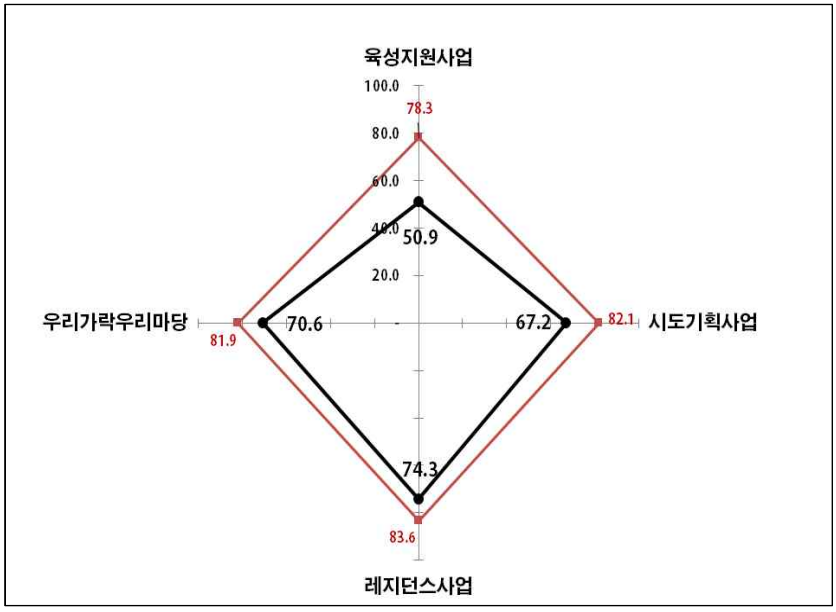


[그림 202] 충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 부문은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
  - 충남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56.8점임.
- 충남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충남 지역은 지역예술인, 예술단체들과의 협력, 소통체계를 위한 노력을 묻는 평가지표에 대하여 2013 지역협력형사업 지원 단체 워크숍 개최결과를 제시하였음. 2013년 5월23일 공주시 소재 야투 자연미술의 집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지역 지원 단체 대표자 11명, 예술위원회 관계자, 자문교수 등이 참여하여 2013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발표 및 자문, 평가모니터링 계획 등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예술단체 참여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거나 정례화될 필요가 있으며, 참여단체의 수도 좀 더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소통채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집행실적에서 육성지원사업만 86.8%의 집행률로 다른 사업들의 100% 집행률에 비해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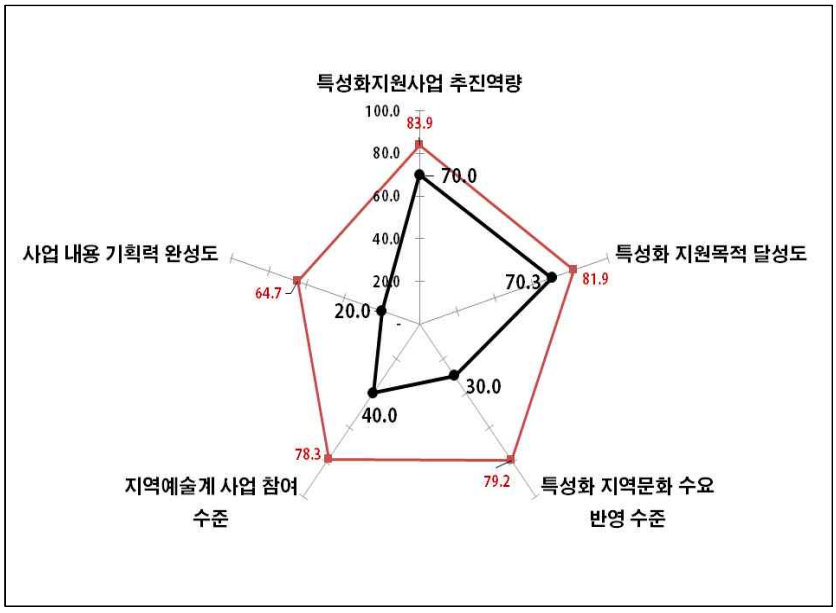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집행 사유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육성지원사업 중 자체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300만 원 이상 사업들의 대부분이 지역 예총 및 민예총 산하 각 장르별 협회의 도지부, 지역지부기 사업단체로 되어 있으며, 추진사업의 내용들도 매년 개최되는 정례 발표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남. 재단 설립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협회 직접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민간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별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음.



[그림 203] 충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04] 충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충남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5점(백분위 환산 시 5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1점(2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2점(2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8점(백분위 환산 시 32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재단 미설립 지역(2013년 기준 울산, 충남, 전북, 경북) 평균점 6.8점, 충남 지역 5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충남 지역은 14.9%(45/303)로, 평가위원 간 합의한 기준(25%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충남 지역의 경우는 303건 중 113건, 비율 37.3%로, 과도한 수준임.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충남 지역은 도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 여부,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음. 육성지원사업에서 도민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은 22.7%(197/868백만 원)로 평가위원 간 합의한 기준(15% 이하)에 비해 약간 과도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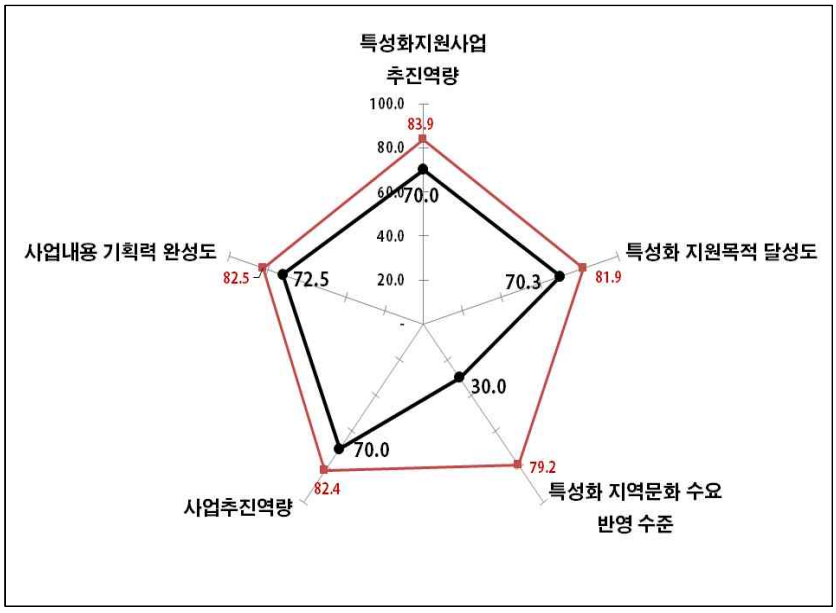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점 1.8점, 충남 지역 1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 충남 지역은 2013년도의 경우 65.1%(303/465)로 2012년도(76.4%)보다는 낮아 졌으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경북(7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선정률은 지역 예술단체(인)의 역량 강화라는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을 권장함.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 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15만원임.
- 충남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286만원(868백만 원/303건)으로, 경북(193만 원), 전남(266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이는 선정률이 65%대에 이른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선정률을 낮춰 평균 지원 금액을 최소 400만 원 대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점 3.8점, 충남 지역 2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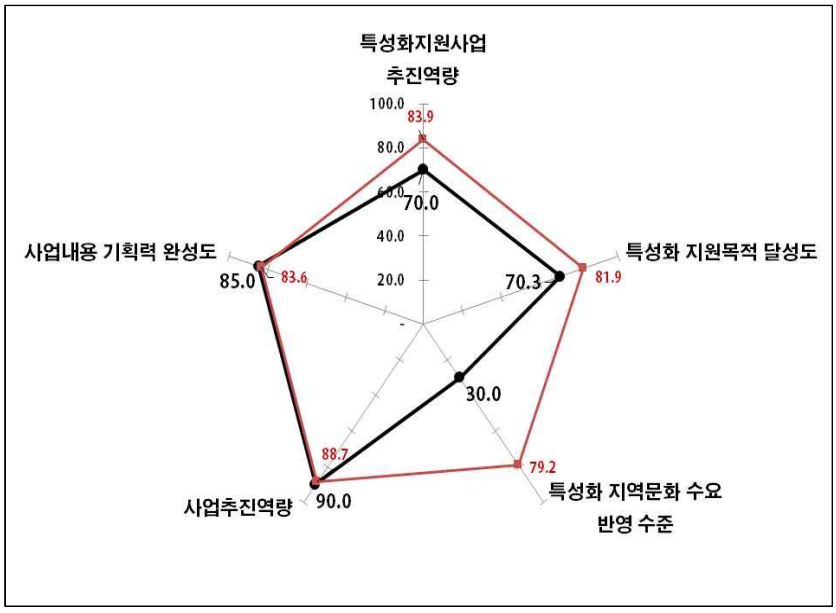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205] 충남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사업추진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을 받았음
- 지역 출신의 역사인물 유관순을 주제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인물콘텐츠를 활용하는 연극을 기획함.
- 2개 단체 가운데 전문예술법인 1개가 참여했는데,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여 단체가 참여하여 주민정서를 잘 반영하는 기획을 펼쳤음
-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협조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혀 실적이 없음. 이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이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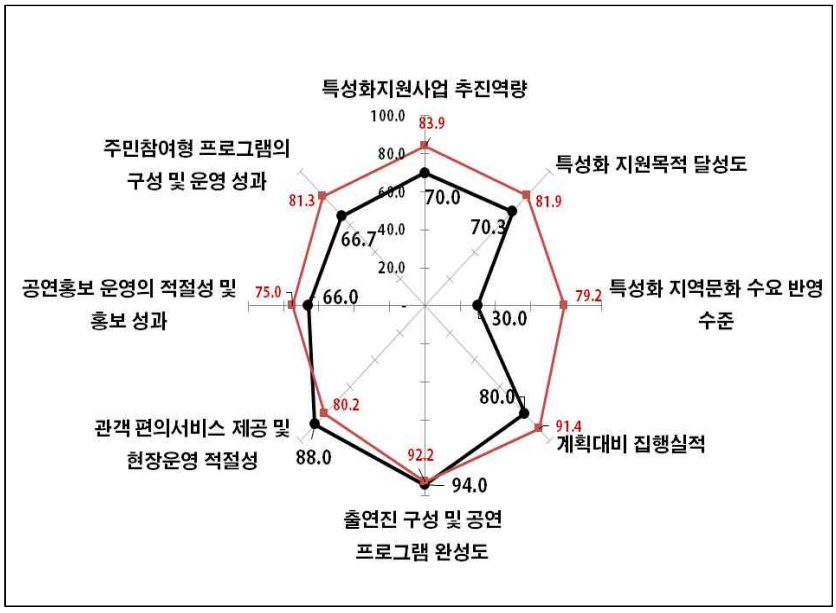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206] 충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는 아니지만, 사업 경력에 있어서는 충분한 관록이 인정됨. 따라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법인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격려 및 체계적인 유도 방법의 고안 및 지원이 필요.
- 지역 기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구비되고 있음.
- 1개의 레지던스 사업 기관은 마을주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창작과 교육 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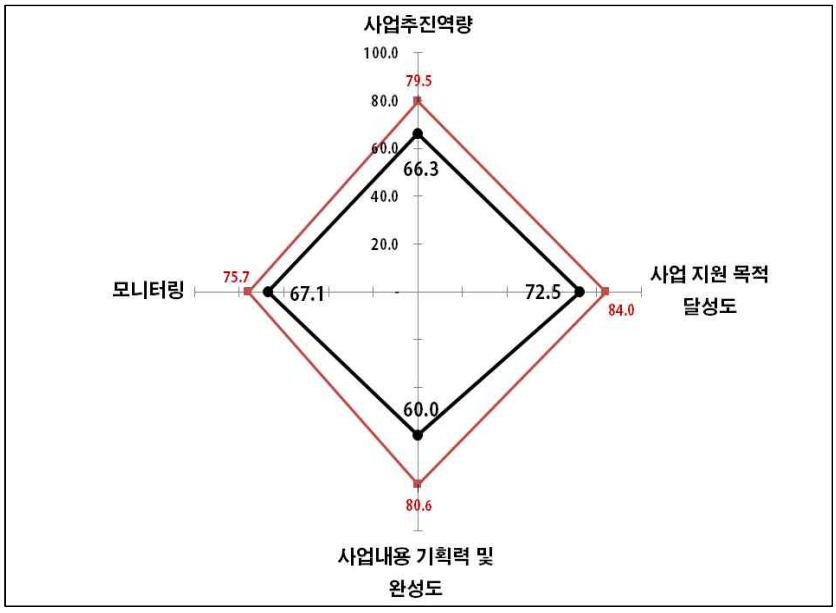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207] 충남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충남 지역은 금산다락원에서 37개 단체(신규34개 단체), 총 17회(다락원 15회, 인삼축제장 2회)를 진행하였고 관람객 2,305명(외국인 50명)이 참여하였음.
- 실외공연에 따른 주위 거주민 소음 민원으로 실내공연장 희망함.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08] 충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66.3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72.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60.0점, 공연장 모니터링 67.1점임.

- 충남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67.4점임.

□ 2013년도 7개 선정단체 중 3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43%를 차지함.

□ 공연장으로서의 인적 · 물적 기반이 없고 단지 공간만이 있는 박물관 내부의 공연장을 선정한 것이 공연장상주사업 공연장으로서 적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단체 선정 시 역량 있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발굴 · 심사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공연장의 기획전문 담당자 보유 현황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는가? 실제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가를 묻는 평가지표에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함.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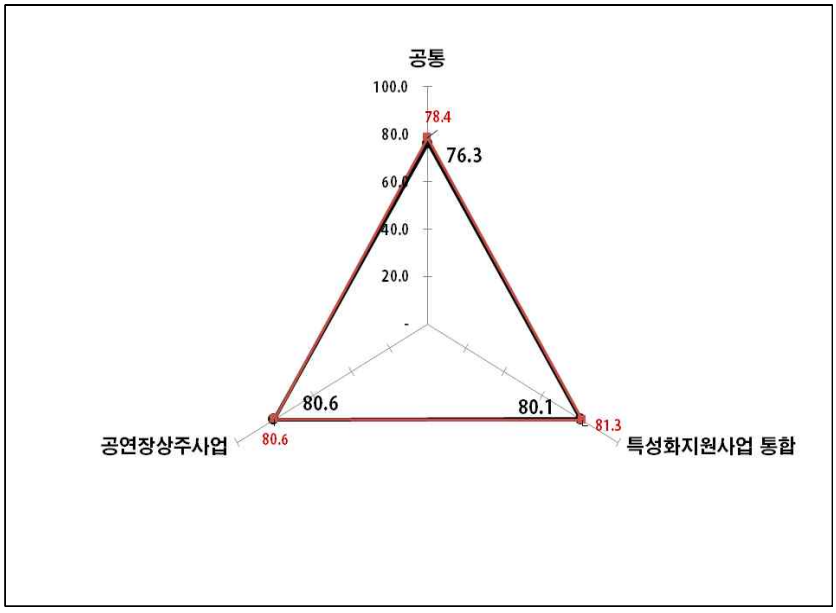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한 제시가 불충분함. 다만, 상주 공연장인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재정 매칭한 뮤지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학교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해 충남학생교육문화원과 공동 제작하여 총 14일 28회 공연을 통해 충남도내 초 · 중 · 고 204개

학교 18,706명의 학생들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둠.

-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 를 달성했는가를 묻는 평가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와 실적을 제시하지 않고 ‘계획대비 성과율 적정’ 이라고 응답함.
- 상주단체 선정 이후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단체들의 사업 집행이 지연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음. 선정 시기, 보조금 지급 시기 등 추진 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모니터링(전문가 2, 도민 1)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함.
-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를 묻는 평가지표에 ‘보통’ 이라고 응답함. 적극적인 지역특성 발굴과 활동 연계가 필요함.
- 2013년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7개 지원 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을 개최함.
- 선정된 지역 공연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평가지표에 모두 ‘미수용’ 이라고 응답함.

제12절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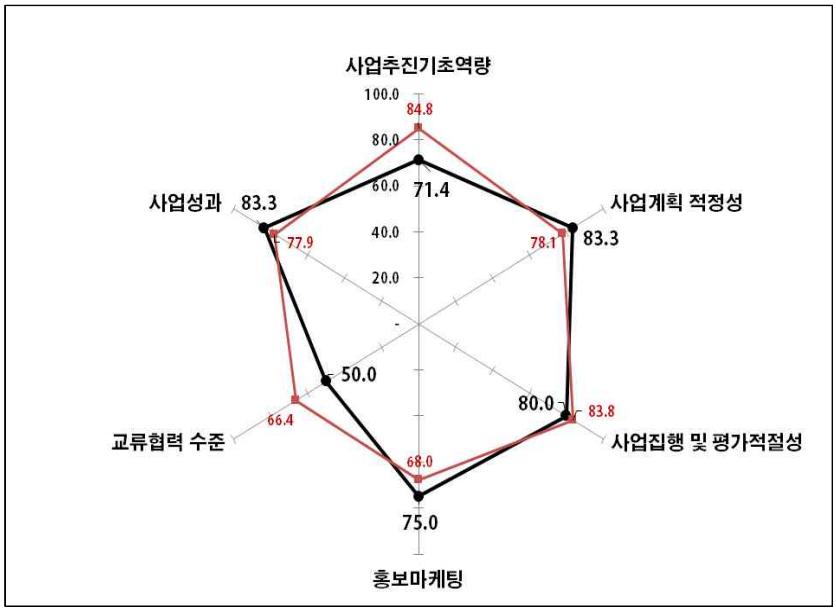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209] 전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전북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평가는 76.3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1.3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0.6점으로 평가됨. 세 사업모두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평가를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전북 지역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매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온 지역으로 특성화 지원사업 중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나'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 사업, 공연장 상주사업이 '다' 등급으로 전국평균수준의 등급으로 평가됨.
-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전북지역은 3~4명의 사업담당자가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분담하고 있으며, 전문계약직 팀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매칭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임.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의지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계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재단이 설립될 경우 다른 어떤 지역보다 특화된 발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임.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210] 전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전북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평가 항목별로 평균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항목들 중에서는 교류협력수준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전북 지역의 공통평가 항목 평균점은 76.3점임

□ 전북 지역은 '예술지원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예술가 육성을 목적으로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림공연예술단' 육성지원사업, 지역예술단체의 정기적인 공연무대 마련의 일환으로 '새만금 상설공연' 개최, 시민들이 예술을 즐기고,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전북 지역도 지역문화재단 설립조례가 이미 2009년 11월 제정되어 있으며 설립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기금확보가 없이는 독립적인 재단운영이 어렵다고 논의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13년 20억, 2014년 30억 원의 도비를 출연하여 2013년 말 기금조성액은 188억 원 것으로 확인됨.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재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매년 출연금의 규모로 볼 때 적극적인 설립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전북 지역은 지원사업의 5대목 표를 정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예술자료보존 조사연구 강화'의 목표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목표 에 따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원사업 설명회는 매년 전북도청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예술단체 관계자 및 예술인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됨.
- 자체평가를 위해 전문가 41인과 도민모니터 요원 25명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전문가 평가위원은 심의위원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3백만 원의 지원사업에 한해 전문가평가 2명, 도민모니터 2명 총 4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함.

사업구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비 고
문예진흥기금	시각, 공연, 다원	60점	60~50	50~40	40~30	전문가평가 60(80) 도민모니터 20 행정평가 20
	문학	80점	80~70	70~60	60~50	
문화예술전문단체육성지원 무대작품제작지원		80점	80~70	70~60	60~50	전문가평가 80 행정평가 20

[표 81] 전북지역 자체평가 평가배점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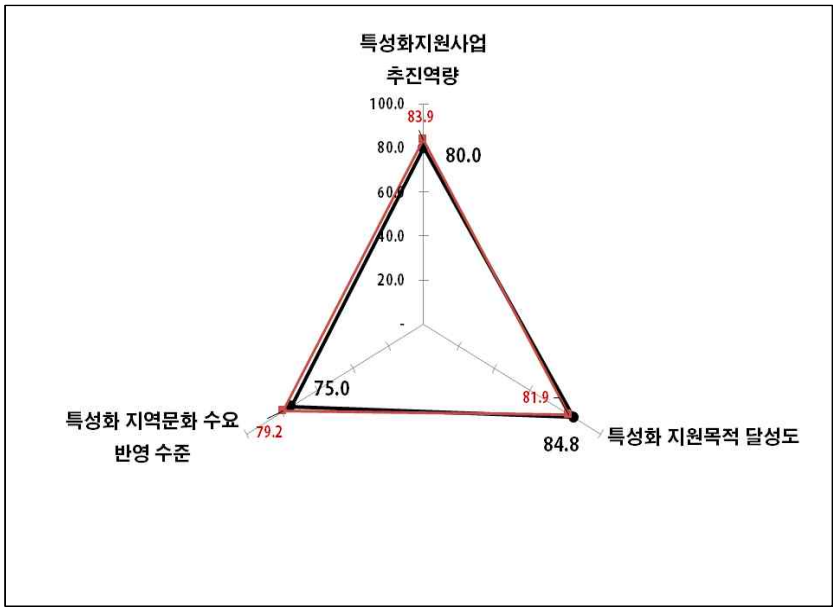
- 전북 지역은 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도 문화예술과에서 전북 공연전시 정보 사이트인 '모여락' (http://www.myjb.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자체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해주고 있음. 또한, 월 1회 '얼쑤전북' 이라는 홍보지를 매회 35,000부씩 발행하여 전북지역 도민들에게 배포하여 월별 공연예술행사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 외에도 전라북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뉴스레터 등을 통해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개별단체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 추진되지는 않음.
-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영호남 연극제'가 2013년 14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육성지원사업 중 〈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분야를 통해 국제교류, 지역 간 교류, 남북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계량적 사업성과 중 '전라북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1년간 문화행사관람 경험을 묻는

설문에 도민 중 75%가 1회 이상의 관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문화향유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공연장 상주사업의 객석점유율은 77.0%로 나타나 높은 객석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성과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계량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계량적 성과로는 별첨자료를 통해 극단 까치동,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 레지던스지원사업 '교동아트센터', '문화공동체 감', 시·도기획사업으로 해외전시 지원사업을 제시하였음.

단체명	공연/전시/행사실적		발표작품수			예술교육 참가자수		관람객수	참여예술가수
	횟수	일수	창작초연	기존창작	외국작품	예술강사수	프로그램 참가자수		
교동아트미술관	12	59	156	0	0	6	500	6,265	65
전라북도문학관	4	4	34	29	0	2	300	1,500	2
문화공동체 감	14	173	150	50	0	10	1,000	10,200	50
익산문화재단	51	290	50	10	20	10	1,200	10,060	120
휘목미술관	22	88	110	0	0	10	600	5,000	3
계	103	614	500	89	20	38	3,600	33,025	240

[표 82] 전북 지역 계량 성과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211] 전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전북 지역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의 평균점은 79.9점임.

□ 전북 지역은 3개 평가 항목 모두 전국 평균점에 가장 근접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가 3개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전북지역은 재단 미설립 지역 중 가장 안정화된 특성화 지원사업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지역은 매년 한 번도 수혜경험이 없는 신규수혜단체를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건수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신청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전북은 신규단체 지원신청을 보더라도 상당히 활발한 지역 내 예술창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최근 3년간 신청단체 수 평균 35% 이상이 신규단체로 선정되고 있음.

구분	2011			2012			2013		
	계	단체	개인	계	단체	개인	계	단체	개인
신청건수	954	714	240	956	711	245	861	613	248
선정건수	626	497	129	611	488	123	508	415	93
신규건수	240	111	129	251	128	123	152	59	93
신규선정률	38%			4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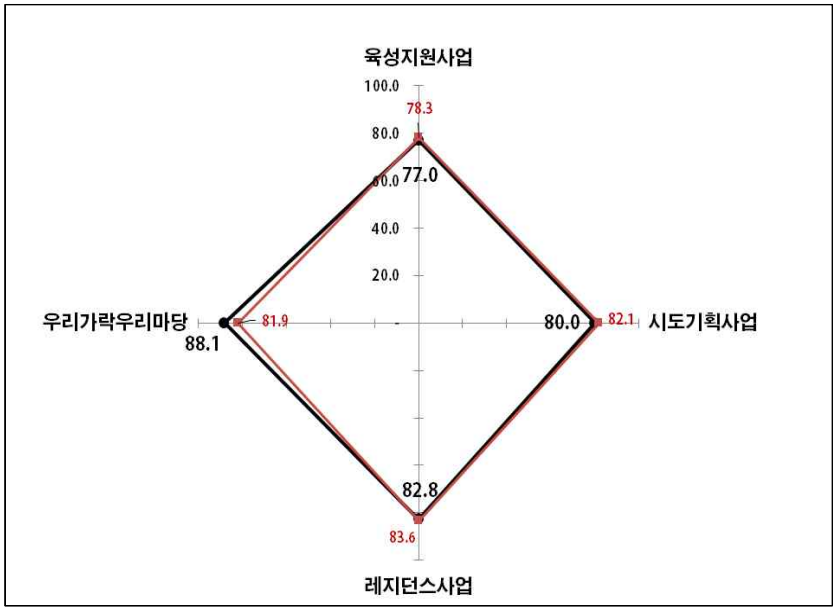
[표 83]전북 지역 문예진흥기금 신규 사업 선정현황

□ 매칭실적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매칭실적을 보이고 있는 전북 지역은, 2013년에도 높은 매칭실적을 달성함.

사 업 명	2013매칭계획			2013매칭실적		
	계	중앙	시도	계	중앙	시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무대)	480	130	350	480	130	35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기금지원)	1,800	232	1,568	2,000	331	1669
시·도 기획지원	140	70	70	140	70	70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300	150	150	300	150	150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150	70	80	150	70	80

[표 84] 전북 지역 매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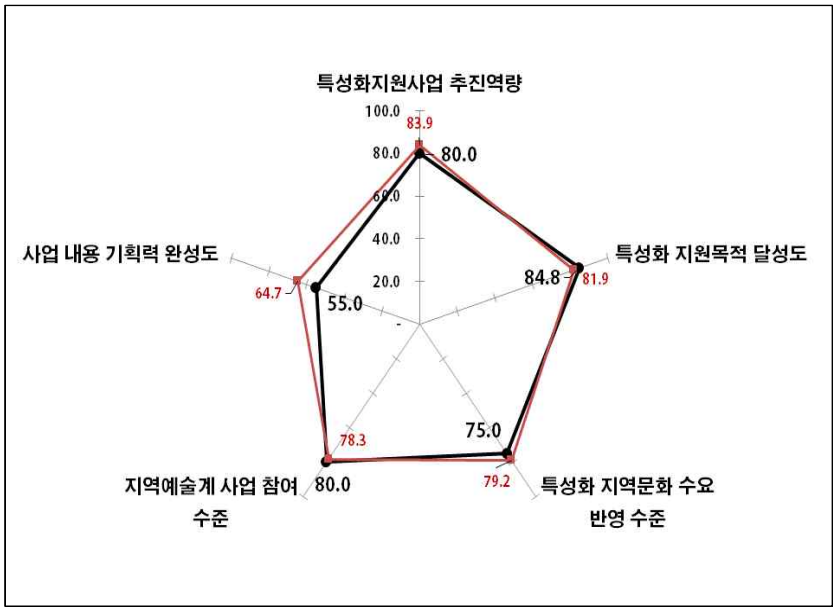
□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내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2013년에도 연 6회의 문화포럼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공유와 의견수렴, 각 단체 사업홍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포럼 참여자격이 문화시설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들로 한정되어 일반 예술인 및 민간예술단체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포럼의 진행이 30분 내외의 사업설명과 의견교환에 이어지는 오찬 및 간담회로 실질적인 의견교류를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좀 더 실질적이고 확대된 지역 예술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함.



[그림 212] 전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전북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역시 전국 평균치와 거의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 전통예술분야의 자원이 풍부하고 수요층이 잘 형성되어 있는 전북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육성지원사업은 77.0점, 시 · 도기획사업은 82.1점, 레지던스지원사업은 83.6점,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88.1점으로 나타남.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은 '나' 등급, 레지던스지원사업과 육성지원사업은 '다' 등급, 시 · 도기획사업은 '라' 등급의 평가를 받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13] 전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전북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10점(백분위 환산 시 10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2점(4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5.5점(5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7.5점(백분위 환산 시 70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재단 미설립 지역(2013년 기준 울산, 충남, 전북, 경북) 평균점 6.8점,

전북 지역 10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전북 지역은 30.4%(163/535)로, 만점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27건 지원 선정 중 11건 신규 선정)을 포함한 수치이나, 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29.9%(152/508건)로 득점 결과는 동일함.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회·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전북 지역의 경우는 508건 중 63건, 비율 12.4%로, 바람직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전북 지역은 육성지원사업을 총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 ‘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을 통해 도민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갖고 있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점 1.8점, 전북 지역 2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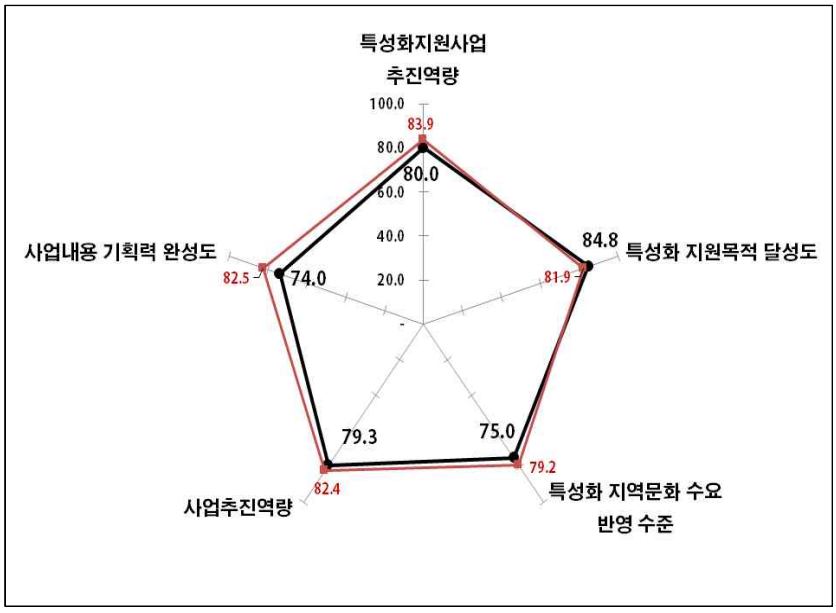
부여했음. 전북 지역은 57.7%(535/927건)로 2013년도 기준에 약간 미달하나, 2012년도 61.2%에서 3.5%를 낮추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15만원임.
- 전북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326만원(1,658,800천원/508건)으로 전국에서 13번째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856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선정률을 더 낮춰 평균 지원 금액을 최소 400만원 대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재단미설립 지역 평균점 3.8점, 전북 지역 5.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소리의 고장으로서 특성을 간단하게 제시 (위원 B)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 지리적 생태적 특성을 소재로 무대공연작품을 제작 공연하고 있으며, 특히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 특성을 반영한 전통작품을 많이 공연하였다고 언급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간단하게 목록으로 제시함. (위원 B) 지원 선정 목록 6건을 간단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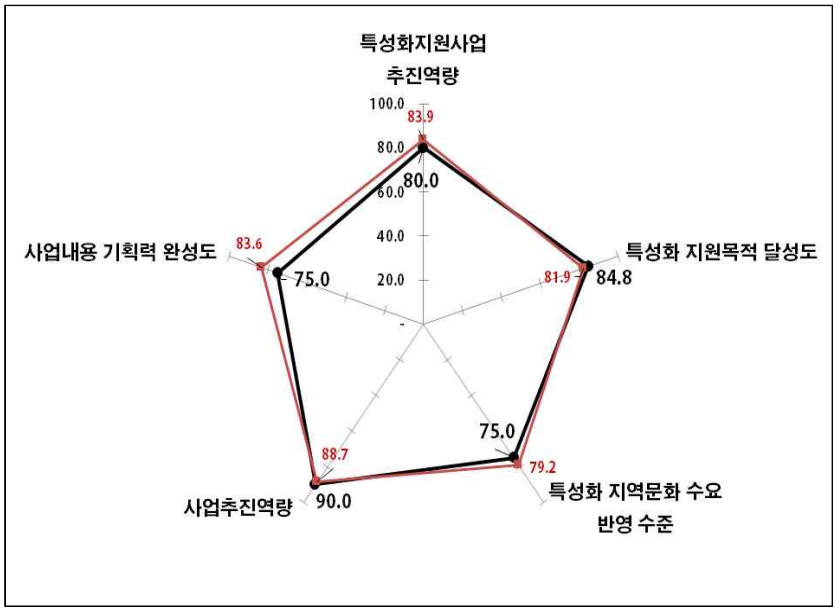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214] 전북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전북 지역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임.
- 미술가 지원사업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업임. 지역특성을 살린 기획이라기보다 작가지원 사업으로서 추진하므로 기획사업에서 지역독창성과 기획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점을 찾기 어려움.
- 해외전시가능성과 같은 개인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수준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기획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미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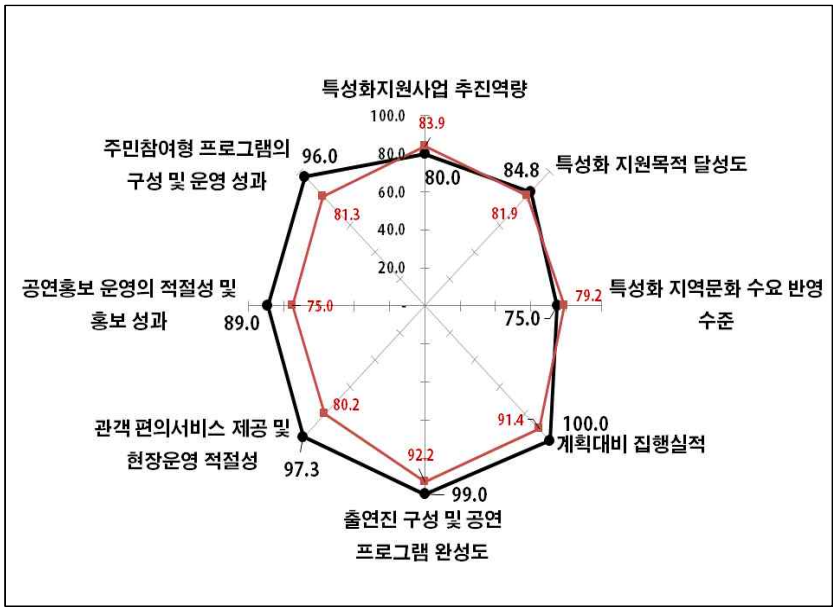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215] 전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선정된 단체들 중 다수가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전문성이 뛰어남. 한편 5개의 선정 기관 중 전북 전문예술법인(21개)에는 1개만 소속되어 있어, 앞으로 전북 레지던스 기관들이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의 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문법인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레지던스 공간이 한옥마을에 위치해서 기본적으로 지역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학관의 경우 구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공간이어서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고유성을 획득함.
-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맡겨져서, 큐레이터 간 협의체나 레지던스 사업체 간 협의체 등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추구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레지던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협의 채널이 필요시에는 대응할 운영체계를 급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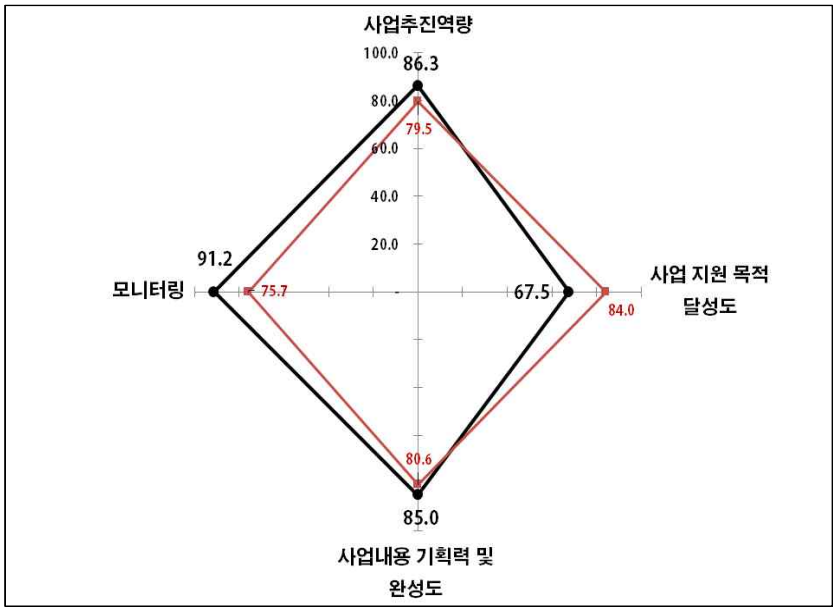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216] 전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전북 지역은 전라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43개 단체(신규 17개 단체), 본 공연 20회, 찾아가는 공연 2회를 진행하였음.
- 전통예술명품공연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을 지속하였고,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 추진, 도내 문화예술동호회의 열린무대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를 구성함.
- 관객의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해 테마가 있는 문자보내기, 이야기판 작성, 관객스타킹, 프러포즈, 시기별 주제를 통한 스토리텔링 등을 운영함.
- 우천 시 대책마련, 행사 사고대처 시스템 마련, 긴급조치 물품비치, 안내데스크 설치 운영 함.
- 리플릿 제작 배포,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커뮤니티운영, 홍보영상차량운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활동 진행함.
- 개 · 폐막 특별기획, 전북의 재발견, 청출어람, 한 여름밤의 소나기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추진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17] 전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6.3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67.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85.0점, 공연장 모니터링 91.2점임.

- 전북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0.6점임.

□ 지원 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비율은 36.37%이며 공연장상주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글로리아스트링오케스트라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협력하여 첨단 산업현장의 클래식 음악회를 추진한 사례 등을 사업 관련기관과 협력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관계 제시가 전혀 없음.

□ 수행단체 선정과 예산집행만을 성과 목표 달성도로 제시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 와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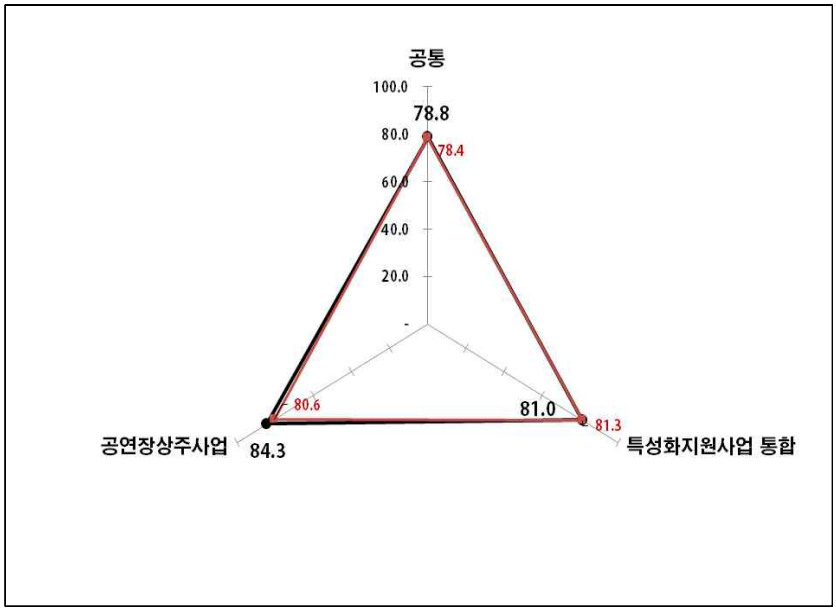
□ 교류사업 7천만 원 별도로 책정하여 포럼,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2012~13 레퍼토리 북을 제작함.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은 임시 담당인력을 채용하여 준비함. 11개 상주단체가 참여하고 타

지역 우수단체를 초청함.

-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지역민의 의견 수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함.
- 상주단체 극단 '문화영토 판' 이 「민들레 아리랑」이라는 작품으로 제 31회 전국연극제에 참가하여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연출상을 수상함.
- 전북 지역에서는 공연장상주사업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다수의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소극장 페스티벌, 소극장 임대료, 창작 지원 등 다각적인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13절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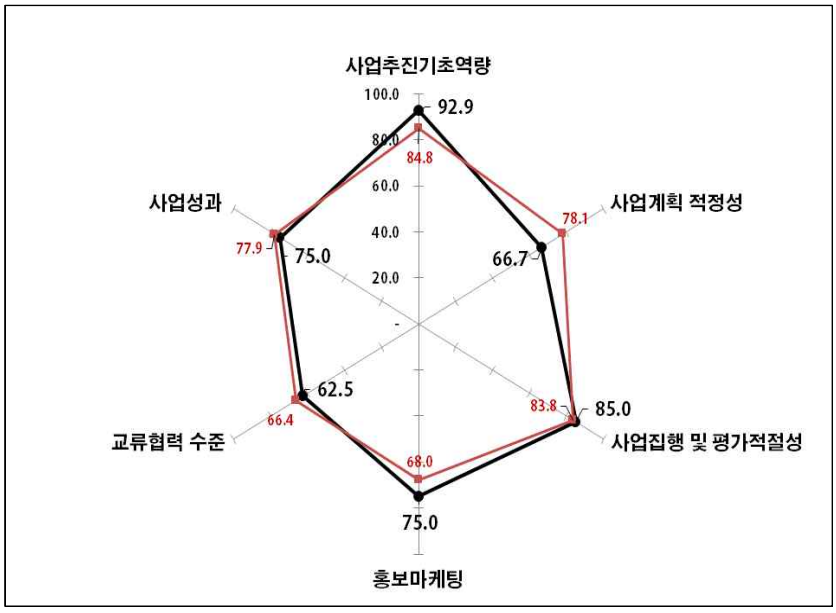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218] 전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전남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78.8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1.0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4.3점으로 평가됨. 공통평가나 특성화지원 사업 통합부문은 평균점과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았으며, 공연장 상주사업 부문에서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전남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연장상주사업과 레지던스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나 평가등급이 상향되는 성과를 보여줌.
- 전남 지역은 2013년 평가에서 처음 시도되는 개선도 평가 부문에서 충북에 이어 전국 2위의 개선도를 보여 연간 사업추진역량의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됨.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에 비해 재단 설립초기의 사업추진역량 부족과 도와의 종속관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재단 인력충원과 역할분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단계적으로 재단의 지원사업 추진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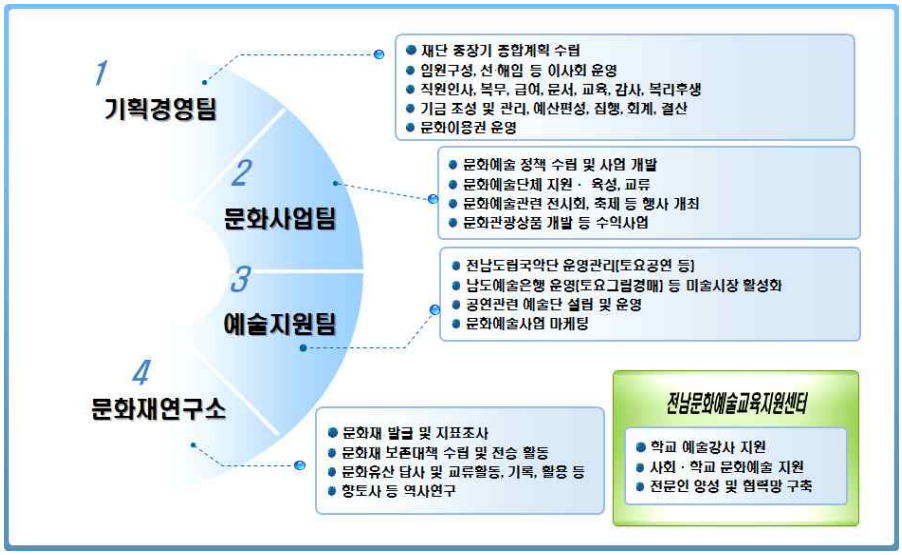
[그림 219] 전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전남지역은 지난해에 비교해볼 때 사업추진역량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 전남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의 평점은 78.8점임.
- 전남 지역은 2013년 지원사업의 목표를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체계확립', '재단담당자 및 지원 단체 역량강화', '홍보확대를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각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지역은 '전남문화예술을 꽃피우는 행복문화발전소'라는 재단의 비전을 정하고 '예술창작가꾸기(예술창작공동체)', '문화복지 나누기(문화복지공동체)', '문화감수성 더하기(생태감성공동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전략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옴. 이 6대 전략을 핵심으로 전남문화예술사업의 10대 중점사업 및 10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0]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목표 및 6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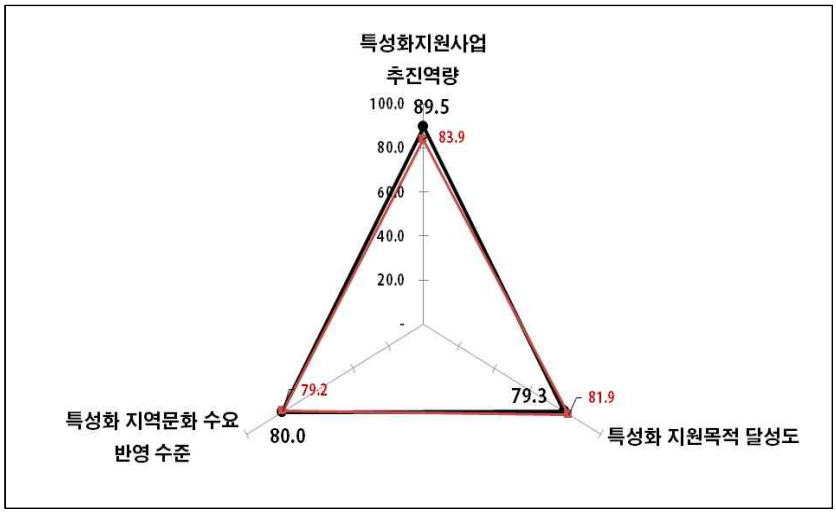
□ 전남문화예술재단은 2013년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단의 수익사업 및 공익사업을 위한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여 재단의 활동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사업팀은 기존 2명('12년)에서 4명('13년)으로 인원이 충원되어 전문성과 운영역량이 강화됨. 또한, 재단담당자 및 지원 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2회), 우수사례 현장견학(2회),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참여, 회계 및 문서작성교육(6회), 타 재단 벤치마킹, 스터디 모임 운영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1] 전남문화예술재단 조직 소개

- 전남 지역에서는 재단소식지 '문화랑'을 창간(2013년 6월)하여 2호까지 발행하였음.
-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부권(순천), 서부권(무안), 중부권(담양)으로 나뉘어 진행함.
- 공연장상주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시·도기획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관객만족도 조사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전남 지역은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시안, 보성, 고흥, 완도 등 9개 군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좌담회를 통해 재단 사업에 대한 소개,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팅, 지역 문화예술 수요 및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지역의 호응을 얻음.
- 공연장 상주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도민에게 다양한 공연예술 향유기회를 주기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예술단체간 공동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여름공연 페스티벌 남도신명 9·9 樂'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페스티벌은 46일간 9개 단체가 순차적으로 공연을 개최하였음.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222] 전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전남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2.9점임.

□ 전남 지역은 전북지역과 유사하게 평가 결과 전국 평균과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았음. 3개 평가 항목 모두 안정적인 추진역량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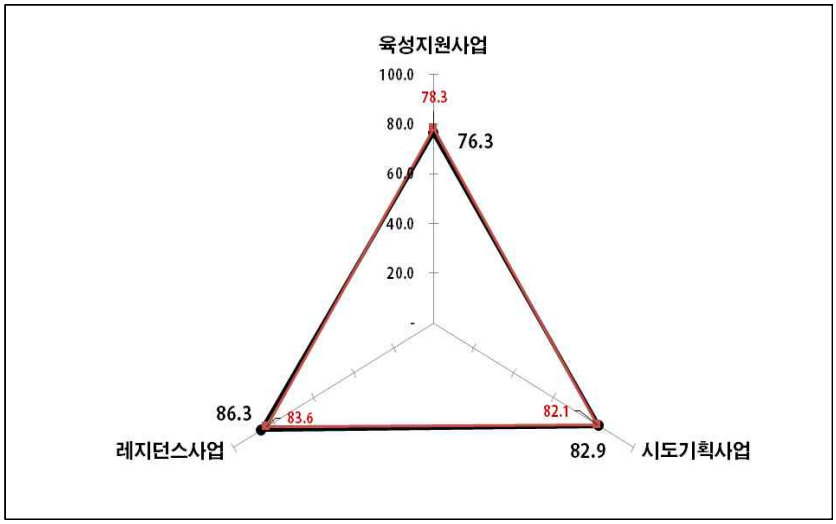
□ 전남 지역은 2012년에 17개 단체에 비해 2013년 전문예술법인 등록수가 29개로 늘어남. 지원단체 선정 시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을 우대함.

□ 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협력 수준에서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결과보고전시회를 '바람타고 전해지는 남도의 숨결전'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으로 개최하여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심포지엄과 함께 추진함.

□ (사)남도문화디자인과 공동주관으로 문화예술전문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13주에 걸쳐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음. 종합강의 5주, 모둠별 강의 8주로 워크숍과 현장견학, 기획안 발표 등 실질적인 기획력 향상을 목표로 한 교육을 추진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레지던스지원사업의 경우 각 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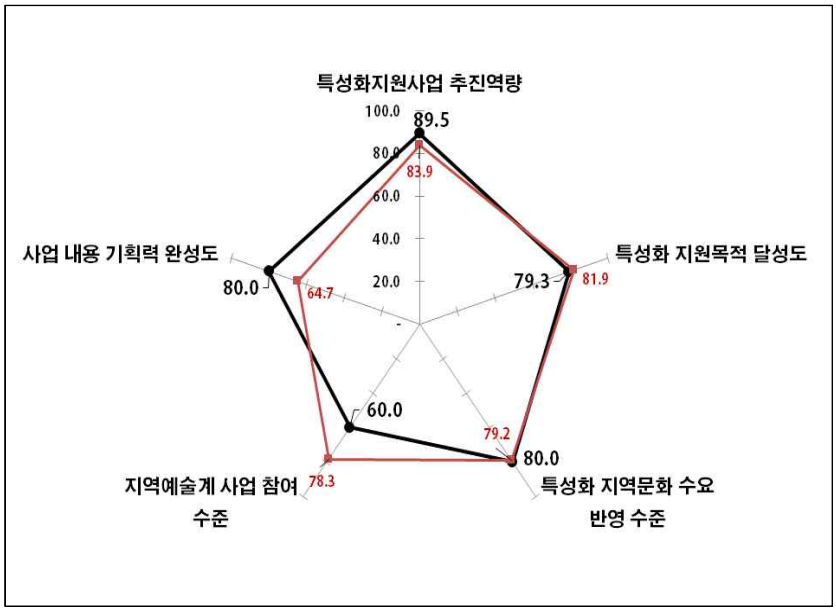
파악됨. 특히, 상상문화발전소 1839년 전국 유일의 사진레지던스 추진 단체로 순천만 프로젝트, 남해안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



[그림 223] 전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전남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3개 사업은 전북지역과 유사하게 전국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음. 육성지원사업 76.3점, 시 · 도기획사업 82.9점, 레지던스지원사업 86.3점으로 평가됨.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24] 전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전남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7점(백분위 환산 시 7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2점(4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8점(8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7점(백분위 환산 시 68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전남 지역 7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전남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36.0%(116/319건)로 적정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전남 지역의 경우는 선정비율이 24.8%(59/218건)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단이 설립된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32.4%) 중에서는 가장 낮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전남 지역은 도민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전문 예술창작활동과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도민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전남 지역 2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전남 지역은 2013년도 51.7%(319/617건), 2012년도 63.9%로, 선정률을 크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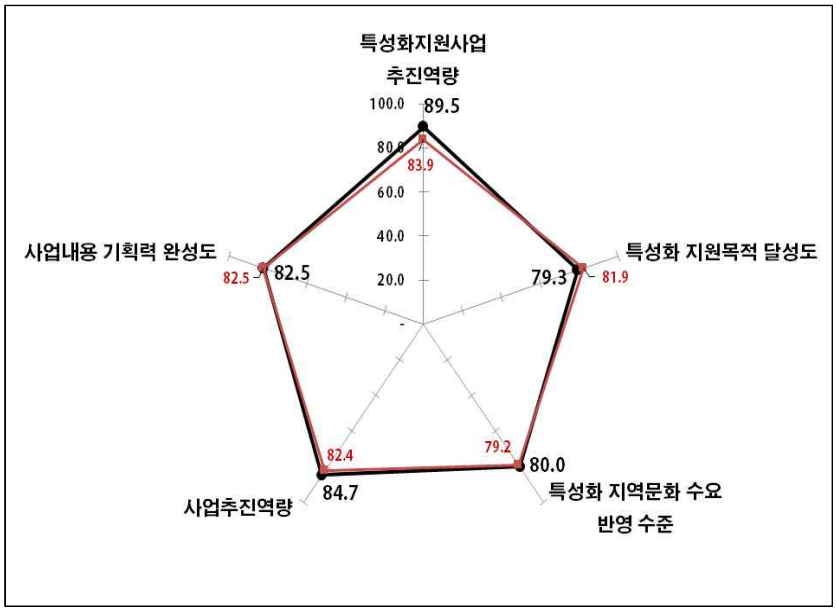
(△ 12.2%)하여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도 기준(50% 이하)에는 약간 미달함.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32만원임. 전남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266만원(848백만 원/319건)으로 전국 15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432만원)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지원 금액(393만원)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육성지원사업에 자체 자금을 추가 투입하거나 선정률을 더 낮춰 평균 지원 금액을 400만 원대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을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전남 지역 8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도민 한울리 생활문화 지원사업 등 지역 독창성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위원 B)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창작지원 제도 및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지역의 섬문화 관련 사업 제시 (위원 B) 섬문화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 노력, 도민한울타리 생활문화사업 11개 사업의 개요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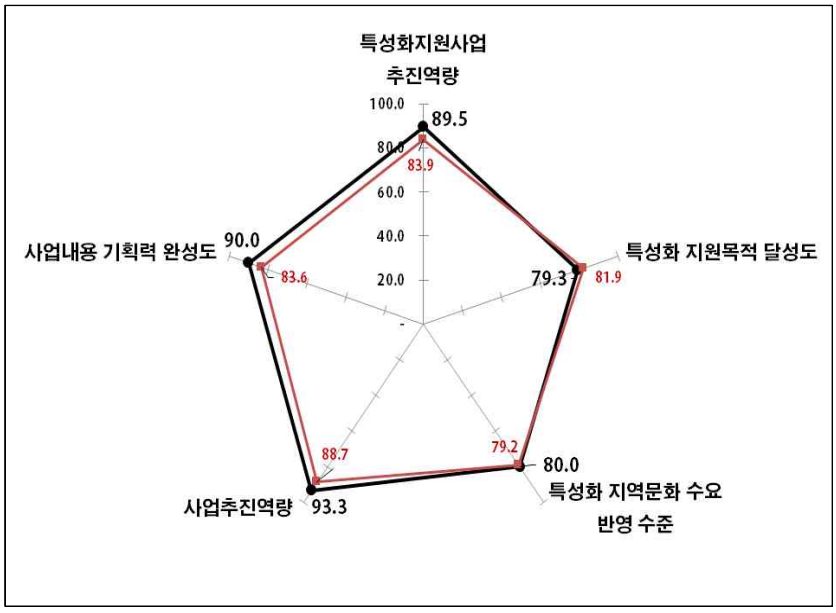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그림 225] 전남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전남 지역의 시·도기획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은 84.7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임.
-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이루기 위해 현장견학을 하고 있으며, 개별 수행업체들이 단체의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 전체참여 수행사의 역량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만 기획자교육을 시·도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특성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지역 독창성을 살리기 위해 남도섬을 주제로 다루고, 유배문화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지역특성을 살린 독창적 기획임. 남도 예술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민참여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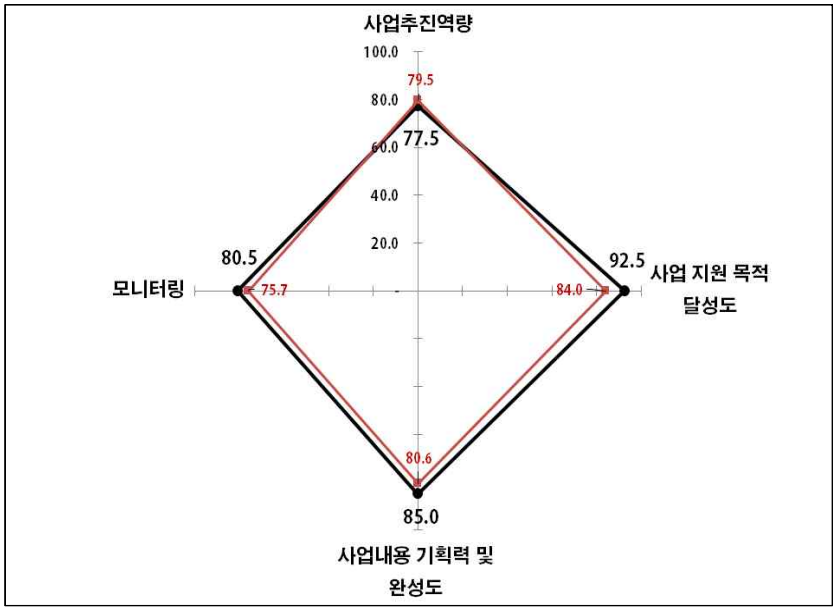
[그림 226] 전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문문예법인 40%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함. 선정기준(장르, 공간, 프로젝트 특성 명확화)을 충족시키고,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단체들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였음.
- 재단 뿐 아니라 사업수행단체의 협력관계와 협업추진 실적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
- 국내 레지던시의 경우 해외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이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점이 아쉬움.
- 5개의 레지던시 기관이 전남 지역의 외곽에 고루 분포되어 해당지역의 주민, 산물,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가 수행됨.
- '찾아가는 좌담회' 등 지역수요반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를 활용하여 순천 원도심 기록화 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계기성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이 수행됨.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전남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27] 전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77.5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2.5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85.0점, 공연장 모니터링 80.5점임.

- 전남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4.3점임.

□ 올해는 2년 연속 지원사업(‘12 ~ ’13년)에 해당되어 전년도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1년간의 성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함.

□ 선정된 10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은 7개로서 선정비율은 70%이며 공연장상주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공연장의 기획전문 담당자 보유 현황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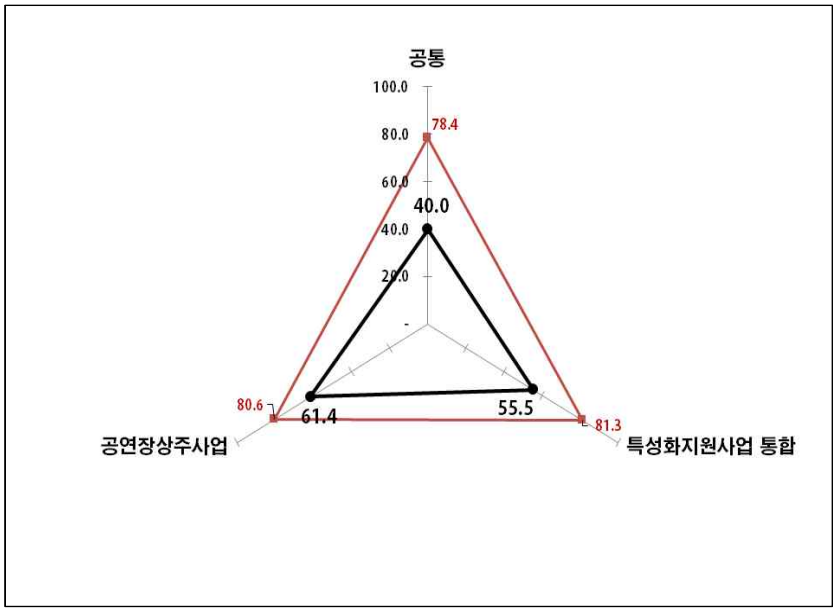
□ 상주단체의 전문역량 강화 및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시 컨설팅, 워크숍(2회), 전문기획자

양성교육(13주), 우수사례현장견학, 찾아가는 교육 및 간담회(공공공연장), 공연장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연간 추진함.

- 지역 기업, 시/군, 학교, 언론 등과의 협력활동이 활발하며, 도내·외 관계기관(단체)과의 협력하는 재단 차원의 협력관계와 수행단체 차원의 협력관계 및 협력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연장상주사업의 공연 · 교류 · 퍼블릭 프로그램 목표와 실적을 제시함. 100% 이상의 목표달성도를 보임.
- 재원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담양군 5백만 원, 국제정원박람회 10백만 원, 빛소리오페라단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후원 10백만 원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함.
- 전문가 현장평가 및 도민 모니터링을 추진함. 또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연장상주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만족도는 85.7%에 이름.
- 목포의 갯돌이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한 ‘독립운동가 김철’,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등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작활동을 추진함.
- 3회의 대표자회의와 7회의 실무자회의를 거쳐 9개 단체 9개 작품이 참여하여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남도 신명 9 · 9 樂’을 개최함.
- 현장평가, 현장점검, 상주단체 연간 사업평가 등을 통해 공연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남문화예술 실태조사(1회), 재단 워크숍(2회) & 심포지엄(1회), 찾아가는 좌담회(8회),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통해 꾸준히 상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 반영사항을 제시함.

제14절 경북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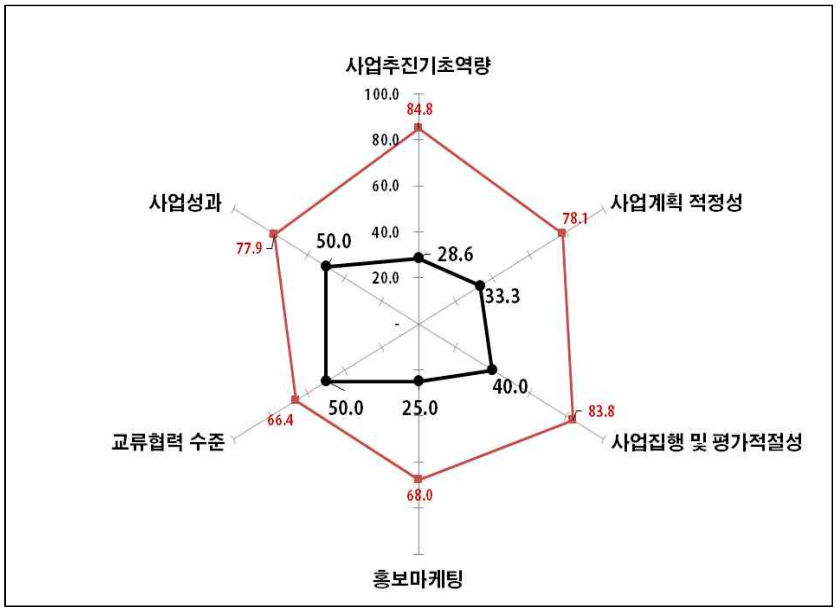


[그림 228] 경북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경북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40.0점, 특성화지원 통합 부문은 55.5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61.4점으로 평가됨. 3개 사업 중에서는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가 가장 높음.

□ 경북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하위권의 평가에 그쳐 지원사업 추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성화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근본적인 역량개선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설립이 시급히 요구됨.

2. 공통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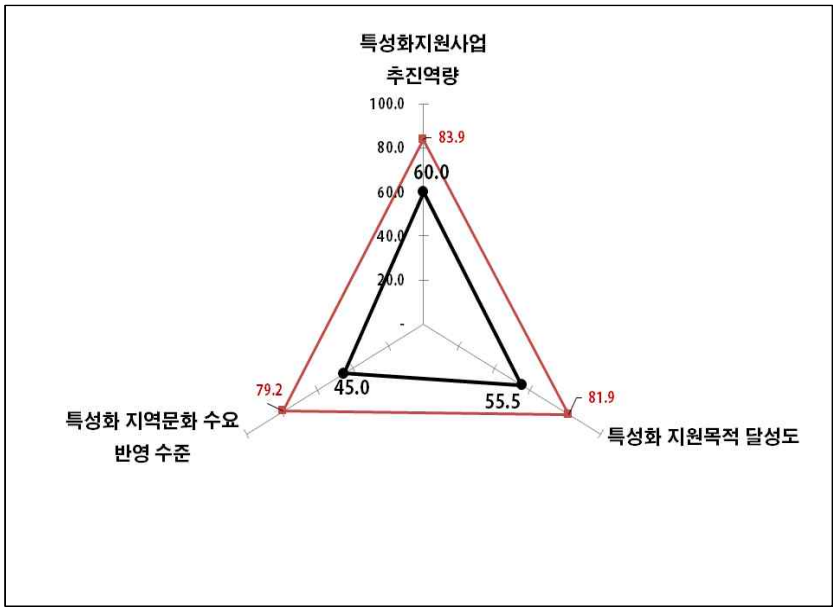
[그림 229] 경북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경북지역은 지난해에 비교해 비슷한 평가를 받았으며, 공통 평가 항목 분야의 평점은 40.0점으로 각 평가지표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가 결과를 얻었음.
- 경북 지역은 2012년도에 경상북도 문화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인 '경상북도 문화정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
- 경북 지역은 심의체계에 있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북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을 도 조례로 설치하여 각 분야 전문가 12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사업공모 신청에 따른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심의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음.
- 지역 간 교류 사업으로 영 · 호남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음. 2013년 특화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사업을 추진하여 경북지역과 전남지역 예술인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소통 및 각 지역의 접하기 어려운 장르에 대한 상호보완을 통해 공연문화의 지역적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경북도립국악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의 관현악, 무용, 창극공연 등 교류 · 합동 공연을 추진하여 전남 화순 허니움 센터와 경북구미 문화예술회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순회공연을 추진함.

□ 비계량적 성과로 시 · 도기획사업의 경북오페라단은 대한민국 오페라상 기획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시안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2013년도 올해의 큐레이터 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사업으로 성과가 나타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230] 경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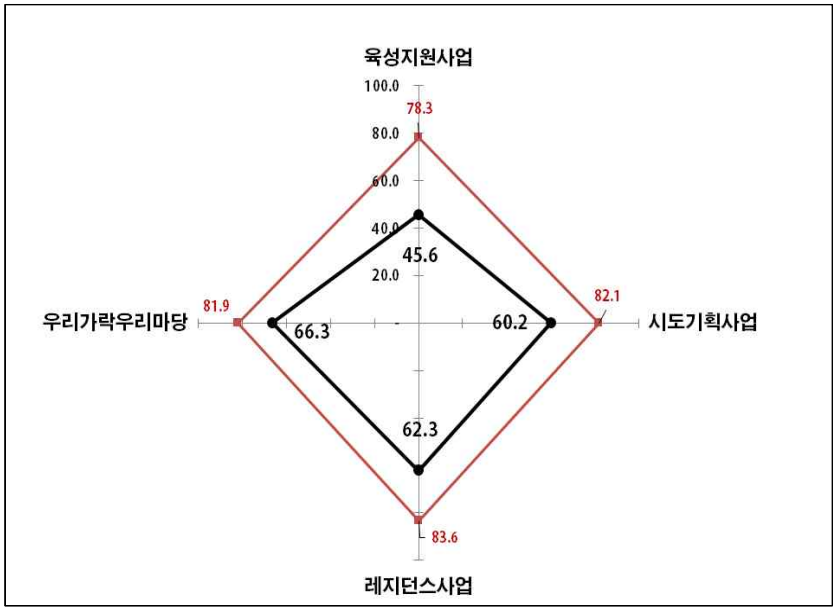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경북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53.5점임.

□ 특성화지원사업 및 공연장상주사업은 경북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예술단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신규단체 또는 동호회 수준의 단체가 아니라, 전문 예술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참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시민모니터링 조사 및 관객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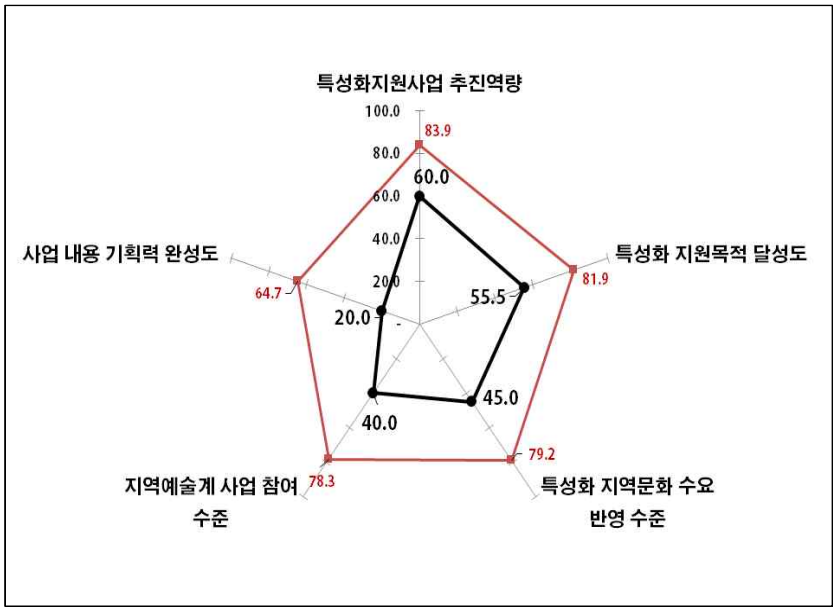
□ 시·도기획사업은 경북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어촌 시군이 많고 넓은 경북지역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도민들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31] 경북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경북 지역은 특성화지원사업의 4개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추진사업 중 육성지원사업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육성지원사업은 45.6점, 시 · 도기획사업은 60.2점, 레지던스지원사업은 62.3점, 우리가락우리마당사업은 66.3점으로 결과가 나타남.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32] 경북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경북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5점(백분위 환산 시 5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1점(2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2점(20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8점(백분위 환산 시 32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재단 미설립 지역(2013년 기준 울산, 충남, 전북, 경북) 평균점 6.8점, 경북 지역 5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경북 지역은 9.3%(24/259건)로, 평가위원 간 바람직한 수준으로 판단한 기준(25% 이상)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경북 지역의 경우 99.2%로 제시하여 지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 신진예술가) 전체 지원 선정건(259건) 중 신진예술가 분야 지원 선정건 2건을 제외하고 99.2%(257/259건)로 제시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경북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가 문화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과도할 정도로 많은 단체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마추어 및 도민문화예술단체 선정 비율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수가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함.” 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정작 도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전문 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 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점 1.8점, 경북 지역 1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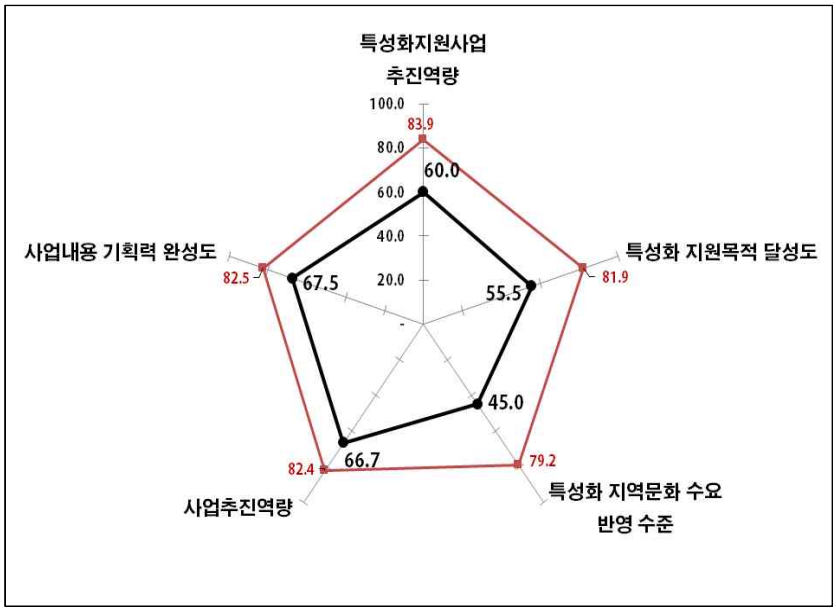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경북 지역은 2013년도의 경우 75.1%(259/345건)로 2012년도 80.0%보다는 낮아졌으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청 3건 중 2건이 선정되어 평균 200만원도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15만원임.
- 경북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193만원(500백만 원/25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15위 전남 266만원, 14위 충남 286만원). 육성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5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선정률을 유지하고 있어 평균 지원 금액이 가장 낮아 질 수밖에 없음.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선정률을 낮춰 평균 지원 금액을 최소 400만 원 대 이상으로 높일 것을 강력 권장함.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재단미설립 지역 평균점 3.8점, 경북 지역 2점(기본점수)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와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총 259건의 지원건 중 경북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고 추정해 볼 때, 평가위원 워크숍에서 타 시도와 달리 자체평가보고서가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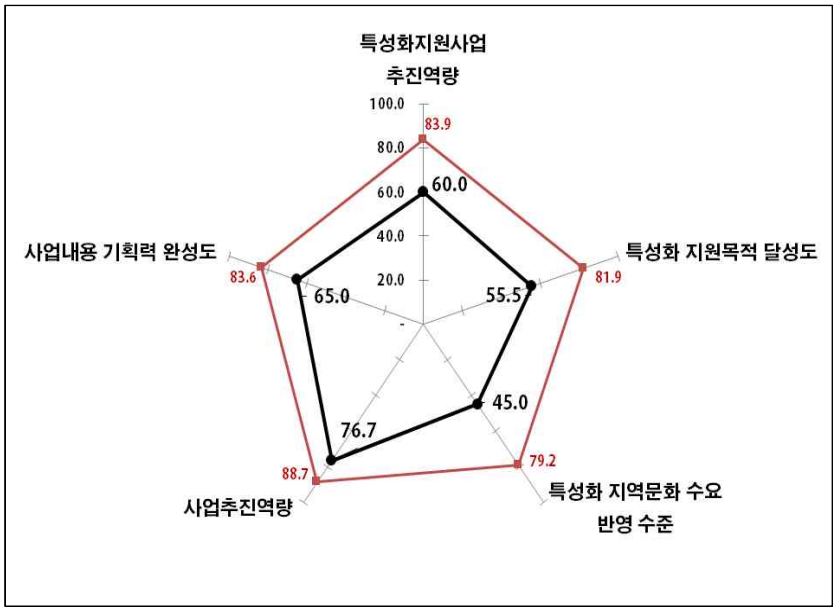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233] 경북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경북 지역의 시·도기획사업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2.5 점임.
-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 가운데서 소재를 찾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기획하려고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콘텐츠화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 참여율이 낮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련 기관 협동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아쉬우며 기획사업의 특징상 기획협동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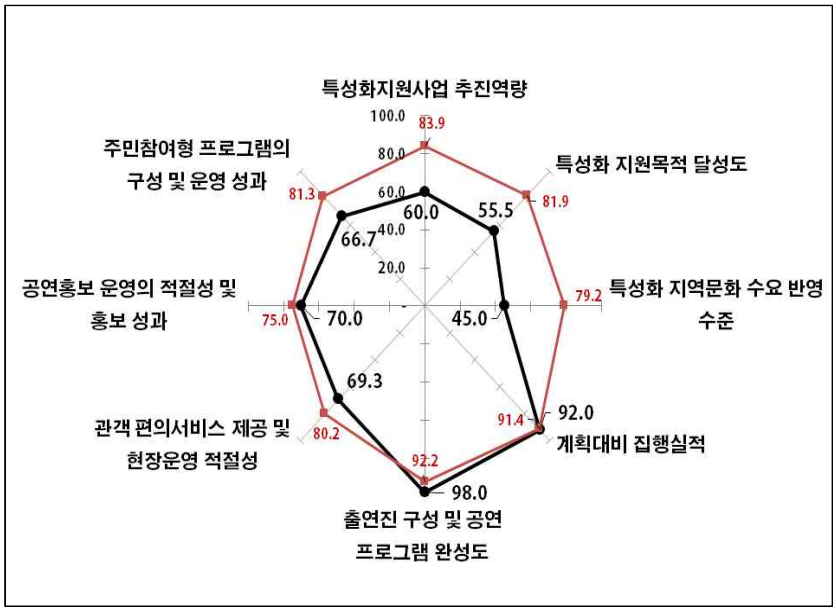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림 234] 경북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3개의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는 없으나 기존의 레지던스지원사업 수행단체로 사업 경력은 충분함. 다만 3개 기관 모두 지속적인 사업수행주체로서 레지던스 신규 기관 발굴이 미비하여 미래의 레지던스지원사업 확대 예측이 불가함.
- 협력체계 구축 성과는 지역협력형 사업 예산의 배부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영남협력관만 제시되고 있음. 물론 문화예술위원회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역 내부의 문화예술계, 전국의 문화예술계, 그리고 아시아권역이나 전 세계의 문화예술계와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민과 시도가 필요함.
- 농어촌 시군이 비교적 많은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향수 소외지역의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수행이 바람직했음.
- 주변의 환경을 활용한 환경 프로젝트의 경우 실내 건물이 아닌 마을 전체를 무대로 주민들의 거리퍼레이드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예술결과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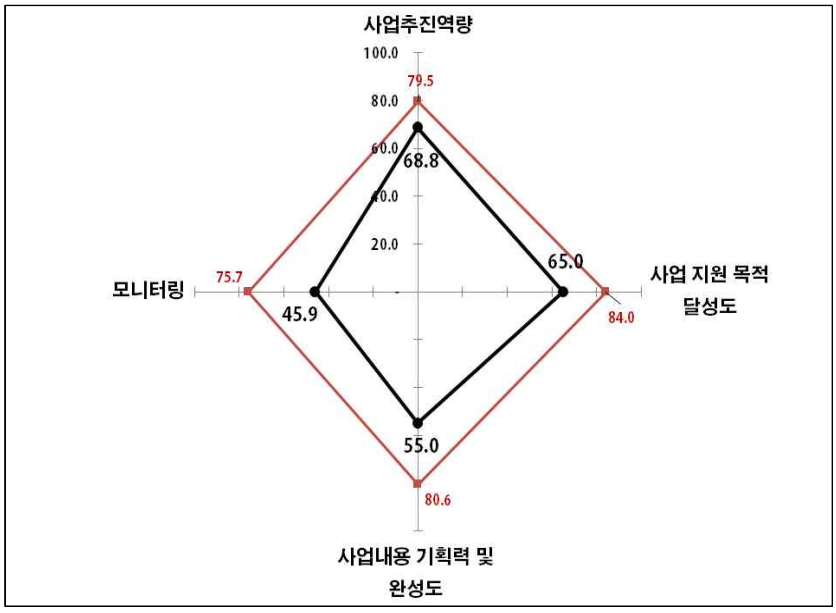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그림 235] 경북 지역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 결과

- 경북 지역은 총34개 단체(신규10개 단체), 총 20회를 진행하였고, 경산시 생활체육공원 내 물소리 공연장에서 진행하였음.
- 관내 대학, 국악 동아리와 협력하여 지하철역, 경산역, 시장 등에서 프린지 공연진행 함.
- 초 중 고 학교와 유치원에 배포할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
- 아마추어동호회, 신진예술가, 학교동아리, 어린이 국악 관련 단체 등 특별출연 진행.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36] 경북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68.8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65.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55.0점, 공연장 모니터링 45.9점임.

- 경북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61.4점임.

□ 공연장상주사업에는 7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전문예술법인은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나머지 2개 단체도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공연단체로 파악됨.

□ 공연장의 기획전문 담당자 보유 현황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선정 심의위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남협력관을 당연직으로 위촉한 것만을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활동으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음. 공연장상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 형성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 성과 목표 설정 및 실적 달성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지역의 특성상 도시 시군과 농어촌 시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예술 장르별로 시군을 안배하고

있으나, 작품에 대한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 추구에 대한 제시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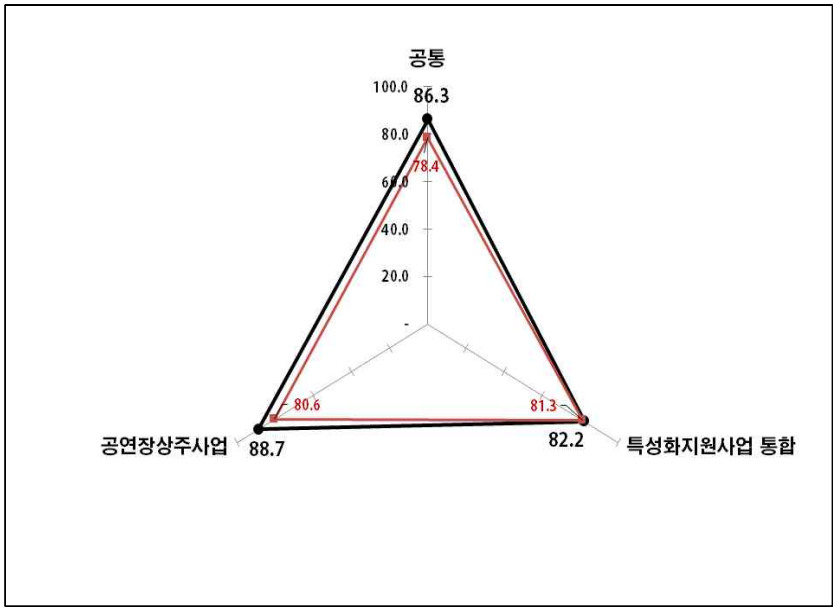
□ ‘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워크숍, 영남사랑방 등을 활용해 상주단체와, 공연장 간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공유, 우수사례전파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주단체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선정된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와 수시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반영 결과에 대한 제시가 없음.

□ ‘공연장에 구축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 등에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토록 하여 수시로 반영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으나,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제15절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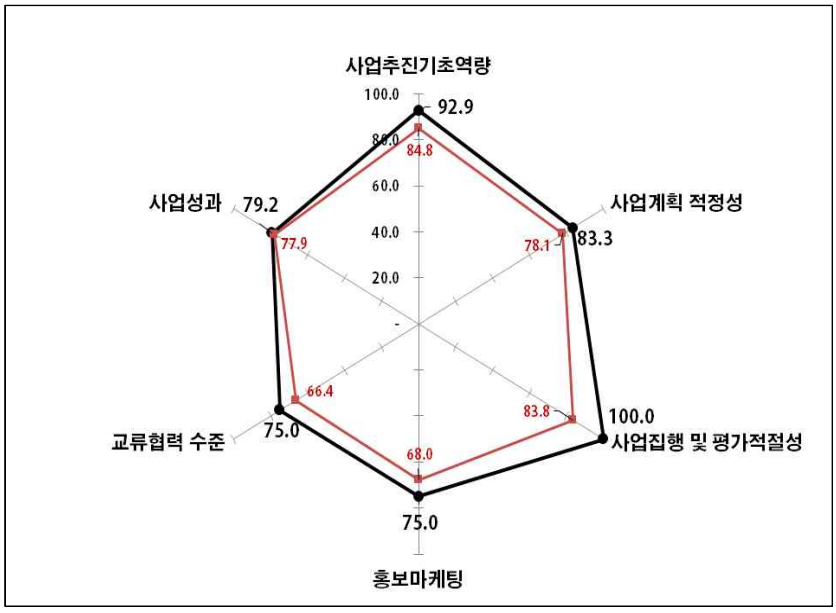
1. 종합



[그림 237] 경남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경남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분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86.3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2.2점, 공연장상주사업 부문은 88.7점으로 61.4점으로 평가됨. 3개 사업 중에서는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가 가장 높음.
- 경남 지역은 종합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한 등급 낮아진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연장상주사업은 가장 높은 '가' 등급으로 평가됨.
- 경남 지역은 지난해보다는 평가 결과 는 약간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는 볼 때 광역도단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순위 지역으로 볼 수 있음. 개별 사업별로 지원사업의 프로세스별 추진역량이 고르게 잘 갖춰져 있으며, 향후에는 개별사업별 추진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우수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238] 경남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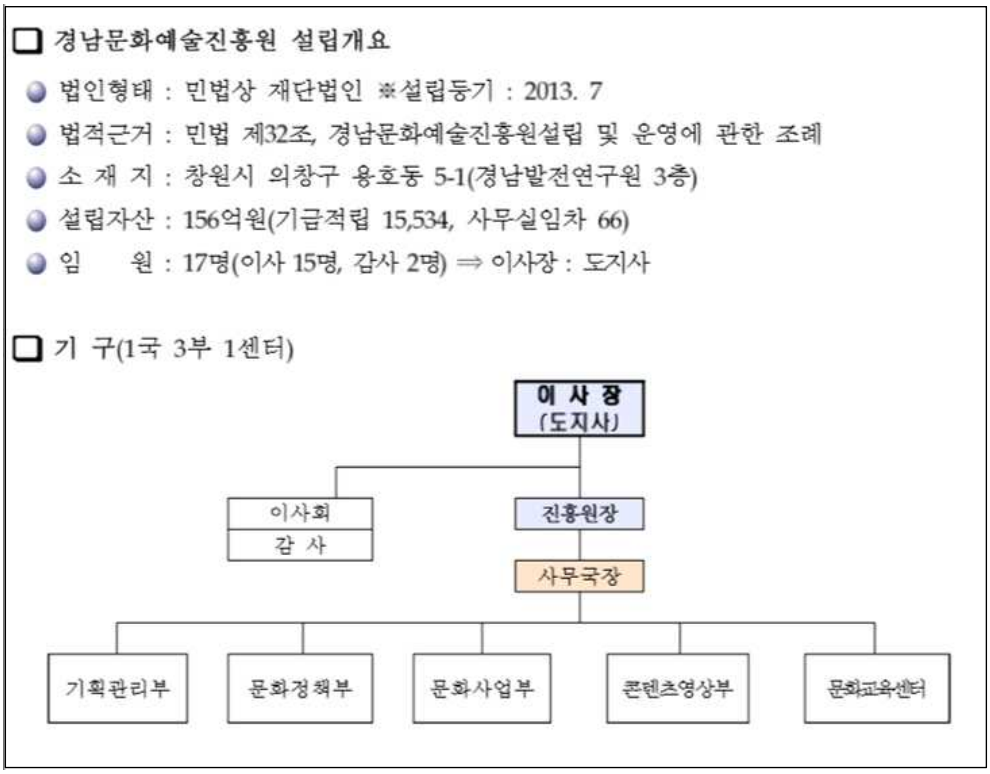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사업집행 및 평가적절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항목 중에서는 홍보마케팅과 교류협력수준의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옴. 공통 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 는 지난해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지역의 공통평가 부문의 평점은 86.3점임.

□ 경남 지역은 2013년 7월 1일자로 경남콘텐츠진흥원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경남 지역은 '지역문화예술산업 부흥으로 행복해지는 경남' 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7대 정책목표 하에 10대 중점추진과제와 36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새롭게 강조된 정책목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특성 콘텐츠 개발' , '영상물 제작 메카육성'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문화예술장르에 영상, 콘텐츠 분야까지 맡게 되어 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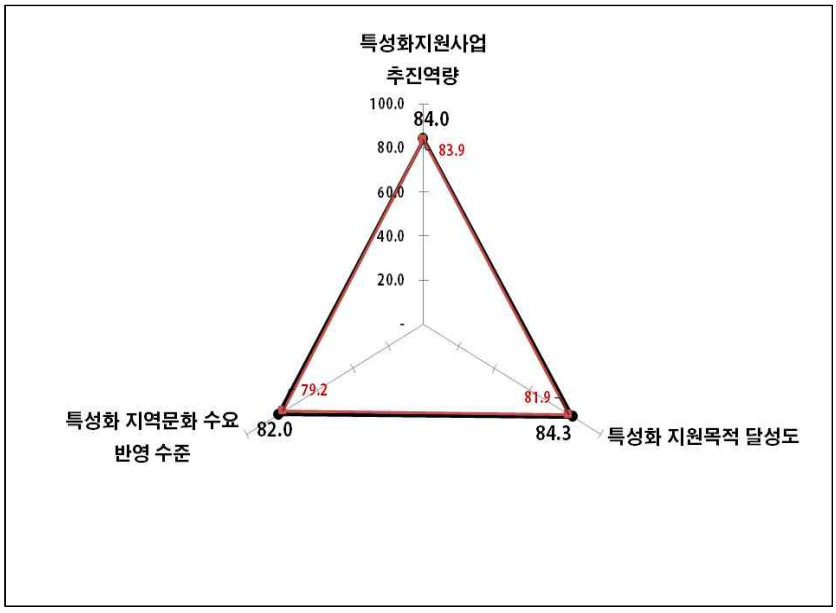
[그림 23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 개요

- 공연장상주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에서 다양한 국내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발표작품수가 427건, 관람객수 약 6만 명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역별, 단체별로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남 지역은 지원사업 공모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중동부 지역은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 서북부지역은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하여 예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별 심의 후에는 심사위원명단과 심사의결서, 심의조서 등 상세한 심사결과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선정단체에 개별적으로 선정결과 통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 평가체계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여부에서 각 사업별 전문예술인으로 전문평

가위원을 위촉하고, 시군문화예술담당자를 행정평가위원으로, 도민평가단을 별도로 공모 선정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 도민평가단의 현장 모니터링 평가, 행정평가가 이뤄짐. 육성지원사업은 문학 · 시각분야 4백만 원 지원사업, 공연 및 문예일반분야는 8백만 원 이상 지원사업, 생활예술분야는 2백만 원 지원사업으로 조건부 평가를 실시하였음.

- 사업홍보를 위해서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도 홈페이지, 각 시 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남 지역은 공연장상주사업 최초로 공연장상주사업 단체들과 레지던스지원사업 참여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남권 문화사랑방을 개최하여 예술단체간, 지역 간 교류를 이뤄냈으며, 수로요보천도예창조학교는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원과 도예분야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였음.
- 계량적 성과에서 연도별 상주공연장 가동률을 제시하였는데, 지역별로 연차별 공연장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계량적 성과에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작가(정수예술촌 김경현작가)가 전국 첫 번째로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임.
- 비계량적 사업성과로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하여 경남의 시 · 군 공공 공연장 가동률이 현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합천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거창교육문화센터의 연습실 증축 등 공공공연장으로서 지역주민 문화향유 제공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240] 경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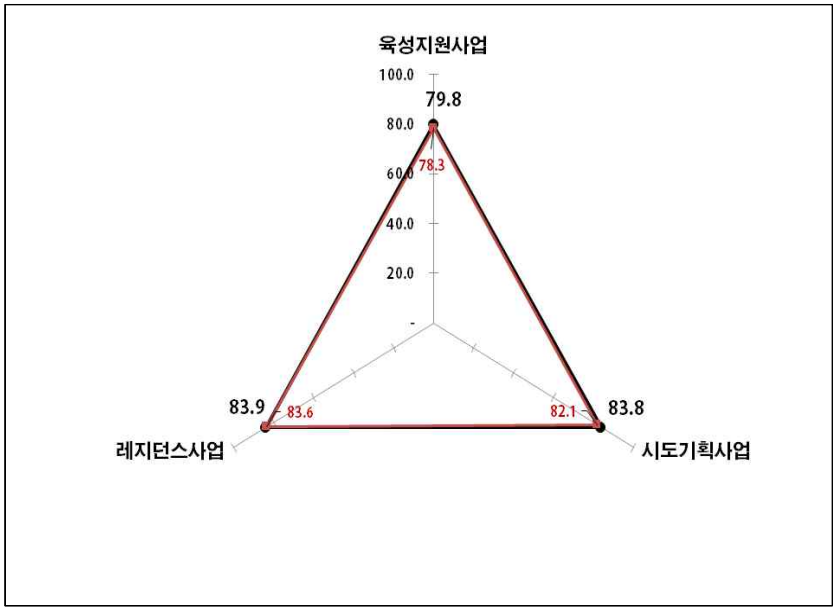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경남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3.4점임.

□ 경남 지역은 전국 평균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세 항목 모두 비슷한 평점으로 안정적인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지역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2013년 기준 총 39개 단체이며 특성화 지원사업에 17개 전문예술 법인 단체가 참여하였음. 전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률은 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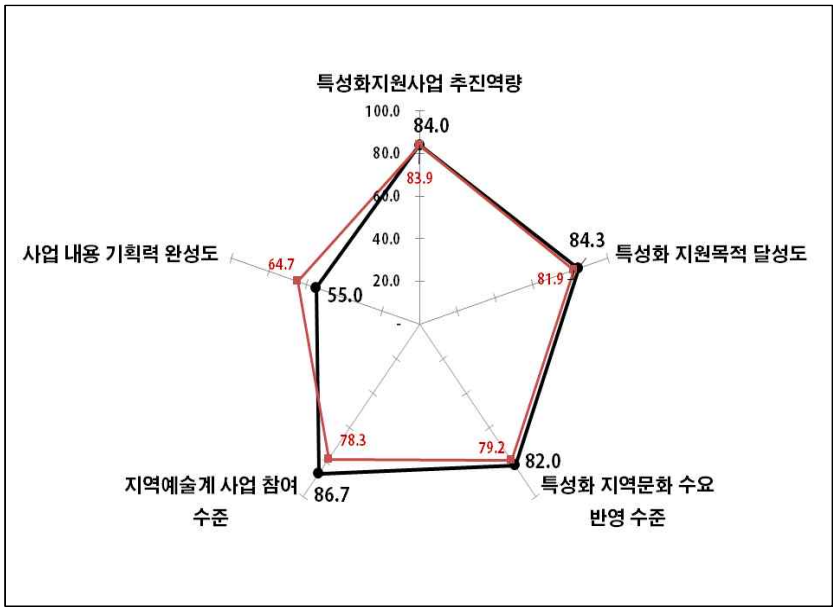
□ 관객만족도 조사는 도민평가단을 운영하여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관객설문조사를 병행토록 하여 높은 관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도출됨. 예산문제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됨. 향후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관객만족도 조사가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림 241] 경남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경남 지역은 육성지원사업 79.8점, 시 · 도기획사업 83.8점, 레지던스지원사업 83.9점으로 전국 평균점과 유사하게 평가 결과가 나왔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42] 경남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경남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9점(백분위 환산 시 9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4점(8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5.5점(5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8.5점(백분위 환산 시 74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경남 지역 9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경남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30.7%(73/238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경남 지역의 경우는 선정비율이 28.6%(68/238건)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단이 설립된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32.4%보다는 낮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경남 지역은 도민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생활문화분야’로 별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갖고 있음. 도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도 3.2%(35/1,102백만원)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바람직함.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경남 지역 4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했음. 경남 지역은 2013년도 41.8%(238/569건), 2012년도 58.6%로, 선정률을 크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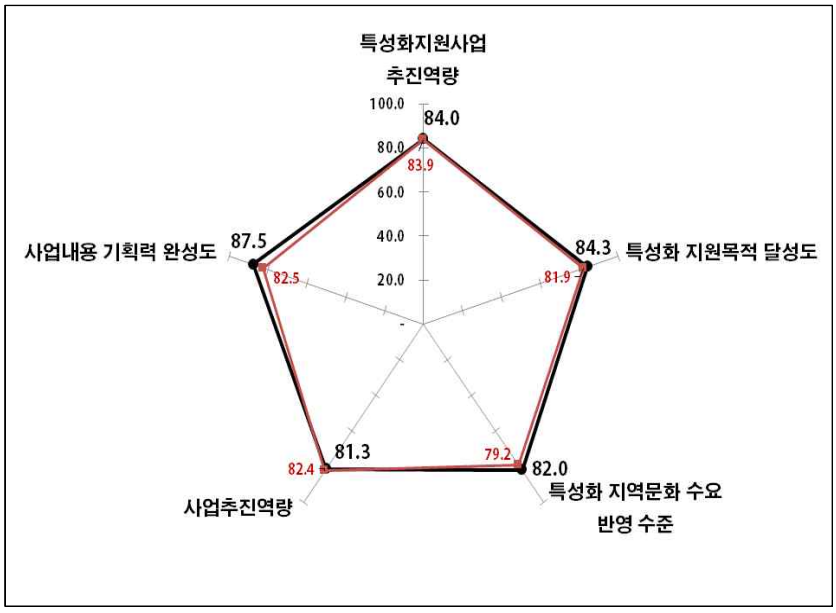
선(△ 16.8%)하여 매우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 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32만원임. 경남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463만원(1,102백만 원/238건)으로 전국 8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지원 금액(393만원)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432만원)보다 많음.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경남 지역 5.5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방향성을 단순 제시함. (위원 B) 18개시군의 지역설화 등 지역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 및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한다고 설명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사례 제시 있음. (위원 B) 경상남도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드러낸 3개 지원사업의 개요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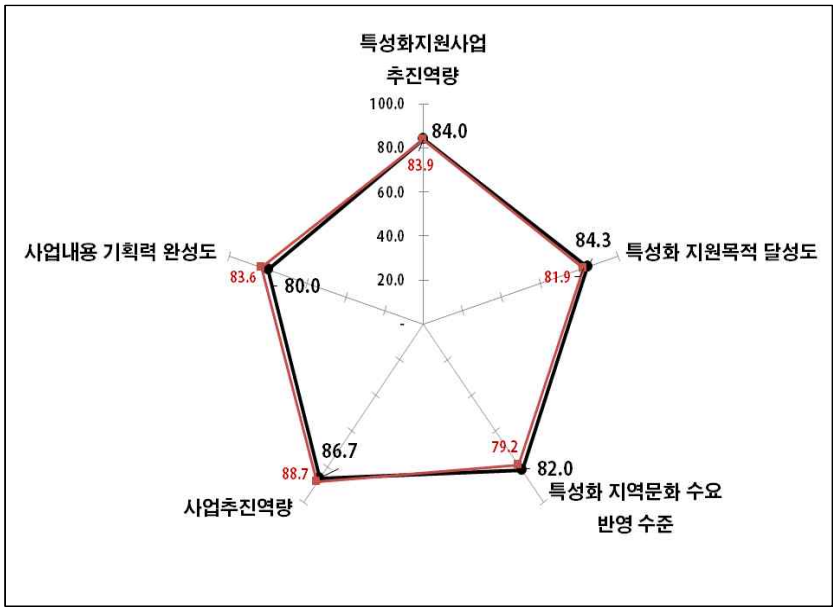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243] 경남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7.5점을 받았음
- 지역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아리랑, 능동을 발굴하여 특성화 시키고 공동화지역의 대안축제를 개발하고 있어 바람직함.
- 전문 인력 확보하고 단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어 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업단체와 이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련단체와 민간기업, 상가번영회, 통영시장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워크숍, 교육, 현장실사, 설문조사 등 관련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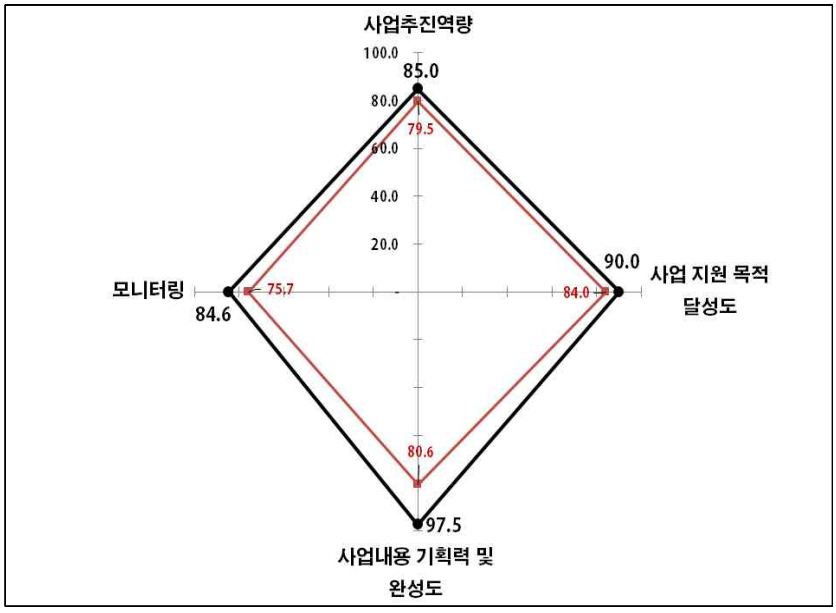
[그림 244] 경남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레지던스지원사업 수행기관이 7개로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수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유일의 도예 레지던스, 옻칠 전통미술관 등 특수한 성격의 전문적 역량이 부각됨.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국내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중국 외에 영역 확대를 도모하지 않아 다소 안일하거나 안주하는 단계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큐레이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성과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음.
- 국제적 관광명소로 지명도를 얻기 시작하여 지역의 고유한 색채를 창조하는 레지던스 사업
- 도예 관련 레지던시의 경우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 등 레지던시를 통한 지역 고유성을 살려내는 성과를 냄.
- 오픈스튜디오의 경우,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정착하기도 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수준임.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경남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45] 경남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85.0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97.5점, 공연장 모니터링 84.6점임.

- 경남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88.7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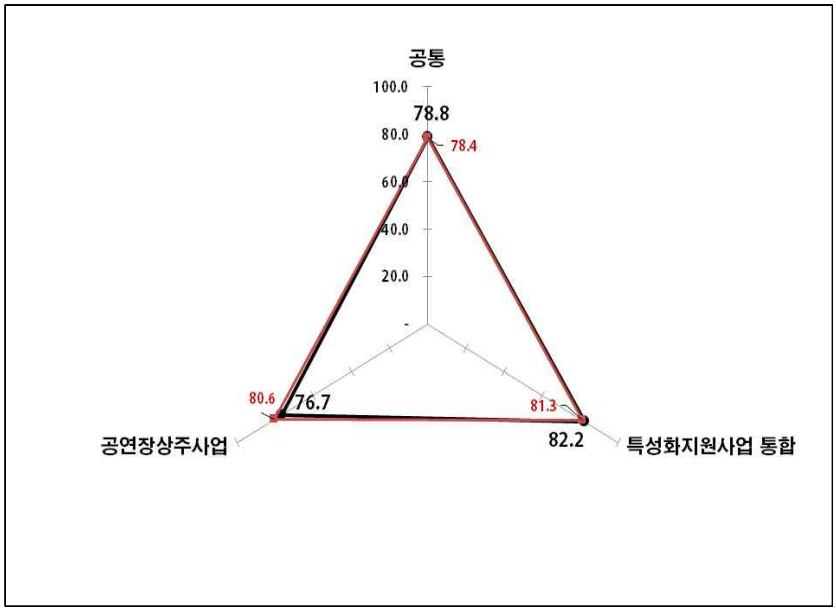
□ 지원 단체로 선정된 9개 단체 중 7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선정비율은 89%이며 공연장상주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상주단체 페스티벌, 상주지기 모임, 권역별(영남권) 문화사랑방 등 경남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일 정도로 공연장상주사업에 있어 교류협력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자발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상주단체의 자체적인 모임과 전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고 있음.

- 상주단체 개별적인 협력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지역 내외적으로 재단 차원에서 공연장상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이 보다 추가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공연장 가동률, 지역 공헌, 지역사회 연계 등 사업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이를 위해 심사위원 책임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장평가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경남의 경우 공연장상주사업의 성과가 상주단체들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년도에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예도(거제문화예술회관)의 '선녀씨 이야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선정, 대학로 장기공연 등 작품 판로가 확대되고 있으며, 극단마산(의령군민문화회관)의 2013 대한민국장애인예술축제 연극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고 통영연극제에 초청되는 등 상주단체 전반적으로 국내외 활동이 활발함. 이외에도 안정적인 단체운영 기반을 확보하여 고용 인력을 창출(상근단원과 전문기획자)하고, 극단객석과무대(합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예술극단의 창단(극단 합천)까지 이끌어내고 있음.
- 도민평가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작품의 만족도와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도민평가단이 현장에서 단체별 10명씩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남해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큰들문화예술센터가 제작한 '남해바다 낭랑할배전' 등 상주단체별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에 착안하여 고유성과 차별성이 드러나는 사업들을 추진함.
- 9개 단체가 협력하여 공연장상주축제 '굿드림'을 거창에서 4일, 남해에서 3일간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 2차례의 상주단체 실무자 회의, 5차례의 상주단체 상주지기 모임이 열림.
- 의견수렴을 위해 공연장과 상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무자 회의, 워크숍, 문화사랑방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매 공연 시 관람객 대상 관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에 대한 만족여부 및 관람 후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서술형으로 설문조사 하여 지역민들의 공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있음.

제16절 제주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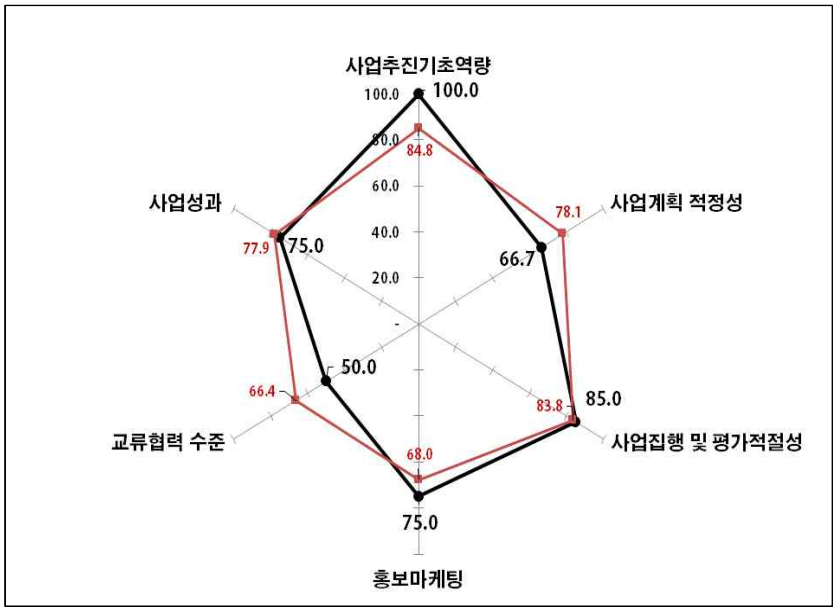
[그림 246] 제주 지역 종합 평가 결과

□ 제주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 특성화지원통합 부문, 공연장상주사업 3개 부문의 종합 평가 결과 공통 평가 항목 평가는 78.8점, 특성화지원통합 부문은 82.2점, 공연장상주사업부문은 76.7점으로 평가됨. 3개 사업 중에서는 특성화지원통합 평가의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옴.

□ 제주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 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나' 등급으로 평가된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종합 평가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라' 등급으로 평가됨.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설립 10년을 훌쩍 넘긴 활동이력을 가진 문화재단으로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개별 역량은 우수하며,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도 안정되어 있는 편이나 공연장 수, 예술인의 창작활동 수준 등 환경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특성화지원사업의 기획, 설계에서 제주지역의 유리한 자원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2. 공통 평가 항목



[그림 247] 제주 지역 공통 평가 항목 평가 결과

□ 공통평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수준, 사업성과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가산점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성과 항목이 추가되었음.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비교해볼 때 사업추진역량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았음.
- 제주 지역의 공통 평가 항목 부문의 평점은 78.8점임.

□ 제주 지역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창의제주 실현'이라는 비전2020에 따라 5대 전략방향 및 1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대 핵심과제 중 지역협력형사업과 관련되는 과제는 '예술의 생활화 기반조성', '예술창작활동 기반조성', '예술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 '제주문화예술의 대표 콘텐츠 개발 육성', '제주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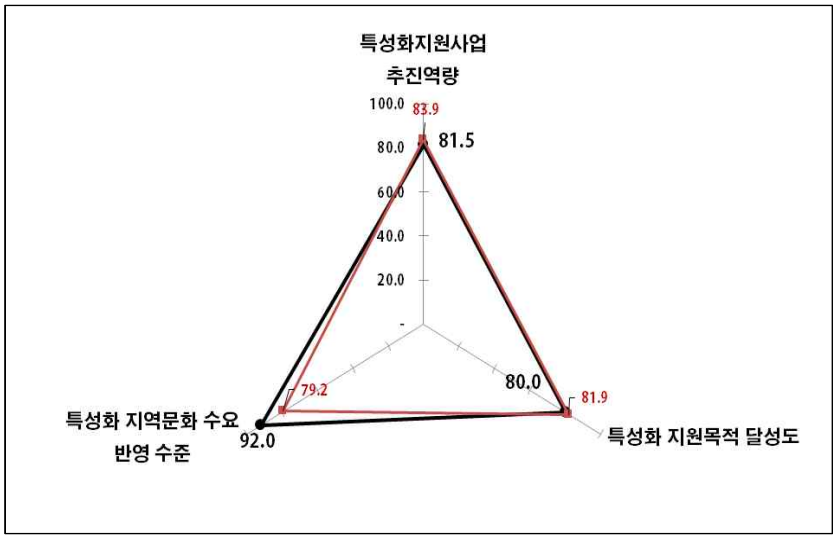
□ 제주 지역은 2013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중장기발전방안연구'와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를 추진하였음. 지원사업 공모안내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제주 지역은 심의위원 구성을 위해 심의 및 평가위원 풀(Pool)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전문가추천 채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심의 후 재단 홈페이지에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과정, 심사평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 도민모니터에 의한 평가, 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객만족도 조사는 도민모니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모든 지원사업이 평가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민문화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민모니터링 평가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 지역협력형사업 성과공유워크숍-제주형 지역협력형사업을 논하다'를 마련하여 상주사업, 시·도기획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의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함.
-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문화서포터즈 '제주 컬처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73명의 서포터즈 활동가가 재단사업 및 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따로 도 같이'라는 제주컬처랑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상하반기 총 7차례의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교류하며 개개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옴.
- 재단 자체 홍보 지원활동으로는 재단 홈페이지, 월간 문화달력 CULTIZEN발간, 계간지 '삶과 문화' 발간, 지원사업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원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협력형 사업기획' 및 '문화예술행사 SNS홍보'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 워크숍을 추진함.
- 제주지역은 제주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다정'이라는 문화사랑방을 운영하며 '문화이주자 간담회-제주에 살레왔수다', '문화이주자 네트워킹 파티 - 동네방네 수다'를 여러 차례 운영하며 제주 예술인들과 이주 예술인들의 교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0월~11월에 걸쳐 제주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100명의 지원사업 단체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짐.
- 레지던스지원사업 추진단체인 '문화공간 양'은 전국 레지던스지원사업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공연장상주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시·도기획사업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그림 248] 제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항목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부문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평가부문으로 여러 특성화 지원사업의 설계와 공연장 상주사업을 제외한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추진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부문임. 통합 평가부문은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역량과 특성화 지원목적 달성도,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제주지역은 특성화 지역문화수요 반영수준이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음.

- 제주 지역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균점은 84.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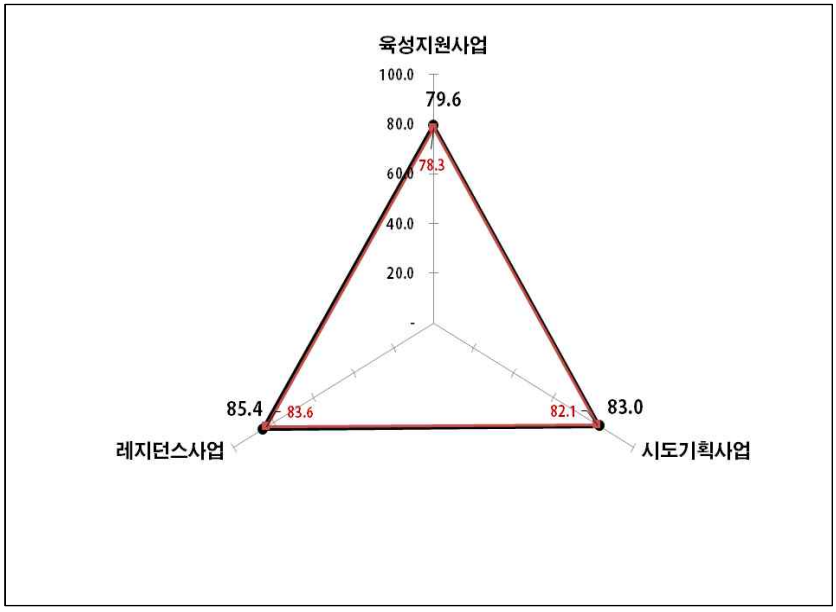
□ 제주지역은 신규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자격을 제시하여 매년 신규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문화예술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신규단체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과 2013년 신규단체 수 선정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남. 신규단체수가 과도하게 높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구분	선정단체수	신규단체수	비율(%)
2012	119	42	35.30
2013	123	53	43.09

[표 85] 제주문화예술재단 선정 단체 수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광주문화재단과 〈2013 제주 · 광주 지역문화캠프〉라는 레지던스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추진함. 2일간에 걸쳐 광주지역 레지던스 사업단체가 제주를 방문하여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현장답사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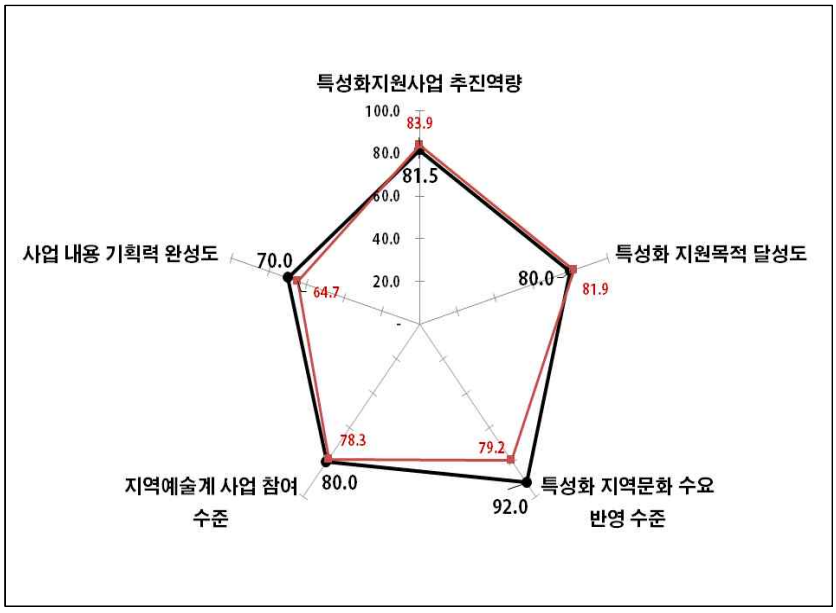
□ 제주 지역은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의견수렴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문화예술정책포럼, 지역협력형사업 개편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제주도민 문화의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49] 제주 지역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결과

□ 제주지역의 특성화 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는 육성지원사업 79.6점, 시 · 도기획사업 83.0점, 레지던스지원사업 85.4점으로 레지던스지원사업이 3개 사업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음.

4.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그림 250] 제주 지역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육성지원사업의 개별지표(총 배점 25점)는 2개 항목, 3개 지표, 6개 세부지표, 9개 측정지표로 구성돼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평가 종합) 제2절(사업별 종합 평가) 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표] 2013년도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체계를 참조 요망.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성과 측정지표별 배점 등에 관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이 중 3개의 지표 ①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10점) ②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5점) ③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 10점)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경남 지역은 사업수혜단체(인)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9점(백분위 환산 시 90점),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5점 만점에 4점(8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지역의 독창성' 지표)는 10점 만점에 5.5점(55점)을 얻어, 개별지표 총 25점 만점에 18.5점(백분위 환산 시 74점)을 득점함. 이는 16개 시·도 득점 평균 18.2점(백분위 환산 시 72.8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임.

□ '사업수혜단체(인) 적정성' 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8.4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9곳) 평균점 8.9점, 제주 지역 9점임.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적절성’ (4점) 지표는 당해 연도 신규선정 지원 단체 비율로,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제주 지역의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43.1%(53/123건)로, 적정 수준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3점) 지표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의 지화·지부 선정비율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예술단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창작활동 육성과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임. 제주 지역의 경우는 선정비율이 32.5%(40/123건)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재단이 설립된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32.4%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됨.
-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 (3점) 지표는 육성지원사업 내에 시민(도민)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독립적인 심사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지역 예술계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아마추어 시민(도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제주 지역은 육성지원사업을 우수신진예술가지원, 일반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보급활동및조사연구, 국내외문화예술교류지원 외에 ‘도민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도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은 6.0%(36/600백만 원)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참여예술단체(인) 선정의 적절성’은 심의과정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문화예술단체(인)를 선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5점임.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마디로 지역 고유의 전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나눠 먹기식 소액다건 지원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지표로, 5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3.3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3.4점, 제주 지역 3점임.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2점)은 만점 기준을 2012년도 60% 이하에서 2013년도 50% 이하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였음. ‘전년도 선정률 대비’ (2점) 지표의 경우 각 연도 선정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선정률 개선 시(낮아질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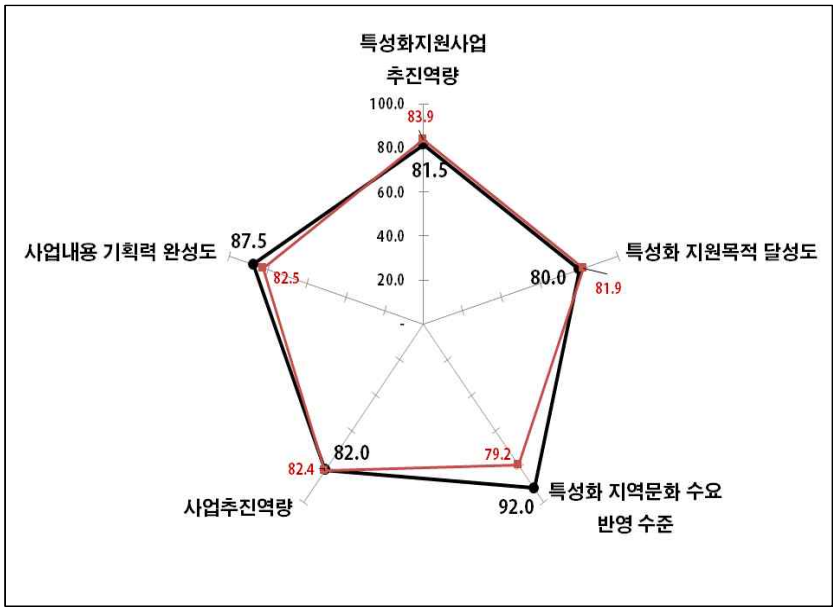
부여했음. 제주 지역은 2013년도 55.4%(123/222), 2012년도 61.3%로, 선정률을 개선(△5.9%)했으나 2013년도 기준에 약간 못 미치고 있음.

- '평균 지원 금액'(1점)은 '지원건수 대비 선정률'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지표이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배점을 낮추었으며, 전국 평균 지원 금액은 521만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은 432만원임. 제주 지역의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 평균 지원 금액은 488만원(600백만 원/123건)으로 전국 7위 수준(1위 서울 1,211만원, 2위 울산 783만원, 3위 경기 795만원)임.
-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도(道) 지역(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지원 금액(393만원)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 지원 금액(432만원)보다 많아 바람직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는 육성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 25점 중 배점 비중은 10점임. 이 지표는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10점 만점에 전국 평균점은 6.5점,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평균점 7.3점, 제주 지역 7점임.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을 우대하고 있음. 체계적인 설계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위원 B)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을 우대한다는 지원 안내가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설계방안은 제시하지 못함.
-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5점)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 A) 제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사례를 제시함. (위원 B) 제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사례로 23건의 지원사업을 정리하여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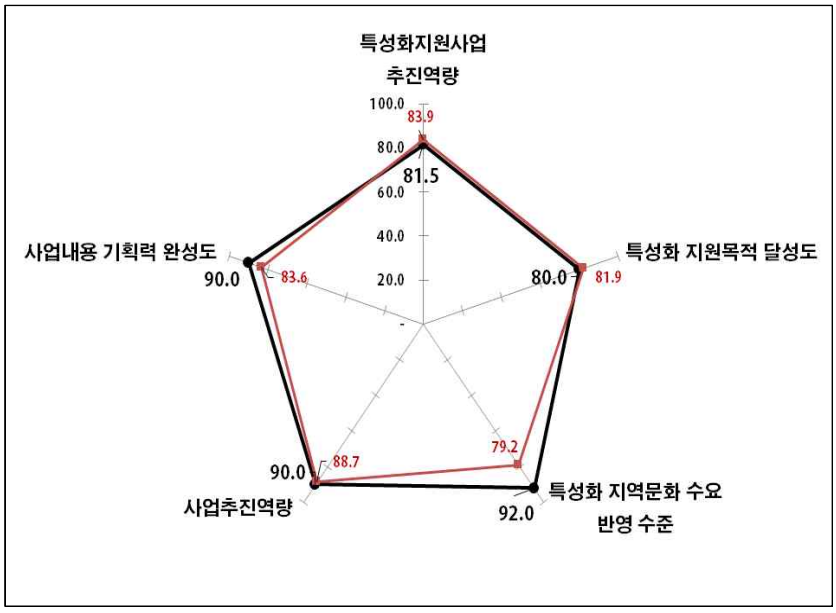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도기획사업



[그림 251] 제주 지역 시·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 사업추진 역량은 82.4점,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는 87.5점을 받았음.
- 지역특성을 살린 시·도기획사업으로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은 시·도기획사업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킨 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사업 참여 대상에게 교육이나 워크숍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기획역량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함.
- 재단이나 사업추진체가 전반적으로 전문 인력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폭넓게 협력체계를 이뤄 운영하고 있음.
- 문화거리 활성화, 빈집 프로젝트 등은 제주의 지역 환경 변화를 문화예술로 새롭게 가다듬는 기획력이 돋보이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특성화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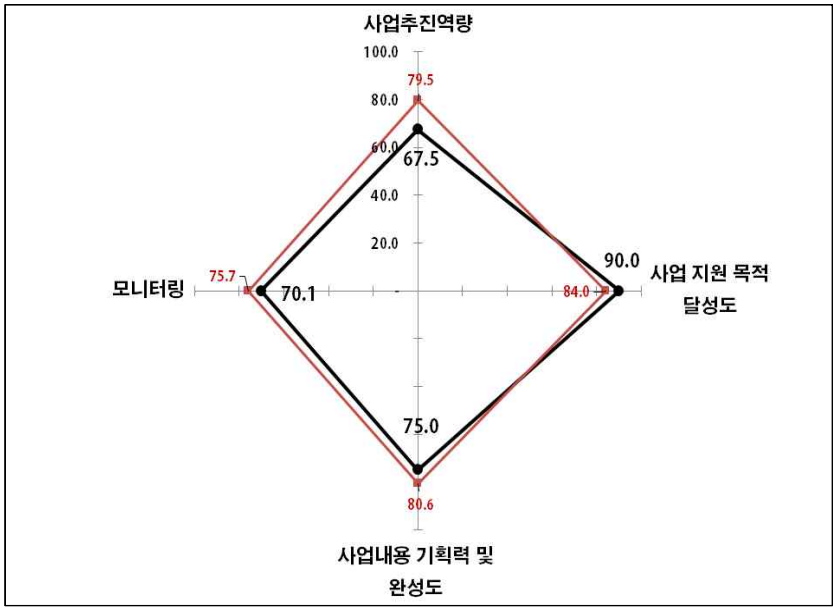
[그림 252] 제주 지역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 ‘아트창고’와 ‘가시리창작지원센터예술인회’ 등 레지던스 사업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성과가 주목되고 있음.
- 광주지역과의 협업은 완성도 높게 수행되고 있으나,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협업사업의 내용은 충분한 시도와 성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레지던스지원사업 주체들이 지역기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마을 개념이 제주 사회의 주요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제주 올레길 등의 마케팅이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레지던스 전문기관들의 경우에는 관광 투어코스로도 소개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예술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까지도 확산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단순히 제주의 특산품이나 자연적 매력도에 의한 관광이 아니라 예술적 명소로서의 관광 투어의 거점이 될 경우, 일반 관광객이 아닌 예술애호가들의 발길로 인해 신선한 자극과 참여가 나타나 레지던스 사업의 방향에 대한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높은 반면,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적인 포럼 등 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함.

7. 특성화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제주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53] 제주 지역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결과

□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 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점수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역량 67.5점, 사업지원목적 달성도 90.0점, 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75.0점, 공연장 모니터링 70.1점임.

- 제주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평균점수는 76.7점임.

□ 지원 단체로 선정된 7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선정비율은 28.5%이며 공연장상주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공연장상주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전년도보다 상주단체의 수를 줄여서 선정함.

□ 공연장의 기획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 미비로 인해 공연장의 기획전문 담당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없음.

□ 3차례에 걸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획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연장과의 상생, 제주형

콘텐츠 만들기, 상주단체 교류 등 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장을 마련함. 재단의 조정 · 중개 역할과 기획 · 홍보 · 마케팅 등 비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

- 사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제시함. 공연장상주사업을 위한 다양한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 및 구체적 협력활동이 필요함.
- 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함. 성과 목표 달성도를 계량화 성과와 비계량화 성과로 나누어 제시함. 각 단체별 계량화 성과는 100%를 달성함.
- 2013년 공연장상주단체 공연 관람객 10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자작나무숲의 협연 사례를 교류협력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적인 상주단체 간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지역협력형사업 개선 과제와 방향

제1절: 총평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2절: 공통평가 항목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3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4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5절: 시·도기획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6절: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7절: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8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9절: 예술인 설문조사

제1절 총평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역시 지난 4년간의 평가체계와 평가목적을 전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자율적인 지원사업체계의 설계가 가능해진 상황에 따라 새로운 사업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시범적 평가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평가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체계를 담아낸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2014년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적 평가의 성격을 갖고 진행되었음.

-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의 기초역량과 지원프로세스의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의 평가체계에 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평가 항목과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성과중심으로 재배치되어 과정관리를 평가하는 평가틀에 성과 관리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을 끼워 넣은 것 같은 구조가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계로 2013년 사업평가의 과도기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2013년 평가는 새로운 지원사업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지역에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목표와 평가체계, 평가 항목에 대한 큰 폭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가 되었음. 특히, 공통평가 항목이라는 통합적 평가영역을 두고 거기에 다시 특성화 개별사업에 대한 통합평가 부문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중적인 통합평가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과도기적 평가 항목과 지표로 볼 수 있는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평가는 향후 공통평가 부문과 합쳐져 새로운 공통평가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긴 시간을 투자해 지역별로 많게는 각 사업당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수차례 반복하여 확인하면서, 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역량의 성장을 확인하고, 지역 간 편차를 발견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정밀한 평가를 진행하였음. 2013년 평가는 종합 평가 등급도 중요하지만, 상주사업을 제외한 특성화 통합평가와 개별사업을 합친 사업추진역량에 대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 통합과 개별사업을 종합한 평가등급이 제시되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과 성과를 판단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전년도 종합 평가 결과와의 최종 평가점수의 변동 폭으로 순위를 매긴 개선도 평가 결과 역시 지역의 지원사업 발전 속도를 가늠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사업종합 평가 등급과 개선도 순위 제시를 통해 지역별 종합 평가를 위한 종합등급으로는 다소 뒤쳐졌던 지역들도 사업종합 등급과 개선도 평가 결과를 통해 그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봄. 수년간 평가를 진행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합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신생문화재단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신생문화재단들도 지역에서 종합 평가는 아직 떨어지지만, 개별

지원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지 지원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 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부문별로 부족했던 부분이나 향후 집중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업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 제시하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함.

제2절 공통 평가 항목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많은 지역이 지역 문화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된 전략이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은 지역 문화예술사업과의 일관된 논리체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진흥 활동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문화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문화재단이 주도하는 지역별 문화발전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지역협력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 전문인력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 곳과 1-2명의 담당자들이 전체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도 있어 편차가 심한 편임. 지역협력형사업은 행정적으로 지원사업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유도하고 창작을 활성화 하며, 예술인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킹, 국제교류에 대한 기획,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대 시민(도민)홍보를 위한 매체개발과 소통채널 확대 등 다양한 직간접 지원활동이 복합된 고도로 전문화된 문화서비스 활동임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모의 전문 인력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 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정성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므로 정량적 성과 목표를 기술하고 목표달성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량적 성과 목표 가 어떻게 기술되는 것이 좋을지 지역적 환경에 맞춰 맞춤형 성과 목표 기술노력이 필요함.
- 지원사업의 자체평가는 단순히 지원사업 배제 단체를 골라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우수한 지역 예술인(예술단체)을 발굴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신규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격려, 피드백을 통해 사업개선을 유도하고 중견 예술단체(예술인)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활동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된 지역의 지원사업 체계에 맞는 평가체계를 설정하고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홍보마케팅 평가 항목에서 평가하고 있는 지역 문화수요자와의 소통노력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변화한 곳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활동이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지역도 많은 편임.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 곳은 광역시 중심으로 몇 개 지역에 불과하며, 그 인력조차도 여러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음. 지역의 통합홍보 지원역량의 확보가 지역 문화사업의 수요자 전달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지원 영역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홍보채널의 확보와

실시간의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홍보마케팅이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행사의 정보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수요를 개발하고 문화향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한 성과를 알려내는 중요한 활동임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에 이어 심의체계-평가체계-평가환류의 과정관리 능력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공통평가 항목의 과정관리를 위한 평가지표가 유지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지원주체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술인, 예술단체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갖췄다고 보아야 함.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행정 관료적 태도로 지원서비스를 이해하는 관료적 마인드가 엿보이기도 하여 문화예술지원은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눈높이로 함께 만나고 고민하고, 변화하는 파트너십으로서의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함.
- 2013년 처음 평가 항목을 들어간 사업성과평가는 계량적 사업성과와 비계량적 사업성과로 나눠 평가하였는데, 계량적 사업성과를 지난해와 비교하여 그 변화 폭을 제시한 곳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14년도 성과평가 시에는 전년도와의 계량적 성과 비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계량적 성과를 관리하고 그 변화추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성과 관리의 의미가 있음.
- 비계량적 성과로 제시한 우수사례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사업들이 제시되었는데, 주로 대외적인 수상이나, 초청 등 인증사례에 해당하는 성과를 제시한 곳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지역별 사업별 우수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수혜단체들도 사업의 성과를 알려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개별단체의 성과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제3절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특성화지원 통합지표는 기존의 육성지원사업 등 개별사업의 평가지표 중 공통되는 지표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가장 우선적인 평가 항목은 사업추진 기초역량에 대한 것으로 지원사업별 예술인들의 참여기준을 물었는데, 지역별로 명확한 참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음. 참여기준 설정에 있어서 사업별로 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별 자체 설계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을 위해 참여조건을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 예술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공연장상주사업과 레지던스지원사업 내에서 사업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인 교류나 네트워킹은 자칫 참여 단체(예술인)들에게 부가적인 부담으로서만 여겨질 수 있음.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필요한 협력의 내용들을 찾아내고 자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교류나 협력을 통한 장르융합적 창작활동의 성과를 제시하고 교육, 워크숍을 통해 협력적 창작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활동이 필요함.
- 관객만족도 조사는 아직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외부용역을 통한 추진, 시민모니터링 단을 활용한 방식 등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지역문화수요 반영도에서 상시적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요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제적인 시행여부는 매우 편차가 많은 편임. 포럼, 간담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장치들이 확인되는데 형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예술인(예술단체)들이 광역자치단체나 문화재단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지원사업 설계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 지역문화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떻게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해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치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재단과 예술인들이 지원사업 설계를 위해 연중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함.

제4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만점 25점)의 경우, 모든 지표 항목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재단 설립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재단 설립 지역, 재단 미설립 지역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편차의 크기는 지표항목마다 다르긴 하나 대부분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볼 수 있음.

□ '신규단체 선정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은 33.6%이나 9.3%(경북)에서 부터 83.8%(경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지원이 기성단체에 집중, 고착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평가위원 회의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 또한 수준 높은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12년 78.1%,' 13년 83.8%를 기록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수작품에 대해 별도의 단계별 연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폐단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음. '신규단체 선정비율' 지표의 경우는 '신규단체'에 대한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 오해가 있고,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는 단체'로 규정할 경우 확인 및 검증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므로, '지원금을 작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받지 않는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 '기관, 단체, 협회 선정비율의 적절성' 지표의 경우 제주(32.5%), 충남(37.3%), 강원(49.1)은 육성지원사업 전체 선정건수의 1/3~1/2이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가 차지하고 있음. 기관, 단체, 협회 지화·지부의 선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풀뿌리 예술단체(일반 예술단체)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한편 경북이 제시한 99.2%는 지표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리방식 및 지원금 배분율'의 경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이 시민문화예술활동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거나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또 경기, 전남, 경북이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금 배분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지역협력형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전문문화예술활동의 진작을 통한 각 지역문화예술의 고유성과 독창성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문화재단(35.1%)과 같이 지역협력형사업 예산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인) 심사기준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거두어야 함. 서울, 경기, 전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 평균(10.2%)은 높지 않은 편으로, 인천(21.2%), 충남(22.7%)의 경우가 전체 지원금의 1/5 이상을 시민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고 있음.

□ '지원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은 평균 지원 금액과 직결되어 있으며, 선정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져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면, 예술 창작 작품의 수월성 진작, 우수 전문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지역예술계의 노력과 긴장감 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경북의 평균 지원 금액은 193만원(선정률 75.1%), 전남 266만원(51.7%), 충남 286만원(65.1%)에 불과하여 소액다건주의 방식의 폐해가 우려됨. 다만 모든 지역이 2012년도 60% 이하 and/or 2013년도 50% 이하이거나 선정률을 개선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사업 설계상의 지역 고유성과 독창성 반영도'와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은 사실상 지역육성지원사업의 사업목표와 추진방향과 맞닿아 있어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이 지표들은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 간 평균점에 가장 큰 편차(10점 만점에 7.4점과 3.8점)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 중 하나임.

- 이는 문화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고유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설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신청 안내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육성지원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도에 적용한 육성지원사업 개별지표의 변별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표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한지협, 평가단체, 16개 지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한지협, 평가단체, 외부전문가 간 워크숍을 통해 평가 1년 전에 평가지표 체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각 시·도와 문화재단의 사업 개선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함.

- 일부 지역에서 자체 평가보고서를 무성의하게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육성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에 대한 사례 제시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육성지원사업 중 사례를 찾아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성의 없이 답변한 경우가 많았음. 반면에 강원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육성지원사업 529건을 모두 검토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담고 있는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제5절 시 · 도기획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협력형 사업 가운데 로컬거버넌스와 소셜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역량을 극대화하는 시 · 도기획사업은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므로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가동 활용해야함. 이는 앞으로 지역협력형 사업이 지속발전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등 다면적 성과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므로 MOU 등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좀 더 구체적인 추진행동을 보여주도록 해야 함.

□ 매칭시스템을 활용한 재정거버넌스

-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칭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새롭게 문화정책에서 중시됨. 따라서 지역협력형 사업에서도 매칭그랜트 조성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간 협력 연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통해 기획사업의 발전지향적인 성장을 기하도록 국가적 수준의 협력 지침을 마련해서 건의해야함. 예를 들면, 미국 NEA의 파트너십을 통한 예술지원(Partnership agreement)로 국가와 기타 연방과 협력을 이루고 있고, 영국의 ACE는 창조적 이웃(Creative neighborhood)사업으로 중앙기금과 지역사회기금의 협력적 조성을 도모하며, 프랑스의 경우도 문화부와 지역문화사업국(DRAC)가 분야별 사업영역별로 정책목표를 일치시키고 있음.

□ 사업특성에 맞는 운용의 묘 살리기

- 시 · 도기획사업이 갖는 기획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다년도로 잡고 지원이 지속되도록 특별 배려해야함. 단연도 사업이 갖는 한계에 대하여 사업추진주체나 재단들이 실질적인 문제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의 추진에 대한 실질예산 지원규모는 기획사업의 다양성을 살리도록 규모를 현재수준에서 대폭 확장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편차가 크게 나고 있는데, 이는 기획 역량과 인적 물적 재원의 확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단기간 내에 줄어들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한계로 받아들여 새로운 방식의 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획사업의 기획력이 내부화되지 못하고 외부기획력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내부인력의 기획력 향상교육이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체적인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참가단체와 심의위원들이 선정된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상호관계 속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

제6절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레지던스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예술입문 배경의 다양성 추구 필요

- 각 지역에서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단체들의 역량과 신진예술가들의 개인적 역량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향상되어 대부분 만점을 받음. 다만, 특정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동일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 역량의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 구성원들의 성격상 마치 대학 졸업 후의 동문 중심의 예술 동아리와 같은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남. 학문적 배경이나 예술 입문 루트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레지던스 참여자들을 선발하는 등 심사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동일한 배경을 지닌 예술가들이 몰려 있을 경우, 입주 작가 간 참신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자극이 필수인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레지던스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저변화 필요
-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지역 문화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우, 역사성이나 체계성이 뛰어나지만, 민간 차원의 레지던스지원사업을 싹 틔울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민간차원의 레지던스지원사업 기관이 부족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레지던스지원사업의 뿌리내리기나 확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각적인 방안 모색으로 민간의 레지던스지원사업 참여를 격려하고 육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정 지역의 경우, 레지던스지원사업 수행 단체가 기존의 수행을 지속하는 단체로만 구성되고, 신규 기관이 전혀 없는 등 다소 안이한 선정과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신규 기관의 응모가 시도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전에 응모준비 작업과 관련한 설명회 등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의 적극성 요망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형성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나, 지역 소재 대학이나 해외 예술계 등과의 연계는 국제 레지던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도 창작자 개인에 의존하고 있을 뿐 기관 등과의 협력 구조 형성에는 여전히 미진한 편임.
-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의 구축 대비 실제 협력 사업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 평가 대응용 형식적 네트워크 구축일 수 있다는 의문이 발생할 정도임. 협력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자체 기획과 예술위원회 차원의 협력사업 사례 발굴과 그 결과에 대한 공유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한 시점임.

- 특정 지역의 경우, 언론사나 기업 등 문화예술 영역과 무관한 타 영역의 기관들과 문화재단과의 연계는 추진되었으나 정작 사업수행단체의 관련 기관이나 관련 학문 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시도도 하지 않고 있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레지던스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하고 있음.
- 재단과 레지던스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협력관계와 협업추진 실적이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으나, 국내 레지던스에 집중한 수행단체의 경우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민이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진단 및 관점에 대한 공유 필요

- 아직도 지역 고유의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특성 등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고유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이 미진한 지역이 다수임. 레지던스지원사업이 기능적 숙련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레지던스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시대정신과 현실진단에 민감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공감대 형성 작업이 요망됨.

□ 지역 문화계와 주민들의 수요 수렴망의 형식적인 정례화 극복 요망

-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를 수렴하는 창구인 문화사랑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지역민의 수요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정례화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살려내야 할 것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높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프로그램은 미약한 편임.

□ 레지던스 공간의 활용 결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 자료의 보관 체제 필요

-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게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한 대관의 성과는 서술되고 있으나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관 대상기관명이나 사업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된 지역이 있었음. 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료의 보관과 유지를 통해 추후 발전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의 활용 대비해야 함.

제7절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지역에 따라 해설이 있는 공연진행, 외국어 통역서비스제공, 찾아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 진행, 등 다양한 형태와 실험을 통해 전통국악예술 공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음. 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고 체계화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우리가락우리마당 운영매뉴얼 평준화 등의 발전적 접근이 필요함.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관객입장의 모티터링을 통한 수요도 조사가 필요함.
- 야외공연장 또는 야외특설무대를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천 시 대비책 미비, 시설의 열악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전북 지역은 상설공연장이외에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진행하였고, 테마가 있는 문자보내기, 이야기 판 작성, 홍보영상차량운영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음. 하지만 지역에 따라 소극적 홍보만을 진행하여 사업의 성과가 높지 않은 지역이 있음. 다각적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매체 개발이 필요함.

제8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상주단체의 경우 신규단체의 발굴이외에도 기존 참여단체의 연속적인 사업수행 역량과 성과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지역에서 이를 평가하고 환류 할 때 고정 레퍼토리 확보, 자생력 확보, 지역 공연브랜드 확보 등 성과를 고려한 수행단체관리가 필요함.
- 광역도의 경우 문화소외지역 공공공연장에 상주단체가 결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단체 발굴과 공연장 연결을 위한 협력 활동이 필요함. 다만, 창작역량이 부족한 함량미달의 공연단체를 예산소진을 위해 순번제 나눠 먹기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함.
- 박물관 등 공공문화공간에 소재한 공연장의 경우는 입지와 상주여건, 활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 공연장 활성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름뿐인 공간만 있거나 공연장으로서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은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지 말아야 함.
- 현재 공연장 지원의 기준은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 공연장 중 공공 성격의 공연장이나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공연장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공연장상주사업의 취지에 부적절한 문화공간이라도 공연장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등 공공 공연장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의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민간의 작은 공연장을 상주사업 지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
- 상주단체의 교류방식 다각화가 필요함. 워크숍, 상주단체 페스티벌 등 작품외적 협력과 교류뿐만 아니라 장르간 융합 창작, 공동 제작, 예술가 협연 등 지역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 방식을 권장하고 연계하는 지역의 노력이 필요함.
- 각 지역 상주단체페스티벌의 브랜드화가 필요함. 현재까지는 모여서 교류하고 함께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상주단체페스티벌의 이름을 짓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서 브랜딩을 하고 수준 높은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기획력을 확보한다면 지역별 공연예술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생산중심 지원이 대부분이나 유통, 관객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관련된 사후지원과 다각적인 간접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공연장상주사업의 브랜드화가 필요함. 각 지역에서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펼쳐지는 공연들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로서의 정립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공연장상주사업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상주사업으로 탄생한 공연작품의 유통에 기여하며, 공연장상주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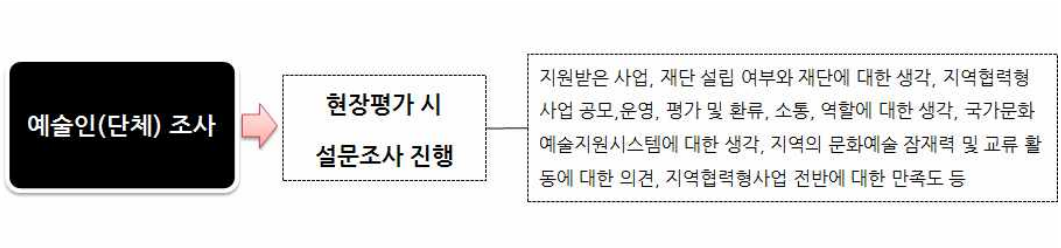
를 전국적으로 집중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우선적으로 시각적인 BI를 개발하고 이를 공연장과 상주단체들의 홍보물 등에 공동으로 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창출된 16개 지역의 작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아트마켓형 전국 페스티벌 추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초기에는 공감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류페스티벌을 벌이고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두어 아트마켓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되, 점차 공연 산업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임. 또한, 직접적 개최 방식이 어렵다면 타 아트마켓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아트마켓 내에 공연장상주사업 섹션을 설치하고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간접적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중앙 차원에서 다년간의 공연장상주사업 수행단체를 수록한 디렉토리북을 만들어 상호 교류와 예술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함,(ex,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책자)
- 상주단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예회관 등 지역의 공공 공연장이 여전히 상당수임. 중앙 차원에서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상주사업 참여 공연장에 사업지침에 따른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있음.

제9절 예술인 및 예술단체 설문 종합의견

1. 조사 개요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의 지원을 받은 16개 시·도의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역협력형사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함.



[그림 254]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방법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조사 대상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수혜 예술인(단체)	- 현장평가 간담회 참석 예술인(단체) 대상
조사 규모	103명	-
조사 방법	1:1 설문 조사	-자기기입식 진행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
자료 분석	-	-통계처리 :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6.85%
조사 기간	2013년 9월 ~ 2013년 12월	16개 시도 현장평가 시 진행

[그림 255]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재단 설립 여부,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사업 운영, 평가 및 환류 절차, 간담회, 소통 여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사용 여부 및 만족도, 사업 예산 외의 필요한 지원 여부, 지역의 문화예술 잠재력 및 역량,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물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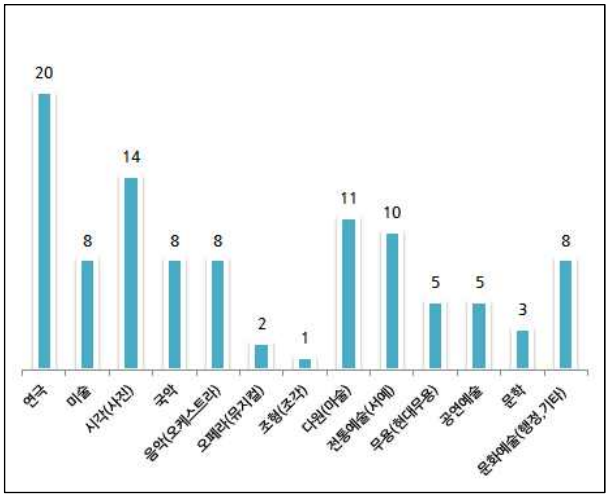
번호	항목	내용
1	응답자 특성	예술인(단체)의 장르, 담당 직책, 경력 등
2	지원 현황	지원받은 사업
3		지원받은 금액
4		지원 받은 횟수
5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의견	문화재단 설립 여부
5–1		지역문화재단의 효용성 여부
5–2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6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절차의 적절성
7		지원사업의 사업 운영 적절성
8		지원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절차 적절성
9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필요성
10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들과 소통 적절성
11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11–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만족도
11–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선점
12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사업예산 지원 외에 필요한 다른 지원
13		지역의 문화예술 잠재력 보유 여부
14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교류 활동에 대한 의견
15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활성화 위해 해야 할 것
16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
17	지역협력형사업만족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8		지역협력형사업 내년 지원 의향
19		지역협력형사업 추천 의향
20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의 사항	

[표 86]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예술인(단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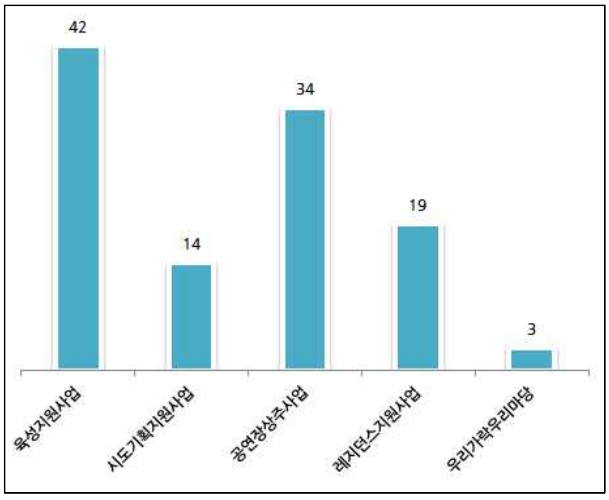
3.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약 20%가 연극 장르의 예술인(단체) 였으며,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예술인(단체) 42%로 가장 많았음. 전체적인 비중은 2012년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연극 종사자 21%, 육성지원사업 수혜자 38%)와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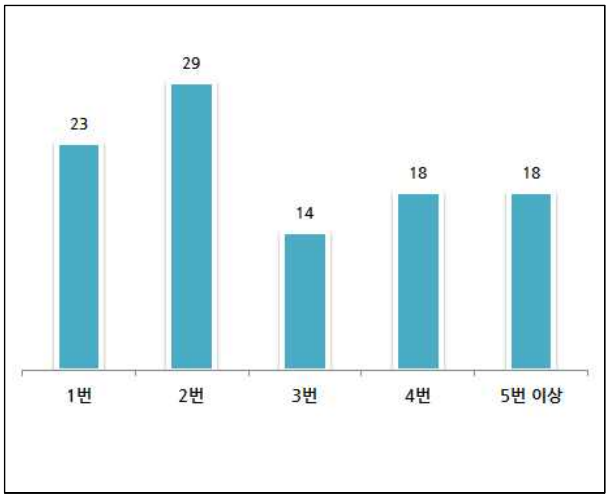


[그림 256] 예술인(단체) 응답자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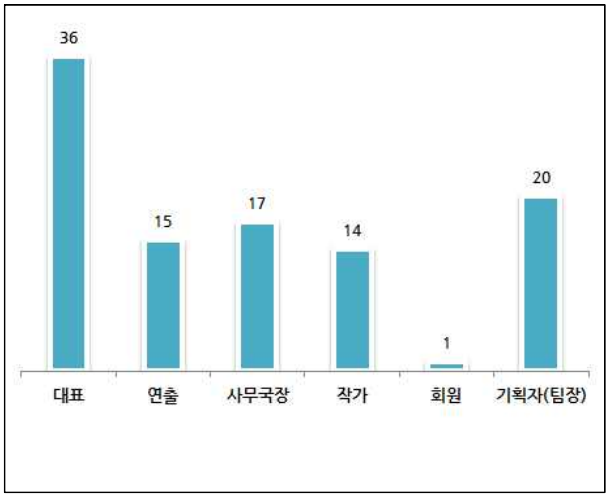


[그림 257] 예술인(단체) 응답자 선정 지원사업

□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가 2번째라고 응답했으며, 처음이라는 응답자가 23%로 나타남. 지역협력형사업 예술인(단체) 간담회에 참가한 예술인들의 26%가 각 단체의 대표자였으며, 연출(15%), 사무국장(17%), 작가(15%), 기획자(20%) 등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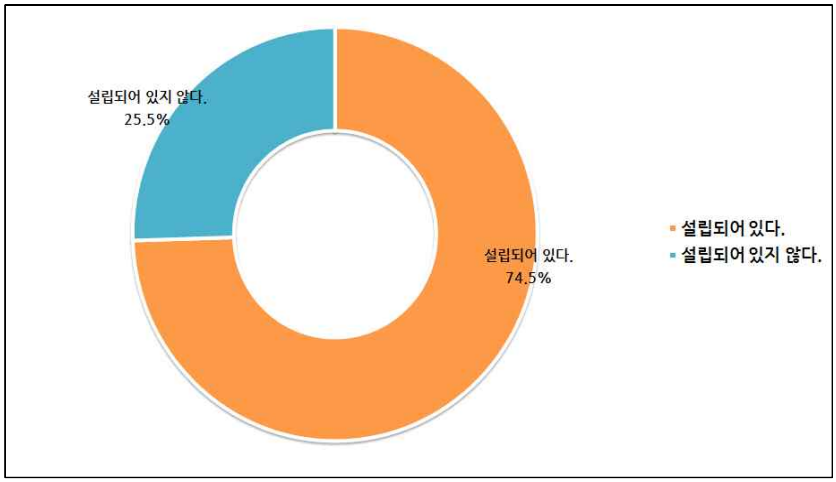
[그림 258] 예술인(단체) 응답자 수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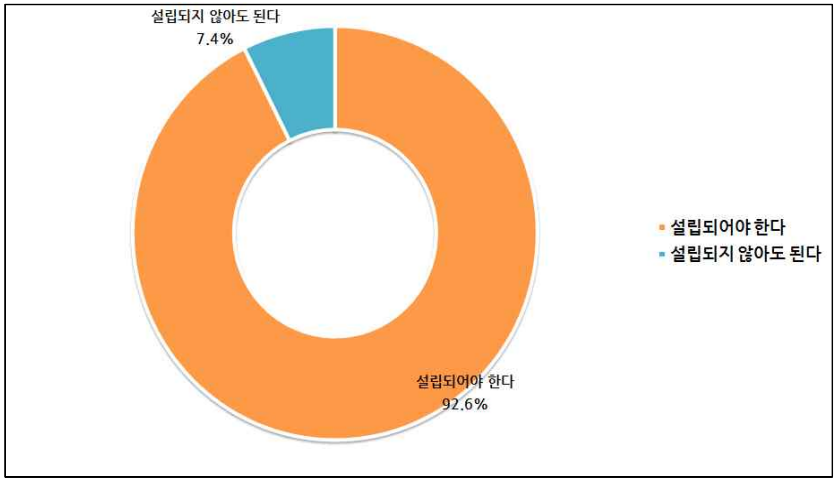
[그림 259] 예술인(단체) 응답자 직책

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의견

□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103명)의 74.5%가 설립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설립되어 있는 경우(76명)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91.6%로 2013년 84%(104명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54명 중 92.6%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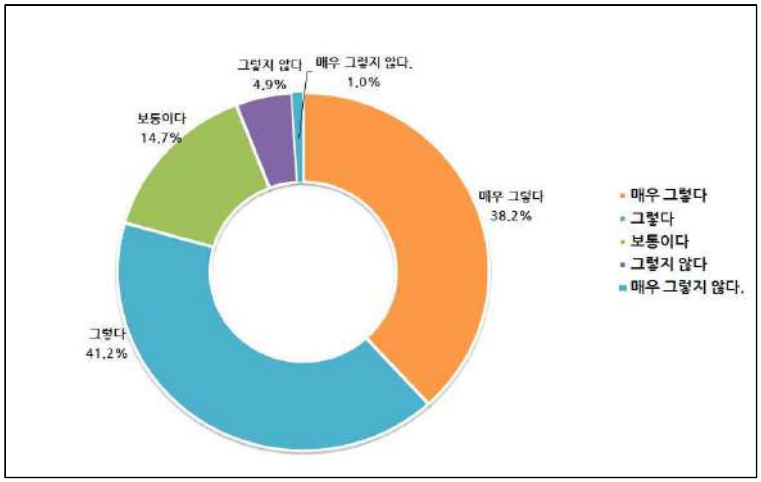
[그림 260] 예술인(단체) 대상 - 재단 설립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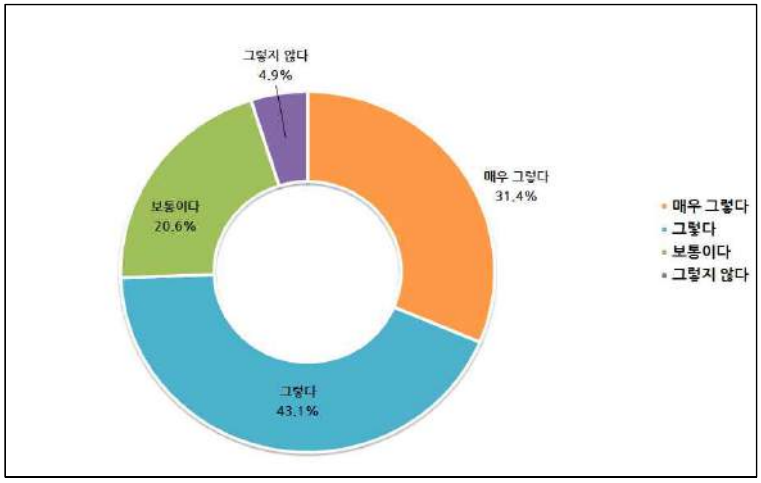
[그림 261] 예술인(단체) 대상 – 재단설립의 필요성

다.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사업 절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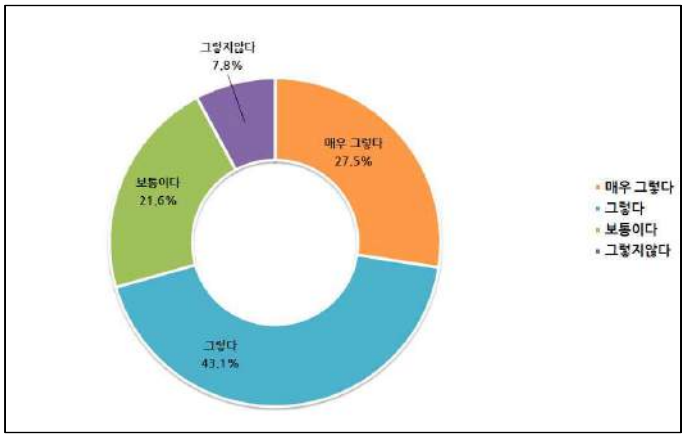
-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가 그렇다고 응답함.
- 지원사업의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5%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지원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절차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6%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4.3%를 차지했으며,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의견이 56.9%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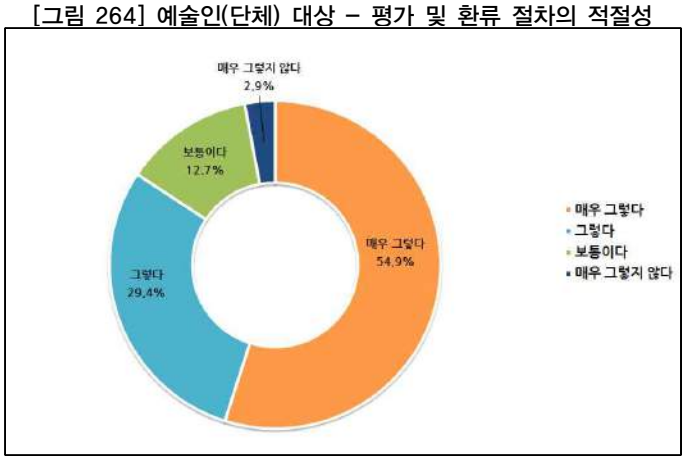
[그림 262] 예술인(단체) 대상 – 공모 및 심사 절차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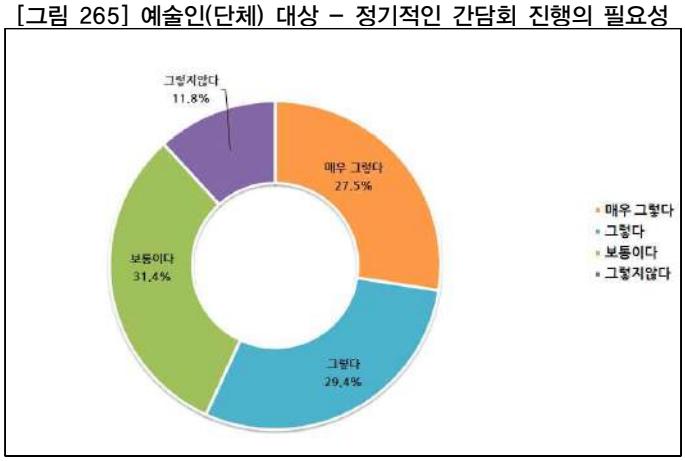
[그림 263] 예술인(단체) 대상 – 사업 운영의 적절성



[그림 264] 예술인(단체) 대상 – 평가 및 환류 절차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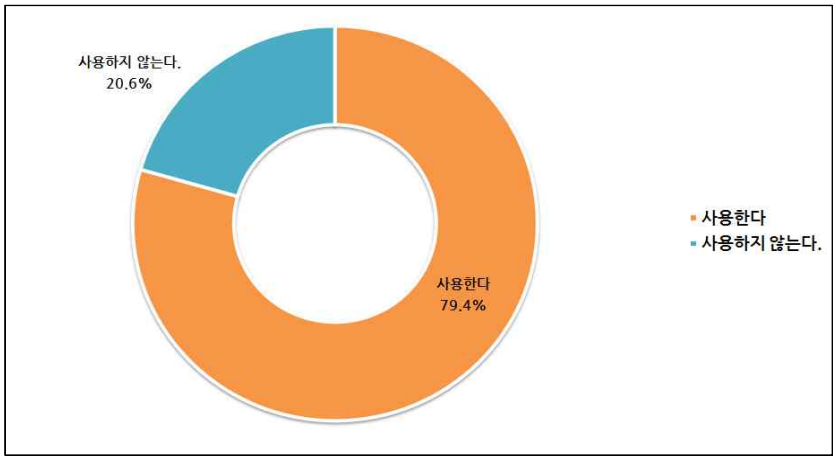
[그림 265] 예술인(단체) 대상 –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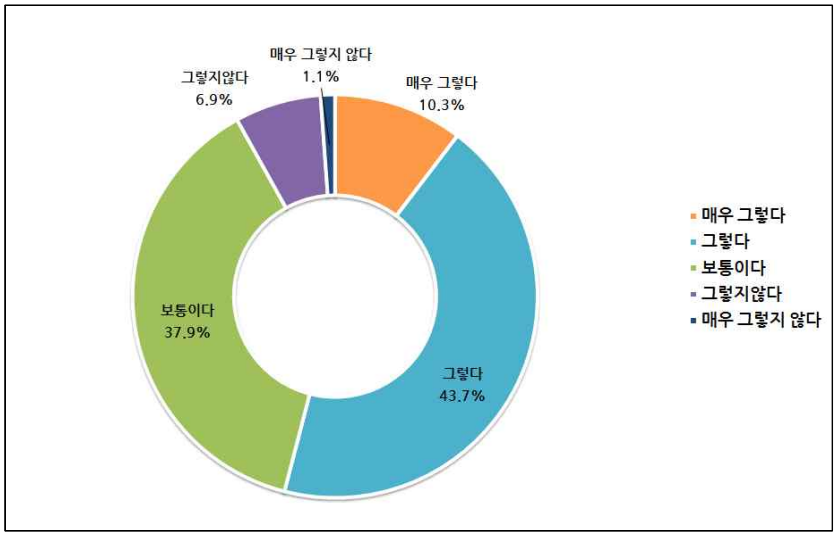
[그림 266]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예술인과의 소통 여부

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103명)의 79.4%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87명)의 54.0%가 그렇다고 만족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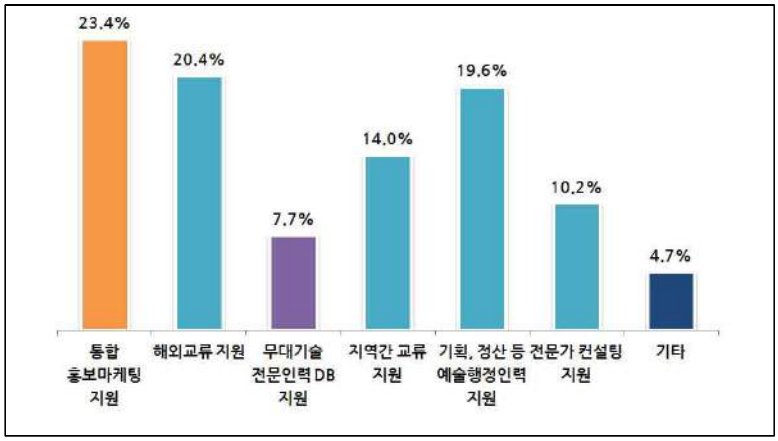
[그림 267] 예술인(단체) 대상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그림 268] 예술인(단체) 대상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만족 여부

마. 추가 사업 지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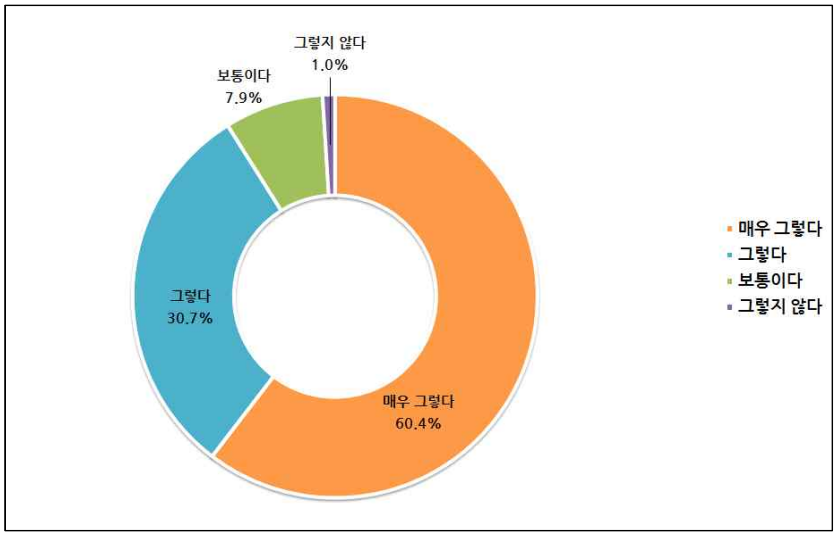
□ 사업예산 지원 외에 필요한 다른 지원을 묻는 질문(229건, 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 해외교류 지원 〉 기획, 정산 등 예술행정인력 지원 〉 지역간 교류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무대기술 전문인력 DB 지원 순으로 응답함. 2012년 예술인(단체)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2013년에는 해외교류 지원(2012년 18%, 2013년 20.4%)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69] 예술인(단체) 대상 –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견

바. 지역의 문화예술 잠재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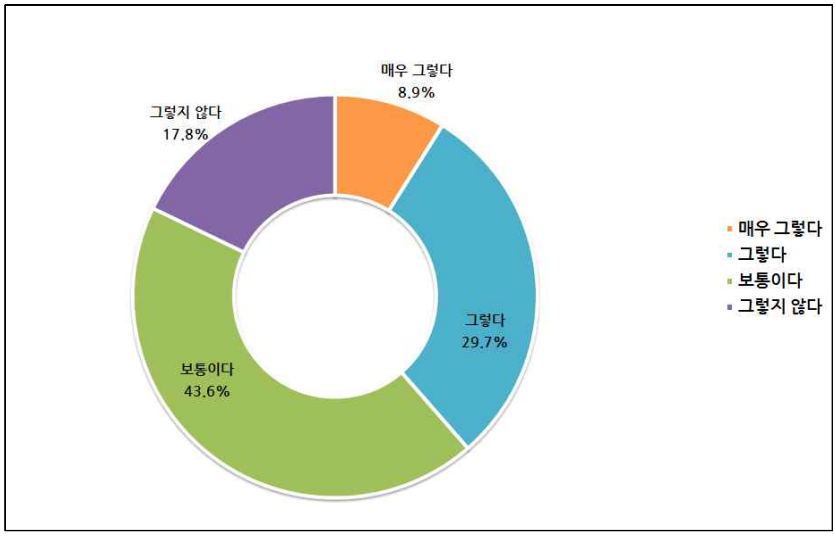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예술 잠재력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1%가 그렇다고 응답함.



[그림 270]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의 문화예술 보유 잠재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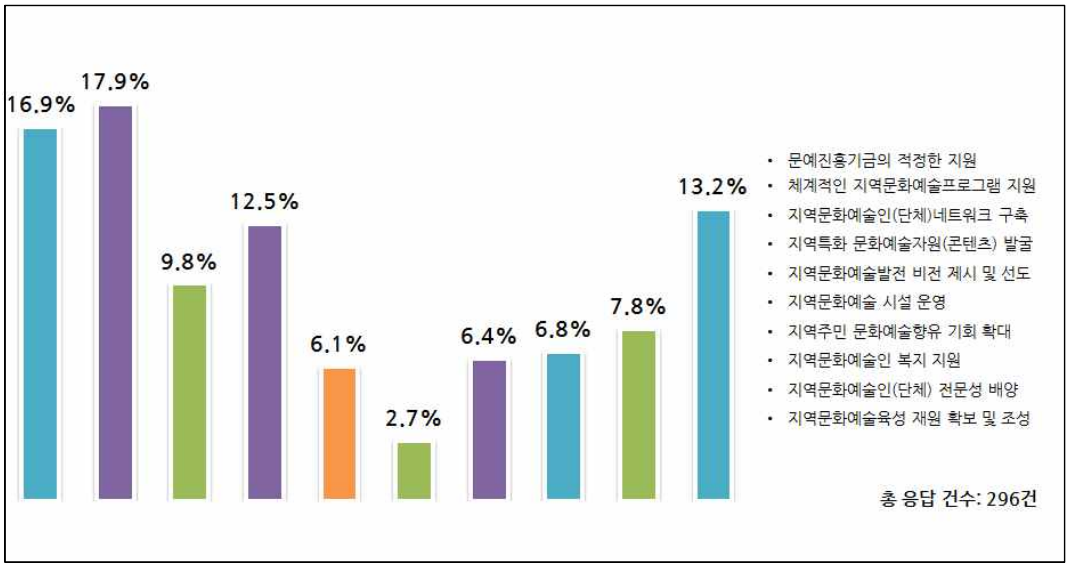
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활동 활발 여부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7.8%로 나타남.



[그림 271]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활동 활발 여부

아.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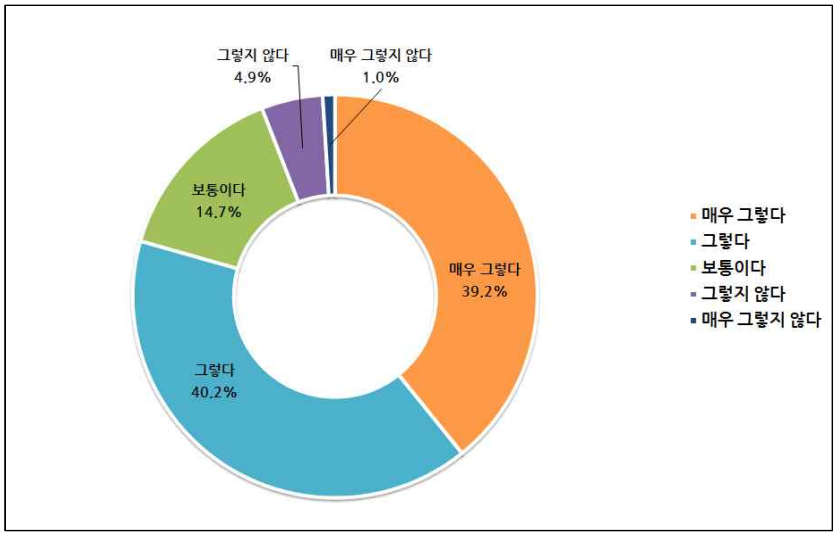
[그림 272] 예술인(단체) 대상 - 광역자지단체(문화재단)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296건, 복수응답)의 17.9%가 체계적인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의 지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적정한 지원 16.9%, 지역문화예술육성 재원 확보 및 조성 13.2%, 지역특화 문화예술자원(콘텐츠)발굴 12.5%순으로 나타남. 2012년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시에는 지역문화예술발전 비전 제시 및 선도를 주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 설문조사 결과로 해당 응답률은 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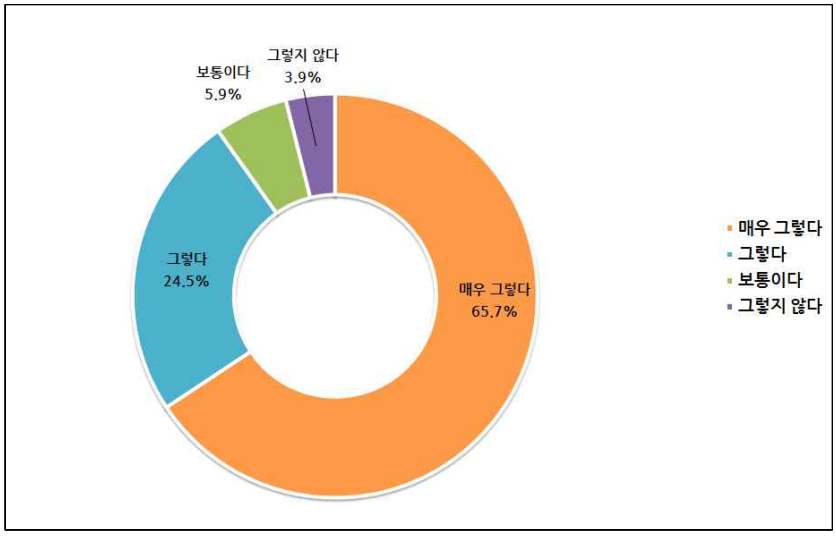
자.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만족도

□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102명)의 7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 년도 지역협력형사업에의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90.2%가 지원하겠다고 응답함. 지원받은 지역협력형사업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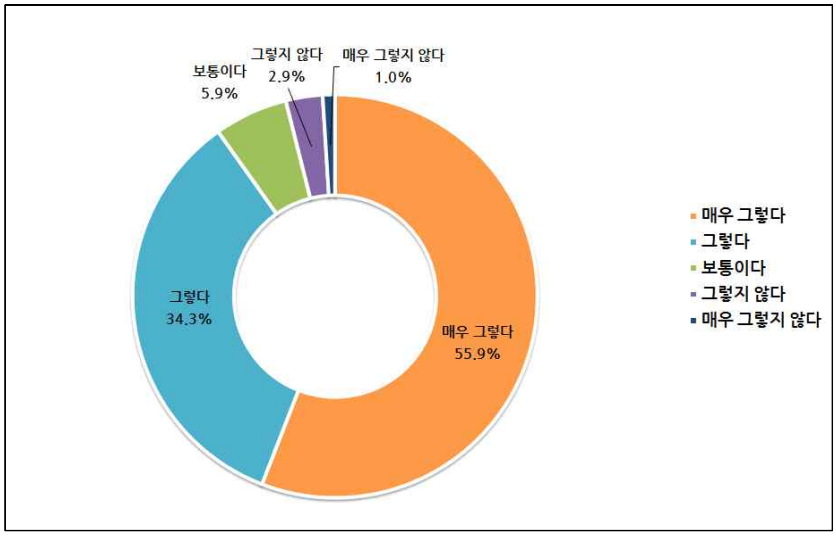
□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재지원 의향은 4.52점, 타인 추천 의향은 4.41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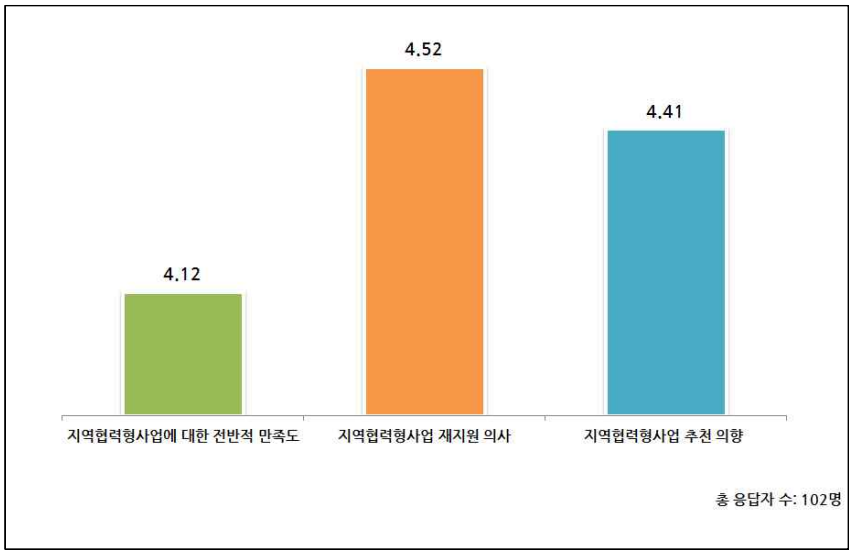
[그림 273]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전반적 만족도



[그림 274]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내년도 지원 의향



[그림 275] 예술인(단체) 대상 – 지역협력형사업 타인 추천 의향



[그림 276] 예술인(단체) 대상 - 만족도 점수

자. 기타 의견

□ 지역문화재단이 필요한 의견으로는

- 경직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전문적인 체계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 지역문화재단이 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전문적이고 지원사업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 지역 예술인 간의 다리 연락을 하여 지역의 예술인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고,
-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예술 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개선점으로는

-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용어와 예산 항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노력으로는

- 지역 예술인간의 교류 활성화, 타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해외 교류 지원 등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 정기적인 간담회,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으로는

- 일회성 지원보다 다년간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 기획과 예술 실무를 위한 방향 제시 및 교육의 필요,
- 잠재되어 있는 지역 예술가,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그에 대한 지원,
- 타지역 예술인들, 예술 프로그램들, 사업들과의 교류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제6장

평가 분석과 시사점

제1절: 2012년도 평가 결과 와 비교

제2절: 2009~2013년도 5년 간 평가 결과 비교

1.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문화예술지원금 추이
2.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매칭비율 추이
3.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률 추이
4.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신청건수 추이
5. 2010~2013년 종합 평가 결과 지역별 · 등급별 · 연차별 비교

제1절 2012년도 평가 결과 와 비교

1. 종합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2012	2013	
서울	나	가	▲	강원	나	다	▲
부산	나	나	–	충북	라	라	–
대구	가	가	–	충남	마	마	–
인천	다	다	–	전북	다	라	▼
광주	다	다	–	전남	라	다	▲
대전	다	나	▲	경북	마	마	–
울산	라	라	–	경남	나	다	▼
경기	가	나	▼	제주	다	라	▼

[표 87] 종합 평가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종합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경북 등 8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서울, 대전, 전남 등 3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강원,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임.

□ 지난해에 비해 평점은 높아졌으나 등급 구분에 있어서는 등급구간별 포함지역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였음. 지난해에 비해 등급내 평균점은 높아져서 '다' 등급까지는 80점 이상으로 전년도의 '나' 등급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역량이 개선되고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등급도 전년도에 비해 개선효과가 뚜렷함.

□ 광역도 단위까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제출기한 내 제출한 곳이 대부분이라 평가에 대한 대응 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이 대부분임. 재단 미설립 지역은 실무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작성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성화지원사업으로의 변화 후 시도기획사업의 기획력과 추진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지역간 교류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이 재단설립 2차년도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추진역량이 월등히 향상되고 있어 높은 개선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 지역도 재단 내 실무인력 보강으로 지원사업 추진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공통 평가 항목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2012	2013	
서울	나	가	▲	강원	나	다	▼
부산	나	나	–	충북	라	라	–
대구	가	가	–	충남	마	마	–
인천	나	다	▼	전북	다	라	▼
광주	다	다	–	전남	라	라	–
대전	다	나	▲	경북	마	마	–
울산	라	마	▼	경남	다	다	–
경기	가	가	–	제주	다	라	▼

[표 88] 공통 평가 항목 평가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공통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서울, 대전 등 2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 공통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지난해 같은 등급에 있던 타 지역과의 평점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아 등급에서 밀려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공통평가 항목은 4년간의 지속된 평가지표 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중위권 이상 지역은 안정적인 평점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며, '다' 등급 이상 지역은 80점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지역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차기년도부터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일몰제를 도입하여 신규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육성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2012	2013	
서울	가	가	–	강원	나	나	–
부산	나	가	▲	충북	라	라	–
대구	가	나	▼	충남	마	마	–
인천	다	나	▲	전북	다	다	–
광주	다	다	–	전남	라	다	▲
대전	나	나	–	경북	마	마	–
울산	라	라	–	경남	나	다	▼
경기	가	가	–	제주	다	다	–

[표 89] 육성지원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0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부산, 인천, 전남 등 3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대구, 경남 등 2개

□ 육성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평점평균도 향상되고, 80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지역도 6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어남. '나' 등급 이상 지역에서는 경남이 등급이 낮아지고 인천이 '나' 등급으로 올라오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음. 하위권 지역에서는 '전남' 지역이 개선도 수준이 높아져 '다' 등급으로 평가가 향상됨. 다른 사업에 비해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3년간 평점평균 비교를 보면, 73.4점에서 75.1점, 78.3점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부산, 전남의 변화가 평점 향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4. 시 · 도기획사업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서울	미추진	미추진	–
부산	가	가	–
대구	나	가	▲
인천	가	나	▼
광주	다	나	▲
대전	가	나	▼
울산	미추진	미추진	–
경기	나	나	–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강원	나	다	▼
충북	마	라	▲
충남	마	마	–
전북	라	라	–
전남	라	다	▲
경북	다	마	▼
경남	다	다	–
제주	다	다	–

[표 90] 시 · 도기획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시 · 도기획사업 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부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대구, 광주, 충북, 전남 등 4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인천, 대전, 강원, 경북 등 4개
- 서울과 울산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시 · 도기획사업은 평점평균 비교를 볼 때 전년도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점 향상도를 보인 사업으로 전년도 65.4점에서 82.1점으로 큰 폭의 발전적 변화가 나타남. 시 · 도기획사업에서는 11개 지역이 80점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충북,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

5.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2012	2013	
서울	미대상	미추진	–	강원	나	나	–
부산	가	가	–	충북	다	다	–
대구	다	나	▲	충남	라	라	–
인천	나	가	▲	전북	다	다	–
광주	나	가	▲	전남	라	나	▲
대전	나	다	▼	경북	마	마	–
울산	마	라	▲	경남	가	다	▼
경기	다	미추진	–	제주	가	나	▼

[표 91] 레지던스지원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레지던스지원사업 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 등 5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대전, 경남, 제주 등 3개
- 서울과 경기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레지던스지원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 중 14개 지역이 추진하였으며, 전년도와 평점 평균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이 같은 수준의 평가 결과 가 나옴. 이미 레지던스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높은 수준의 사업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나' 등급 이상에서는 '경남', '대전'이 '다' 등급으로 등급이 낮아지고 '대구', '전남'이 새롭게 '나' 등급 이상으로 포함되었음. '다' 등급 이상 지역은 모두 80점 이상으로 지역간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준으로 우수한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서울	가	가	–
부산	나	다	▼
대구	가	가	–
인천	다	라	▼
광주	다	다	–
대전	다	나	▲
울산	다	나	▲
경기	나	다	▼

지역	등급		변화
	2012	2013	
강원	나	다	
충북	라	라	–
충남	마	마	–
전북	다	다	–
전남	라	나	▲
경북	라	마	▼
경남	나	가	▲
제주	마	라	▲

[표 92] 공연장상주사업 2012~2013년 등급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종합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이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이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 부산, 인천, 경기, 경북 등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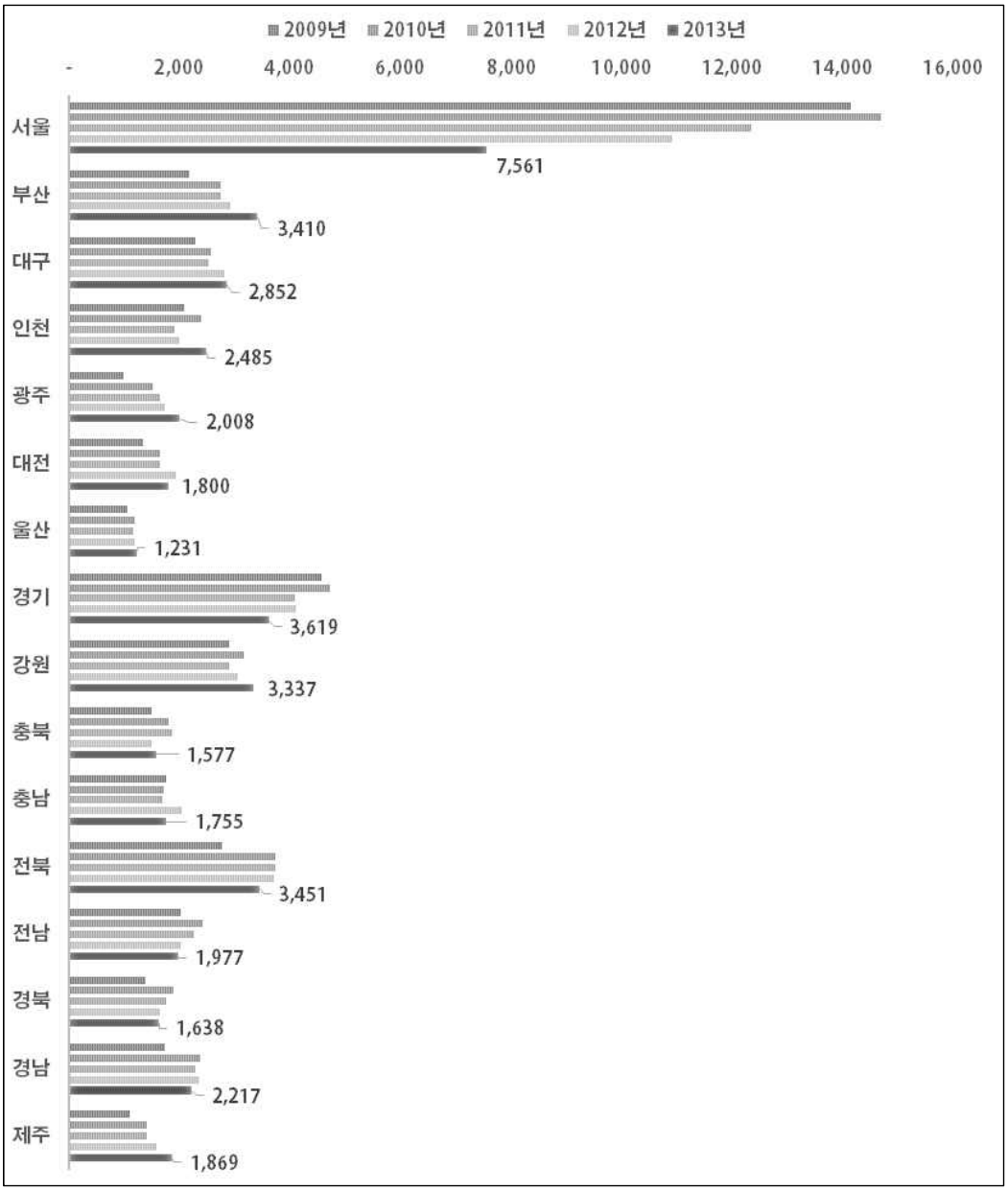
□ 공연장상주사업은 향상된 평가를 받은 지역이 더 많았는데, '나' 등급 이상의 등급에서의 변화를 보면 '강원', '경기', '부산'의 등급이 '다' 등급으로 낮아지고 '대전', '울산', '전남'이 '나' 등급으로 올라오는 등 등급간 이동이 많았음.

□ 하지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 등급 이상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이 평점 '80점' 이상의 우수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천'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수도권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라' 등급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음. 자체평가보고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제2절 2009~2013년도 5년 간 평가 결과 비교

1.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문화예술지원금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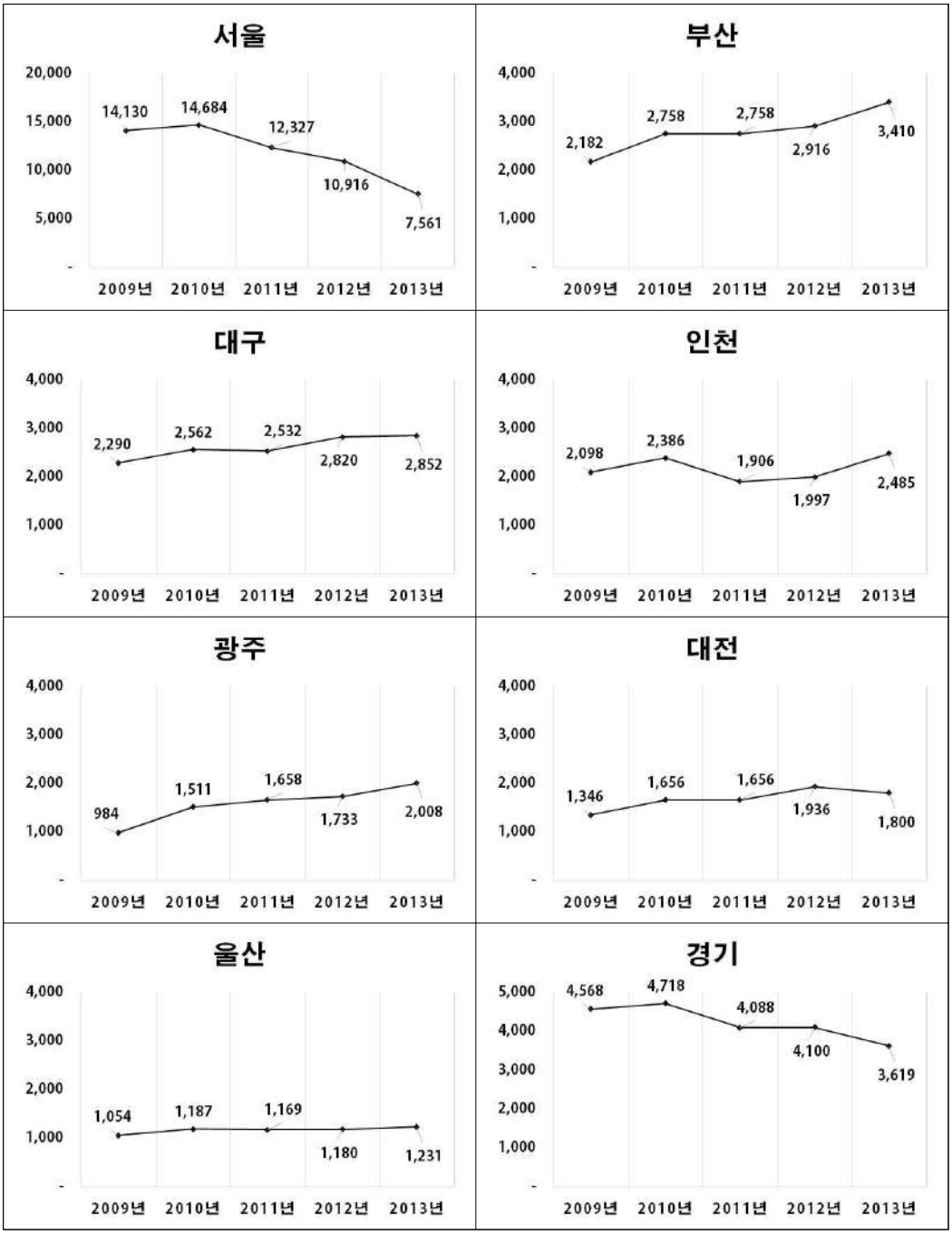


[그림 277]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기금규모 추이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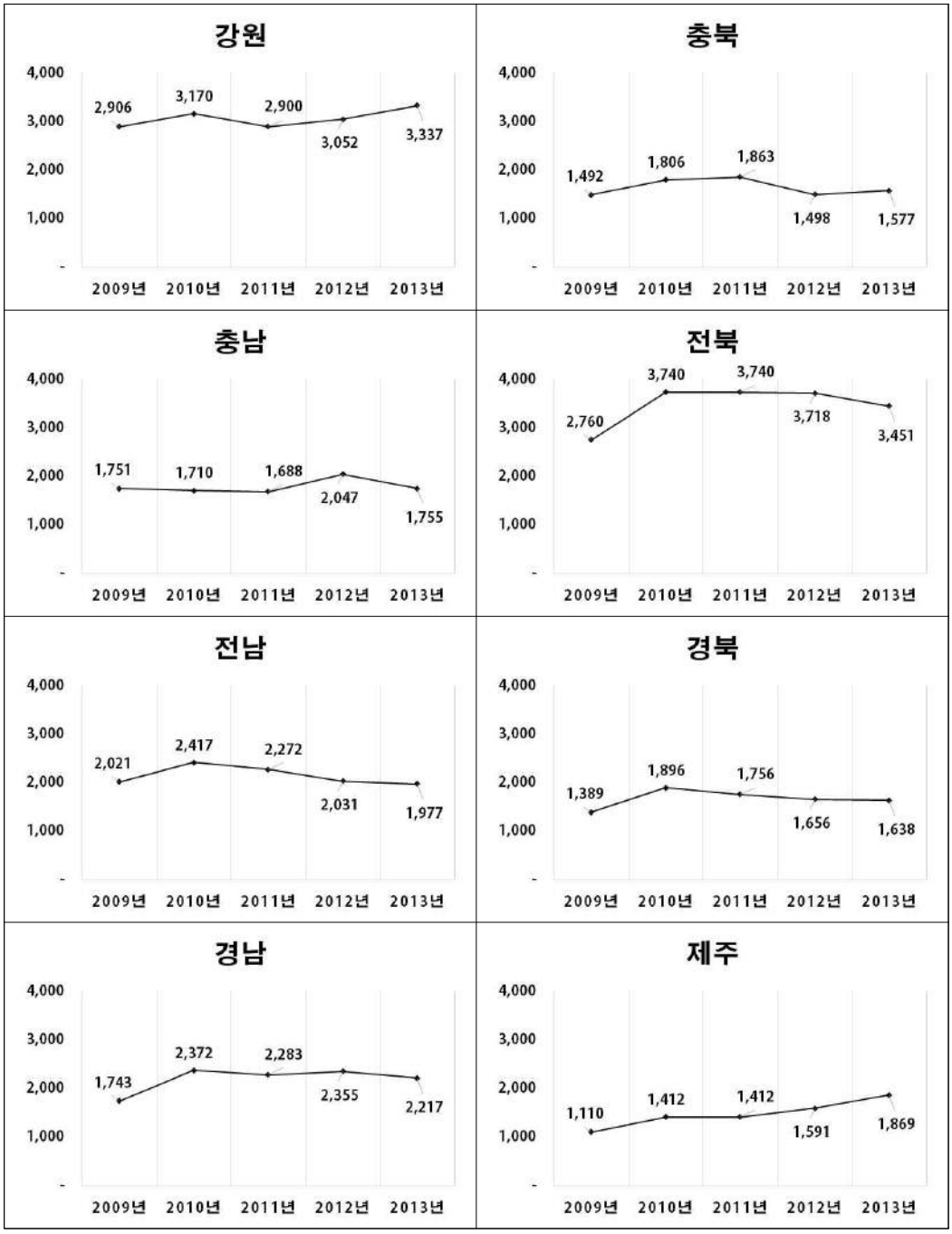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문화예술지원금 총액의 변화 추이는 지난 5년간('09~'13)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된 기금과 지역 매칭액 및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사업비 총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임.

□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금 총액의 변화를 보면 서울, 경기지역의 지원금 총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지역은 유지 및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원금 총액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지역은 '강원', '광주', '제주' 지역으로 연간 지원금 총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북과 강원의 지원금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두 지역의 문예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되며, 전북과 강원에 이어도 단위 지역에서는 '경남' 지역이 지원금 규모면에서 타 지역과 차이를 보이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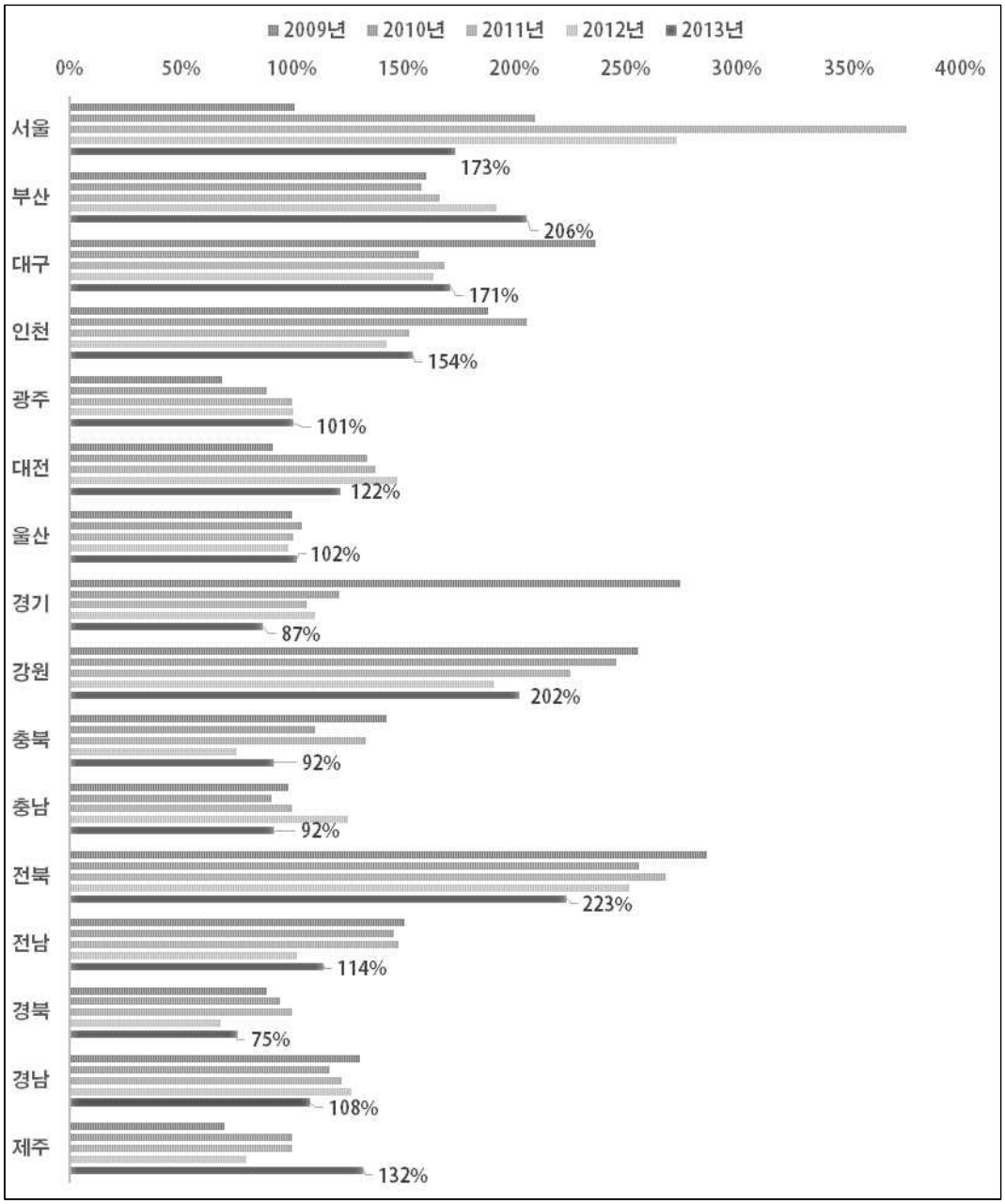


[표 93]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기금 규모 추이(2009~2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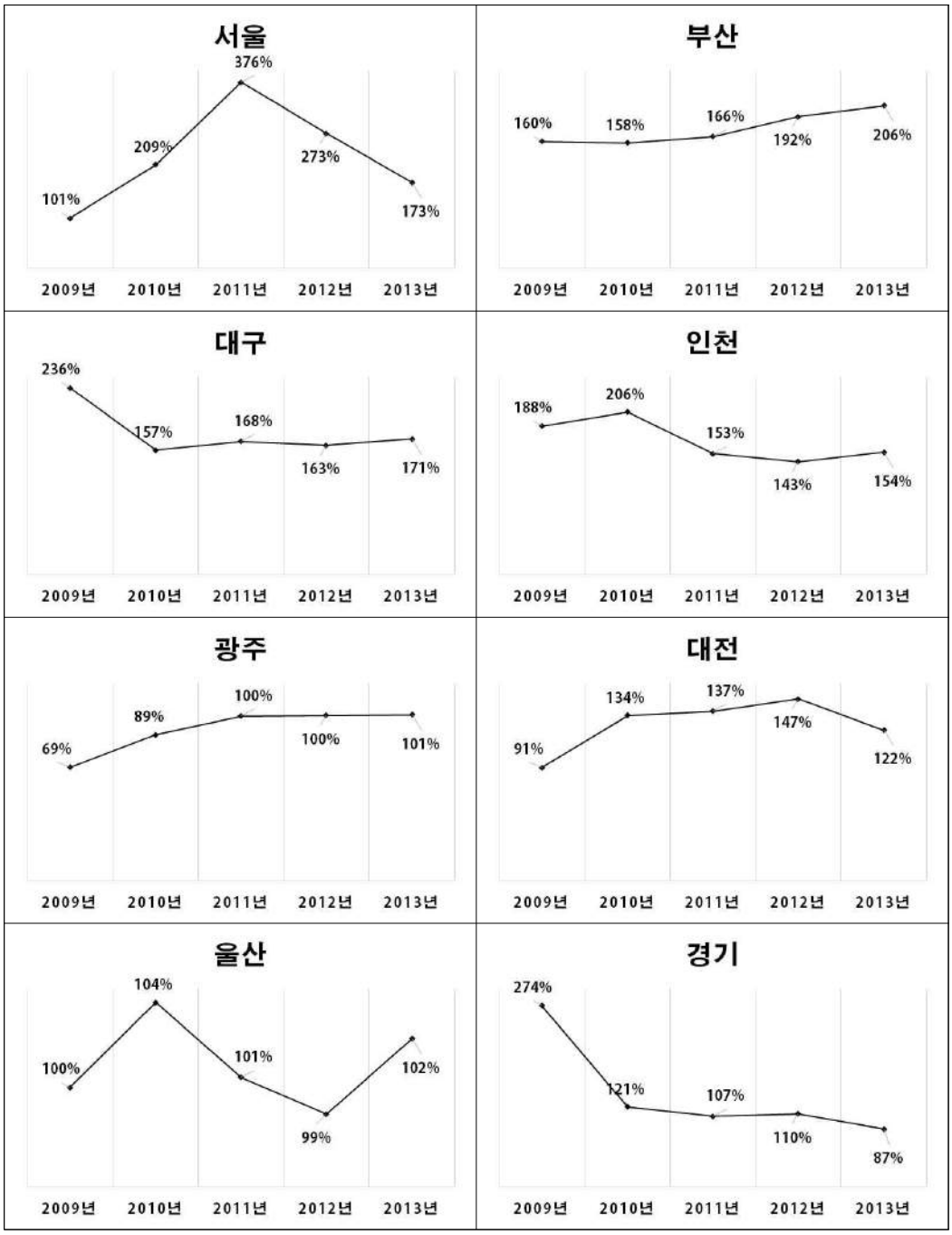


[표 94]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기금 규모 추이(2009~20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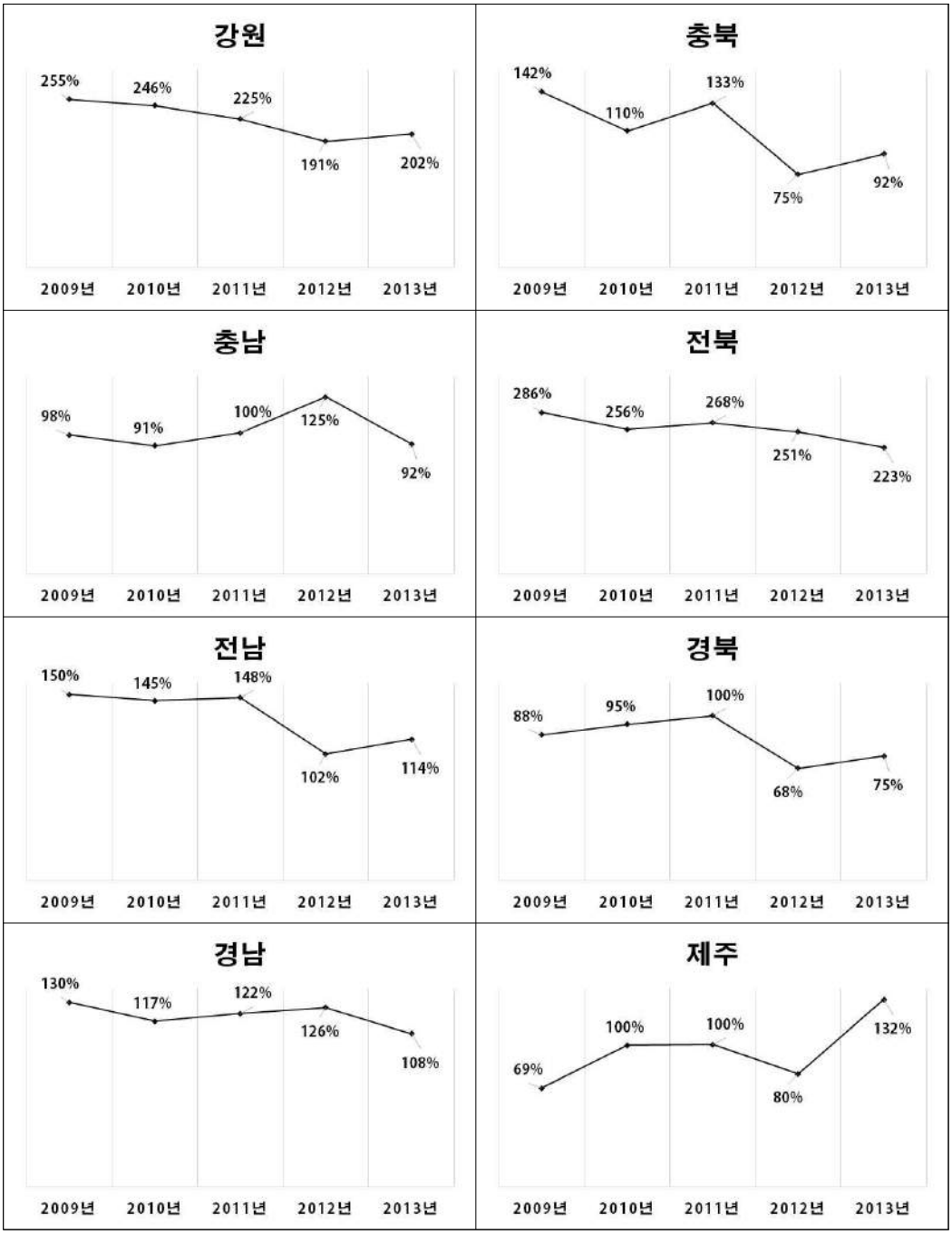
2.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매칭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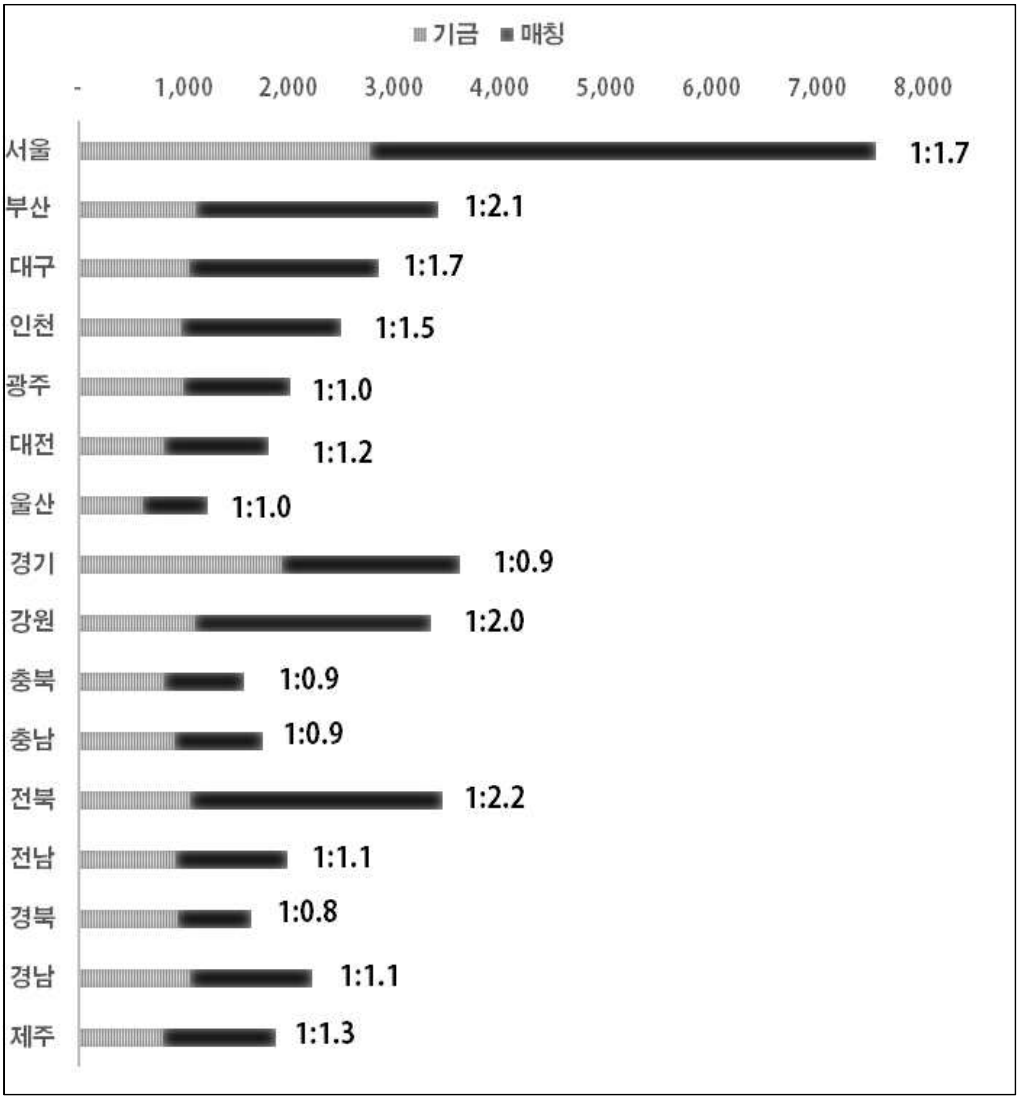
[그림 278]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매칭 추이 - 전체



[표 95]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매칭 추이(2009~2013)(1)



[표 96]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매칭 추이(2009~2013)(2)



[그림 279]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매칭 현황

□ 위 도표들은 지난 5년간('09~'13)의 매칭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들과 2013년의 매칭현황을 보여주는 도표임. 2013년 기준 매칭 순위는 전북, 부산, 강원, 서울, 대구, 인천, 제주, 대전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 상위 5개 지역과 순위는 다르지만 지역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연차별 매칭률 변화 추이로 볼 때 '부산', '대구' 지역만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씩 줄어들거나, 현상유지, 또는 상향과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 ‘전북’, ‘강원’ 지역의 매칭률 추이와 매칭금액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의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하게 매칭규모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별로 문화예술 지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도비의 매칭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2010~2013년 종합 평가 결과 지역별·등급별·연차별 비교



[그림 280] 2010~2013년 종합 평가 결과 등급 비교

□ 2010년~2013년까지 평가체계가 유지된 지난 4년간의 종합 평가 결과 를 비교해본 결과 등급이 상향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충북'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파악되었으며, 하향되고 있는 지역은 '강원', '인천', '제주' 지역으로 나타남. 나머지 지역은 하위권에서 변동없이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나,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4년('10~'13년)간의 평가 결과 비교를 보면,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 대구가 3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경기, 인천이 각 한차례씩 최상위등급으로 평가됨. 수도권 지역이 최상위 등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년간 '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던

10개 지역 중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강원', '경남', '제주' 지역 3개 지역으로 나타남.

□ 연차별 종합 평가 등급 비교에서는 2009년 평가는 제외하였음. 2009년 평가는 지표나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기 이전의 시범적 평가로 2010년 이후의 평가체계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 평가 등급 비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결과를 비교하였음.

□ '등급'을 비교할 때는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매년 지역의 사업추진역량이 향상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2010년의 '다' 등급과 2012년, 2013년의 '다' 등급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가등급 구분을 위해 불가피하게 등급내 지역수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등급 구분은 되었지만, '다' 등급 이상은 평균 80점 이상의 지역으로 우수한 수준의 사업추진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합 평가 결과 80점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2011년에는 4개 지역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 들어서는 80점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무려 10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으며 종합 평가 평균점수가 69.2점에서 80.0점으로 10점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아도 지원역량이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97] 광역자치단체별 종합 평가 등급 비교(2010~2013년)(1)



[표 98] 광역자치단체별 종합 평가 등급 비교(2010~2013년)(2)

제7장

부록

제1절: 지역협력형사업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모델
제2절: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지표

제1절 지역협력형사업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모델

1.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모델 수립의 목적 및 의의

- 지역협력형사업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 적절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는 2009년부터 평가되어 온 중요한 평가 항목임.
-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사업을 통해 만족도조사 문항과 운영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별 사업 평가 표준모델'을 수립하여 평가보고서에 공개한바 있으나, 각 지역마다 관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 조사의 진행방식이 상이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표본 수, 대상 사업, 조사지, 조사원 교육, 결과분석 등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표준 조사 설계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음.

2.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모델의 활용

- 본 모델은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각각에 대한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의 조사업무관객 만족도 조사 시에 본 모델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응용 또는 변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 행정직원 또는 사업 주관단체가 직접 관객에게 다가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주민모니터 요원이 관객과 인터뷰하거나 관객의 반응(호응) 정도를 살핀 후 자신이 판단하여 점수를 기입하는 것은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만족도 조사라 하기 어려움.
-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행하는 주체는 훈련된 조사요원을 확보한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권장함. 다만, 여건상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기 어려워 일반인(단순 주민모니터 요원 등)을 투입해야 할 경우 실제 조사에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요원 교육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반드시 조사요원으로 교육받은 조사원이 설문지를 관객에게 제시한 후 관객이 응답을 기입하는 관객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여야 함.
- 본 모델에서 제시하는 관객 만족도 조사 항목은 4개 영역 32개 항목으로써 관객에게 질문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자 하였음. 실제 지역에서 조사 시에는 설문의 양이 다소

과다할 수 있으므로 필요항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조사항목과 설문을 구성할 것을 권장함.

- 2011년도에 이미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예시 항목을 14개로 축약하여 제시한 바 있음. 2011년도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2013년도 조사 항목을 일부 추가하여 설문을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함.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각 지역마다 수백건에 달하므로 전수조사를 하기 보다는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일부 선별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금액은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설정 가능함.(각 지역의 육성사업 지원 평균액, 조사 대상을 100건 내외로 선정할 수 있는 임의의 금액 등)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등은 사업수가 적고 사업비가 큰 사업으로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관객 만족도 조사 표준 모델

1)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비고
조사 기간	실사 준비 : 7일 ± 3일 실사 진행 : 공연(전시) 기간 자료 검증 및 분석 : 7일 ± 3일	
조사 규모	1개 공연(전시) 당 최소 20건의 관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면접 조사로 모니터링 담당자가 지원사업 현장에서 면대면 조사로 진행함.	
조사 대상	공연(전시)를 관람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미성년자의 경우 설문의 신뢰성이 떨어짐)	

2) 조사 항목_만족도 측정

대항목		중항목	세부항목	비고
만족도	서비스 품질	내용성	공연(전시) 내용 다양성	
			공연(전시) 내용 흥미성	
			공연(전시) 내용 유용성	
			공연(전시)내용 난이도 적절성	
			공연(전시)수준 대비 관람비용 적절성	
		수월성	작품 완성도	
			공연(전시) 우수성	

			음향 및 조명 적절성	
		혁신성	공연(전시) 내용 참신성(독창성)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 전달	정보 지원성	관람 정보 획득 용이성	
			공연 자료 적절한 비치	
		요구 응대성	담당자 응대 친절성	
			고객 불만 전달 수단 존재	
			요구(건의)사항 처리 신속성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 환경	편리성	관람 절차 편리성(예매, 발권 등)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 편리성	
			관람장소로의 접근 용이성	
			관람 환경 청결성	
		심미성	시설 외관 및 인테리어 수준	
			공간 배치 및 구성 적절성	
		전반적 만족도		
	사회 품질	공익성	문화예술 대중화 기여	필요시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안전성	공연(전시) 시설 안전성	
		전반적 만족도		
전체 만족도		공연(전시) 전체 만족도		
재관람 의향		재관람 의향		
타인 추천 의향		타인 추천 의향		

3) 조사 항목_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답자 특성 항목을 구성함.

항목	세부 항목
1) 성별	여성 / 남성
2) 연령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3) 거주지	시 · 도 / 군 · 구 / 동 · 읍
4) 학력	중학교 졸업 이사 / 고등학교 재학, 졸업 / 대학교 재학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재학 / 대학원 졸업 이상
5) 직업	학생 / 자여업 / 판매업 / 영업직 / 기술직 / 사무직 / 관리직 / 전문직(의사, 약사 등) /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 교육직(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선생님)

	/ 주부 / 노무직 / 경영직(대기업 이사 이상, 중소기업 사장 등) / 예술가 / 공무원 / 무직 / 기타
6) 참여 동기	우연히 / 지인의 추천 / 관계자의 추천 / 초대 / 원래 관심이 많음 / 기타
7) 정보 통로	현수막 및 포스터 / 대중매체 광고(TV, 라디오) / 보도자료(TV, 신문, 라디오 프로그램) / 온라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8) 최근 1년간 공연 관람 횟수	오늘 처음 / 2회 / 3회 / 4회 / 5회~9회 / 10회 이상

4) 조사 항목의 정의

□ 서비스 품질

– ☞ 관람객에게 제공되는 공연(전시)의 상대적 우수성/열등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내용성 : 관람객이 느끼는 공연(전시)에 대한 수용성 정도
- 수월성 : 관람객이 느끼는 공연(전시)에 대한 우수성 정도
- 혁신성 : 관람객이 느끼는 공연(전시)에 대한 창의성 정도

□ 서비스 전달

– 관람객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 및 관계자 응대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정보 지원성 : 관람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정도
- 요구 응대성 : 관람객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정도

□ 서비스 환경

– 관람객의 관람 편의와 공연(전시) 외관이 주는 긍정적 이미지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 편리성 : 관람객의 관람 편의성 제고 정도
- 심미성 : 관람객이 느끼는 공연(전시) 외관의 아름다운 정도

□ 사회 품질

– 공연(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느끼는 긍정적 변화 정도

- 공익성 : 관람객이 공연(전시)를 통해 느끼는 문화예술 관련 변화 정도
- 안전성 : 관람객의 관람 시설 안전성 확보 정도

5) 분석 방법

□ 엑셀 또는 SPSS를 활용, 각 문항의 빈도 분석 실시, 필요시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 분석 실시

4. 관객 만족도 조사 설문지(안)

20○○년 지역협력형사업 관객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명)의 20○○년 **지역협력형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관객 여러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은 저희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명)의 지역협력형사업 프로그램의 통계자료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수집 정보는 통계분석 이외의 타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전시) 명:	2. 공연(전시) 단체:
3. 관 람 일:	4. 관 람 장 소:
5. 장 르:	

문1. 관람하신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공연(전시)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프로그램의 내용성							
1) 공연(전시)의 볼거리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연(전시)의 내용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연(전시)의 내용이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공연(전시) 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공연(전시) 관람 비용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프로그램의 수월성							
1) 공연(전시)의 구성이 짜임새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연(전시) 출연자(작가)의 기량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음향 및 조명이 무대(작품)과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프로그램의 혁신성							
1) 공연(전시) 내용이 참신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 -

문2. 귀하께서는 관람하신 전시(공연)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공연(전시)의 우수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관람하신 공연(전시) 프로그램에 관한 서비스 전달(관련 정보 제공 및 관계자 응대 태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프로그램 정보 지원성							
1) 관람 정보를 수집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연(전시) 자료가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비스 요구 응대성							
1) 담당자의 응대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고객의 소리 등 고객불만 전달수단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객의 요구(건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관람하신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전달(관련 정보 제공 및 관계자 응대 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관람하신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서비스 환경(공연(전시) 외관이 주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설 이용 편리성							
1) 예매, 발권 등 관람 절차가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이용이 편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시설(환경)의 위치가 접근하기 편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관람 환경이 청결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시설(환경) 심미성	
1) 시설 외관 및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공간 배치 및 구성이 적절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담당자 용모가 단정하며 친근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문6. 관람하신 서비스 환경(공연(전시) 외관이 주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문7.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사회 품질(공연(전시)로 인한 긍정적 변화)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익성							
1)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3)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안전성							
1) 공연(전시) 시설이 안전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문8. 공연(전시) 프로그램의 사회 품질(공연(전시)로 인한 긍정적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문9. 공연(전시)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0. 관람하신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다시 관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계속 관람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공연(전시)프로그램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응답자 특성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거주지	(_____)시·도 (_____)군·구 (_____)동·읍
4.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⑥ 대학원 졸업 이상
4. 직업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판매업 ④ 영업직 ⑤ 기술직 ⑥ 사무직 ⑦ 관리직 ⑧ 전문직(의사, 약사 등) ⑨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⑩ 교육직(유치원,초중고대학교 선생님) ⑪ 주부 ⑫ 노무직 ⑬ 경영직(대기업이사 이상, 중소기업 사장 등) ⑭ 예술가 ⑮ 공무원 ⑯ 무직 ⑰기타 ( )
5. 참여 동기	① 우연히 ② 지인의 추천 ③ 관계자의 추천 ④ 초대 ⑤ 관심사 ⑥ 기타 ( )
6. 정보 통로	① 현수막 및 포스터 ② 대중매체 광고(TV, 라디오) ③ 보도자료(TV, 신문, 라디오) ④ 온라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 )
7.최근1년간 공연(전시) 관람횟수	① 오늘 처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9회 ⑥ 10회 이상

▌관람하신 공연(전시)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5 -

5. 2011년도 관객 만족도 조사 항목(예시)

항 목	
행사장 시설 만족도 (20)	
교통, 주차시설 편의성	
티켓구매 편리성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의 적절성 및 구비 노력	
안내시설의 적절성	
음향시설, 조명시설의 적절성	
고객 서비스 만족도 (20)	
관람객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신속성	답변 (1 ~ 5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서비스의 친절함	
프로그램 수준 및 예술성 (20)	
내용의 재미	
내용 이해 용이	
예술성, 작품의 완성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즐거움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 (40)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움	
재관람 욕구	
주위에 추천 욕구	

제 2절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지표

1. 전체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공통지표 (40점)	1.사업추진 기초역량	7점	※ 지역문화비전 수립과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장기 정책수립여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활동 참여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기초역량에 대한 평가지표
	2.사업계획 적정성	3점	※ 지원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와, 성과목표가 매년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3.사업집행 및 평가 적절성	10점	※ 사업지원, 심의, 평가 및 평가환류 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4.홍보마케팅	4점	※ 지원사업이 신규 문화수요를 창출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수혜단체들이 최종 수혜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5.교류협력 수준	4점	※ 지역 간, 권역 간 교류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6.사업성과 (계량/비계량)	12점	※ 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주요한 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로 나눠 평가하는 지표

구 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구 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세부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세부배점	
특성화 통합지표 (35점)	1.사업추진역량	10점	1.1.사업 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	5	공연장 상주사업 지표 (60점)	1.사업추진 역량	20점	1.1.선정된 단체의 역량	10
			1.2.예술인(예술단체)간의 교류, 협력 수준	5				1.2.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10
	2.사업지원목적 달성도	20점	2.1.계획대비 집행실적	5					
			2.2.매칭펀드 조성 노력	5					
			2.3.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10					
	3.지역문화수요	5점	3.1.지역문화수요 반영도	5		2.사업지	20	2.1.계획대비 집	5

	반영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사업**		**레지던스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특성화 개별지표 (25점)	1.사업추진역량 (지역예술계 사업 참여수준)	15점	1.1.사업수혜 단체 적절성	10	1.1.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10	1.1.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10	1.1.계획대비 집행실적	7.5					원 목적 달성도	점	행실적	
			1.2.참여예술 단체 (예술인) 선정 적절성	5	1.2.사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5	1.2.사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5	1.2.출연진 구성 및 프로그램 완성도	5							2.2.매칭펀드 조성 노력	
									1.3.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3.75							2.3.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2.사업내용 기획력 및 완성도	10점	2.1.지역의 독창성	10	2.1.지역의 독창성	10	2.1.지역의 독창성	5	1.4.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성과	5					3.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10점	3.1. 지역의 독창성	
							2.2.지역문화 수요의 반영도	5	1.5.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3.75							3.2. 지역문화수요 반영도	
															4. 모니터링	10점	4.1. 공연장상주 사업 모니터링	
합 계	배점 총합 (공통지표+사업별지표)	100점	사업별 점수 합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통지표+특성화통합지표+특성화개별지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통지표+공연장상주사업지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 · 도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 개별 사업별 합산점수에 따라 사업별 순위가 매겨짐															
총 점	1. 가중치		사업별 가중치		+ 100점*25%		+ 100점*20%		+ 100점*15%		+ 100점*5%		+100점*35%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는 가중치 점수를 환산 · 합산하여 산정, 지역별 순위를 정하는데 활용															

2. 공통지표(40점)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사업 추진 기초 역량 (7)	1.1. 지역문화비전 반영도	1.1.1.지역문화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가? 1.1.2.지역의 중장기 정책과 연관되는가?	1	〈평가목적〉 ○ 지역의 문화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 지역 문화 비전과 지원사업의 목표가 부합되는가? ○ 지역의 중장기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역의 문화정책 비전 관련 자료 ○ 중장기 정책 자료
	1.2. 지원사업연계활동	1.2.1.광역자치체(혹은 문화재단)가 한국지역문화지원 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2	〈평가목적〉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약칭 “한지협”) 활동 참여여부 〈별첨자료 예시〉 ○ 전체회의, 교육워크숍 등 한지협 공식행사 참여여부
	1.3. 지역문화재단 설립여부	1.3.1.지역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였는가?	2	〈평가목적〉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여부 및 실질적인 활동기능 보유여부 〈별첨자료 예시〉 ○ 재단 소개자료 (조직, 활동, 성과 등) ○ 재단 발행자료 (연감, 정기간행물 등)
	1.4. 사업추진 역량 보유 여부	1.4.1.지원사업 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2	〈평가목적〉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역협력형사업 담당자들의 문화예술분야 경력 및 관련분야 이력 및 근무연수
2. 사업	2.1. 성과목표	2.1.1.지원사업의 성과목표가 있는가? 2.1.2.지원사업의 성과목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3	〈평가목적〉 ○ 지원사업별 계획서(또는 지원신청 안내문)상에 성과목표가 기술되어 있는가?

계획 적정성 (3)	유무 및 적합성			○ 연차별 혹은 발전단계별 성과목표가 기술되어 있는가? ○ 실행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해마다 성과목표를 재설정하는가? ○ 지원사업의 성과목표가 선정된 단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자료 ○ 계획서, 지원신청안내문, 실적보고서(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해당부분) ○ 성과지표가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3. 사업 집행 및 평가 적절성 (10)	3.1. 지원체계의 적절성	3.1.1.일정계획에 맞게 진행하였는가? (지원신청, 심의, 통지) 3.1.2.지원금 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3.1.3.사업설명회와 지역 홍보를 추진하였는가?	2	〈평가목적〉 ○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실행결과 비교 ○ 지원금 지급 시점이 일정계획과 일치하는가? ○ 사업설명회 추진여부 ○ 지원사업 지원 안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매체홍보 추진여부 〈별첨자료 예시〉 ○ 지원신청 안내(매체홍보 포함) 및 지원 절차 관련 자료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횟수, 지역, 설명회 운영 방식에 관한 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 실적보고서(심의 및 지원금 집행내역 부분)
	3.2. 심의체계의 적절성	3.2.1.심의기준이 사업목표와 일치하는가? 3.2.2.심의기구를 구성하였는가? 3.2.3.심의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었는가? 3.2.4.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 결과과정을 공개하였는가?	3	〈평가목적〉 ○ 심의기준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 심의기준이 지원사업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 사업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였는가? ○ 사업별로 심의위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심사위원이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가? ○ 심사위원명단과 심의결과과정의 공개여부 〈별첨자료 예시〉 ○ 심의(선정)기준 관련 자료 ○ 심의(선정)기준과 지원대상사업과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3.3. 평가체계의	3.3.1.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3.3.2.지역별 사업평가체계 모델을 활용하였는가?	3	〈평가목적〉 ○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적절성	3.3.3.전문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방식이 적절한가?		◦ 지역 여건에 따라 평가체계 모델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방식이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단체 워크숍 시에 적절히 공지되고 있는가? ◦ 모든 평가가 완료된 후 종합평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광역시·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체계 관련 자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자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회의 개최 관련 자료 및 토의결과 ◦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워크숍 등 관련 자료
	3.4. 평가내용의 환류	3.4.1.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하였는가? 3.4.2.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였는가? 3.4.3.전년도 선정단체의 사업비 집행,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참여제한 및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2	〈평가목적〉 ◦ 전년도 평가결과 적용 및 사업개선 방안에 대한 자체논의 여부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결과의 실제 적용 여부 ◦ 선정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 평가와 평가환류 노력 〈별첨자료 예시〉 ◦ 자체평가 결과 환류방안 관련 자료 ◦ 평가결과에 따른 차기년도 평가체계 반영 등 환류 방식에 관한 토의 자료 ◦ 전년도 평가결과 적용 및 사업개선 방안 회의록 ◦ 전년도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증빙자료
4. 홍보 마케팅 (4)	4.1. 지역문화 수요자와 소통노력	4.1.1.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채널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가? 4.1.2.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지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가? 4.1.3.개별단체의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조사연구, 교육, 워크숍, 자문)을 하고 있는가?	4	〈평가목적〉 ◦ 지역단체들의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정간물 매체발행을 하고 있는가? ◦ 지역 언론사에 지자체(또는 재단)명의로 사업 안내를 위한 보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가? ◦ 지역의 신규 문화수요자 개발을 위한 통합홍보 및 CRM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원수혜단체의 홍보,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워크숍 추진여부 〈별첨자료 예시〉 ◦ 지자체(또는 재단) 홈페이지의 사업홍보 코너 소개자료, 정간물 소개자료 및 발행매체 ◦ 지자체(또는 재단) 명의의 문화사업 홍보 보도자료 배포 자료 ◦ 기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5.1.	5.1.1.지역 간 교류 및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	4	〈평가목적〉

교류 협력 수준 (4)	지역 간, 국제적인 교류협력 추진여부	였는가?		○ 지자체, 재단이 기획의 주체가 되어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지자체, 재단이 해외 예술가(예술단체)와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지자체, 재단이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자체, 재단이 기획하여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및 성과 증빙자료 ○ 지자체, 재단이 해외 예술가(예술단체)와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례 및 성과 증빙자료
6. 사업성과 (12)	6.1. 계량적 사업성과	6.1.1.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계량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6.1.2.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한 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가?	8	〈평가목적〉 ○ 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 매년 지역협력형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량적 지표들을 취합하고 있는가? ○ 매년 계량적 성과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 취합된 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가? * 2014년 평가부터는 계량적 성과지표들의 변화 추이가 평가에 반영됨. 〈필수 별첨자료〉 ○ 공연장 상주사업의 지원단체별 공연일수, 공연횟수, 객석점유율, 유·무료 관객수와 상주사업 전체의 총합계 ○ 레지던스 사업의 지원단체별 퍼블릭 프로그램 시행횟수 및 프로그램별 참여지역민 수와 레지던스 사업의 총합계 ○ 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향후 계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6.2. 비계량적 사업성과	6.2.1.지원사업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비계량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6.2.2.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가?	4	〈평가목적〉 ○ 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측면의 비계량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취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별로 제시한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가? 〈필수 별첨자료〉 ○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3건, 공연장 상주사업에서 2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기타 별첨자료 예시〉 ○ 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인증, 수상, 국제교류성과 등 사업실적으로 제시할만한 성과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 ○ 지역협력형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지역의 예술창작활성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다양한 비계량적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

3. 특성화지원사업 – 통합지표(35점)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사업 추진 역량 (10)	1.1. 사업참여 예술인 참여 기준	1.1.1.지원사업별 사업참여 단체(개인)의 자격조건이 적절한가? 1.1.2.사업참여 단체(개인)의 참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사업별 참여단체(개인)의 참여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 사업별 신규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전문예술단체(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전문성 강화 활동 ◦ 사업별 기존 수혜단체 및 신규수혜단체(한 번도 수혜경험이 없는 단체) 수 및 비율
	1.2. 예술인 (예술단체)간의 교류 협력 수준	1.2.1.사업참여 예술단체(예술인)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사례가 있는가? 1.2.2.지원주체가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들의 협력, 소통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예술단체(예술인) 간의 협력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원주체가 예술단체(예술인) 간의 협력,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역 예술단체(예술인)간의 협력을 위한 자체적인 연계, 협력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 ◦ 지원주체가 예술단체(예술인)간의 협력,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진행한 구체적인 성과 제시
2. 사업 지원 목적 달성도 (20)	2.1. 계획대비 집행실적	2.1.1.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2.1.2.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는가?	5	〈평가목적〉 ◦ 사업계획에 대비한 예산집행 여부 확인 ◦ 지원예산의 최종 집행 실적 ◦ 지원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별첨자료 예시〉 ◦ 예산집행 관련자료, 회계보고서 등 실적보고서

	2.2. 매칭펀드 조성 노력정도	2.2.1.당해 연도 매칭기준이 달성되었는가?	5	〈평가목적〉 ○ 특성화 사업의 당해 연도 예술위에서 제시한 매칭기준율의 달성 및 초과달성 수준 * 지침에 제시한 매칭기준율 달성시 기본점수 3점, 재정자립도 대비 매칭률 초과달성시 1점~2점 가점 〈별첨자료 예시〉 ○ 지방비 매칭 내역 및 재정자립도 ○ 예산구성 및 집행내역 분석자료 ○ 지역 문화예산 및 본 사업의 펀드 매칭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근거 자료
	2.3. 사업수혜대상 (주민)의 만족도	2.3.1.시민모니터링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였는가? 2.3.2.관객 만족도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였는가? 2.3.3.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높은가?	10	〈평가목적〉 ○ 시민모니터링 평가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가? ○ 사업별 관객 만족도 조사가 적절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 관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는 높은가? 〈별첨자료 예시〉 ○ 시민모니터링 평가관련 증빙자료 (모집, 교육, 활동) ○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만족도 조사결과 등 만족도 입증자료 (자체조사) ○ 조사대상, 설문항목 등 조사의 대표성 확보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주요 조사결과가 요약된 별첨자료
3 지역 문화 수요 반영 수준 (5)	3.1.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3.1.1.특성화 사업이 지역의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 3.1.2.상시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개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지역의 문화수요를 지원사업 설계 및 사업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요구사항을 사업설계 및 선정시스템 개선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지역문화계의 의견수렴 결과 증빙자료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포럼, 워크숍, 사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활동 개최 여부

4. 특성화지원사업 – 개별지표(25점) _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지역 예술계 사업 참여 수준 (15)	1.1. 사업수혜단체 적절성	1.1.1.신규단체 비율이 적절한가? 1.1.2.기관, 단체, 협회 참여 정도가 적절한가? 1.1.3.아마추어 및 시민문화예술단체 선정비율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10	〈평가목적〉 ◦ 육성지원사업 신규(지원금을 처음으로 수혜받는 단체) 참여 단체수 및 비율이 적절한가? ◦ 기관, 단체, 협회의 참여 정도가 적절한가? ◦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금 배분기준이 적절하며, 선정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육성지원사업의 신규참여단체 선정건수 및 비율 ◦ 사업수혜단체 중 기관, 단체, 협회가 수혜받은 건수 및 비율, 수혜금액 합계 ◦ 아마추어 시민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배분율 및 선정 결과
	1.2. 참여예술단체 (예술인) 선정의 적절성	1.2.1.사업 지원단체들에 대한 사업 선정률이 적절한가?	5	〈평가목적〉 ◦ 지역에 많은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 지원주체 측에서 적절한 선정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육성지원사업 선정예술인(예술단체) 수 ◦ 공모사업 지원신청 건수 및 선정 건수, 선정률, 평균 지원금액 등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10)	2.1. 지역의 독창성	2.1.1.지원사업 설계에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2.1.2.지원사업 중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가?	10	〈평가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였는가? ◦ 지역의 지리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지역의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였는가? ◦ 지역의 독창성을 반영한 기획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사업의 지역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난 사업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5. 특성화지원사업 – 개별지표(25점) _〈시・도기획지원사업〉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사업 추진역량 (15)	1.1.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1.1.1.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1.1.2.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였는가?	10	〈평가목적〉 ○ 사업추진 주체가 기획 전문성을 보유한 예술단체(개인)인가? ○ 사업별 추진주체 대표자와 담당자가 사업 분야의 전문가인가? 〈별첨자료 예시〉 ○ 사업주체의 최근 3년 당해 사업 분야 경력 ○ 시도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지원 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비율 제시 ○ 보유 전문인력 이력사항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전문성 강화 활동
	1.2.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1.2.1.기획사업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1.2.2.실제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5	〈평가목적〉 ○ 지원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정도는? ○ 관련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별첨자료 예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조사례 자료 ○ 지역문화원, 지역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10)	2.1. 지역의 독창성	2.1.1.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 2.1.2.타 지역이 시도해보지 않은 독창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는가?	10	〈평가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였는가? ○ 지역의 지역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였는가? ○ 지역의 독창성을 반영한 기획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기획지원사업의 창의적 기획을 위한 차별화된 기획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사업기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창의적인 기획으로 예술창작의 소재로 활용했음을 증명자료 ○ 사업의 특성과 성과가 보도된 언론의 보도자료 또는, 예술창작 전문 비평가의 평론글 ○ 사업기획력 강화와 새로운 기획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료

6. 특성화지원사업 – 개별지표(25점) _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사업 추진역량 (15)	1.1.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1.1.1.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1.1.2.선정된 단체(개인)가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평가목적〉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예술단체(개인 아티스트)인가? ○ 사업추진 주체가 레지던스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사업주체의 최근 3년 당해 사업 분야 경력 ○ 시도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지원 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비율 제시 ○ 보유 전문인력 이력사항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전문성 강화 활동
	1.2.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1.2.1.사업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는가? 1.2.2.실제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가?	5	〈평가목적〉 ○ 지원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정도는? ○ 관련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별첨자료 예시〉 ○ 해외 미술계, 지역문화원, 지역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 사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력사례 자료
2.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10)	2.1. 사업 활성화 정도	2.1.1.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 2.1.2.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을 반영하였는가? ○ 지역의 지리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지역의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였는가? ○ 지역의 독창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 ○ 레지던스 사업 추진체계 및 독창적인 운영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2.2. 지역 문화수요 반영도	2.2.1.지역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는가? 2.2.2.레지던스 사업 공간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였는가? ○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시민, 예술가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역문화계의 의견수렴 결과 증빙자료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포럼, 워크숍, 사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활동 ○ 지역에서 전시, 문화행사 등으로 레지던스 공간을 활용한 자료

7. 특성화지원사업 – 개별지표(25점) _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항목	세부 지표
1.1.계획대비 집행실적 (7.5)	1.1.공연일정 및 공연 횟수 준수 여부
	1.2.계획된 행사장소 사용 여부
	1.3.적절한 공연시간 준수
	1.4.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행사 구성
	1.5.관객참여도 및 집객 수준
	1.6.결과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2. 출연진 구성 및 공연프로그램 완성도 (5)	2.1.주관단체 출연 회차 전체 10% 이내 유지 여부
	2.2.신생단체 출연 전체 20% 이상 보장 여부
	2.3.출연진 수준 및 전문 국악예술단체(예술인) 출연 여부
	2.4.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유도하는 공연구성 및 연출
3. 관객 편의서비스 제공 및 현장운영 적절성 (3.75)	3.1.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관람공간 및 무대공간 등 시설 확보 여부
	3.2.적절한 관람객 편의시설의 확보 및 운영 여부
	3.3.국내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한 공연해설 및 안내 여부
4. 공연홍보 운영의 적절성 및 홍보성과 (5)	4.1.관람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채절 활용 여부
	4.2.홈페이지, 블로그 등 상시공연홍보 채널 운영 여부
	4.3.공연보도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창출 여부

5.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성과 (3.75)	5.1.공연 프로그램 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1.25
	5.2.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및 참여자 만족도 수준	1.25
	5.3.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의 연계성 여부	1.25

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60점)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1. 사업 추진역량 (20)	1.1. 선정된 단체의 역량	1.1.1.선정된 단체가 사업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1.1.2.선정된 단체가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했는가?	10	〈평가목적〉 ○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예술단체)인가?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와 담당자가 사업 분야의 전문가인가? ○ 선정된 공연장이 기획전문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시도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지원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비율 ○ 선정예술단체의 대표 및 보유 전문인력 이력사항 ○ 사업참여 공연장의 기획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1.2.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1.2.1.사업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는가? 1.2.2.실제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가? 1.2.3.상주사업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0	〈평가목적〉 ○ 지원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정도는? ○ 관련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 상주사업에 참여하는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는? 〈별첨자료 예시〉 ○ 지역문화원, 지역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력사례 자료 ○ 상주사업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2. 사업 지원목적 달성도 (20)	2.1. 계획대비 집행실적	2.1.1.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2.1.2.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는가?	5	〈평가목적〉 ○ 사업계획에 대비한 예산집행 여부 확인 ○ 지원예산의 최종 집행 실적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별첨자료 예시〉 ○ 예산집행 관련자료, 회계보고서 등 실적보고서 ○ 사업의 성과목표와 달성여부 증빙자료

	2.2. 매칭 펀드 조성 노력정도	2.2.1.당해 연도 매칭기준이 달성되었는가?	5	〈평가목적〉 ○ 매칭율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매칭비율 준수 여부 * 지침에 제시한 매칭기준율 달성시 기본점수 3점, 재정자립도 대비 매칭률 초과달성시 1점~2점 가점 〈별첨자료 예시〉 ○ 지방비 매칭 별첨자료 예시 및 재정자립도 ○ 문화예산 및 본 사업의 펀드 매칭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근거 자료
	2.3. 사업수혜대상(주민)의 만족도	2.3.1.만족도 조사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 2.3.2.만족도 조사 결과는 높은가?	10	〈평가목적〉 ○ 만족도 조사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만족도 조사결과 등 만족도 입증자료 ○ 조사대상, 설문항목 등 조사의 대표성 확보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주요 조사결과가 요약된 별첨자료 예시
3. 사업내용 기획력 완성도 (10)	3.1. 지역의 독창성	3.1.1.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는가? 3.1.2.지역별 상주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평가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는가? ○ 지역의 독창적인 운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지역별 상주사업 간의 교류와 협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중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반영된 사례, 보도기사 자료 ○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 ○ 지역별 상주사업 페스티벌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
	3.2. 지역 문화수요	3.2.1.선정된 지역 공연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3.2.2.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수용하	5	〈평가목적〉 ○ 지역 공연장의 본 사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반영도	였는가? 3.2.3.선정된 공연장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본 사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 공연장과 상주단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별첨자료 예시〉 ○ 선정된 지역 공연장 책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의 지역 문화예술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활동 증빙자료 ○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되거나 개선된 퍼블릭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